

차 례

Part 01 미래인적자원 육성 연구

-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현황 및 문제점 3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안 및 요구 -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17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2008~현재) 41

Part 02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67
-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89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 활용실태 및 충원의 어려움 ... 111
-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133
-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 155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177
- 농어촌 유형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 방안 199

Part 03 **유아교육·보육 과정 성과 및 개선 연구**

-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223
-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개편 방안 243
- 창의·인성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방안 265

Part 04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2005-2014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 285
-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313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337
- 지방정부 재정 지원 현황과 보육비용 357

Part 05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 어린이집 24시간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381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403
-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 425
-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445

p a r t

01

미래인적자원 육성 연구

-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현황 및 문제점 | 김길숙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안 및 요구
-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권미경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과 과제(2008~현재) | 이윤진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현황 및 문제점

김길숙

1. 서론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현황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

요약

- 담임 교사가 일상 생활에서 유아들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하는 한편, 기관에 상근하는 영양사나 보건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신청해서 담당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하거나 담당 기관에 유아들이 방문을 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과정 내 집단 활동으로 신체활동은 유치원 2.1회, 어린이집 2.4회 수준으로 동화, 미술, 음악 등의 활동과 비슷한 빈도로 시행되고 있음.
- 실외활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외활동 시간을 30분 이상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2시간 정도 시행한다는 비율이 2012년, 2013년에 24%를 전후에서 2014년 10.9%로 절반 넘게 줄.
-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평균 수강 횟수는 유치원 주 1.5회, 어린이집 주 1.2회임.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의 문제점에 있어서 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물리적 공간의 한계, 부모의 태도, 정보 습득의 한계, 정부에서 제공되는 교육 기회의 부족 등을 지적함.
- 개선 방안으로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사 재교육 시 영양·식생활 및 신체 활동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부모의 자녀 육아에 대한 역량 강화, 지속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마련, 부모, 기관 및 지역 연계 강화를 제안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활동 참여는 매우 저조한 반면, 유아의 음식 섭취는 인스턴트 등의 고칼로리 및 영양 과잉 섭취가 증가하고 있음.
- 3-5세 유아의 경우, 최근 일주일 내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40.9%였으며, 30분 이상 운동한 날이 2회 이하인 경우도 32.1%나 됨(김미숙 외, 2013: 259).

* 본고는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의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 아동들의 패스트푸드 및 단음식의 섭취가 증가한 반면, 채소 등의 섭취는 감소함(이행신 외, 2014).
- 신체활동의 부족과 잘못된 식품 섭취는 소아비만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며, 이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김진희, 2012; 이행신 외, 2014; WHO, 2015).
- 2013년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은 남아가 25%, 여아가 20%로 남아의 경우 OECD 아동 비만율 평균(남아 23%, 여아 21%)보다 높음(OECD, 2013).
- 뿐만 아니라 2011년(남아 16.2%, 여아 9.9%)과 비교할 때, 각각 8.8%p, 10.1%p의 급격한 증가를 보임(OECD, 2011).
- 우리나라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1일 평균 이용시간은 대략 7시간으로(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87, 105), 2004년 유치원 1일 평균 이용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길어짐(서문희·박수연, 1998: 89).
-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신체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영양 및 식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현황을 살펴보고,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 활동의 현황, 실시 상의 애로점 및 요구 사항 등을 파악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현황을 살펴보고자 문헌고찰을 실시함.
- 어린이집 원장 3인, 유치원 원감 2인, 보육교사 5인, 유치원교사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현황

가. 영양·식생활 교육

- 담임 교사가 일상 생활에서 유아들과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양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하는 한편, 기관에 상근하는 영양사나 보건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신청해서 담당자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방문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하거나 담당 기관에 유아들이 방문을 해서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미선과 김남희(2011)는 부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213명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실태 조사에서 약 84.8%의 교사가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78.6%는 교사가 직접, 24.8%는 영양사가 시행하며 보건소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보고함.
- 이기현(2009)의 경북, 포항 지역의 유치원 교사 1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주제를 정해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48.3%에 불과하고 45.2%는 급식시간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거나 31.7%는 수시로 실시한다고 응답함.

나. 신체활동

1) 정규과정 내 집단 활동 및 실외활동

- 정규과정 내 집단 활동으로 신체활동은 유치원 2.1회, 어린이집 2.4회 수준으로 동화, 미술, 음악 등의 활동과 비슷한 빈도로 시행되고 있음(김은영 외, 2012: 42).

〈표 1〉 연령별 집단 활동 주당 실시 횟수

단위: 빈도(표준편차)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전체	5세	4세	3세	전체	5세	4세	3세
신체활동	2.1(1.31)	2.1(1.33)	2.1(1.31)	2.0(1.26)	2.4(1.73)	2.3(1.61)	2.7(1.76)	2.3(1.79)

자료: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42.

- 실외활동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외활동 시간을 30분 이상 배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2시간 정도 시행한다는 비율이 2012년, 2013년에 24%를 전후에서 2014년 10.9%로 절반 넘게 줄.
- 2012년 조사에서는 바깥놀이 운영 시간을 '하지 않거나 30분보다 적게 실시한다'는 비율이 21.5%, '1시간 이내'가 53.6%로 응답됨(김은설·유해미·엄지원, 2012: 102).
- 2013년 조사에서는 '30분 이내'가 10.2%로 줄고 '1시간 이내 실시한다'는 비율이 64.7%로 증가함(권미경 외, 2013: 91, 146).
- 2014년 조사에서는 '30분 이내'는 11.5%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1시간 이내 실시한다'는 비율은 77.4%로 증가함(이윤진 외, 2014: 188).

〈표 2〉 누리과정 일과 운영 시 실외활동 운영 현황

단위: %(빈도)

구분	하지 않음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상	모름/무응답	계
2014 (3-5세)	0.1	11.4	77.4	10.9	0.1	-	100.0(2,145)
2013 (3-4세)	0.2	10.0	64.7	24.8	0.1	0.3	100.0(2,593)
유치원	-	13.1	64.5	21.7	0.1	0.6	100.0(1,209)
어린이집	0.4	7.2	64.8	27.4	0.1	-	100.0(1,384)
2012 (5세)	1.3	20.2	53.6	24.6	0.3	-	100.0(3,911)
유치원	1.8	26.1	53.2	18.7	0.2	-	100.0(1,685)
어린이집	0.9	15.7	54.0	29.0	0.3	-	100.0(2,226)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88;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91, p. 146;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02.

2) 방과 후 특성화·특별활동

-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에 의한 체육 프로그램으로 주로 시행되고 있음.
- 체육을 수강하는 비율은 유치원 이용아의 44.8%,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66.9%임(서문희 외, 2012).

- 체육 프로그램의 평균 수강 횟수는 유치원 주 1.5회, 어린이집 주 1.2회임(서문희 외, 2012).
- 유치원 부모의 14.7%, 어린이집 부모의 23.5%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체육을 선택함(서문희 외, 2012).

〈표 3〉 유치원·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이용 비율

단위: %(명)

구분	체육	미술	음악	과학	수학	한글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컴퓨터	기타
유치원	44.8 (229)	52.4 (242)	27.1 (131)	23.3 (103)	9.6 (56)	14.5 (72)	25.2 (131)	1.5 (9)	66.2 (327)	1.1 (7)	0.2 (1)	3.1 (20)
어린이집	67.2 (999)	40.9 (998)	48.2 (1,003)	14.1 (992)	11.6 (990)	18.0 (995)	33.9 (998)	1.5 (997)	74.4 (1,005)	1.5 (994)	-	3.0 (991)

자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pp. 282-283, p. 345.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의 문제점

가. 신체활동 기구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

- 신체활동 진행을 위한 관련 기구 구비에 많은 비용이 들며 기구 사용 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토로함.
 - “유치원에서도 아무리 비싼 세트로 체육용품을 사줘도 활용을 잘 못해, 말하자면 하는 방법을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유치원 원감 P>

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특히, 정적인 활동을 선호할 경우에는 더더욱 신체활동을 꺼려함.
 -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확실히 많고, 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좀 더 정적인 그런 활동들을 아무래도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런 성향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조금 취약하더라구요. 이런 체육적인 부분들이..” <교사 Y>

- 또한 신체표현 활동 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교사가 능숙하게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진행하기 수월한 정적인 활동들을 선호함.
 - “신체표현은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상호작용을 잘해주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선호하는 게 게임 활동인 것 같아요. 신체표현 같은 부분은 더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은 아이들의 반응이라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교사 H>

다. 물리적 공간의 한계

- 신체 활동 실시를 위해 넓은 공간이 확보된 강당이나 유희실 등이 필요한데, 대부분 교실에서 교구장 등을 한 곳으로 밀어놓고 신체 활동을 하거나 다른 반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강당, 놀이터 등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상의 어려움이 있음.
 - “영역이 조금… 협소하고 그리고 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중략) 한쪽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에게도 방해가 되니까…” <교사 G>
- 신체 활동을 위한 기구들이 큰 경우에는 매 번 사용할 때마다 설치하고 사용 후 치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들을 사용하기 용이하게 비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
 - “사췌는데 그걸 용이하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잠깐 하려고 하는데 그거 꺼내야 되죠, (중략)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이 넓고 항상 그게 비치되어 있으면 활용을 하겠지만, 교실에 그게 비치될 수 있는 공간은 아무데도 없다는 거.” <어린이집 원장 O>

라. 부모의 태도

- 미세먼지나 날씨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했더라도 부모들이 실외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
 - “바깥 놀이 한다고 해도 그 알레르기 이런 거, 꽃가루 알레르기, 지금 황사, 미세… 어머님들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들이 많아져서 매일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사 S>

- 부모가 자녀의 편식에 대해서 허용적일 경우, 편식을 하는 유아에게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함.
 - “영양교육에서 아이들 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된 거 같아요. 만약에 최선을 다해 교사가 노력을 했는데, 정말 그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다르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교사들은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유치원 원감 K>

마. 정보 습득의 한계

- 영양·식생활 교육과 신체 활동에 관한 교육 정보 및 견학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움.
-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저희가 좋았던 건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현장학습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영양 교육은 조금 이렇게… 그것보다 주제에 관련된 걸 더 많이 찾잖아요. 이런 게 조금 제공이 되면 좋지 않을까…” <교사 H>

바. 정부에서 제공되는 교육 기회의 부족

- 지자체의 보건소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음.
 - “한 학기에 한 번, 일 년에 한 번 일회성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게 얼마만큼 지속적일 수 있을까하는 것도 있지만, (중략)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원감 K>

4 개선 방안

가.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운동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 활동과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 있음.
 - 프로그램 개발 시 유아교육·보육 전공 전문가만이 아니라 체육, 영양 등 관련 전공 전문가들이 함께 개입하여 개발.
 - 수업 진행시 사용되는 교재·교구에 대한 보급도 함께 병행.
 - 신체 활동 기구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나 운동 동작 등에 대한 설명을 책자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해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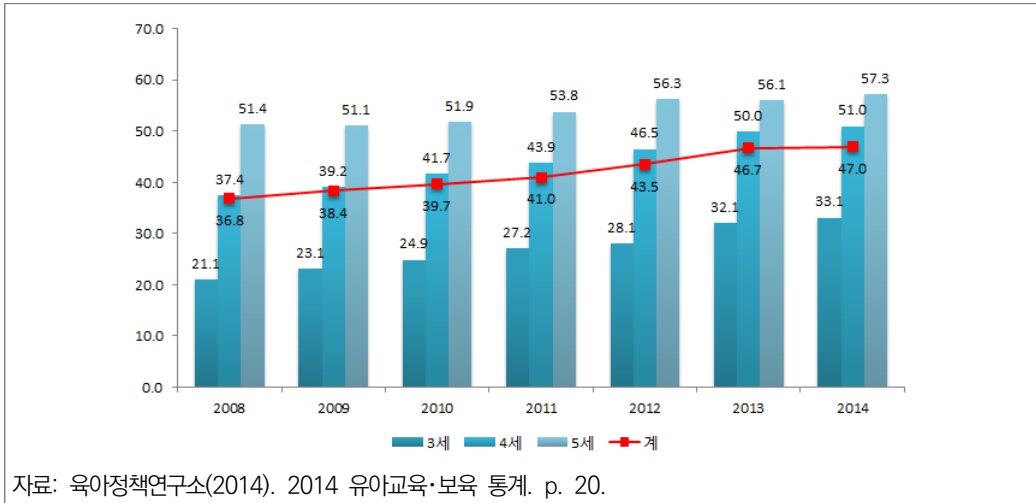
나. 교사 재교육 시 영양·식생활 및 신체 활동 과목 필수과목으로 지정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 활동이 좀 더 전공 영역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으로 교사 재교육 과정에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신체 활동 관련 과목을 필수로 하여 위와 관련된 지식 습득에 도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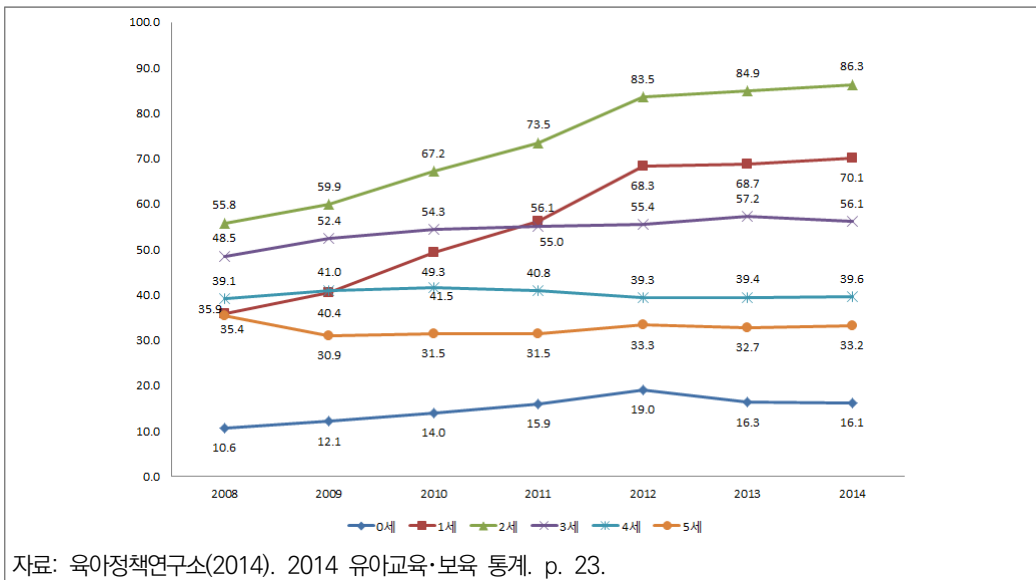
다. 부모의 자녀 육아에 대한 역량 강화

- 자녀의 건강에 대해 부모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모자보건법」 제4조에 모성 등의 의무를 고지하여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관 교육·보육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건강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2014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을 살펴보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90%정도(3세 89.2%, 4세 90.6%, 5세 90.5%)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심지어 1세 (70.1%), 2세(86.3%) 영아의 경우도 어린이집 취원율이 70%가 넘고 있음.



[그림 1] 연도별·연령별 유치원 취원율



[그림 2] 연도별·연령별 어린이집 취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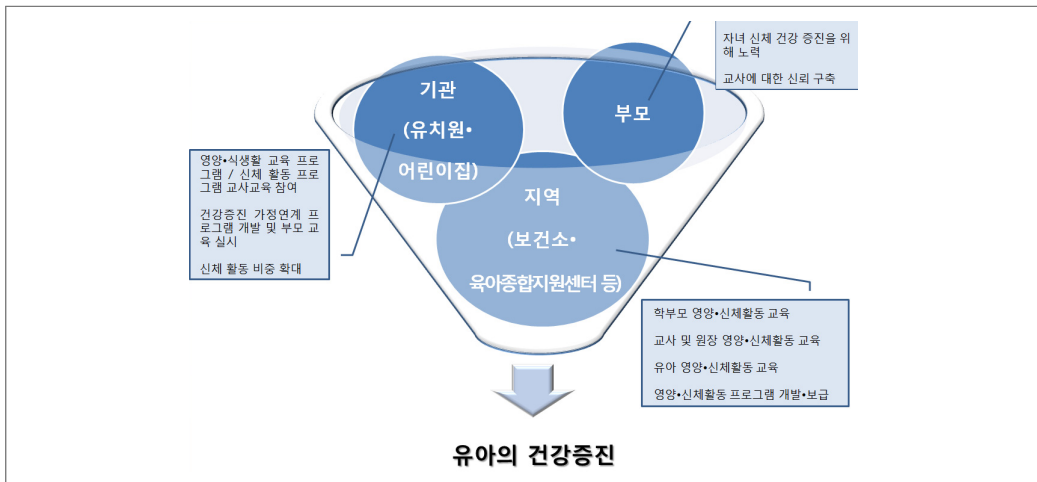
-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바람직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학교, 직장, 거주지를 중심으로 부모모임을 통한 면대면 교육, 출판물이나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부모 교육,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부모들이 관련 지식을 얻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

라. 지속적인 영양·식생활 교육 마련

- 영양·식생활 교육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 정보 전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 유아들에게 친숙하고 이해가 쉽도록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꾸준히 오랫동안 실시할 필요 있음.

마. 부모, 기관 및 지역 연계 강화

- 올바른 영양 및 건강 교육을 유치원·어린이집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운동을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습관화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그림 3] 부모, 기관 및 지역 연계 강화 방안

● ● ● 참고문헌

- 권미경·김정숙·이경진·장현실(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미숙·전진아·하태경·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유해미·엄지원(2012).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권미경·조혜주(2012). 교사양성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일과운영 및 교사의 직무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김진희(2012). 아동의 과체중·비만과 정신건강문제의 관계-집단따돌림의 매개효과-. 한국 아동복지학, 40, 201-228.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 구조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 통계.
- 이기현(2009). 유아영양교육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3(3), 69-96.
- 이운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이행신·남지운·김도희·이지연·연미영·권성옥·박승주(2014). 2014년 제5회 비만예방의 날 행사·홍보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
- 정미선·김남희(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양교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10(2), 131-154.
- OECD (2011). Health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aris: Author.
-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Paris: Author.
- WHO (2015). Health topics - Obesity. <http://www.who.int/topics/obesity/en/>에서 2015. 9. 4. 인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안 및 요구 -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

권미경

1. 문제제기
 2. 장애영유아 등록 현황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및 자원 현황
 4.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관련 요구
 5.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관련 제언
-

요약

- 현행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가 지니는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및 현장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유보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보통합의 추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안은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항목 추가, 통합평가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추가, 결제카드 통합 시 교육보육비용 지원카드에 장애영유아 치료지원과 바우처, 관련서비스 지원까지 하나로 통합, 시설기준으로 면적 및 시설기준의 강화, 자격에 따른 역할의 구분 및 명료화, 보조교사 지원, 대체교사 인력풀의 확보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교사 양성 및 자격 정비와 관련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에 대하여 전문가 배경에 따라 견해의 차이를 보임.
-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편 시 장애 전문가 포함, 장애영유아 관련 기초 자료의 정리, 정보공시제 개선으로 부모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보장,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 장애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언함.

1 문제제기

- 성장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미래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주요한 국가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최근 장애 영유아의 조기 진단, 통합교육에서 나아가 영유아의 주요 환경인 가정과 교육·보육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구축함이 국제적인 추세임.
- 최근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보육 정책의 변화는 과히 괄목할 만한 하나 누리과정의 시행과 유보통합 추진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변화가 급속한 상황에서 장애영유아 중심 교육·보육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이슈페이퍼는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도 일반연구과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1)(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정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 중임.
- 장애영유아가 법적인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 관련 내용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과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 장애영유아 정책은 전반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변화 맥락 속에서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선제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본 원고는 현행 이원화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체계가 지니는 특성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및 현장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유보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요구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 등록 현황

가.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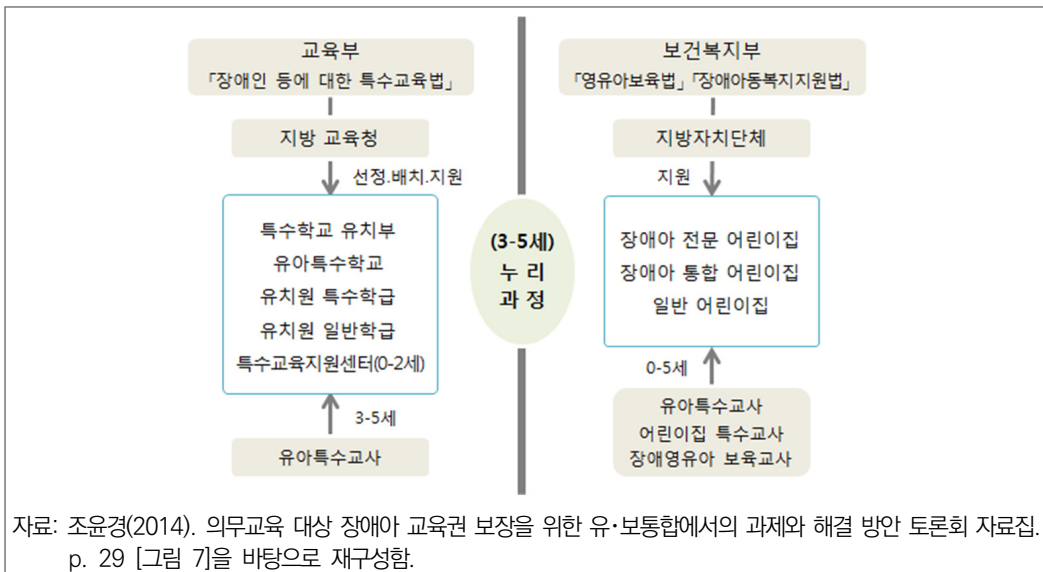
-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통계청에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수는 0세 31명, 1세 446명, 2세 1,067명, 3세 1583명, 4세 2,32명, 5세 2,498명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증가를 보임.
- 등록된 통계는 0~5세 장애영유아의 수가 7,657명으로 나타나, 진단 중이거나 미등록인 경우를 감안하며 실제 장애를 지닌 영유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함.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3,040명), 지적장애(1,821명)가 많아서 이 두 가지 장애가 전체 0~5세 장애영유아의 60%를 상회하며 그 다음은 청각장애(860명)의 순으로 나타남.

나. 연령별 등록 장애영유아 수

- 연령별 통계가 생산된 2007년부터 장애영유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8,037명이던 등록 장애영유아 수는 2009년 9,516명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2014년에 다시 소폭 증가함.

3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및 재원 현황

- 장애영유아 교육과 보육지원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결되는 특수학교와 유치원에서의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으로 연결되는 보육서비스로 이루어짐.



[그림 1]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운영 비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행정 전달체계인 장애영유아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입소 대상과 과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자격 및 보조인력, 교사인건비 및 각종 지원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 아동 관련 운영내용과 절차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대상자와 과정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복지카드,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 통지서등으로 입소 순위에 따라 입소함.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부모가 보육통합 시스템 이용하여 대기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함.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서비스 범위도 결정함.
교사 대 아동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교사 혹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한 명 당 장애아동 3명 배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교사 한 명당 장애아동 4명으로 배치됨. 종일반은 별도 교사 배치함.
교사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교사(장애 아동 6명당 한 명 배치)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교사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 배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교사(특수교육전공 학사)
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보육도우미 배치(2013년부터 서울시만 해당됨). 장애아 활동보조, 교사 수업준비 보조, 교사보조 업무 등 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보조원 배치(2004년부터 시행됨). 교수학습지원, 행동문제 지원, 개인 욕구 지원 담당함.
관련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지원(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인력과 통합지원 외에 가족지원(부모교육, 상담), 치료지원(물리, 작업, 언어).
관리 감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운영 관리 감독 기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담당 장학관 등이 프로그램 내용 운영 관리 감독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인건비의 80%지원(20%는 어린이집 부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인건비 100%지원
유아 1인당 교육비(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보육지원금 1,218,4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1인당 연간 교육비 4,076,573원
교재교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100만원 이하 (지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당 300~500만원
통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가 별도 부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지원 전면 무료, 통학차량지원 및 통학비 지원
특수교사 연봉(5호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0,000~2,5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00,000~3,300,000원

자료: 조요경(2014). 의무교육대상 장애아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방안. p.23 〈표 3〉의 내용을 재구성함.

□ 이는 장애영유아가 어느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원의 내용도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유보통합의 추진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장애영유아의 재원 기관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과 보육 질을 유지하고, 부모의 선택의 기회를 확장하려는 것임.

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자원 현황

- 2014년 기준 교육·보육기관 자원 장애영유아는 16,069명이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 36.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9%, 일반어린이집 12.5%, 일반 유치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각 10%, 특수학교 영아반 및 유치부 6.1% 자원 중임.

〈표 2〉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교육기관 ¹⁾			보육기관 ²⁾			계
	특수학교 영아반, 유치부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	일반 유치원 일반학급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일반 어린이집	
인원	978	1,675	1,707	5,860	3,835	2,014	16,069
비율	6.1	10.4	10.6	36.5	23.9	12.5	100.0

주/자료: 1) 교육부(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4년 4월 기준).

2)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2014. 12월말 기준). p. 116, p. 124.

4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요구

가.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보육 기관 현장 의견

1) 조사 개요

- 2015년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위치를 파악하고 유보통합 시 고려되는 문제점과 통합 시 고려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500명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2015년 7월~8월).

2)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우선 고려점

-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기관장(36.2%)과 교사(40.6%) 모두에서 '교사관련 규정의 정비'임. 기관장의 경우는 '장애영유아 배치체계의 일원화(21.5%)'가, 교사에서는 '교육·보육과정 체계화(20%)'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우선 고려점(기관장, 교사)

단위: %(응답 수)

구분		영유아 배치체계 일원화	교사 관련 규정 정비	교육·보육 과정 체계화	교사 재교육 체제 정비	장애영유아 지원체계 일원화	시설기준 통합	계
전체	기관장	21.5	36.2	13.9	9.8	15.8	2.8	100.0(500)
	교사	17.0	40.6	20	8.2	11.2	3.0	100.0(502)
기관장	유아교육	21.8	38.5	16.4	11.5	9.3	2.5	100.0(250)
	보육	21.2	33.8	11.5	8.1	22.3	3.1	100.0(250)
	$\chi^2(df)$					18.10(5)**		
교사	유아교육	16.2	42.7	19.7	8.7	9.2	3.5	100.0(251)
	보육	17.8	38.5	20.3	7.7	13.1	2.6	100.0(251)
	$\chi^2(df)$					2.95(5)		

** $p < .01$

3)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

□ 현재 유치원은 장애영유아 4명 당 1인의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당 1인의 교사가 배치됨. 유보통합 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 융통성 있게 결정해야한다는 응답이 기관장 51.2%, 교사 55.4%로 가장 많음.

〈표 4〉 유보통합 이후 적정 교사 대 장애영유아 비율(기관장, 교사)

단위: %(응답 수)

구분		1:3	1:4	1:2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달리해야 함	계
전체	기관장	17.7	6.1	25.0	51.2	100.0(500)
	교사	14.5	4.4	25.7	55.4	100.0(502)
기관장	유아교육	17.0	11.9	16.7	54.3	100.0(250)
	보육	18.3	0.2	33.4	48.1	100.0(250)
	$\chi^2(df)$					43.13(3)***
교사	유아교육	15.3	8.9	17.8	58.0	100.0(251)
	보육	13.6	0.0	33.5	52.9	100.0(251)
	$\chi^2(df)$					35.42(3)***

*** $p < .001$.

□ 교사 대 장애영유아의 비율을 1:2로 하자는 응답 비율이 기관장(33.4%)과 교사(33.5%) 모두에서 유아교육기관(기관장, 16.7%; 교사 17.8%)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은 보육기관의 현재 기준이 1:3이므로 현재보다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짐.

나. 유보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장애영유아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교육과 보육 전공을 고려하여 학계 전문가 20인과 현장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서면 자문을 요청하였고, 9월 5일~10월 7일까지 최종 응답한 학계 전문가 14인과 현장 전문가인 장애영유아 재원기관 기관장 2인 의견임.

1)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 수립 시 주안점

- 장애영유아 관련 정책의 중심을 부모가 아닌 장애영유아에 두어야 함.
- 통합과정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담보에 주목해야함.
- 유보통합 시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함.
- 장애 영아와 유아에 대해서는 차별적 접근이 요구됨.
- 장애는 영유아의 성별과 연령처럼 단순하게 구분짓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개별화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통합 시 반영해야 함.
- 추진과정의 고려점은 다음과 같이 수렴됨.
 -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실무자의 참여가 필수적임.
 -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야 함.
 - 유보통합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수준에서의 장애영유아 교육 내용 및 자료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함.
 - 장애영유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유보통합을 통해 장애영유아 담당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유보통합 추진 요소별 고려점

가) 정보공시 확대·연계 및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은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공시내용과 공시 사이트 분리로 상호비교에 한계가 있었음.

- 통합의 과정으로 공시항목 중 공통항목을 추출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 등을 기초로 통합공시 항목 개발, 통합공시 항목을 구성 운영 중임.
- 2015년 현재 통합정보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기본 현황(기관명, 설립유형, 주소 및 연락처, 위치정보), 영유아(연령별 학급수, 정·현원), 교직원(교직원 현황), 교육·보육과정(1일 운영시간, 누리과정 운영, 제공서비스), 교육·보육비용(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기타(통학용 차량운영) 등이다.¹⁾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장애교육·보육관련 내용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야 하나, 장애영유아 관련 정보는 제한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추가 공시가 필요함.

〈표 5〉 장애영유아 관련 추가 공시 필요 항목

장애영유아 관련 추가 공시 필요 항목

- 특수교육 교육형태 제시: 통합(완전통합/부분통합) 또는 특수반 분리 운영 여부
- 장애영유아 자원 유·무
-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현황: 인원수, 교사자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조 인력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무: 유형, 종류
- 장애영유아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나) 평가체계 연계·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기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평가체계, 결과공개 범위 등이 차이가 있음. 이에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임.²⁾

1)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1. 17). '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한곳에서 찾아보세요!' p.7 참고함.

2)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2. 1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p.1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어린이집 평가인증(2차)의 경우 장애전문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지표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은 관련 지표가 없었음. 기존의 장애영유아 관련 평가기준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표 위주이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질적 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 통합평가에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련 평가지표가 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룸.

〈표 6〉 통합평가체계 관련 의견

통합평가체계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가 포함된 경우 교실 내에서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이나, 교사-유아, 유아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사회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지표 추가 •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수정, 상호작용 포함 • 질 평가하기 위해서는 ECERS, ICP 지표 등 실행과정에 기반 한 질적 지표 개발 • 장애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문어린이집 각각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주기 필요 (현재는 장애전문어린이집만 평가지표가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별한 조치(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등) • 장애영유아 물리적 환경 및 편의시설유무 평가 자료 •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장애유아 교육과정의 수정절차 및 내용) • 장애통합교육·통합보육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삽입 (협력교수, 협동학습, 수업계획서에 장애유아 참여방법을 위한 조치사항 등) • 장애이해교육제공여부, 일반교사들의 장애이해 혹은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여부 • 교사협력을 위한 연수와 교사협력체계 실행여부 • 평가수행 시 장애통합에 대한 유경험자가 관찰자로 참여 • 평가지표 관련 문서 간소화 • 평가 시 장애아 부모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다) 재무회계규칙 강화·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관련 통합은 관리부처·재원, 시설기준, 규제수준 등의 통합 경과를 고려하여 공통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실행을 위한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연수 실시, 지도점검 강화를 포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개발한 공통재무회계규칙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임. 이와 더불어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시 재무회계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음 <표 7>의 내용과 같음.

<표 7> 재무회계규칙 관련 의견

재무회계규칙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시 재무회계 규칙 강화 규정 동일 적용 • 현재의 재무규칙이 일반 아동 1인당 기준으로 지출 기준이 되어 있음. 장애영유아의 경우 별도의 지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을 위한 특별재무회계 포함 • 장애통합교육 실행에 필요한 재무회계를 포함 • 통합재원, 통합관리감독 필요: 장애영유아에게 책정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공통 경비로 일반유아에게 함께 사용되었는지의 문제

라) 결제카드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아학비와 보육료의 정부 지원금 결제카드가 일원화되어 있었으나 아이즐거운카드의 인증기능과 아이사랑카드의 바우처 결제 기능이 같이 탑재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통합카드 '아이행복카드'로 일원화함³⁾.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그대로 준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와 더불어 장애영유아를 위해 치료지원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바우처 등을 하나의 카드로 통합할 필요가 제기됨.

<표 8> 결제카드 통합 관련 의견

결제카드 통합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시 결제카드 일원화 방안 동일 적용: 장애 영유아 관련해 특별한 의견 없음 • 치료지원비, 방과후학교 지원비, 바우처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카드로 통합 • 지역사회에서 장애영유아가 다양한 치료와 연계되도록 고려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물리치료 등)를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와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모에게 편리할 것

3)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8. 29).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 하나로 통합한다.' p.3

마) 운영시간 조정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은 누리과정(5시간)+방과후과정(3~5시간), 어린이집은 정규보육 12시간(7시30분~19시30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이한 운영시간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이용이 불편함이 있음. 이에 운영시간 합리화를 위해 적정 기본 운영시간을 설정하고, 다양한 시간 연장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정지원 방식도 연계하여 다양화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시 결정 내용에 준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운영시간도 고려됨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장애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는 이용을 허용하고 부모에게 안내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규과정 이후 교사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표 9〉 운영시간 조정 관련 의견

운영시간 조정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통합 내용 범위에서 운영 • 장애영유아의 경우 외부치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받고 오후 등원하거나 불규칙한 등원(예, 주 3회)등의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기본 운영시간과 장애영유아 출석 관련 부분에 대한 부모이해와 안내, 규정 등이 필요 • 통합교육과정은 특수교사 주도 협력교사로 운영, 연장서비스는 보육중심으로 운영 (운영시간이 연장될 경우 보육교사가 장애유아를 담당하도록 함) • 방과후 과정에 맡겨지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사의 배치 필요 • 장애 영유아의 교육기관 이용 시간도 어머니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시간 차등화 • 추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교사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작성하므로 교육 계획 등의 시간이 필요함. •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시간을 운영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상황, 지역사회 특성,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시스템 필요

바)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취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0~2세의 취원을 허용하고 취원 연령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 준비를 그 내용으로 함.⁴⁾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이미 장애영유아의 경우는 법적으로 0~2세를 교육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공통과정을 준용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필요함.
- 특히 영아의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의 연계, 교사 재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차별적 지원이 필요함. 또한 영아를 위해서는 가정 중심 지원 강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표 10〉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관련 의견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보육과정 통합 관련 의견	
취원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은 0세부터임. • 0~2세 취원 허용하되 발달지원을 위한 치료와 연계된 교육적 조기개입 필요. • 현행 유치원은 만3세부터 취원 할 수 있어 장애영아의 배치 기관이 한정적임. 유치원의 취원 연령을 하향 조정되면 장애영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음.
교육 보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유치원과정의 경우 "누리과정"을 활용하나, 통합교육 상황이나 장애영유아의 개별지도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조정이 필요하므로, 교사용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함. • 통합된 장애영아를 위한 교사용 보육과정 지도 자료집을 국가에서 보급
장애 영아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부모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중점 지원이 필요함. • 0~2세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모자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등 유아나 학령기와 같은 교육과정의 틀보다 유연하게 운영 허용 • 0~2세 장애 영아의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관보다는 가정에 있고 장애 관련 전문가가 초학 제적 접근에 따라 가정방문 지원하는 것이 주요 유형임. • 장애 영아 교육과 보육의 경우 현재 법과 지침에 따라서 무상이나 물리, 작업, 언어 치료 등의 기타 서비스의 경우 현재 유료임. 발달재활지원서비스 바우처에서 지원하고 지원을 초과하는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심사하는 제도가 필요함(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심사 평가액을 정해주고, 그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사) 가격규제 제도 개선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기관유형에 따른 상이한 가격규제(상한제 對 자율제)로 인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금에 차이가 큼. 사립유치원 원비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 등 합리적 가격규제 및 제도적 차이 개선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함.

4)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경보설비 등 설치의무화' p. 2.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가격규제 부분에서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기본 교육비용이 무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그러나 사립유치원 이용 시 비용에 대한 지원요구와 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기준마련, 서비스 이용 위한 바우처 사용 어려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표 11〉 가격규제 제도 개선 관련 의견

가격규제 제도 개선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비 관련 장애 영유아의 기본적인 교육비는 무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음 • 가격 산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마련이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사립유치원이라도 장애영유아 전액 무상교육 실시 • 민간에게 위탁한 공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합리적 학부모 부담의무 • 사립유치원 원비 뿐 아니라 언어치료와 재활치료 등 관련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바우처를 활용한 공적인 서비스의 수요에 비해 공급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통합기관에서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부모 재정 부담 경감

아) 시설기준 정비 등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유형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이 상이하여 통합 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함. 특히 유치원의 경우 건물 총면적만 규정하고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필수 시설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시·도 교육감 재량에 맡겨 지역 간 편차가 있음. 신규시설에 대해 공통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고려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은 면적의 확보와 시설설비 기준 강화로 수렴됨. 특히 신규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음. 사립유치원에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와 지원이 필요함.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아의 경우 1:2, 유아의 경우 1:3이 바람직함. 필요 시 보조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사 배치에의 융통성이 있어야함.

〈표 12〉 시설기준 정비 관련 의견

시설기준 정비 관련 의견	
시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예, 접근성) 점검에 대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함. • 노후 건축물의 경우, 장애유아의 이동 및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적임. •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Barrier-Free, Universal Design의 원칙을 적용하여, 어떤 유형의 장애영유아가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장벽으로 인한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함. •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교사대 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교사 대 장애아동 1:3이고, 2개반 이상 경우 서울시에 한해서 장애아보육도우미 배치, 3개반마다 치료사 1인이 배치되고 있음. • 장애영유아의 특성, 장애 정도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1:3)의 융통성 부여 • 통합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아동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비율은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학급 인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장애 영유아의 경우 미국 헤드스타트 등도 통합의 경우 정원의 10% 내외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 일반 유아교사와 특수교사가 한 반을 공동으로 맡는 학급 경영체제로 운영됨이 바람직함.

(자) 보육·교육 지원방식 다양화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재정지원 교육·보육 시간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상이함(어린이집 12시간, 유치원 5시간).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차이, 시설보육·가정양육 간 양자택일적 지원체계 등으로 시설보육에 대한 과다 수요로 취업모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현황임. 이에 유보통합 시 운영시간 조정 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교육·보육시간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특수교육 대상 유아,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으로 이 문제와는 관련 없음.
- 장애 자녀를 둔 취업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장시간 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과 후 교사를 배치해야함.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입소 가능하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가족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도 있음.

〈표 13〉 보육·교육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의견

보육·교육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 장애영유아 취업모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보육시간, 인적 지원 • 어린이집의 종일제 이용 장애영유아의 경우 유치원과 같이 방과후 교사가 오후에는 보육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유아(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10시 간 이상 머무는 경우(시간 연장) 가 있어 교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뿐만 아니라 장애유아의 교육에 있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방과 후 교사 배치의 필요 •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기관에 한해서 별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취업모 서류 위조(입학 시 우선순위 배정)에 대한 방지 대책 필요함. 현재와 같이 재직 증명서 제출 방식이 아니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유아 형제의 입소우대 • 장애영유아 부모의 경우 취업과 관련 없이 우선 지원 • 장애영유아 부모 중에는 양육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일제의 무상보육서비스를 택하는 경우가 많음. 부모/양육자들의 장애영유아에 대한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가족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차)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등과 연계한 직무분석을 통해 양성체제 및 자격취득 요건 정비하고, 기존 유치원·보육 교사의 보수교육, 자격시험 등을 통한 타 자격증 취득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증 취득 문제와 보수체계, 승진 문제에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교사 양성은 4년제를 기반으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교육 또는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자격 교사를 경쟁 선발하고, 국가가 관리하자는 의견과 신규 교사양성과정의 강화, 기존인력에 대한 자격갱신의 기회 마련, 온라인 과정 이수자 구분, 보육교사 교육 시 장애관련과목 의무 이수 등에 대한 의견과 교사자격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 그러나 조사대상 전문가의 배경에 따라 유아특수교육, 유치원인지 또는 보육이나, 어린이집인지에 따라 이견을 보임.

〈표 14〉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관련 의견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자격기준 재검토하되, 기존 4년제 특수교육교원(유치원) 자격을 기준으로 함. • 자격 취득 경로 마련은 기존 4년제 교사양성제도의 틀과 범위를 기준으로 함. • 신규와 기존 인력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안으로 기존 교사의 경우 별도 교육 체제를 마련하여 신규교사의 질과 동일한 내용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양성과정과 인원 확대 • 온라인 자격 취득한 자(사이버, 학점은행제)와 대학졸업자에 대한 구별이 필요함. • 대학 학제개편: 3년제(장애영유아보육과), 4년제(유아특수교육과)등 관련학과 통합 • 교사양성 과정 중 장애아 혹은 특수교육 개론 과목 필수 이수 적용 필요 • 부처통합이후 교사자격 양성체계 동일화 • 취득 경로는 다양화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일반 영유아 담당 교사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 유치원교사(누리과정 시행), 보육교사(추가 종일반 시행) 등으로 자격증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집의 경우 유사유아특수교사(보건복지부 인정 자격증)가 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 시 자격 정비가 필요함.

카) 교사 처우격차 해소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교사의 직무가 유사함에도 정부 지원액 등 차이로 인해 교사 간 처우에 격차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불합리한 보수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되, 실제 보수차이·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과 연계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보수의 차이는 자격 차이에서 비롯됨으로 교사자격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유아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근무 기피와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것은 이에 기인함.
- 유아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역할 명료화, 호봉 차이를 통한 처우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교사 배치는 장애아 담당교사의 경우 국가가 임용하자는 의견, 통합보육 상황에서 보조교사의 지원, 장애담당교사 대체교사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15〉 교사 처우격차 해소 관련 의견

교사 처우격차 해소 관련 의견	
교사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처우는 자격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함. • 교사 근무시간과 보수 체계 일원화 필요 •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보수는 현행 기준으로 실시해도 무방할 것 같음. • 장애영유아 통합일반교사와 기관장애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함. •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자격 수당) •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력 상호 인정(현재는 서로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의 교사처우개선을 통한 교사의 질적 담보 확보
배치 및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에서 보육교사 임용 실시 및 관리 • 장애유아 담당 교사 배치 기준의 일원화 • '장애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통합반이 2반 경우 특수교사가 1명씩 배치됨 • 교사 근무 시간의 초과 상한 시간을 주고,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업무 초과에 따른 추가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함. • 장애영유아 담당 대체 교사 인력 자원이 필요함. • 유아특수교사는 일정시간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종일제 보육교사가 장애유아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파) 관리부처 및 자원 등 통합

(1) 유보통합추진 내용

- 유치원, 어린이집의 서비스전달체계, 자원, 법률 등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행정적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문제 인식 아래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 중임. 이는 주무부처 일원화와 연계하여 자원통합과 그 법적 기초가 될 통합법률 제정까지를 포함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고려점

-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관련 교육보육 현황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또 일부 의견으로는 아예 장애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전담할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도 제시됨.
-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유사한 장애영유아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표 16〉 관리부처 및 자원 등 통합 관련 의견

관리부처 및 자원 등 통합 관련 의견	
관리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부처와 재정지원 필요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일반 체제에 잘 통합되어야함. 일반교육·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통합교육 전달체계구축 방안 마련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 담당 전달체계 필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교육을 하나의 중앙부처에서 관할하고 산하기관에서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제 마련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기관 감독)
자원 ·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영유아의 법적 근거는 관련 교육부의 '특수교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이 해당됨.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재원이 기존 시스템 속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된 법률에 장애영유아에 대한 예외 적용 문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유사한 장애영유아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

5 유보통합 시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제언

가.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개편 시 장애 전문가 포함

- 이제까지 교육·보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의 내용이라든지, 평가인증 등 평가체계의 구성 등 최근 정책 변화의 과정에서도 장애 영유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이 현장의 지배적인 의견임.
- 장애 영유아의 정책이 전체 영유아 관련 정책의 흐름 속에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상황을 최적화하면서 조화롭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준비와 구성 과정에서 장애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제언함.

나. 장애영유아 관련 기초 자료 정리

-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 된 상황은 입소(배치),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교사의 자격과 처우, 보조 인력의 지원 등에서 차이를 초래하여, 유보통합 시 참고하기 위한 관련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의 구성과 검토가 필요함.
-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통합 방안을 중심으로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관련 현황 자료 수합과 통계자료 구축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담당자와 장애 영유아 관련 학계 전문가(유아특수교육, 장애 영유아 보육, 보육, 유아교육)와의 협업을 통한 ‘장애 영유아 현황 자료 분석’ 추진을 제언함.

다. 정보공시제 개선으로 부모의 정보에 기반한 선택권 보장

- 장애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정보에 목말라 장애 특성에 대해, 장애 영유아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대해, 장애 치료기관에 대해, 이용 가능한 혜택 등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본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의 출처는 인터넷이나 ‘입소문’으로 칭하는 지인, 이웃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문제임.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됨.
-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시에 장애와 관련한 정보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공시된 정보로 인해 일반 유아 부모의 특정기관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정보 공개의 적정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보공시제 개선을 통해 부모에게 객관적 정보에 입각하여 자녀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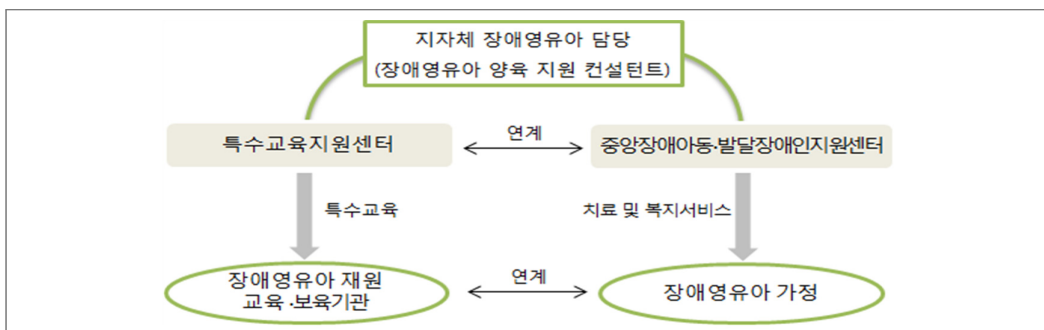
- 장애영유아 담당교사의 역량은 교육·보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자격 및 양성 체계, 보수교육을 통한 교사 질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교사의 자격과 배치, 처우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유치원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유아특수교사만 배치되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아특수교사, 어린이집 특수교사, 장애 영유아보육교사, 40시간 직무연수를 받은 일반 보육교사 등 다양한 자격의 교사가 장애 영유아를 담당하는 상황임.
- 특히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어린이집 특수교사(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특수교사)의 전문성 담보의 문제와 그 배치에 대해 유아특수교육학과와 영유아보육학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임. 부모의 경우 장애 담당교사가 배치된 전일제 통합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장애아 담당교사의 확충이 선제적 요소로 대두되었고, 장애아 담당교사를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교사로 한시적으로 인정함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

-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의 개편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임. 이원화된 상황에서 교사의 자격에 대한 기준과 양성과정에의 격차를 확인하였고,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에 대한 별도의 정책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함.

마. 장애 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

-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장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도 유보통합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이에 따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그와 더불어 장애 영유아 관련 교육·보육 현황을 고려한 지원체계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고에서는 장애 영유아의 육아지원의 관점에서 교육·보육기관 지원의 기능과 가정 지원의 기능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즉,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 지원의 전문성을 살려 교육보육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로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는 부모지원을 포함하여 장애 영유아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문화하고 또 지원기관 간의 연결통로를 마련하자는 안임.
- 장애 영유아의 부모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장애 영유아 양육 지원 컨설팅트’의 안내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진단,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와 배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다면적인 가족 중심지원이 연결되는 형태임.



[그림 2] 장애영유아를 위한 행정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의 역할 조정안

● ● ● 참고문헌

- 교육부(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4년 4월 기준).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8. 29). ‘정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제카드 하나로 통합한다.’ p.3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4. 12. 1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보도자료(2015. 9. 2).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0~2세 유치원 취원, ‘16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신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실, 경비설비 등 설치의무화’ p. 2.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방안 연구(I) - 장애영유아 육아지원 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 2015-31.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2013년 12월말 기준)
- 조윤경(2014). 의무교육 대상 장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 방안 토론회 자료집.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2008년~현재)

이윤진

1. 개발협력사업으로써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필요
 2.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3.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4.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국내 인식
 5.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

요약

- 영양상태가 열악한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미래 한반도의 인구관리 차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사회의 변화와 경제 호전에 따라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긴급구호식 지원에서 벗어나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 2009년 이래 대북 지원액은 급감하였고, 5·24 조치 이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거의 중단된 상태임. 우리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직접 지원은 거의 없고, 그 자리를 국제기구와 재외동포단체가 메우고 있음.
- 재외동포단체와 국제기구에서 지원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역시, 개발협력사업 방식임. 단순히 일회성의 물품, 식량, 의약품 지원이 아니라 북한 사회가 개선할 수 있도록 상수도 설치, 영양지원사업,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 결과,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 전문가 96.3%, 일반국민 83.3%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개발협력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함.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개발협력사업이 향후 남북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함.
-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정치문제와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정치 분야의 지속적인 대북 지원은 남북 관계가 우호적인 국면에 접어들면 교류협력 사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임.

1 개발협력사업으로써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필요

가. 인도적 지원 차원

-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의 1/3은 발육부진 상태이며, 만성영양실조로 인해 정상적인 키와 몸무게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함.¹⁾

* 본고는 이윤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2015)의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 재정리한 것임.

1) 북한 중앙통계국(CBS)은 2009년과 2012년 UNICEF, WFP, WHO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서 북한 전국의 영유아의 영양 및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임.

- 5세 이하 아동의 4%는 급성영양장애로 심각한 저체중이며, 전체 5% 이하 아동의 약 28.7%가 빈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9년 대비 2012년에 북한 영유아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됨. 이는 북한 정부와 UN 기구의 공조 하에 농업과 식량, 기초약품, 영양,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상태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보고 있음.

나. 한반도 미래의 인구관리 차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조만간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해리 덴트, 2015).
- 북한 영유아 지원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의 인구관리 정책으로 추진한 바 있음.
 - 참여정부 시기 대북 지원사업의 성격이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됨.
 - 2005년에 북한 지원사업에서 ‘영유아 지원사업’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됨.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가 장기 발전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남북한 인적 자원의 공동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통일부 중심의 대책마련이 지시됨에 따라 사업이 기획, 추진됨.
 - 북한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미래 인구정책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면서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인도주의적 과제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에게 밝힘(신영진, 2012: 10-11).
 - 기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함. 개발협력사업은 민·관 협력, 민간단체의 자율적 추진, 국제기구와의 공조 방식으로 추진함.
 - 2007년도까지는 비료, 옥수수과 식량지원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영유아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UNICEF, WHO, WFP 등을 통한 지원 및 민간단체에게 기금지원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짐.

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차원

- 개발협력사업은 영유아를 비롯한 북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자들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하고, 대화를 통해 사업을 조율해 나가야 함. 이러한 과정 자체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임.

라. 북한 사회의 변화

- 북한 지원사업이 개발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음.
-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²⁾
 -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났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
 - 북한은 2011년 이전까지는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지수가 급등하거나 떨어지는 등 불안정하지만 2011년부터는 안정화됨.

〈표 1〉 북한 경제지표

연도	1997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인당 GNI	75.7	83.6	105	119	124	133	137	138	139
경제성장률	-6.5	0.4	3.8	-0.9	-0.5	0.8	1.3	1.1	1.0

출처: 국가통계포털; 북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31&conn_path=12, 2016. 4. 30. 인출.

- 오늘날 변화된 북한 사회를 ‘5M’으로 정의할 수 있음(Katharina Zellweger, 2016).
 - Market(시장), Money(돈)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Mobile Phone(핸드폰)이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으며, Motorcar(자동차)가 증가했고, 평양에 Middle class(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음.

2) 외부에서 보고 있는 북한의 생산활동은 여전히 공식적인 기업과 공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민들 각각이 수행하는 사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북한의 생산량 관련 데이터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북한 성장률 추정치는 실제 북한의 사경제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학자들은 북한의 실제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상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석기, 2015).

- 여기에 하나의 M을 추가하면, Mindset(의식)임. 5M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주 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침. 특히, 평양의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름.
- 다시 말해서, 긴급구호식의 단발성 지원은 북한이 필요로 하지 않음. 현재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도 개발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개발협력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함.

2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가. 대북지원 격감

-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지원사업은 급격히 감속함. 2008년 시점에 전년도 막대그 래프의 1/5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식량차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민간차원의 지원은 정부차원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감소함(표 2, 그림 1 참조).
- 2011년도 5·24 조치로 인하여 직접지원은 물론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중단됨. UNICEF, WHO, WFP 등 국제기구를 경유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 지원은 크게 줄음.
 - 전체적인 지원액은 크게 줄었어도(그림 1 참조), 영유아 지원과 의약품, 보건 및 영양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계속됨.
 - 5·24 조치로 대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됐으나, 북한의 영유아에 대 한 지원유지 및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단 사업에서 예외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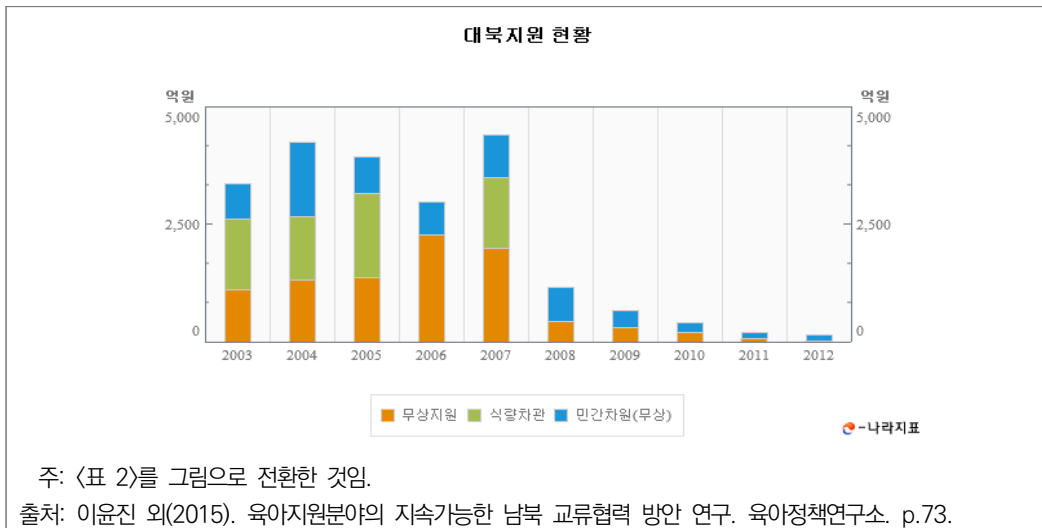
〈표 2〉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액 현황(2005-2014)

단위: 억원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정부	무상지원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133	141
차원	식량차관	1,787	0	1,505	0	0	0	0	0	0	0
	민간차원(무상)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51	54
	총액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183	195

주: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은 기금집행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포함)이며, 민간차원은 반출금액 기준(수송비 및 부대경비 미포함)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73.



[그림 1]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2003-2012)

□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임. 통일대박,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방했으나 대북지원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임. 이전의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영유아 지원사업도 휴점 상태임.

- “2014년은 대북 인도적 사업의 역사에서 ‘최악의 해’로, 대북지원이 시작된 이래 지원단체들이 북한에 방문하지 유일한 해이며 남북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되었던 MB정부 말기인 2012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강영식, 2015)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음.
- <표 2>를 보면, 2013년부터 무상지원과 민간차원(무상)은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감행 등 북핵문제가 국제사회 문제화 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함.

□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끊기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권에 따라 지원액 차이가 크게 다른 것은 북한과의 신뢰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나. 개성공단 내 개성탁아소 지원 및 중단

□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은 유일한 남북 교류의 창구였음. 개성공단 내에는 북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개성탁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음.

- 개성공단의 근로자 중 약 70%가 여성인 만큼 탁아소 설치는 필수였음. 이에 남북한 당국은 2006년부터 협의를 거쳐 북측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남북협력기금 9억원으로 건축함. 2010년 9월 1일 개소함.
 -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 옆에 위치함.
 - 연면적 953.66㎡(보육실 면적 430.47㎡)이며 지상 2층 건물이며 총 500여명의 영아를 수용할 수 있음.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 기계실, 세탁실, 의무실이 있으며 소장 1명, 보육교사 54명 외의 의사, 식당운영원이 근무하고 있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 2015).
 -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수입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영아 1인당 월 20달러 정도의 이용료를 부담함.
-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탁아소는 영아 물품 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이루어짐.
- 2011년부터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과 남한의 민간단체, 종교단체에서 물품을 지원함.
 - 지원물품은 천기저귀, 보행기, 딸랑이와 같은 영아용 물품에서부터 건조기, 세제 등의 가사용품까지 다양함. 또한 탁아소와 버스정류장까지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여 우천 시 우산을 쓰지 않고 자녀와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도 이루어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 2015).

다. 재외동포단체(2008~현재): K재단 사례³⁾

- 국내 단체를 통한 북한지원이 중단되면서 그 자리를 재외동포단체가 메우고 있음.
- 재외동포는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한민족이라는 동질감과 함께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다는 점 등 많은 이점이 있음.
- 주로 재미교포와 조선족으로 구성된 K재단은 미국과 한국, 홍콩,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개인 모금(후원금)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함.

3)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중국 연길 소재의 K재단을 방문하여 면담을 한 결과임. 해당 단체가 실명을 밝히기를 원치 않아서 이니셜로 처리함.

- 현재 북한의 5개 탁아소와 유치원에 학용품, 쌀, 콩기름 등을 지원함. 흑판, 지우개 등은 기본적으로 북한정부가 지원하지만, TV, 냉장고, 컴퓨터, 세탁기, 취사도구, 이불, 서랍장 등 가구, 가전제품들은 재단에서 지원함.
 - 북한은 전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자제품을 지원할 때에는 태양광 발전기를 같이 지원해야 함.
 - 북한의 유치원과 탁아소에는 식량보다는 겨울 난방에 필요한 연탄, 나무 등의 땔감 연료가 더 시급하지만, 실제 지원은 식품 위주로 되고 있음.
 - 이외에도 신발공장을 운영하여 매년 북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증함. - 2010년과 2011년에는 1,000켤레, 2012년에는 16,500켤레, 2013년에는 12,011켤레, 2014년에는 8,240켤레의 겨울 부츠를 기증함.
- 지원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지원물품을 제대로 잘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 및 관계 맺음에 더 큰 목적을 둬.
- 모니터링이 북한 주민들과 친해지고 신뢰를 형성하는 기회가 됨.

3 국제기구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

가. 지원사업 분야별 담당 국제기구

- UN 산하의 많은 국제기구 중 UNICEF, WFP, FAO, UNFPA, WHO 등의 5개 기구는 북한 내에 사무소를 두고 북한 지원사업을 실시함.
-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 내의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점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즉, 개발협력사업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다음 <표 3>에서처럼, 북한 지원 사업의 주요 분야로 7개를 선정하고 부문별로 담당 기구를 정함. 북한지원에 관심이 있는 국제파트너 또는 단체들은 지정된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파트너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원중복을 피해서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

〈표 3〉 북한 지원사업 분야별 담당 국제기구

지원사업 분야	협의 담당기구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Climata Change, Energy and Environment)	UNDP
교육(Education)	UNICEF
식량안보 및 농업(Food Security & Agriculture)	WFP, FAO
보건사업(Health)	WHO, UNICEF
모니터링&평가(Monitoring & Evaluation)	UNICEF
영양지원(Nutrition)	UNICEF, WFP
식수 및 위생 환경 개선(Water, Sanitation, & Hygiene: WASH)	UNICEF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90.

- 본고에서는 7개 부문 중에서 영유아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 보건사업, 영양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 중심으로 살펴봄(표 3의 음영부분).

나. UNICEF

- 유니세프는 1996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함. 2013년 기준으로 9~10개의 시도, 190개의 리·군 지역에서 활동 중임.
 - 주요 사업은 보건-모자(Child and Maternal), 건강, 영양, 식수와 위생, 교육, 어린이 보호(Advocacy for Child Rights)임.
 - 현재 취약계층에 특별 지원을 통해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
- 매년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영양실조 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영양실조 단계에 따른 치료용 음식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급성영양실조 어린이들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유니세프는 리(里) 진료소를 지역단위의 보건센터로 활용하여 예방접종과 필요한 영양 식품을 처방해 줌. 또, 백신과 1회용 주사기를 공급하여 등 종합면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 북한 영유아 사망의 2대 질병은 설사와 폐렴인데 이는 오염된 물을 먹으면서 발생함. 유니세프는 상수도 시설을 개·보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위생교육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노력함.

□ 아동 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 중심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임. 예를 들어, 유치원과 학교를 깨끗하게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에게는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구들(materials)을 제공함.

〈표 4〉 유니세프 2014/2015 프로그램 목표 및 결과

단위: 명

유니세프 지원 사업 내용	2014 목표	결과 (2014. 10 기준)	2015 목표	결과 (2015. 1-6월 기준)
영양 분야				
CNAM ^{주1} 입원치료 대상 SAM ^{주2} 5세 이하 아동	13,000	16,000	-	-
미량영양소 공급 받은 6-23개월 영아	500,000	156,000	-	-
철-엽산 공급 받은 19세-29세 여성	2,000,000	1,600,000	-	-
미량영양소를 공급 받은 임산부 및 수유 중인 여성(PLW)	700,000	296,000	-	-
미량영양소 공급 받은 사람(6-24개월 영아, PLW, 가임기 여성 등)	-	-	4,900,000	1,000,000
급성영양실조로 인해 치료를 받은 0-59개월 아동	-	-	25,000	8,000
보건 분야				
일반적 백신으로 커버가 되는 EPI ^{주3} 대상 12개월 이하 영아	353,200	346,194	362,156	362,000 ^{주4}
구충제를 받은 5세 이하 아동 (EPI 대상 포함)	1,413,000	1,641,860	1,427,000	1,600,000
비타민 A를 공급받은 5세 이하 아동	1,590,000	1,657,670	1,605,000	1,657,670
EPI에 따라 백신으로 면역력을 갖게 된 임산부	-	-	365,000	362,000 ^{주4}
교육				
학교 인프라의 재건을 통해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 아동(취학 전 아동 포함)	5,000	최소 4,112	5,000	-
인지발달에 좋은 유아용 도구들(materials)을 제공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된 취학 전 아동	20,000	-	20,000	3,300

주1: Community Management of Acute Malnutrition,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지역단위 급성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

주2: Severe Acute Malnutrition, 중증 급성영양실조

주3: 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예방접종확대계획

주4: 2015년 결과 수치는 예방접종한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의 수를 합한 숫자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2-93.

다. WHO

-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에 북한 내 사무소를 설치함.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질 좋은 의료서비스 보급과 물리적 인프라 확충, 모니터링과 평가방식의 개선 등에 목적을 둠.
- 최근에는 북한의 의료인력 교육과 필수약품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질병 감소, 성장발달, 영양균형 등을 목표로 함.
 - 우리 정부는 북한 산모 및 영유아 대상 의료시설 개선, 의약품 지원, 의료인력 교육훈련, 기술지원, 교재발간 등의 WHO 사업에 약 63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통일부, 2014).

라. W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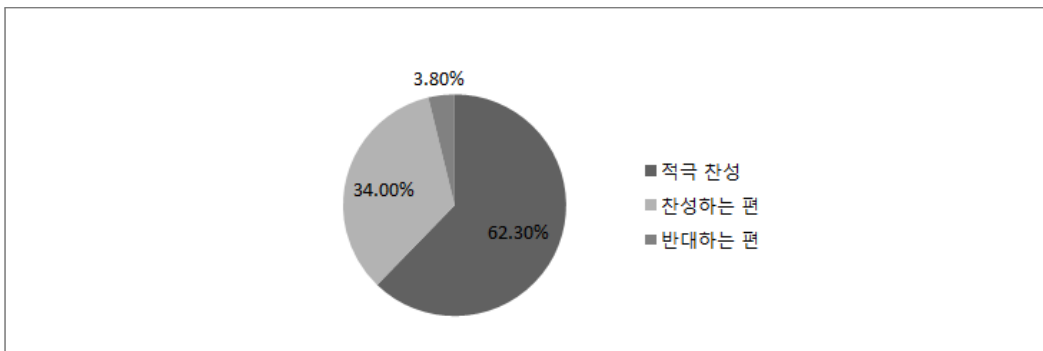
- 세계식량계획기구(World Food Programme)은 1995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해 옴. 주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산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WFP는 북한 내에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자강도는 북한이 개방하지 않아서 제외 지역임.
- 2008년까지는 쌀, 밀가루와 같은 곡물을 지원하였으나 장기구호 및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7월부터 “모자 영양지원 사업(Nutrition Support to Children and Women)”을 실시하고 있음.
 - 모자 영양지원 사업의 주된 내용은 어린이, 임산부, 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만든 영양 비스킷(nutritious biscuits)과 슈퍼시리얼(Super Cereal)을 공급하는 것임
 - 영양 비스킷과 슈퍼시리얼은 WFP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임산부와 산모,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고아원, 학교, 유치원 및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급하여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함.
 - 슈퍼시리얼과 영양 비스킷(nutritious biscuits)은 WFP가 지원하는 북한 내 14개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음.

- 슈퍼시리얼은 주로 옥아원, 보육원,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됨. 아이들뿐만 아니라 산모나 임산부에게도 매일 제공함. 연령에 따라 하루에 100~150g을 제공함
- 영양 비스킷은 필수비타민과 철, 요오드와 같은 미량 영양소가 성장발육에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급되며,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오전/오후 간식(하루에 4개-총 60g)으로 제공됨.
- WFP는 정기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함.

4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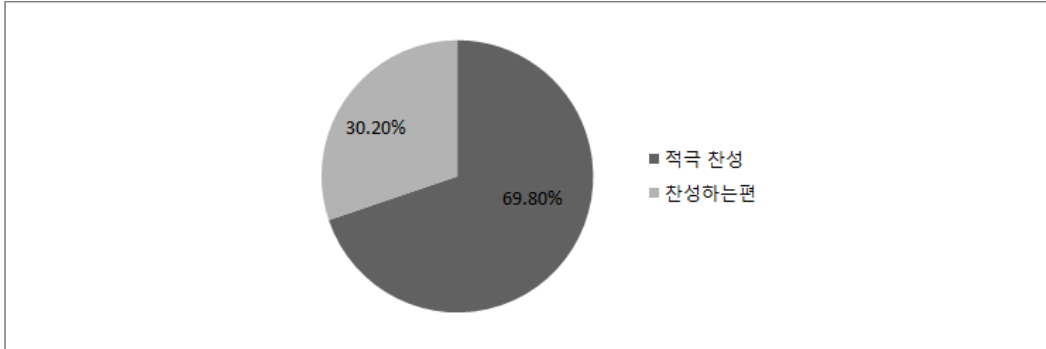
가. 전문가

- 학계의 북한 연구 전문가 53명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임. 북한에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북한이탈주민 6명이 포함됨.
 - 응답자 전공별로는 정치외교학, 북한학이 동일하게 18.9%로 가장 많고, 교육학, 유아교육, 경제/경영학이 각각 13.2%를 차지함.
- 북한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62.3%, ‘찬성하는 편이다’는 34%가 응답함. 점수로 환산하면 평균 3.58점(4점 만점)임.
 - ‘반대하는 편이다’는 3.8%에 불과했으며,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한 사례도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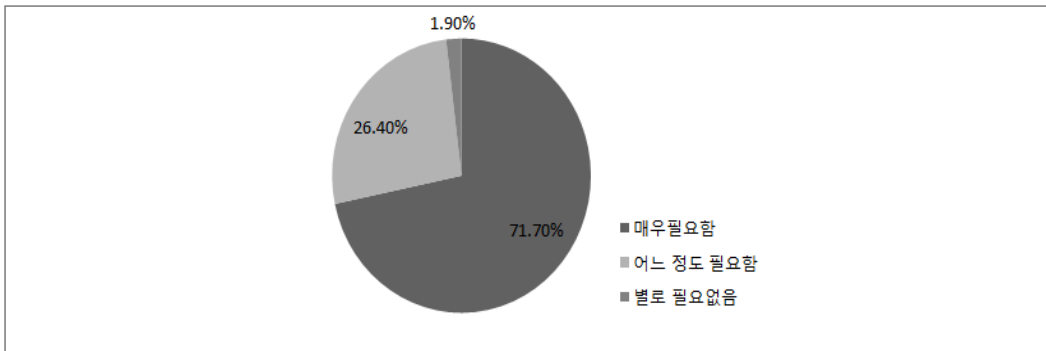
[그림 2] 북한의 개발협력사업 찬반 여부(전문가)

- 영유아 분야의 개발협력사업(2005년도에 추진한 바 있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 69.8%, 찬성하는 편 30.2%가 나옴. 반대는 한 사례도 나오지 않음.



[그림 3] 북한 영유아 지원의 개발협력사업 찬반 여부(전문가)

- 전문가들은 북한의 일반 분야(예: 농업분야 등) 개발협력사업보다 영유아 지원사업의 개발협력을 더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 측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남북 간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4] 육아지원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전문가)

나. 일반국민

-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조사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유선 전화번호와 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이중표집 임의번호 추출(Dual Frame RDD-Random Digit Dialing)방법을 활용하여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짐.

1)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 북한 영유아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9.9%, 매우 필요하다 17.1% 순으로 나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0.1%로 가장 낮음.
- 성별, 연령, 학력,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여성보다 남성이, 40대 이상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북한을 도와줘야 하는 대상 또는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식) 인도적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나옴.

〈표 5〉 북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전체	10.1	19.9	52.9	17.1	100.0(800)	2.77	
성별							
남	11.9	17.8	49.1	21.2	100.0(438)	2.80	0.96(1)***
여	8.0	22.4	57.5	12.2	100.0(362)	2.74	
연령							
20대	12.3	32.8	50.8	4.1	100.0(122)	2.47	6.93(4)***
30대	11.5	17.7	52.3	18.5	100.0(130)	2.78	
40대	5.8	13.5	58.7	21.9	100.0(155)	2.97	
50대	9.2	17.3	50.9	22.5	100.0(173)	2.87	
60대 이상	11.8	20.5	51.8	15.9	100.0(220)	2.72	
학력							
고졸이하	11.1	23.2	53.6	12.0	100.0(332)	2.67	6.6(3)***
대졸(대재포함)	9.5	18.8	52.7	19.0	100.0(421)	2.81	
대학원 이상	5.3	5.3	47.4	42.1	100.0(38)	3.26	
모름/무응답	22.2	11.1	55.6	11.1	100.0(9)	2.56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4.2	7.7	58.5	29.6	100.0(287)	3.14	
교류협력 대상	4.9	22.5	57.3	15.4	100.0(267)	2.83	55.67(3)***
적대적 대상	24.3	31.0	40.0	4.8	100.0(210)	2.25	
모름/무응답	13.9	33.3	50.0	2.8	100.0(36)	2.42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14.

*** $p < .001$

2)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사업

□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필요한 편이다 25.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8.35,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7.0% 순임.

-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영유아 지원사업의 개발협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표 6〉 개발협력사업으로써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전체	7.0	18.3	25.3	58.0	100.0(800)	2.85	
성별							
남	8.0	14.8	22.8	57.1	100.0(438)	2.89	3.64(1)
여	5.8	22.4	28.2	59.1	100.0(362)	2.79	
연령							
20대	9.0	35.2	44.3	45.9	100.0(122)	2.57	
30대	6.9	18.5	25.4	60.0	100.0(130)	2.82	
40대	5.2	14.8	20.0	63.2	100.0(155)	2.92	5.08(4)***
50대	6.9	16.8	23.7	54.3	100.0(173)	2.91	
60대 이상	7.3	12.3	19.5	62.7	100.0(220)	2.91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학력							
고졸이하	9.0	18.7	27.7	59.0	100.0(332)	2.77	
대졸(대재포함)	5.7	18.1	23.8	58.0	100.0(421)	2.89	3.2(3)*
대학원 이상	2.6	18.4	21.1	44.7	100.0(38)	3.11	
모름/무응답	11.1	11.1	22.2	77.8	100.0(9)	2.67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2.1	10.1	12.2	58.9	100.0(287)	3.15	
교류협력 대상	3.7	19.1	22.8	62.2	100.0(267)	2.88	40.81(3)***
적대적 대상	15.7	28.1	43.8	51.9	100.0(210)	2.45	
모름/무응답	19.4	19.4	38.9	55.6	100.0(36)	2.47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20~121.

*** $p < .001$, * $p < .05$

3) 남북 교류협력 사업

□ 우리 측의 일방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이 나옴.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순으로 나옴.

- 일반 국민들은 북한을 지원하는 것 보다 남북 교류협력을 더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질문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표 7〉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전혀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전체	6.0	14.9	20.9	60.3	100.0(800)	2.92	
성별							
남	7.3	12.6	19.9	56.4	100.0(438)	2.97	3.55(1)
여	4.4	17.7	22.1	64.9	100.0(362)	2.86	

	전혀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	평균	F(df)
연령							
20대	8.2	25.4	33.6	59.0	100.0(122)	2.66	5.81(4)***
30대	8.5	20.8	29.2	46.2	100.0(130)	2.87	
40대	5.2	7.7	12.9	67.7	100.0(155)	3.01	
50대	5.2	9.2	14.5	61.3	100.0(173)	3.05	
60대 이상	4.5	15.0	19.5	63.2	100.0(220)	2.93	
학력							
고졸이하	6.6	16.9	23.5	64.5	100.0(332)	2.82	6.94(3)***
대졸(대재포함)	5.7	14.3	20.0	58.7	100.0(421)	2.96	
대학원 이상	2.6	7.9	10.5	39.5	100.0(38)	3.37	
모름/무응답	11.1	0.0	11.1	66.7	100.0(9)	3.00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1.7	6.6	8.4	62.7	100.0(287)	3.19	43.7(3)***
교류협력 대상	3.0	12.4	15.4	65.2	100.0(267)	3.01	
적대적 대상	15.2	25.7	41.0	52.4	100.0(210)	2.50	
모름/무응답	8.3	36.1	44.4	50.0	100.0(36)	2.53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2.0	7.7	9.6	64.8	100.0(560)	3.14	195.11(1)***
필요하지 않음	15.4	31.7	47.1	49.6	100.0(240)	2.41	
북한 영유아 개발협력 필요성							
필요함	2.8	11.4	14.1	62.7	100.0(616)	3.06	109.23(1)***
필요하지 않음	16.8	26.6	43.5	52.2	100.0(184)	2.44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24~125.

*** p < .001

4) 대북 지원사업과 평화통일

- 절반 이상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북한 지원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함. 대체로 도움이 된다 46.3%, 매우 도움이 된다 13.3%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9.6%로 보고됨. 점수로 환산하면 4점 만점에 2.58점임. 앞서 언급했던 의견조사 결과보다는 점수가 낮게 나옴.

- 40~50대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인도적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대북지원사업이 향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봄.

〈표 8〉 대북 지원사업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점

	전혀 도움 안됨	거의 도움안 됨	대체로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	평균	F(df)
전체	14.9	25.6	46.3	13.3	100.0(800)	2.58	
성별							
남	17.8	20.5	45.4	16.2	100.0(438)	2.60	0.56(1)
여	11.3	31.8	47.2	9.7	100.0(362)	2.55	
연령							
20대	19.7	32.8	44.3	3.3	100.0(122)	2.31	5.94(4)***
30대	17.7	25.4	44.6	12.3	100.0(130)	2.52	
40대	9.0	25.2	51.0	14.8	100.0(155)	2.72	
50대	11.6	20.8	47.4	20.2	100.0(173)	2.76	
60대 이상	17.3	25.9	44.1	12.7	100.0(220)	2.52	
학력							
고졸이하	17.5	30.1	42.8	9.6	100.0(332)	2.45	5.06(3)**
대졸(대재포함)	13.3	23.0	48.7	15.0	100.0(421)	2.65	
대학원 이상	10.5	13.2	52.6	23.7	100.0(38)	2.89	
모름/무응답	11.1	33.3	33.3	22.2	100.0(9)	2.67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5.9	16.0	54.7	23.3	100.0(287)	2.95	61.08(3)***
교류협력 대상	8.6	27.0	51.3	13.1	100.0(267)	2.69	
적대적 대상	33.3	33.8	31.4	1.4	100.0(210)	2.01	
모름/무응답	25.0	44.4	27.8	2.8	100.0(36)	2.08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5.9	17.1	58.4	18.6	100.0(560)	2.90	329.2(1)***
필요하지 않음	35.8	45.4	17.9	0.8	100.0(240)	1.84	

주: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16~117.

*** $p < .001$, ** $p < .01$, * $p < .05$

5) 5·24 조치에 대한 의견

-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개발협력사업으로 지원하거나 또, 교류협력을 한다든가 등 북한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더 많이 나옴.
- 현재 대북 지원사업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1%로 가장 많음. 그러나 영유아 지원만큼은 해제해야 한다 25.8%, 비정치적 영역까지 해제해야 한다 18.6%,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15.8%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음.
 -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룹에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옴.

〈표 9〉 5·24조치에 대한 인식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계	χ^2 (df)
전체	31.1	25.8	18.6	15.8	8.8	100.0(800)	
성별							
남	32.6	24.4	17.6	17.6	7.8	100.0(438)	5.08(4)
여	29.3	27.3	19.9	13.5	9.9	100.0(362)	
연령							
20대	35.2	21.3	30.3	8.2	4.9	100.0(122)	43.93(16)***
30대	24.6	30.0	21.5	15.4	8.5	100.0(130)	
40대	24.5	31.0	21.3	16.8	6.5	100.0(155)	
50대	30.6	21.4	17.3	19.7	11.0	100.0(173)	
60대 이상	37.7	25.5	9.5	16.4	10.9	100.0(220)	
학력							
고졸이하	34.6	27.7	10.2	15.7	11.7	100.0(332)	41.21(12)***
대졸(대재포함)	29.2	24.5	25.2	14.3	6.9	100.0(421)	
대학원 이상	26.3	23.7	15.8	31.6	2.6	100.0(38)	
모름/무응답	11.1	22.2	33.3	22.2	11.1	100.0(9)	
북한에 대한 인식							
필요시 도움 주는 대상	24.4	27.2	21.6	19.2	7.7	100.0(287)	78.89(12)***
교류협력 대상	26.2	29.6	19.9	18.4	6.0	100.0(267)	
적대적 대상	47.6	20.5	13.8	9.0	9.0	100.0(210)	
모름/무응답	25.0	16.7	13.9	8.3	36.1	100.0(36)	

	①	②	③	④	⑤	계	χ^2 (df)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25.7	28.2	20.7	17.9	7.5	100.0(560)	34.93(4)***
필요하지 않음	43.8	20.0	13.8	10.8	11.7	100.0(240)	
북한 인도적 지원사업 필요성							
필요함	26.3	29.1	20.0	16.9	7.8	100.0(616)	39.01(4)***
필요하지 않음	47.3	14.7	14.1	12.0	12.0	100.0(184)	

- 주: ①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② 북한 영유아 지원만큼은 5·24 조치와 무관하게 지원해야 한다
 ③ 사회문화 분야 등 비정치적 영역까지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④ 남북 상호간 폭 넓은 교류협력을 위해 전면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⑤ 모름/무응답

출처: 이윤진 외(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22~123.

*** $p < .001$, ** $p < .01$

5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제언

가. 정책방향

- 본고의 시작에서 이미 말했듯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방식은 긴급구호성이 아니라 개발협력이어야 함.
 - 개발협력사업은 북한주민들과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하며 지속적인 교류인 남북한의 신뢰형성뿐 아니라,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장마당이 활성화하면서 북한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고 있음. 즉,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의식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북한 변화를 실용주의 관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더라도 비정치 분야의 북한 지원사업은 재개할 것을 제안함. 민간단체 중심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민후관(先民後官) 전략이 필요함.
-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에도 민간단체는 국외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와 공조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 지원을 지속함.
 -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과 정부와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은 목적이 다름.

- 국제기구는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는 인도적 지원활동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 확대, 그리고 통일 한반도를 희망하면서 북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

- 우리가 일방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접촉 국면을 넓혀나감.
 -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확대할 때, 지원분야도 영양,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보육 영역까지 확산함.

나. 지원내용

- 북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영유아들의 발육상태는 국제표준기준에 미치지 못함. 북한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일회성의 물품, 식량, 의약품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한 물건이나 식량을 자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설치하거나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교육, 농업교육을 실시함.
- 남북 공동 탁아소·유치원 설치, 운영하는 사례를 점차 늘려나감.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는 요원할 수 있지만 개성탁아소라는 선례가 있으므로 관계 회복이 된다면, 경협지구 내에 탁아소·유치원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급간식, 교직원 교류 및 정기 간담회 실시, 교재교구, 교육과정 등 실험적인 운영해 나감.

다. 향후 과제

- 5·24조치 해제 문제
 - 5·24조치에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은 중단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원 가능함. 그러나 대북 지원과 교류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 영유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란 한계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가, 일반국민 대부분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는 영양·보건, 의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 비정치적 분야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지원사업 및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할 것을 제안함.

- 북핵문제 등 정치적 문제와는 구분하여 실용주의 관점의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남남갈등 해소 문제

-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 학력, 북한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북한의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의 영유아 지원사업,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생각 차가 확연히 다름.

- ‘남남갈등’이란 북한 및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한사회의 내부 갈등을 의미함. 남남갈등은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야기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임.

- 지속가능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남남갈등’이란 내부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 끝으로 K재단 대표의 면담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면서 북한지원 및 남북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겠음.

단순히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면 북한보다 어려운 국가도 많기 때문에 북한을 반드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며,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할 상대방이기 때문에 꾸준한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는 K재단과 같은 재외동포단체를 활용하여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참고문헌

강영식(2015). 민간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국회한반도평화포럼·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코리아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내부자료(2015)

신영전(2012). 북한 모자보건프로그램에서 WHO, UNICEF, 한국정부, 한국 NGOs의 협력 경험.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PRK.

이석기(2015). 북한 경제변화와 경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 “2015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자”, 국회한반도평화포럼·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코리아연구원·한겨레통일문화재단·한반도평화포럼.

이운진(2012).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남북 교류협력 분야별 실태 점검 및 추진방안.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이운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2015).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통일부(2014). 제26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결과 보고. 2014. 9. 18.

해리 덴트 저, 권성희 역(2015).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

Katharina Zellweger(2015). 대북지원 20년-과연 효과가 있었나?. 2015 대북지원 국제회: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 경기도·제주도·FRIEDRICH EBERT STIFTUNG·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통일부 후원.

[인터넷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p a r t

02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권미경
-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 김은설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 활용실태 및 충원의 어려움 | 최효미
-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 도남희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 | 유해미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 양미선
- 농어촌 유형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 방안 | 김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권미경

1. 문제제기
 2. 지역사회 연계 개념 및 관련정책 현황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요구
 4.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

요약

- 기관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가 효과적으로 고려되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요소로 반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지침에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이 대표적임.
-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교육·보육 과정 운용에 도움 정도, 유아의 선호도,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연계활동의 어려움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과 연계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부족, 지역 연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등임.
-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협력참여 주체 간 역할을 행정전달체계는 선도적 정책 개발과 정책적 제도화, 지원체계는 연계를 위한 현장 지원 자료개발과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기회 기획과 우수사례 발굴, 공유의 장 마련, 기관은 다면적인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 실행방안으로 정책적 제도화, 연계 주체 간 필요성 인식 및 동기 부여, 성공 경험의 공유, 원장과 교사역량 강화, 자원정보 허브 구축, 도농 기관 간 유대 강화,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기회 확대 등을 제언함.

1 문제제기

- 연계(network)는 그물(net)을 엮어가는 과정(work)을 의미하며, 최근 미래 사회를 주도해나갈 키워드로 연계, 매개, 연결이 강조되고 있음. 각 개체가 가진 역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결해서 상생적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각 분야에서 적용하자는 것임.
-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적극적 방법으로 수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주체로 유아발달과 학습을 돕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OECD, 2012. p.12).

* 본 이슈페이퍼는 '권미경·윤재석·조혜주(2015).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학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국가수준의 정책 수단 마련에 대한 요구와 인식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이런 맥락에서 유아기 주 환경으로 가정과 교육·보육 기관, 지역사회의 역할 자체에 대한 중요성 뿐 아니라 이를 연계함으로써 유아에게 보다 적합한 환경 제공 가능성에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사회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하나로, 영유아는 성장하면서 그 지역사회 특성에 영향을 받음.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연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강조함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러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주체이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되는 시점임.
- 이에 본 원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육·보육과정 운용을 지원하는 협의(狹義)의 지역사회 연계를 고찰하고, 또한 미시체계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광의(廣義)의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이에 대한 역동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지역사회 연계 개념 및 관련 정책 현황

가. 지역사회 연계의 개념

- 지역사회교육(communitry education), 지역사회협력(communitry collaboration) 지역사회 발달과 역량강화(communitry development and empowerment) 등 교육과 관련한 지역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학자마다 또 구체적 상황마다 다양함.
- OECD(2012)에서는 지역사회 참여를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관련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로 정의하며, 지역의 범위에 이웃, 비정부기구, 종교단체, 사립재단, 사회적 서비스와 의료적 서비스와 같이 유아의 발달을 강조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정의함.

- 본 고에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과 지원을 공동목표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보육 기관과 그것들이 속한 지역사회 사이에 형성되는 협력적인 관계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한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 함.

나. 지역사회 연계 관련 정책 현황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지침에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함.
 - 편성의 원리와 운영의 지침 중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고 제시함(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26)’.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에 관련 지표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에 평가요소가 반영 됨.

〈표 1〉 제3주기 유치원 평가지표 중 지역사회 연계 관련 지표

평가영역(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요소
운영 관리 (30)	10.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5)	1) 부모교육 및 참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고 있다. 2) 유치원의 교육활동 및 유아 발달상황을 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출처: 교육부(2014). 제3주기 유치원 평가 중앙연수 자료집. p13. <붙임 1. 유치원 평가 공통지표> 중 운영관리 부분만 발췌함.

- 2015년 현재 운용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2차 지표에서 지역사회 연계 관련 내용은 ‘운영관리’ 중 ‘가족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협조’임.

〈표 2〉 어린이집 평가인증 2차 지표 중 지역사회 연계 관련 지표

영역	구성요소
영역 2. 운영관리	지역사회와의 협조
	대 2-11. 지역사회와의 협력 대 2-12.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p.89 <40인 이상 평가인증 지표> 중 운영관리 부분 중 일부 발췌함.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는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 내에 인근에 위치한 5~10개 내외의 공·사립유치원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최은영, 김정숙, 송신영, 2013. p.59). 이는 인근 유아교육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직·지원함으로써 교육 환경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노력임.

□ 2012년 OECD가 발간한 Starting Strong III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ECEC 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고려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제시함.¹⁾ 한국은 ECEC와 다른 사회 서비스 간 협력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4가지의 지역사회 연계 사례가 소개됨.

〈표 3〉 한국의 지역사회 연계 전략 사용 현황

전략	추진 내용
지역사회 참여를 정책 우선 순위 및 의무나 권리로 규정하기(p.225)	한국은 전국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평가인증을 위한 지표중의 하나로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지, 지역사회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환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지역사회 참여는 ECEC 교사양성교육과 현직교육 모두에서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방안에 대해 교직원 훈련시키기(p.228)	한국은 핀란드,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에게 지역사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ECEC 교사양성교육에도 포함하였다.
중앙정보시스템 혹은 연락처 개설하기(p.228)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을 개설하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각 어린이 집에 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 비용, 급식, 환경과 같은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e- 유치원제도)을 구축하고 자녀양육과 유치원 교육에 관한 정보를 부모와 지역사회에 제공한다.
ECEC와 다른 사회 서비스 간 협력 강화하기(p.229)	한국에서는 지방병원과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록된 유아들에게 매년 또는 필요에 따라 무료건강진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유아가 있는 ECEC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센터와 협력하여 포괄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유아와 가족에게 제공한다.

1) 본 내용은 Starting Strong III를 한국어로 번역한 OECD(2013).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서 발췌 정리함.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실태 및 요구

가. 조사 개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지역사회 연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720개 기관을 표집하여 각 기관의 원장과 교사 1인, 부모 1인을 대상으로 하여 총 2,160명이 설문에 응답함.

〈표 4〉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원장	계	교사	계	부모	계
전체	100(720)	전체	100(720)	전체	100(720)
연령		연령		자녀성별	
39세 이하	9.2(73)	39세 이하	62.4(491)	남	43.0(321)
40대	38.1(264)	40대	31.8(190)	여	57.0(399)
50대	43.5(316)	50대	5.8(39)	자녀연령	
60세 이상	9.1(67)	학력		만3세	28.9(184)
학력		3년제대졸이하	53.4(328)	만4세	30.1(235)
3년제대졸이하	16.3(96)	4년제대졸	38.8(310)	만5세	41.0(301)
4년제대졸	38.7(247)	대학원졸	7.9(82)	맞벌이여부	
대학원졸	45.0(377)	교육경력		맞벌이	57.7(418)
교육경력		5년미만	29.2(208)	외벌이	42.3(302)
5년미만	3.8(25)	5-10년 미만	38.5(288)	월가구소득	
5-10년 미만	8.3(58)	10-20년 미만	27.7(164)	260만원 이하	12.4(71)
10-20년 미만	45.3(284)	20년 이상	7.6(60)	261-350만원	25.4(177)
10-30년 미만	31.3(243)			351-450만원	28.7(207)
30년 이상	11.3(110)			451만원 이상	33.5(265)

나. 교육·보육과정 실행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실태

1) 교육·보육과정 운영 시 지역사회 연계활동

-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구성하면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 지에 대해 ‘교육·보육 과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49.8%로 가장 높음. 다음은 유아가 좋아하는 활동인지(24%),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과 맞는지(21.7%)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구성 시 고려 사항(원장, 교사)

단위: %(명)

구분	유아가 좋아하는 활동인지	지역사회 자원의 현황에 따라	교육·보육 과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인지	기관 홍보에 도움이 되는지	계	χ^2 (df)
전체	24.0	21.7	49.8	4.2	0.4	100.0(1440)	
원장	19.2	20.3	55.7	4.0	0.7	100.0(720)	29.87***
교사	28.7	23.0	43.8	4.4	0.0	100.0(720)	

*** $p < .001$

□ 지난 1년 동안 학급 내에서 실시했던 지역사회 연계활동 유형을 조사함.

〈표 6〉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용 유형(교사: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
현장체험 및 기관 방문활동(소방서, 우체국, 박물관 등)	96.9 (694)
산책 활동	89.9 (642)
지역사회 행사 참여	36.3 (274)
지역사회 조사 활동	39.6 (311)
지역사회 인사 초빙	44.4 (341)
지역사회 기관 간 프로그램 협력	42.6 (328)
기관 자원의 지역사회로의 개방	54.0 (361)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연계	16.7 (125)
기타	1.6 (15)
계(수)	- (720)

○ 소방서, 우체국, 박물관 등 지역사회 기관에의 현장체험 및 방문활동(96.9%)과 공원, 숲, 동네 한 바퀴 등의 산책활동(89.9%)을 실시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놀이터, 도서관, 텃밭 등 기관을 지역사회로 개방한다는 경우도 54%에 달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내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고무적 상황을 보여줌.

□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기관 전체가 함께 하는 것과 학급 단위의 연령별 활동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보여, 연령별 활동 51.9%, 전체 기관 수준의 활동 48.1% 등 거의 반반의 수준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연령별(학급별) 활동이, 유치원에서는 전체 기관 수준의 활동이 활발한 경향을 보임.

〈표 7〉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운용 형태(원장)

단위: % 평균

구분	연령별 진행활동	t/F	전체 기관활동	t/F
전체	51.9		48.1	
기관유형				
유치원	44.0	-5.150***	56.0	5.15***
어린이집	55.3		44.7	

-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방향으로 원장에 의한 기관전체로의 연계는 지역에서 관으로 (28.1%)보다 기관에서 지역으로(71.9%)의 연계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활용자원의 유형은 인적자원 24.4%, 물적자원 75.6%임.

〈표 8〉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향

단위: %

구분	원장(기관전체)		교사(학급내)	
	지역⇒기관	기관⇒지역	지역⇒기관	기관⇒지역
전체	28.1	71.9	29.7	70.3
기관유형				
유치원	36.2	63.8	32.3	67.7
어린이집	24.6	75.4	28.5	71.5
t	6.25***	-6.25***	2.42*	-2.42*

주: 집단분포특성상 유치원 설립유형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수 없음.

* $p < .05$, *** $p < .001$

-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참여수준을 조사한 결과, ‘방문+관찰+질문+참여활동(32.1%)’ 까지 확장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방문+관찰하는 활동(26.9%)’, ‘방문만 하는 활동(21.5%)’의 순서로 나타나, 유아의 참여가 충분한 수준에서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9〉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참여수준 비율(교사)

단위: %

구분	방문만 하는 활동	방문+관찰하는 활동	방문+관찰+질문	방문+관찰+질문 참여활동
전체	21.5	26.9	19.5	32.1
유치원	20.3	27.5	19.6	32.7
어린이집	22.0	26.7	19.5	31.8
t	-1.07	0.51	0.07	0.42

2)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진단 및 요구

□ 기관에서 교육·보육과정의 실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결과, 원장(3.6점)과 교사(3.5점)에 비해 부모 집 단(3.9점)에서 약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내용별로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주기적으로 계획하는 측면에 대해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가 부여됨.

〈표 10〉 지역사회 연계활동 현황에 대한 자체평가

단위: 점

구분	원장		교사		부모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역사회 연계활동 전체	3.8 ^b	0.8	3.7 ^a	0.9	3.9 ^b	0.9	9.54 ^{***}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주기적으로 계획된다.	4.0	0.8	3.9	0.9	4.0	0.9	0.10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교류한다.	3.9 ^b	0.8	3.8 ^a	0.9	3.9 ^b	0.9	3.20 [*]
지역사회와의 인적 자원 교류가 활발하다.	3.6 ^a	0.9	3.5 ^a	0.9	3.8 ^b	1.0	19.28 ^{***}
지역사회와의 물적 자원 교류가 활발하다.	3.6 ^a	0.9	3.5 ^a	0.9	3.8 ^b	1.0	11.96 ^{***}

주: a, b 집단 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 특히 교사와의 심층면접 시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구성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우리동네’ 부분이고, 주로 인터넷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 내 기관의 이해 부족 및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기관과의 MOU 체결 등으로 이용절차 및 편리성을 증진하는 방법과 연계활동 참여 시 참고 가능한 통합 사이트의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누리과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원장보다 교사가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름’이라는 사회 관계영역과 ‘호기심을 갖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태도를 배양함’이라는 자연탐구영역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원장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49%)을 가장 어려움으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은 연계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부족(44.8%)과 지역 연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32.1%)을 지적함. 교사는 지역 내 기관의 이해 부족 및 비협조(41.7%), 지역 연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39.5%), 활동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부족(38.7%), 지역사회 내 자원 부족(36.7%) 등을 지적하였음.

〈표 11〉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활동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부족	32.8(230)	49.0(343)	27.8(199)	38.7(304)
연계로 인한 교사의 업무과중	8.7(63)	19.4(145)	11.7(74)	29.9(199)
지역 연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15.2(111)	32.1(225)	21.9(139)	39.5(256)
예산부족	5.9(51)	14.7(116)	1.3(13)	5.6(38)
지역 내 기관의 이해 부족 및 비협조	13.8(97)	29.3(222)	21.2(151)	41.7(305)
지역사회 내 자원 부족	20.1(151)	44.8(318)	14.5(125)	36.7(276)
교직원 간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어려움	2.3(10)	7.2(48)	1.2(10)	4.4(28)
기타	1.3(7)	3.1(19)	0.4(9)	1.8(19)
계(수)	100.0(720)	100.0(720)	100.0(720)	100.0(720)

다.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실태

1)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 지역사회기관 활용빈도는 인근 놀이터와 숲과 산 등의 지역사회 내 장소가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활용되는 반면 도서관, 박물관, 우체국이나 소방서, 경찰서 같은 곳은 연 1회 정도, 유아교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지역사회 기관 활용 빈도(교사)

단위: %(명)

구분	거의 안함	연 1회	학기당 1회	분기당 1회	월 1회	주 1회 이상	계
도서관	13.9	35.7	24.3	10.5	11.1	4.6	100.0(720)
박물관	13.1	47.5	23.8	10.0	4.4	1.1	100.0(720)
공공기관	7.5	47.1	24.5	13.4	6.3	1.2	100.0(720)
사회복지관	57.4	25.2	10.7	3.0	1.7	2.0	100.0(720)
의료기관	23.6	45.4	22.8	4.9	3.3	0.1	100.0(720)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6.8	26.0	13.1	9.2	3.9	1.0	100.0(720)
건강(다문화) 가정지원센터	65.5	20.0	7.3	2.3	3.3	1.6	100.0(720)
지역아동센터	72.8	16.9	3.9	3.2	2.4	0.7	100.0(720)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42.0	39.9	11.2	3.4	3.0	0.5	100.0(720)
동물원, 놀이공원	13.9	44.4	28.8	8.8	3.2	1.0	100.0(720)
숲, 산	4.7	11.4	16.9	12.7	31.1	23.2	100.0(720)
인근 놀이터	15.1	4.1	5.3	3.9	17.2	54.5	100.0(720)

- 지역사회 기관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을 통해 인적자원을 초빙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적 자원의 활용과 프로그램의 협력은 숲과 산, 의료기관,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율이 다소 높음. 특히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연계한다는 응답이 높음.
- 지역사회 자원의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숲과 산에 대한 만족도가 4.3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소방서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4.1점), 동물원 및 놀이공원(4점), 인근 놀이터(4점), 박물관(3.9점) 등이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표 13〉 지역사회 기관 활용 내용(교사: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방문 현장 체험	인적 자원 초빙	물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협력	회의, 모임	소식지 홈페이지 연계	해당 없음	계	도움정도	
									평균	편차
도서관	81.4	5.2	6.7	7.1	1.1	1.7	8.7	(720)	3.8	0.9
박물관	83.9	2.7	3.7	5.5	0.5	2.0	9.9	(720)	3.9	0.9
공공기관	74.5	19.4	5.3	8.8	0.9	2.7	5.9	(720)	4.1	0.8
사회복지관	30.9	11.4	5.2	9.4	0.8	3.6	45.3	(720)	3.1	1.2

구분	방문 현장 체험	인적 자원 초빙	물적 자원 교류	프로 그램 협력	회의, 모임	소식지 홈페이 지 연계	해당 없음	계	도움정도	
									평균	편차
의료기관	48.6	23.5	7.8	16.2	1.6	4.6	18.4	(720)	3.7	1.0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35.0	9.3	7.1	13.2	2.7	7.4	36.6	(720)	3.4	1.2
건강(다문화) 가정지원센터	18.5	15.9	2.7	7.9	1.2	5.2	53.2	(720)	3.0	1.2
지역아동센터	17.8	6.0	2.1	6.1	2.4	4.2	62.4	(720)	2.9	1.2
주민자치센터 등 관공서	52.4	4.7	2.9	7.3	1.1	5.6	32.8	(720)	3.3	1.1
동물원, 놀이공원	84.1	1.7	5.4	6.0	1.2	1.5	9.0	(720)	4.0	0.9
숲, 산	82.0	7.0	8.0	11.1	1.4	2.6	5.0	(720)	4.3	0.9
인근 놀이터	75.5	0.9	6.5	3.6	1.5	1.6	15.1	(720)	4.0	1.1

□ 교사들 대상 심층면담에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방문 횟수에 제한이 있고, 예약 절차나 연계과정이 어렵다고 인식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은 한정되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으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고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지역사회 연계활동 구성을 위해 필요한 주제별로 활동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이트나 사례 위주의 자료집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공공기관 방문이 가능한 날짜나 시간대를 미리 공지해 주는 행정적 도움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2)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인식 및 효과 평가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우리 기관의 교직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4.2점)’과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4.1점)’에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운 높은 동의 정도를 보임.

〈표 14〉 지역사회 연계 상황 인식(원장)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인식	우리 기관의 교직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중요성을 인식함	4.2	0.6
	유치원·어린이집은 유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4.1	0.7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실태	우리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자원(도서관, 박물관, 공공기관 등)을 탐색하고 활용하고 있음	4.3	0.7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시군구)는 지역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8	0.8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자체(시군구)에서는 다양한 육아지원 시설 간(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3.5	0.9

□ 지역사회 연계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원장과 교사 집단 모두에서 유아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각각 4.1점, 4.3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임.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에는 원장(3.2점)보다는 교사(3.6점)가 더 강한 동의를 보임.

〈표 15〉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과

단위: 점

구분	원장		교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부모·보호자에게 도움이 됨	3.8	0.8	4.0	0.8	-3.52***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유아에게 도움됨	4.1	0.7	4.3	0.7	-4.58***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도움됨	4.0	0.7	4.0	0.7	-0.40
유치원·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교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킴	3.2	0.9	3.6	0.9	-8.61***

*** $p < .001$

□ 이상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장소 중 숲과 산, 인근놀이터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연계 기관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함. 그 연계활동의 내용 또한 방문 및 현장체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기관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기관장 및 교사의 역량과 관련이 깊음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전문성 향상의 기회 마련과 관련 참고자료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

4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가. 기본 방향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음을 기본 방향으로 고려함.
 -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유아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육아지원환경 구축의 효과도 지님.
 - 3-5세 유아 중 90% 이상이 기관에 재원하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은 연계를 위한 가정과 사회와의 접점으로 유아교육·보육기관은 부모, 지역사회와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
 - 기관과 사회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상생적 효과를 활성화함.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체로서의 역할 담당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 간, 지역사회와 개별 가정 간의 연결고리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
 - 연계의 강점에 집중하며, 연계 고리를 확장함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함. 연계의 계획과 실행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첫 시도는 더욱 그러함. 연계(network)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듯 그물(net)을 짜는 작업(work)으로 기관, 가정, 지역사회라는 유아의 환경주체가 지닌 강점에 주목하여 그 연계의 기회를 다양하게 확장해 갈 때, 그물 안에 담긴 효과도 커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함.

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주체 간 역할

- 이장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에 준하여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의 가정 지역사회 연계 실행 주체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전달체계와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지원체계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아 가정, 지역사회 기관을 구체화하고, 연계활성화를 위해 각 주체가 담당해야하는 역할을 제시한 것이 다음의 <표 15>임.
 - 행정전달체계는 선도적 정책개발과 정책적 제도화를 추진함.
 - 지원체계는 연계를 위한 현장 지원 자료개발과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기회를 기획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의 장을 마련함.

-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 주체 간에는 다면적인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함. 특히 누리과정
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연계를 강화함.

〈표 16〉 기관 중심 연계 활성화 개념도 및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할

기관 중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개념도	주체	연계활성화 위한 역할
		지역사회 연계
	행정 전달 체계	선도적 정책의 개발, 정책적 제도화 - 지역사회연계 강화 제도 마련 - 실행을 위한 지원 방안(예산 마련) 지역사회 자원 정보망(hub) 구축
	지원 체계	자료 개발, 교육 또는 컨설팅 기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지역사회연계 안내서 개발 연계 위한 원장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 기회 제공 - 지역사회연계 우수사례 발굴 지역 내 공유 가능한 자원의 발굴
	유아 교육·보육 기관 지역 사회 네트워크	다면적 연계 활동 기획, 실행 및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 지역사회 내 양육 지원체 역할 재인식 - 전문 인력을 통한 협력 활성화 컨설팅 기회 마련 - 도농 기관 간 유대형성 및 협력 강화 -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계 구축

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1)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화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평가요소, 지표로의 반영 등 정책적 활성화 노력에 의한 현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유치원의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지역사회 연계부분이 평가 요소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실행하게 됨.
- 평가지표로 있어서 하게 되었지만, 일단 시작해보니 더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게 되었다는 교사의 의견을 통해, 평가요소, 평가지표의 관련 기준 강화가 다소 강제적 측면을 지니지만, 연계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

2) 연계 주체 간 필요성의 인식과 동기 부여

- 왜 협력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면 할수록 참여는 수월해질 수 있기에 연계에 참여하는 주체인 원장, 교사, 부모,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를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필요성의 인식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로 막상 연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효과에 대한 체감이 쉽지 않으므로 이를 위해 연계의 강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연계 사례의 공유, 실제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동기 부여가 필요함.
- 유아의 발달에 지역사회의 협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에 대한 안내 등을 TV,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과 참여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평가요소, 평가인증지표로 반영 또한 동기화 방안 중 하나임.

3) 연계에 대한 안내 및 성공적 경험의 공유 기회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연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통로 구축이 필요함.
- 최근 지자체 중심으로 이러한 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연계 사례를 공모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관내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배포하거나, 온라인에 탑재하여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 연계는 지역사회 마다 자연환경 등 제반 여건이 다르고, 지역사회 기관과 인적 물적 자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과 시도청, 시군구청 보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시 연계 필요성 및 효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과 구체적 실행 방안의 안내, 우수사례 소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제언함.

4)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장 및 교사 역량강화

- 연계를 형성하고 조직하고 효율화하는 역량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기관이 지역사회 연계 주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원장과 교사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역량이 필요함.

-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활동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교사와 원장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장학이나 컨설팅 등의 기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자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조력할 전문가를 발굴하여 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순회 장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제안함.

5) 지역사회 내 유사 기관 간 연계 역량 강화

- 현장 방문 시 지역사회 연계가 우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특징은 원장의 연계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원장 자신이 지역사회 내에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것임.
- 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유치원연합회나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모임 등 원장의 자조모임을 통한 공유 기회 확장과 논의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려됨.

6) 국가수준의 지역사회 자원 정보 허브(Hub)의 구축 : 가칭)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 연계 지원센터' 설립·운영

- 육아지원기관의 교직원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할 때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어려움은 세 가지로 요약됨. 우선,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 자체에 대한 정보 부족, 다음으로 현존한 자원에 대한 활용 방법에의 이해 부족, 다음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에의 제한 등임.
- 공공부문에서 육아지원기관은 활용 가능한 기본적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보와 활용방법 및 확장 등에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가칭) '육아지원기관 지역사회 연계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구와 사무를 관장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통해 개별 육아지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중복과 비효율로부터 초래되는 행·재정적 손실을 절감하고, 활용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차활용도 효과로 기대할 수 있음.

7) 도농(都農) 유아교육·보육 기관 간의 유대 형성 및 협력 강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연계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도시지역도 활용 가능한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음.
- 도농 유아교육·보육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 정보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의 한계와 지역 간 활동 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기존에 도시와 농촌지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류를 통해 교육·보육 활동을 교환하는 사례는 있지만, 기관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관의 개별 접근이 아닌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혹은 시·군청 단위에서 기관 간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8) 유아교육·보육 기관과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계 구축

- 인근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요한 연계 대상임. 초등학교는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의 졸업 이후 진학 할 기관이며,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재원 하는 경우도 있음.
- 우선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음. 초등학교 운동장의 사용, 과학실 등 특수교실의 사용 허용 등이 가능하고 또한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함께 기획할 수도 있음. 이와 더불어 방과후 교실이나 특별활동 내용이나 강사 인력에 대한 정보 공유도 가능함.
- 일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 가능한 활동을 통해 유아교육·보육 기관 유아의 초등학교 방문 기회가 늘어남은 향후 초등 진학 시 불안감을 감소하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9) 전문 인력으로 부서의 컨설팅과 지원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 연계는 숲 활동 산책, 지역 내 기관 방문 등 매우 국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장소 제공이나 물적 자원의 교류 등을 위주로 하는 제한적인 교류가 일반적인 상황임.

- 현장의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를 이끌어 내야하는 지에 대한 정보 부족을 호소함. 다양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힌 전문가의 개입, 교사 연수 컨설팅을 필요로 함.
- 이와 더불어 기관에서의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 리스트와 연계 방법에 대한 안내와 기관과 지역사회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사가 방문이나 참여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함.

10)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대의 유아를 교육·보육하며, 교사의 전문성이나 교육·보육활동 등 협력을 통해 공유할 내용이 많으므로 지역사회 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함(권미경 외, 2014. p.11).
-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영차프로젝트’라는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에 걸쳐, 전국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고, 특히 국가 수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운용을 중심으로 교사, 부모, 유아, 지원체계간의 협력 양상을 구체화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
- 이는 지역사회 내 유아교육, 보육기관, 지자체 지원 체계의 협력적 연계가 유아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상생적 효과를 발현하고 있음을 보여줌.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및 지원체계 중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자체가 기획해 나갈 것을 제언함.

● ●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권미경·윤재석·조혜주(2015). 3-5세 누리과정의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5.
-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VI).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24.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5).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29.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및 인성 교육 개선 방안

김은설

1. 문제제기
 2.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 현황
 3. 인성 측정 도구 개발
 4.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5. 정책 제언
-

요약

- 본 이슈페이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보육하는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인성 수준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개발된 인성측정 도구는 보편적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 등 2개 영역에서 8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총 9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도구에 대해 .98 이상의 신뢰도와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가 확인되었음.
- 영유아 교사의 인성교육은 양성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투여되고 있지는 못하며,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 실태 조사에서는 영유아 교사가 심리적 건강이나 자기조절 부분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인성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문제제기

- 최근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가장 큰 문제가 된 사건 중 하나는 몇몇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유아 학대와 폭력 관련 사태이며 이는 영유아를 둔 부모뿐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움과 경악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음.
 - 일련의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제화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됨.
-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아동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임.
 - 영유아를 교육·보육하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교사로서의 인성과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 받을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교사로서 그들의 인성이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이슈페이퍼는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교사 인성 평가 도구 개발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원고임.

- 영유아 학대 사건에 대해 교사의 인성만이 유일한 요인이라기보다 다른 측면 즉 보육 교사의 근무 환경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논의도 있음. 그러나 환경적 어려움 또한 교사의 정서조절 능력이라는 측면의 인성과 연결되어 학대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으므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전혀 간과될 수는 없을 것임.
 - 교사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고 근무를 어렵게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 즉, 쉬는 시간 없이 일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이 제한된 영유아를 장시간 계속 돌보아야 하는 직업상의 특성은 인간으로서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가져가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교사의 기질에 따라 자제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영유아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유아대상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교사가 충실하게 교육·보육을 이끌기 위해서, 즉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먼저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해설서를 보면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 대해 첫 번째로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를 언급하고 있음(보건복지부·교육부, 2014). 무엇보다 바른 인성을 가장 먼저 꼽고 있음에 누리과정 전문가와 교사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으로 교육과 보육을 받는 유아들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지대함. 발달상 이 시기 영유아는 생활습관, 행동방식, 상황에 대한 이해 등을 모방(modeling)을 통해 대부분 습득하게 되며 교사는 그 모방의 가장 주요한 대상 중 하나이기 때문임.
 - 발달심리학자인 Berk는 모방이 유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도구라고 함(Berk, 2006: 480). 그런 점에서 영유아를 지도하는 교사는 그 어느 연령을 가르치는 교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책무성을 느껴야하는 존재임.
- 영유아교사의 인성적 측면이 보여주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 도구가 요구됨.
 - 지금까지 개발된 유치원 또는 보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평가 검사는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제 교사가 아니라 앞으로 교사가 될 대학생들 즉,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도구가 대부분이었음(김정환·남현우·염시창·임진영, 2012; 김혜경, 2012; 조운주, 2014).

- 예비 교사 대상 인성 평가 도구는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임용에 적절한지를 미리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됨.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예비 영유아교사는 재학 기간 중 1~2회 이루어지는 인성 검사를 손쉽게 통과하여 교사로서 임용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임용 이후에는 그들의 인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전혀 없음.
 - 현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은 문제가 없는지, 학창 시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성적 문제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두드러지는 점은 없는지 등 측정 도구를 통해 현직 교사들의 인성에 대한 재점검과 이를 근거로 한 교사 지원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함. 이러한 과정이 결국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음.
- 영유아교사의 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인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가, 현직교사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의 개선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함.
- 본 연구는 현직 및 예비 영유아교사의 인성 실태를 측정하기 위한 인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성의 특성을 측정해 보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근거하여 인성 교육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

2 영유아 교사 인성교육 현황

가.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1) 대학 교수 대상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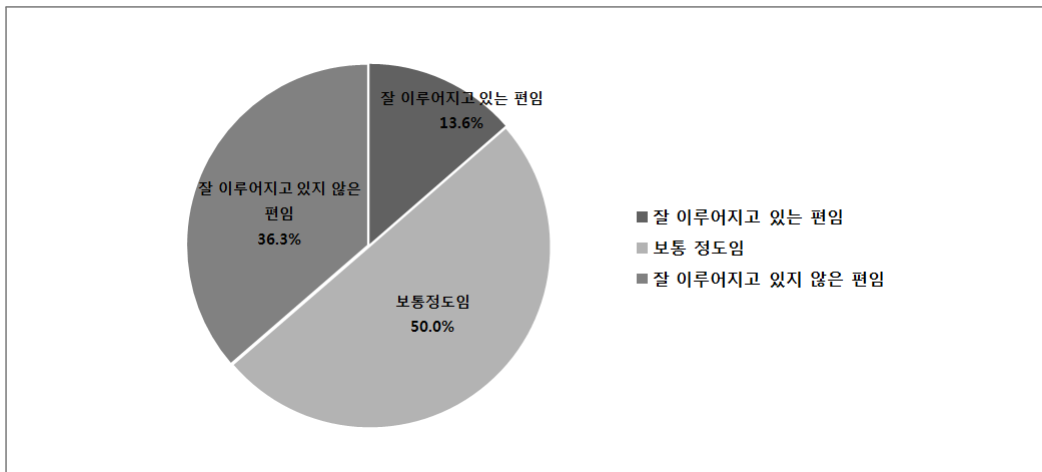
- 전국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분류하고 4년제와 2, 3년제를 고려하여 총 22개를 표집하고, 해당 학과 재직 대표 교수 1인을 각각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들에게 각 대학의 영유아교사 교육과정에서의 인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의견을 질문함.

- 유아교육 또는 보육교사 양성 학과에서 교사의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이 때 인성 교과목이란 교사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직접적인 교수와 학습, 발달, 지도 방법 등 지식에 관한 수업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인성, 인간으로서 학습자 및 영유아, 부모 등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성찰 및 소양 교육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 대학 교수에게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유무를 질문한 결과, 91%(20명)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관련 교과목이 있다고 응답함.
 -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전공 필수과목인 ‘유아교사론’에서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 유아교사의 역량, 교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음.
 - 2013년부터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교직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유아교육의 이해’, ‘유아교육사상’, ‘아동생활지도’, ‘교육의 이해와 교육심리’, ‘현대 사회와 윤리 문제’,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인성 관련 교과목이 있었음.
 - 보육 관련 학과의 경우, ‘보육교사론’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질, 유능한 보육교사, 직업 윤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이외에도 ‘보육학개론’, ‘보육실습’, ‘유아교사론’, ‘아동생활 지도’ 등의 과목이 인성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그러나 140학점 이상의 졸업 필수 이수 학점 중 각 학교별로 교사 인성 교육 관련 과목은 1~2개에 지나지 않고 있고 평균 1.8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즉, 2~6학점 정도를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학별로는 개설 교과목이 최소 0개부터 최대 4개까지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22개 대학의 평균은 1.82(표준편차 1.18)과목이었음.
 - 인성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3, 4년제 유아교육학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사 양성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 계열의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교사의 소양, 태도 관련한 교직과목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표 1〉 인성 교육 관련 대학 교과목 설치 현황

인성교육 개설 과목 수	해당 대학 수	비율(%)	대학 특성(수)
0 과목	2	9.1	4년제 아동복지(1), 4년제 유아교육(1)
1 과목	8	36.4	3년제 아동보육(1), 4년제 아동관련 학과(4), 4년제 유아교육(3)
2 과목	7	31.8	4년제 아동학(4), 4년제 유아교육(3)
3 과목	2	9.1	4년제 유아교육(1), 3년제 유아교육(1)
4 과목	3	13.6	4년제 유아교육(3)
계	22	100.0	

□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의 인성 교육 현황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13.6%(3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50%(11명)은 ‘보통정도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36.3%(8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편임’으로 응답하였다(그림 1 참고). 즉, 인성 교육이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비율이 10%대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인성 교육 실시 적절성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인식 정도

□ 인성 교육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으로는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이 부족하며, 모든 교과목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은 이론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장실습과정, 교육봉사 등을 통해 인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대학 교수들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었음.
 - 첫째는 이론이나 지식 전달 수업이 전부인 현실을 개선하여 인성 교육 관련 교과목의 수를 늘리거나 현행 교과마다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두 번째의 상반된 입장은, 인성은 교과목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고 단기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봉사활동이나 아동 대상 실습의 강화 등으로 스스로 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수는 현재는 인성 교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교과목이든 실험적 습득이든 이에 대한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에는 동의하고 있음.

2)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조사

-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총 1,600명으로 각각 800명씩임. 이들은 전국 표본으로서, 연령별로는 50대(8.0%)를 제외하고 20대(35.0%), 30대(31.4%), 40대(25.6%)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 학력으로는 4년제 이상 졸업이 55.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역과 경력 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설립 유형(공립, 사립 등)이 비슷한 분포로 포함됨.
-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등에서 인성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절반 정도(유치원 50.3%, 어린이집 48.5%)가 인성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응답함.
 - 인성검사를 받은 시기로는 기관유형이나 교사 경력에 따라서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로 1, 2학년 등 저학년기에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에서 영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대해 수업을 듣고 공부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72.9%)과 어린이집(70.5%) 교사 모두 70%이상이 '그렇다'라고 응답함. 그러나 대학에서 교사 인성과 관련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유치원(54.8%)과 어린이집(54.5%) 교사 모두 과반수 정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비율 또한 26.3%~29.6%로 나타남.
-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대학 등에서 인성 교육 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결과, 기관유형, 교사 경력, 학력과 무관하게 모두에서 80%이상의 높은 비율로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나. 현직 교사 교육¹⁾에서의 인성교육 실태와 요구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조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임용된 후에 교사 연수 또는 재교육 과정에서 인성 교육 관련 수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수업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78.8% 정도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교사가 81.0%로 어린이집 교사 76.5%보다 조금 높았음(표 2 참고).

〈표 2〉 교사 임용 후, 현직교육에서 인성 교육 과정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chi^2(df)$
전체	78.8	21.3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81.0	19.0	100(800)	4.84(1)*
어린이집	76.5	23.5	100(800)	

* $p < .05$

- 인성 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한 주관 기관을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온라인전문교육기관(28.6%), 대학 등 교육기관(13.3%)의 순이었음.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0.6%로 인성 교육 관련 연수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이 20.8%, 대학 등 교육기관 15.8%, 시·군·구청 등 지자체가 13.6%였음.
- 교사 현직교육 또는 연수에서 인성 교육 수업이 필요한지 의견을 질문한 결과 91%이상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4.8%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기관유형별로 유치원 교사(3.76점)가 어린이집 교사(3.70점)보다 교사 인성 교육 수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2년 미만의 교사(3.62점)보다 10년 이상의 교사(3.79점)가 필요성 인식률이 높았음.

1)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현직에 종사하는 동안 받게 되는 연수, 보수교육, 재교육 등의 과정을 의미함.

□ 교사 연수에서 인성 교육 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학 분야 교육이 42.8%,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33.4%, 사회성증진 프로그램 15.8%,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 3.6%, 인문학적 소양교육 3.4%의 순이었음.

-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경력이 2년 미만의 신입 교사들은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직무교육, 정신건강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반면 10년 이상 경력직 교사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요구가 많았음.
- 학력별로도 고졸 등 학력이 낮은 경우 교육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은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고).

〈표 3〉 교사 현직 교육에서 요구되는 인성 교육의 주제

단위: %(명)

구분	교육학 분야	정신 건강 증진	신체 건강 증진	인문학 소양	대인 관계	그 외	계(수)	$\chi^2(df)$
전체	42.8	33.4	3.6	3.4	15.8	0.9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41.0	32.6	3.8	4.6	17.0	1.0	100(800)	10.51(5)
어린이집	44.6	34.3	3.5	2.1	14.6	0.9	100(800)	
교사 경력								
2년 미만	47.7	36.0	6.1	0.5	8.6	1.0	100(197)	57.68(15)***
2년~5년 미만	44.4	36.0	3.7	2.9	12.6	0.5	100(381)	
5년~10년 미만	44.6	34.3	2.6	1.4	15.8	1.2	100(493)	
10년 이상	38.2	29.9	3.6	6.6	20.8	0.9	100(529)	
학력								
고졸 이하	53.4	34.5	1.7	0.0	10.3	0.0	100(58)	76.25(20)***
2년제 대학 졸업	48.4	31.7	2.9	1.6	14.9	0.5	100(382)	
3년제 대학 졸업	49.6	29.7	2.5	1.8	15.2	1.1	100(276)	
4년제 대학 졸업	40.1	35.6	4.9	3.0	15.3	1.2	100(674)	
대학원 졸업 이상	29.5	34.3	2.9	11.0	21.4	1.0	10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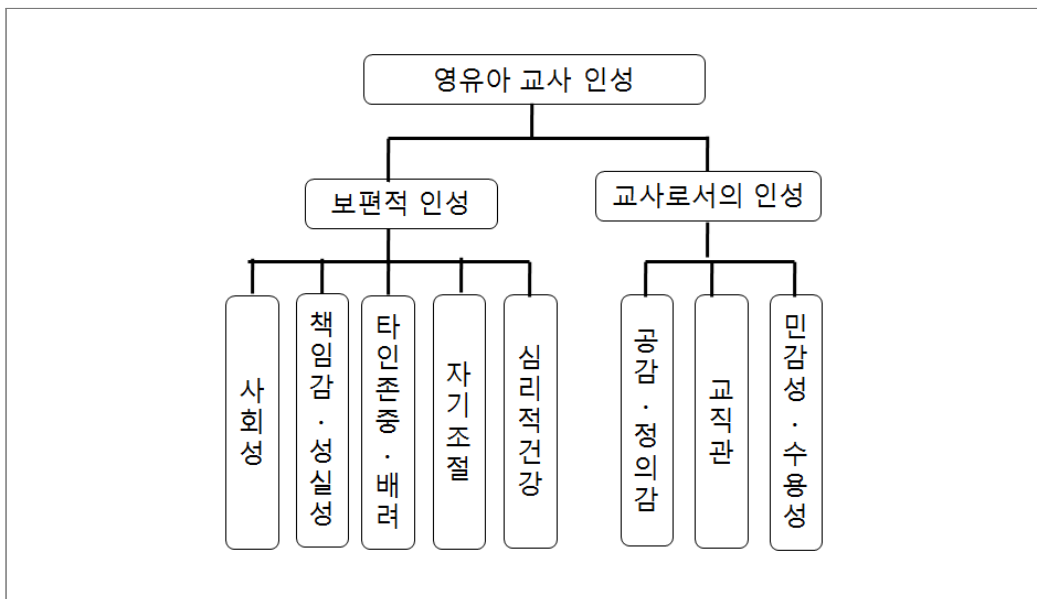
*** $p < .001$

3 인성 측정 도구 개발

- 여러 선행 연구자들은 교사의 인성검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성의 구성 개념을 보편적 인성과 교직 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김경령과 서은희(2014)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검사를 개발하면서 주요 구성 개념을 보편적 인성과 교직인성으로 구분해야 함을 제시함.
 - 김순환·박선혜·남옥선(2014) 또한 일반적인 인성과 교직인성으로 구분하여 예비유아 교사에 대한 교직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에 필요한 인성은 보편적 인성과 교직 인성이 있으며, 각각은 여러 구인으로 측정될 수 있음.
 - 김경령과 서은희(2014)는 보편적 인성으로 자기조절, 사회성, 도덕성, 책임감을 꼽고 교직인성으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교육적 신념을 들었음.
 - 김순환 외(2014)는 기본인성으로 존중, 책임감,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이입, 자기통제를 들고 유치원 교원의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교직 인성으로 유치원교사의 윤리 강령, 사회인지의 중요성을 꼽았음.
 - 김혜경(2012)은 보육교사 적성으로 대인관계능력, 수용성과 민감성, 창의성과 자기개발, 영유아에 대한 친화력 등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고, 서경혜 외(2013)는 내적인성에 자기조절, 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을 포함하고 사회적 인성에는 존중,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공동체적 인성에는 윤리의식, 정의감, 책임감 등을 포함함.
- 연구자에 따라 인성에 대한 다양한 구분 범위와 인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각각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요소가 얼마나 선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적 선호 분석도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정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 요소들을 보편적 인성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연구문헌별로 나열함.
-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성에 포함되는 것은 자기조절, 책임감, 반성적 실천, 성실성, 도덕성, 봉사·희생·이타성, 신뢰, 인내, 사회성, 의사소통, 공감적 이해, 주도성, 열의, 사려성·타인존중, 심리적 건강, 협동·협력, 창의·응용력 등 22개의 요소임.

- 검토된 19개 문헌 중 8개 이상의 문헌에서 인성의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8개 요소를 1차적으로 선정함. 그리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정의적 개념의 인성에 충실하도록 ‘적성’에 해당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응용력 등의 요소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반성적 실천, 신뢰, 유머·위트, 인간존중을 함께 제외하였음.
 - 봉사·희생·이타성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되는 비슷한 용어인 ‘배려’로 수렴하였고 타인존중과 의미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같은 요소로 포함하였음.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은 실제 문항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를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여 책임감·성실성으로 병렬표기 하였음.
 - 결과적으로 보편적 인성은 자기조절, 자존감, 책임감·성실성, 도덕성, 인내심, 공감적 이해, 주도성, 심리적 건강 등 8개로 좁혀졌음.
-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인성, 즉 교직인성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뽑아 보면, 주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열정, 영유아에 대한 사랑, 교육적 신념, 지식습득, 자기발전, 발달에 대한 지식, 지도성, 직무수행태도, 자긍심, 탐구력, 학습준비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중 인성보다는 적성에 가까우면서 선행연구에서의 등장 빈도가 낮은 학습준비, 탐구력, 자긍심, 직무수행 태도, 전문성, 지식습득, 지도성 등을 1차적으로 제외함.
 -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요소인 자기발전(계발) 또한 정의적 영역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였음. ‘학생 이해 능력’은 빈도가 높은 편이나 앞서 선정한 ‘공감적 이해’와 의미 중복이 있어 역시 제외하였고, ‘학생에 대한 열정’은 빈도가 낮으나 영유아에 대한 사랑과 의미 중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보편적 인성에서 열의, 열성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영유아교사에 적절한 영유아에 대한 열정으로 통합하여 수용하였음.
 - 검사지의 실제 문항을 확인한 결과 교육적 신념과 소명의식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고, 둘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소명의식을 선택하여 요소의 수를 줄였음.
- 선행연구 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영유아교사 인성 구성 요소를 유아교육, 아동학, 교육학 전공 교수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에 대해 자문회의와 의견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최종적인 영유아교사 인성 요소를 결정함.

- 보편적 인성과 교사로서의 인성의 2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정리된 인성 구성요소는 보편적 인성에는 자기조절, 자존감, 책임감·성실성, 도덕성, 사회성, 타인존중·배려, 심리적 건강이 포함되었고, 교사로서의 인성에는 교직원(소명의식), 영유아에 대한 열정, 주도성, 수용성, 민감성, 인내심, 공감적 이해 등 7개 요소가 포함됨.
- 이후 각 요소별로 문항 초안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적절성 검토,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최종 94개 문항을 확정하였음.
- 요인분석에 의해 최종 8개 요인을 확인하여 각각 민감성·수용성, 심리적 건강, 사회성, 책임감·성실성, 타인존중·배려심, 교직원, 자기조절, 공감·정의감으로 명명함.
- 최종 8요인 94문항의 Cronbach's α 는 .961이었으며, 도구의 전체 및 각 하위요소간 상관계수는 .59~.89로 적절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이에 따라 문항내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수준을 확인하였고, 더불어 기존의 도구인 '교사효능감 척도'(김연하·김양은, 2008)와 '예비 교사 교직 인성 평가 도구'(서경혜 외, 2013)와의 상관 계수를 통해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음. 이 때 두 척도와의 상관은 각각 .74와 .80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인되었음.



[그림 2] '인성 평가 도구' 구성 요소 및 영역

4 영유아 교사의 인성 측정

- 본 고에서는 김은설 외(2015)가 제작한 ‘영유아 교사 인성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60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사의 인성 수준을 살펴보았음.
- 현직 교사 대상 인성 평가 도구의 하위요인별 전체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성 요인별 평균은 모두 5점 척도 중 3.25~4.04점 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매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지는 못하고 대부분 ‘높은 편’ 또는 ‘보통’ 정도의 인성 요소별 수준을 보여주었음.
 - 교사로서의 인성 구성 요소 중 공감·정의감이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전체 문항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교직원(소명 의식)은 4.03점, 민감성·수용성 4.02점, 책임감·성실성 3.97점, 타인존중·배려 3.94점이었음.
 - 우울증, 편집증 등을 측정하는 심리적 건강(3.38점)과 자기조절(3.25점) 점수가 다른 인성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함의함. 대체로 교사로서의 인성 영역보다는 보편적 인성 영역의 요소 점수가 낮은 편임.

<표 4> 영유아교사의 인성 요인별 문항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점, 문항, 명

하위요인명	평균	표준편차	문항수	100점 환산점	사례수
민감성·수용성	4.02	0.65	24	80.4	1,600
심리적 건강	3.38	0.95	16	67.6	
사회성	3.61	0.80	6	72.2	
책임감·성실성	3.97	0.74	13	79.4	
타인존중·배려심	3.94	0.68	11	78.8	
교직원(소명 의식)	4.03	0.76	10	80.6	
자기조절	3.25	0.91	6	65.0	
공감·정의감	4.04	0.72	8	80.8	

- 무엇보다 영유아를 대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사료되는 ‘자기조절’ 점수가 낮은 것은 현직 교사 교육에서 이를 특히 관심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자기조절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여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행동억제·충동억제·만족지연·유혹에의 저항’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요소로는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소명의식이 24.1%로 가장 높았고, 책임감이 14.0%, 자기 조절이 11.9%로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사회성(1.6%)과 민감성(1.4%)은 다른 인성 요소들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비율이 낮았음 (표 5 참고).

〈표 5〉 영유아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 구성 요소

단위: %(명)

구분	자기 조절	자존감	책임감	성실성	도덕성	사회성	타인 존중	배려	심리적 건강	소명 의식	수용성	민감성	인내심	공감 능력	기타	계(수)
전체	11.9	7.1	14.0	5.6	3.6	1.6	4.1	6.3	4.2	24.1	3.2	1.4	6.7	6.2	0.1	100(1600)
기관유형																
유치원	9.3	7.5	14.3	5.0	4.4	1.6	3.5	7.0	4.4	24.4	3.8	1.0	6.9	7.0	0.1	100(800)
어린이집	14.5	6.8	13.8	6.1	2.8	1.6	4.8	5.6	4.0	23.9	2.6	1.8	6.5	5.4	0.0	100(800)
교사 경력																
2년 미만	13.2	6.6	14.2	3.0	4.1	1.0	4.1	3.6	2.5	20.3	2.0	2.5	12.7	9.6	0.5	100(197)
2-5년	12.9	5.8	17.3	4.7	3.1	1.3	5.5	4.2	4.2	19.9	3.1	1.6	10.0	6.3	0.0	100(381)
5-10년	11.6	6.3	14.2	6.5	4.7	1.6	3.9	7.5	5.1	24.1	3.4	1.6	4.5	5.1	0.0	100(493)
10년 이상	11.0	9.1	11.3	6.2	2.6	2.1	3.4	7.8	4.0	28.5	3.4	0.6	4.2	5.9	0.0	100(529)

*** $p < .001$.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본인이 영유아교사로서 적절한 인성을 갖추었다고 보는지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을 충분히 갖추었음에 대한 자신감은 별로 없는 듯이 보임.
- 전체적으로 교사로서의 인성을 ‘조금 갖추고 있는 편임’이 47.0%, ‘충분히 갖추고 있는 편임’이 50.9%로 나타남. 그러나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표 6참고).

〈표 6〉 영유아교사로서 적절한 인성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자기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거의 갖추지 못함	별로 갖추지 못함	조금 갖추고 있음	충분히 갖추고 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0.2	1.9	47.0	50.9	100(1600)	3.49	0.55	
기관유형								
유치원	0.3	1.3	44.6	53.9	100(800)	3.52	0.54	2.61**
어린이집	0.1	2.6	49.4	47.9	100(800)	3.45	0.55	
교사 경력								
2년 미만	0.0	4.6	55.3	40.1	100(197)	3.36 _a	0.57	9.50***
2년~5년 미만	0.0	1.3	54.1	44.6	100(381)	3.43 _{ac}	0.52	
5년~10년 미만	0.0	2.2	47.1	50.7	100(493)	3.48 _{bc}	0.54	
10년 이상	0.6	1.1	38.8	59.5	100(529)	3.57 _b	0.55	
학력								
고졸 이하	0.0	0.0	41.4	58.6	100(58)	3.59	0.5	7.91***
2년제 대학 졸업	0.0	3.7	51.3	45.0	100(382)	3.41 _a	0.56	
3년제 대학 졸업	0.0	2.5	57.6	39.9	100(276)	3.37 _a	0.53	
4년제 대학 졸업	0.1	1.3	43.0	55.5	100(674)	3.54 _b	0.53	
대학원 졸업 이상	1.0	0.5	39.5	59.0	100(210)	3.57 _b	0.56	

주: Scheffe 검증 결과로 a, b와 c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5 정책 제언

- 성인의 인성이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성 특히, 교사라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성은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안을 제시함.
- 발달 초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영유아와 관련한 학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에 대한 인성 교육은 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개선되고 강화되어야 함.

- 도덕심리학자인 Kohlberg는 인간의 도덕성은 6개의 단계를 통해 평생동안 발달한다고 하고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성 발달 수준 측정과 논거 토론을 통한 도덕성 교육 방법을 제시함(Power, Higgins, & Kohlberg, 1989). 성인의 인성은 변화가 어려운 실재이지만 Kohlberg의 전생애적 발달 이론을 떠올린다면 인간은 일생을 통해 여러 경험과 함께 변화할 있는 가소성을 지녔음을 수용하여 인성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봄.
- 영유아교사가 바람직한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비단 교육적 측면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처우 등 교사를 둘러싼 근무환경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책 제안에는 이를 함께 고려함.

가. 인성 검사 실시 및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표준화된 영유아 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성 검사의 결과와 인성 교육 내용을 연결함으로써, 증거기반한 교사 개인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성 평가 도구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은 각 영역별로 프로파일 형태의 점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함. 그러므로 자신에게 부족한 인성의 측면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영역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함.
- 만일 인성 요소 중 공감능력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면 공감, 민감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또한 ‘심리적 건강’에서 문제 발견된다면 상담이나 정신과적 진료 등 전문가가 개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 담당이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있어야 함.
- 조사의 결과가 보여 주듯이, 교사의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요구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이 다르므로 각 경우에 적절한 내용을 선별하여 필요로 하는 대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인성 평가 도구에 의한 결과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별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교사 인성 교육을 위해 준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재교육 전문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 물적 확충이 필요함.

나. 인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제도적 유도

- 전문적 인성 측정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부 지원 기관의 역할로 부과될 수도 있음. 교육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교사가 소속한 기관, 교사 개인 등이 나머지 일부를 공동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 평가와 교육의 중요성을 지각하게 해야 할 것임.
- 영유아교사 인성검사와 인성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혹은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승급교육, 유치원교사 자격연수 등과 연계하여 점수 과락 등이 적용되도록 하거나 가점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다.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 및 관리 강화

-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을 위한 접근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직 교사 교육 전문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인성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현직 교사에 대한 인성 측정은 임용 첫 해와 5년 이전 등 임용 초기에 우선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특히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은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현직 교사의 인성 측정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를 할 수 있음. 교육청이나 지자체 중심으로 인성 검사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라. 교사 양성 과정에서 인성 관련 교과목의 확충

- 대학이나 보육교사교육원 등 영유아교사의 양성 과정과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성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과 관련한 교과목, 특히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 교사로서의 가치관 등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성적 실천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교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의 경우 72학점 중 '보육교사론' 1개 과목만이 한두 장(chapter)에서 교사직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이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교사직과 관련한 과목의 확대를 검토해 보아야 함.

- 3급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는 ‘보육교사론’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사로서의 인성 함양 측면에서 부족함이 예측됨. 그러므로 3급 양성 과정에서도 보육교사론 과목의 이수를 필수로 요구할 것이 고려되어야 함.

마. 교육 실습 시간 확대 및 내실화

-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일찍부터 참여해볼 수 있도록 실습 시간을 확대하고 이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양성기관이 철저히 하도록 함.
- 인성에 대한 평가와 지도는 지필식 문항뿐 아니라 실제 실습과정에서 더 극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 영유아교사로서의 윤리 인식 등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실습 방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음.
- 실습 강화를 위해서는 실습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경력이 오랜 원장 등으로 하여금 예비 교사들의 실습에 대한 인성 측면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긍정적인 인성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함.

바. 대학별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인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
- 영유아 기관,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원장, 동료, 부모 등), 윤리적 문제, 영유아를 돌보면서 접할 수 있는 어려움 등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는 교과목으로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예비 영유아교사 캠프, 현장 전문가와의 대화 등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방식으로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사.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인성개선 지원

- 인성 점수에 교사의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됨²⁾. 즉,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업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김은설 외(2015) 연구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영유아교사의 근무 시간 중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함. 휴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임.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물론 영유아를 종일 돌보아야 하는 교사의 경우 일정 시간마다 개인적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그럼에도 교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법 조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용자는 최대한 해야 하며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일과 중 담임 교사의 휴식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이 시간을 대체 인력(원장, 보조교사 등)이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함. 그러나 영유아반 담임이 30분 이상씩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므로, 2시간마다 10-15분씩 나누어 쉬도록 하고 한 번에 20분을 넘지 않도록 함.
 - 근로 시간 중의 휴식은 일의 능률을 높이고 휴식 시간 이후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집중력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휴게 공간이 별도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이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사가 다수의 담당 영유아로부터 이격해 있는 시간은 필수적임. 이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사회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함.
- 지원 인력이 투입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덜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교사의 업무를 분석하여 분류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교사 외에 조리종사자(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음.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최소한 교사 업무와 취사부 업무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직종은 반드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 그러므로 취사부 뿐 아니라 청소인력, 영아 대소변 처리 지원 인력, 영유아 식사 도우미 인력 등 교사가 아닌 비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도록 인력 채용과 이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교사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영유아교사의 인성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현재 유치원에서 활용하는 ‘3세대 하모니’ 사업이나 일부 지자체의 ‘보육도우미’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 ● 참고문헌

- 김경령·서은희(2014). 예비 교사의 교직인성 자기점검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117-139.
- 김순환·박선혜·남옥선(201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교직인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교육학논집, 18(2), 339-363.
- 김연하·김양은(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은설·김길숙·이민경(2015). 영유아 교사 인성 평가 및 교육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환·남현우·염시창·임진영(2012). 교직 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혜경(2012). 보육교사 적성검사 도구 개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교육부(20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서경혜·최진영·노선숙·김수진·이지영·현성혜(2013). 예비 교사 교직 인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과학연구, 44(1), 147-176.
- Berk, L.(2006). *Child Development*, 7th ed.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Power, F. C., Higgins, A., & Kohlberg, L.(1989).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 활용실태 및 충원의 어려움

최효미

1. 문제제기
 2.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 활용 실태
 3. 보조교사 충원요구 및 충원의 어려움
 4.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육·교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지원 인력을 필요로 함.
- 어린이집의 경우 총원이 시급한 1순위 지원 업무로 보조교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61.5%)을 차지했으며, 유치원의 경우에도 28.3%의 기관이 1순위로 보조교사의 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의 65.5%와 유치원의 58.0%는 보조 교사의 활용이 교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보조교사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직자의 희망 급여 수준이 높아 활용이 어렵다(어린이집 37.6%, 유치원 38.3%)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됨.
- 양질의 보조교사 수급을 위해 보조교사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이 요구됨.

1 문제제기

-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육·교육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지원 인력을 필요로 함.
 - 그러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직무를 교사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가 교사에게 부여됨으로써 교사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위험이 높음(김은영·장혜진·조혜주, 2013).
 - 교사의 근로 의욕 저하 및 과중한 업무 부담은 보육·교육의 질적 하락을 동반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에게 부과된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육·교육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 인력 배치가 요구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방안(최효미·이정원·이동하, 2015)」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정부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및 보조교사 확대 정책을 추진키로 함.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CCTV설치와 함께 보조교사의 확대를 추진함.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 ②항¹⁾의 개정을 통해 보조교사 배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러나,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음.
- 본고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조교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현재 국가 통계수준에서는 보육·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통계가 미비하여, 실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조교사 활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단, 본고의 보조교사는 전일제(주 36시간이상)로 일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고, 주 36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방안』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본고에 활용된 자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500개 기관의 시간제 지원인력 활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의 III장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2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보조교사 활용 실태

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실태

1) 어린이집 교직원 현황 및 보조교사 활용 실태

- 먼저, 전반적인 어린이집 인력 구성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의 활용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함.

1)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등을 둔다(2015.5.18.일 개정).

- 어린이집의 기관 당 평균 전일제 교직원 수는 9.49명으로, 그 중 전일제 교사가 기관 당 평균 7.42명,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가 1.38명이었음²⁾.
- 어린이집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직원의 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인력의 증가는 교사 뿐 아니라,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도 함께 증가함.
 - 원아수가 81명 이상인 기관의 전일제 교직원 수는 평균 15.12명,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는 평균 2.78명임.
 - 학급 수가 6개 이상인 기관의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는 1.79명으로, 학급이 6개미만인 기관의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 0.82명에 비해 약 1명가량 많았음.
- 기관 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의 전일제 교직원 수가 평균 1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이 9.94명, 민간 8.43명 순이었음.
 - 하지만,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는 기관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1〉 어린이집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일제 근로자 수	전일제 교사 수	시간제 지원인력 수
전체	9.49	7.42	1.38
기관 규모			
20명 이하	4.76	3.65	0.47
21~39명 이하	6.93	5.47	0.73
40~80명 이하	9.04	7.07	1.17
81명 이상	15.12	11.83	2.78
F	101.215***	60.449***	52.248***
학급 수			
6개 미만	5.96	4.45	0.82
6개 이상	12.07	9.60	1.79
t	-15.357***	-13.291***	-6.901***
기관 유형			
국공립	9.94	7.79	1.44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11.18	8.78	1.52
민간	8.43	6.57	1.28
F	10.800***	7.933***	0.873

*** $p < .001$

주: () 안은 전체 관측치 수.

2) 그 외 전일제 지원 인력(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 기관 당 평균 0.69명가량 있었음.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시간제 지원 인력 646명 중에서 보조교사는 258명(39.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³⁾.

- 이 외에 식단 작성 및 조리업무 담당자가 19.8%, 특별활동 담당자가 11.1%였음.
- 기관 규모에 따른 시간제 지원 인력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아 수가 39명이하인 기관의 경우에는 식단 작성 및 조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원아수가 40명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교사의 비중이 높음.
- 보조교사의 비중은 20명 이하 기관에서 29.4%, 39명 이하 기관에서 22.4%인데 반해, 40명~80명 이하 기관의 경우 42.7%와 81명 이상 기관의 경우 43.4%였음.

〈표 2〉 어린이집 특성별 시간제 지원인력 활용 실태

단위: %

구분	보조 교사	특별 활동	아침돌 봄·야 간돌봄	식단작 성 및 조리	행정· 사무	청소· 청결	차량지 도업무	기타	계
전체	39.9	11.1	1.5	19.8	2.5	7.6	7.1	10.4	100.0
기관 규모									
20명 이하	29.4	17.6	0.0	26.5	2.9	5.9	8.8	8.8	100.0
21~39명 이하	22.4	17.1	1.3	32.9	1.3	3.9	14.5	6.6	100.0
40~80명 이하	42.7	14.7	2.2	13.8	3.1	8.4	8.4	6.7	100.0
81명 이상	43.4	6.4	1.3	20.3	2.3	8.0	4.2	14.1	100.0
$X^2(df)$	54.693(21)***								
학급 수									
6개 미만	29.5	24.7	0.6	19.9	4.2	6.0	8.4	6.6	100.0
6개 이상	43.5	6.5	1.9	19.8	1.9	8.1	6.7	11.7	100.0
$X^2(df)$	51.196(7)***								
기관 유형									
국공립	41.2	15.5	1.4	10.8	6.8	7.4	4.1	12.8	100.0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47.8	9.3	1.1	13.2	1.6	7.1	7.7	12.1	100.0
민간	34.8	10.1	1.9	27.8	0.9	7.9	8.2	8.2	100.0
$X^2(df)$	49.14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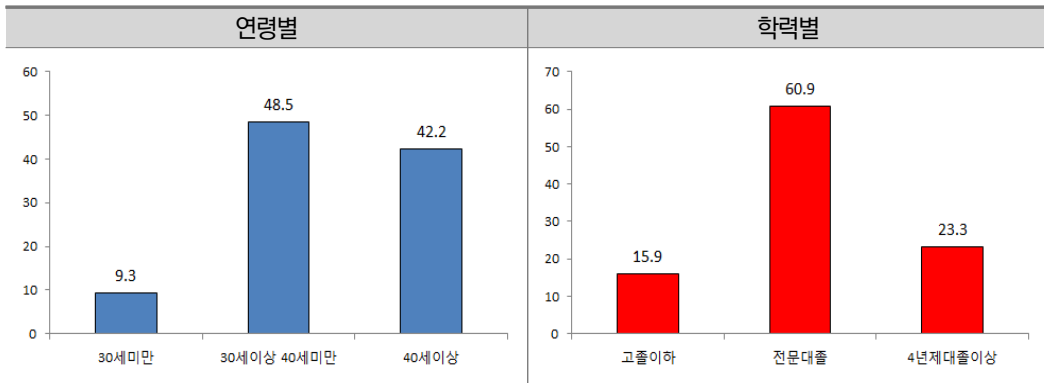
*** $p < .001$

주: 1) 시간제 지원 인력 전체(총 646명)에 대한 비중으로, 기관별로 최대 5명까지 시간제 지원인력 활용 실태를 응답함.
2) 기타 업무에는 치료 업무, 차량 운전 등 기타 업무가 포함됨.

3) 한명의 시간제 근로자가 다수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음.

2)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특성

-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48.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60.9%로 가장 많았음.
- 보조교사는 30대가 48.5%, 40세이상 42.2%, 30세미만이 9.3%였으며, 전문대졸이상 60.9%, 4년제대졸이상 23.3%, 고졸이하가 15.9%였음.



주: 1)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258명)에 대한 비중으로, 단위는 %임.

[그림 1]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인적 특성

-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보유한 자격증 중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보유자가 4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보유자가 33.6%였음.
- 이 외에 유아교육 2급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8.1%,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가 6.8%, 유아교육 교사 1급 자격 소지자가 1.0%, 보육교사 3급과 초·중·고등교원 자격 소지자가 0.7% 등이었음.

<표 3>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보유 유관 자격증 종류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초중고등교원	사회복지사	영양사·조리사	기타교육관련	기타
	1급	2급	3급	1급	2급					
보조교사	33.6	42.0	0.7	1.0	8.1	0.7	6.8	2.0	1.4	3.7

*** $p < .001$

- 주: 1) 기타 업무에는 치료 업무, 차량 운전 등 업무가 포함됨.
- 2)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258명)에 대한 비중임.

-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9일, 주당 평균 22.85시간이었음.
 -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하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이상인 경우도 22.1%, 4시간초과 6시간미만인 경우가 21.3%였음.

〈표 4〉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근로 시간

단위: 명, %, 시간, 일

구분	하루 근로시간			평균 시간	주당 평균 근로일 수	주당평균 근로시간
	4시간 이하	4시간초과 6시간미만	6시간 이상			
보조교사	56.6	21.3	22.1	4.67	4.9	22.85

*** $p < .001$

- 주: 1) 기타 업무에는 치료 업무, 차량 운전 등 업무가 포함됨.
2)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258명)에 대한 비중임.

나. 유치원 보조교사 활용 실태

1) 유치원 교직원 현황 및 보조교사 활용 실태

- 유치원에서 일하는 전일제 교직원의 수는 기관 당 평균 8.64명이었으며, 전일제 교사는 6.43명, 시간제 지원 인력 수는 2.33명이었음.
 - 유치원의 시간제 지원 인력은 기관당 평균 2.33명, 어린이집 1.38명에 비해 1명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 원아수가 많고, 학급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전체적으로 교직원 수가 많으며, 시간제 지원 인력의 수도 많아짐.
 - 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 유치원의 전일제 교직원 수가 많았으나, 시간제 지원 인력은 공립 유치원이 2.45명으로 사립 유치원이 2.26명에 비해 약간 많았음.
 - 전일제 교직원 수가 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 유치원에서 많은 것은 사립 유치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공립 유치원의 경우 병설유치원 등의 경우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해 주는 등 인력 요구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표 5〉 유치원 교직원 수

단위: 명

구분	전일제 근로자 수	전일제 교사 수	시간제 지원인력 수
전체 (500)	8.64	6.43	2.33
기관 규모			
50명 이하	2.75	2.31	1.43
51~100명 이하	6.62	4.98	2.30
101~150명 이하	11.61	8.46	2.77
151명 이상	18.66	13.63	3.35
F	256.397***	215.484***	9.475***
학급 수			
6개 미만	5.52	4.18	1.92
6개 이상	15.32	11.26	3.21
t	-16.356***	16.032***	4.098***
기관 유형			
공립	4.66	3.11	2.45
사립	11.33	8.69	2.26
t	139.252***	196.443***	0.562

*** $p < .001$

주: () 안은 전체 관측치 수.

〈표 6〉 유치원 특성별 시간제 지원인력 활용 실태

단위: 개, %

구분	누리과정 보조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아침돌봄·야간돌봄	식단 작성 및 조리업무	행정·사무 업무	청소·청결 관련 업무	차량 지도 업무	기타	계
전체	8.4	34.5	17.6	4.1	8.6	1.5	14.0	6.6	4.7	100.0
기관 규모										
50명 이하	3.1	42.1	22.6	0.5	8.2	0.5	15.4	4.6	3.1	100.0
51~100명 이하	6.1	34.3	16.7	4.6	10.9	2.1	13.1	5.2	7.0	100.0
101~150명 이하	8.5	38.7	14.5	7.2	6.0	2.1	14.0	6.0	3.0	100.0
151명 이상	17.3	22.8	17.8	3.0	8.4	0.5	14.4	11.4	4.5	100.0
$X^2(df)$					81.537(24)***					
학급 수										
6개 미만	5.0	35.8	20.1	3.3	9.4	1.5	14.6	5.1	5.1	100.0
6개 이상	13.8	32.5	13.8	5.3	7.4	1.3	13.2	8.7	4.0	100.0
$X^2(df)$					35.879(8)***					

구분	누리과정 정보조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 램	아침돌 봄·야간 돌봄	식단 작성 및 조리업 무	행정· 사무 업무	청소· 청결 관련 업무	차량 지도 업무	기타	계	
기관 유형											
공립	5.5	49.5	13.5	3.3	4.7	0.7	17.3	2.8	2.6	100.0	
사립	10.8	22.8	20.8	4.6	11.7	2.0	11.5	9.5	6.3	100.0	
$\chi^2(df)$					109.423(8) ^{***}						

*** $p < .001$

주: 1) 시간제 지원 인력 전체(총 961명)에 대한 비중으로, 기관별로 최대 5명까지 시간제 지원인력 활용 실태를 응답함.
2) 기타 업무에는 치료 업무, 차량 운전 등 기타 업무가 포함됨.

□ 유치원 특성별 시간제 지원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면, 방과후 과정 담당자가 34.5%로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프로그램 담당자가 17.6%, 청소·청결관련 업무 14.0%, 식단 작성 및 조리업무 8.6%, 누리과정 보조교사 8.4%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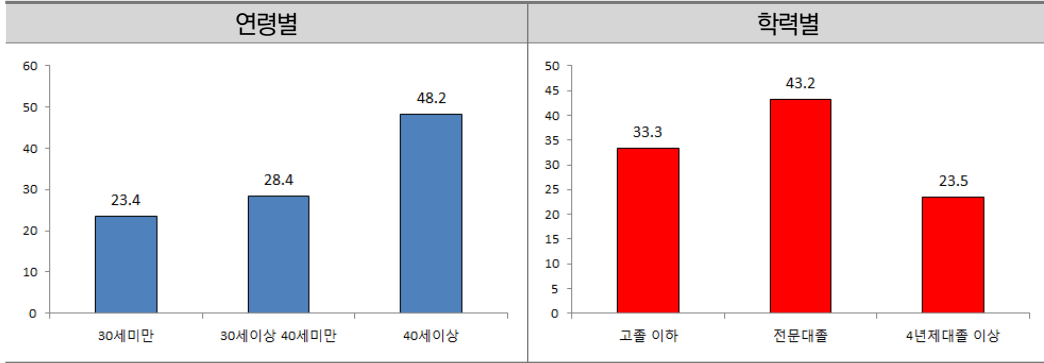
- 앞서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제 지원 인력 중에서 보조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에 반해, 유치원의 경우에는 보조교사의 비중이 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은 누리과정 이후 오후 시간대가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되므로,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비중이 높고, 오전 시간 중에 근무하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기관 규모가 커질수록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방과후 과정 담당자와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10.8%, 공립 유치원 5.5%로 사립 유치원에서 활용 빈도가 높았음.

2) 유치원 (누리과정)보조교사의 특성

□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40세 이상의 비중이 48.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전문대졸 학력자의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음.

-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30세이상 40세미만 28.4%, 30세미만이 23.4%였음.
-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들은 전문대졸이 43.2%, 고졸이하가 33.3%, 4년제 대졸이상 23.5%로,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비해 고졸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높음.

-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규 교육·보육과정 시간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의 업무가 다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주: 1)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81명)에 대한 비중으로, 단위는 %임.

[그림 2] 유치원 (누리과정)보조교사의 인적 특성

-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보유한 자격증은 유치원 교사 2급 자격 소지자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사 2급 자격 소지자도 38.5%인 것으로 조사됨.
 - 이 외에 보육교사 1급 7.7%, 유치원 교사 1급 5.8%, 초중고등교원 자격 1.9% 등이었음.

[표 7] 유치원 (누리과정)보조교사의 보유 유관 자격증 종류

단위: 명, %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교원	사회복지사	영양사·조리사	기타 교육 관련	기타
	1급	2급	1급	2급					
누리과정 보조	7.7	38.5	5.8	40.4	1.9	0.0	0.0	1.9	3.8

*** $p < .001$

- 주: 1) 기타 업무에는 치료 업무, 차량 운전 등 기타 업무가 포함됨.
- 2)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81명)에 대한 비중임.

-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74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5.05시간이었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근로시간대는 4시간초과 6시간미만인 경우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이상인 경우도 35.8%였으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5.14시간이었음.

〈표 8〉 유치원 (누리과정)보조교사의 근로 시간

단위: %, 시간, 일

구분	하루 근로시간			평균 시간	주당 평균 근로일 수	주당평균 근로시간
	4시간 이하	4시간초과 6시간미만	6시간 이상			
누리과정 보조교사	16.0	48.1	35.8	5.14	4.74	25.05

주: 누리과정 보조교사(총 81명)에 대한 비중임

3 보조교사 총원요구 및 총원의 어려움

가. 어린이집 보조교사 총원요구 및 총원의 어려움

□ 어린이집 기관장은 지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2.0%였으며,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이 53.4%,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24.6%였음.

- 지원 인력의 충분성에 대해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관 규모나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9〉 어린이집 특성별 지원 인력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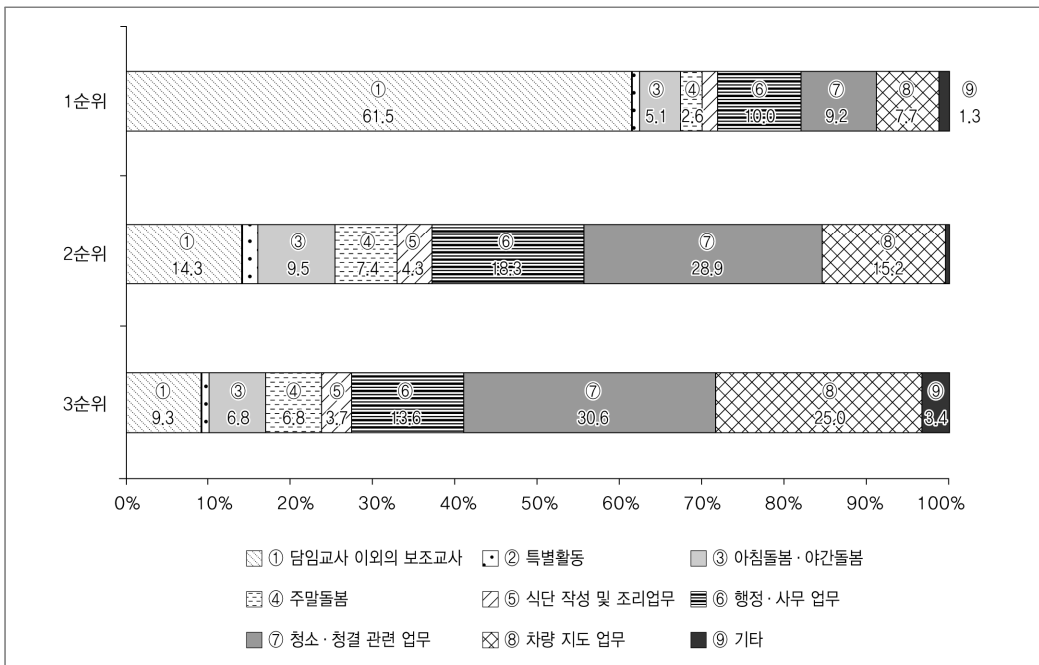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함	평균	t, F
전체	24.6	53.4	20.6	1.4	1.99	
기관 규모						
20명 이하	25.0	44.4	29.2	1.4	2.07	
21~39명 이하	26.7	50.5	21.9	1.0	1.97	1.072
40~80명 이하	25.1	58.3	15.1	1.5	1.93	
81명 이상	21.8	53.2	23.4	1.6	2.05	
학급 수						
6개 미만	25.6	51.2	22.3	0.9	1.99	-0.059
6개 이상	23.9	55.0	19.4	1.7	1.99	
기관 유형						
국공립	20.9	57.3	20.0	1.8	2.03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30.3	50.0	18.2	1.5	1.91	1.116
민간	23.3	53.5	22.1	1.2	2.01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 어린이집의 기관장들은 충원이 시급한 업무 1순위로 보조교사(61.5%)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행정·사무업무(1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2순위와 3순위에서는 청소·청결관련 업무 담당자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각 28.9%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음.
- 1순위 응답에서 보조교사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61.5%로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1순위로 응답하지는 않았으나 2순위로 보조교사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3%, 3순위 9.3% 등으로, 보조교사에 대한 높은 충원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3] 충원이 시급한 순위별 업무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인성이 50.6%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22.1%, 급여수준/출퇴근/용이성/기타 13.7%, 성/연령/학력 5.6%, 체력 5.2%, 경력 2.8%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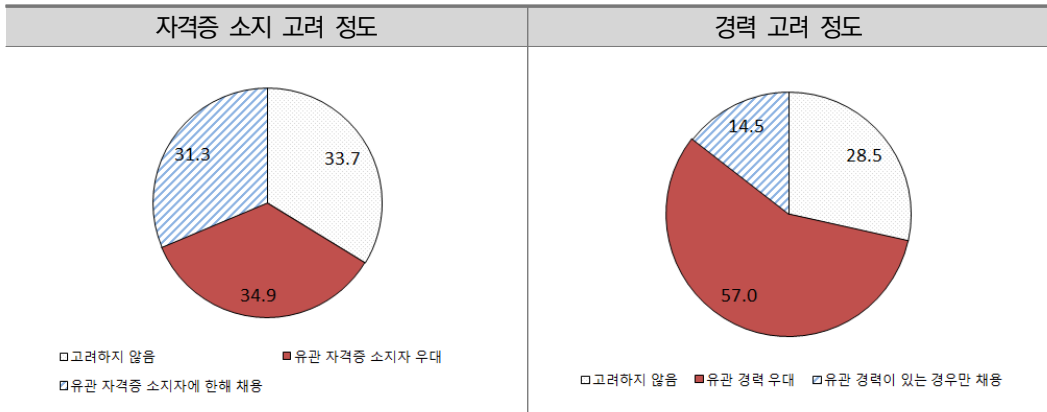
〈표 10〉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고려 사항

단위: %, 일, 시간

구분	성별, 연령, 학력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경력	인성	체력	급여수준, 출퇴근 용이성, 기타
보조교사	5.6	22.1	2.8	50.6	5.2	13.7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유관 자격증 소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33.7%,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8.5%였음.
- 유관 자격증 소지자만 우대한다는 응답이 34.9%, 유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31.3%였음.
- 유관 경력자를 우대하겠다는 응답이 57.0%, 유관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14.5%였음.



[그림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자격 및 경력 고려 정도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시 장점으로서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이 6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점으로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책임감이 적다는 점(38.8%)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시 장점으로서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이 65.5%로 가장 높았으며, 담임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 17.1%, 안전 사고의 감소 15.1% 순이었음.

-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시 단점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책임감이 적음 38.8%, 교직원 증가에 따른 관리 어려움 17.8%였으며, 어려움 없음 14.7%, 정해진 시간 이외에 직원 활용이 어려움이 11.6%, 구성원 간 위화감이 발생 10.9% 순이었음.

〈표 11〉 어린이집 보조교사 활용 시 장·단점

단위: %

활용 시 장점		활용 시 단점	
구분	%	구분	%
담임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	17.1	교직원 증가에 따른 관리 어려움	17.8
안전 사고의 감소	15.1	정해진 시간 이외에 직원 활용이 어려움	11.6
학부모 만족도 상승	1.6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책임감이 적음	38.8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	65.5	구성원간 위화감이 발생	10.9
기타	0.8	기타	6.2
장점 없음	0.0	어려움 없음	14.7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어려움으로는 구직자의 희망 급여가 높다는 점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지 않음 22.1%,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다는 점이 21.7%였음.

-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모집 방법으로 유관 기관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취업알선 서비스 14.7%, 생활정보를 통한 구인광고 13.6% 등이었음.

〈표 12〉 어린이집 보조교사 채용 시 모집 방법 및 채용 시 어려움

채용시 모집방법		채용시 어려움	
구분	%	구분	%
기관 홈페이지 직접 구인광고	6.2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함	21.7
생활정보지를 통한 구인광고	13.6	구직자의 희망 급여가 높음	37.6
민간 온라인 구직사이트	1.9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지않음	22.1
공공기관 취업알선 서비스	14.7	구인홍보가 어려움	4.3
지인 혹은 아는 기관 소개	11.6	책임감 있는 근로자를 찾기 어려움	3.5
유관 기관 게시판을 통해	45.3	기타	4.3
기타	6.6	어려움 없음	6.6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나. 유치원 보조교사 충원요구 및 충원의 어려움

- 유치원의 경우 지원인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4.4%로, 대체로 지원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일수록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이는 조사에 응답한 공립 유치원의 규모가 사립 유치원에 비해 작은 기관이 많은 것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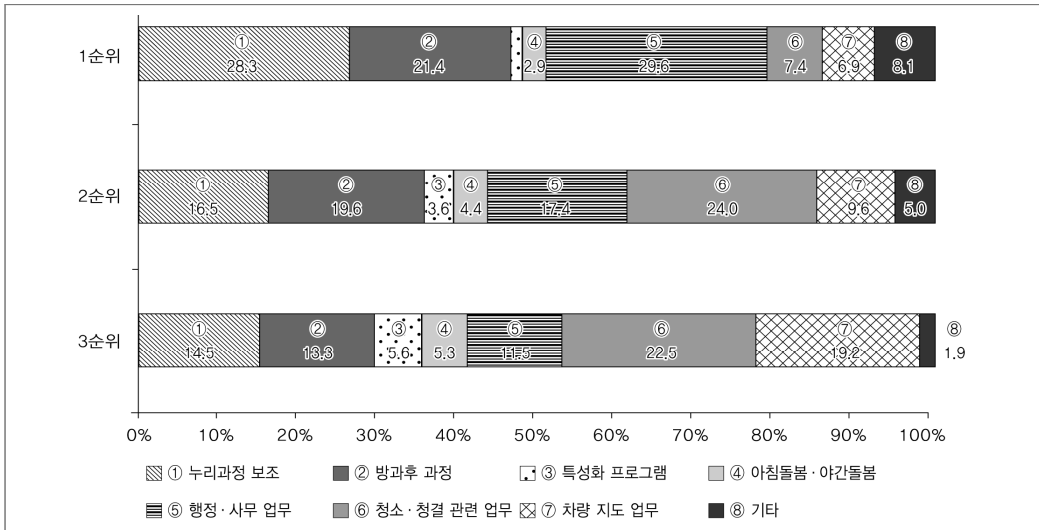
〈표 13〉 유치원 특성별 지원 인력 충분성

단위: %, 점

구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	충분한 편	매우 충분함	평균	t, F
전체	23.6	52.0	21.4	3.0	2.04	
기관 규모						
50명 이하	33.3	47.5	17.0	2.1	1.88	
51~100명 이하	25.5	59.4	13.9	1.2	1.91	10.064***
101~150명 이하	16.2	49.5	28.8	5.4	2.23	
151명 이상	13.3	48.2	33.7	4.8	2.30	
학급 수						
6개 미만	27.0	53.7	17.0	2.3	1.95	-3.915***
6개 이상	16.4	48.4	30.8	4.4	2.23	
기관 유형						
공립	28.7	51.5	16.8	3.0	1.94	-2.387*
사립	20.1	52.3	24.5	3.0	2.10	

* $p < .05$, *** $p < .001$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그림 5] 충원이 시급한 순위별 업무 (유치원)

- 유치원의 경우 충원이 시급한 업무 1순위로는 행정·사무 업무 담당자가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누리과정 보조교사가 28.3%를 차지함.
 -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2순위에서 16.5%, 3순위에서 14.5%였음.
 -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의 충원 시급성이 낮은 편임.
-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시 고려사항으로는 인성 38.8%,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26.9%, 성/연령/학력 14.9% 등이었음.
 - 유치원의 경우에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인성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긴 하나, 어린이집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은 편이며, 반대로 성/연령/학력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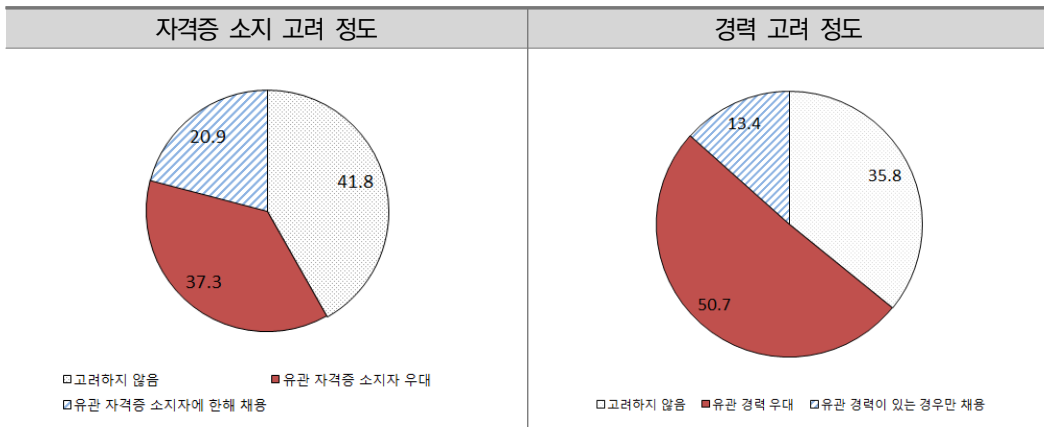
[표 14] 유치원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고려 사항

단위: %, 일, 시간

구분	성별, 연령, 학력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경력	인성	체력	급여수준, 출퇴근 용이성, 기타
누리과정 보조	14.9	26.9	6.0	38.8	6.0	7.5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자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8%에 달하며, 경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5.8%였음.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유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응답은 37.3%, 유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한다는 응답이 20.9%였음.
- 한편, 경력 고려 정도는 유관 경력자를 우대한다는 응답이 50.7%, 유관 경력이 있는 경우만 채용한다는 응답이 13.4%였음.



[그림 6] 유치원 보조교사 채용시 자격 및 경력 고려 정도

-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활용시 장점으로는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 58.0%, 안전 사고 감소 14.8%, 담임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 12.3% 등이었음.
- 반면, 보조교사 활용시 단점으로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책임감이 적다는 점이 2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24.7%에 달함.

〈표 15〉 유치원 보조교사 활용 시 장·단점

활용 시 장점		활용 시 단점	
구분	%	구분	%
담임교사의 업무 만족도 제고	12.3	교직원 증가에 따른 관리 어려움	23.5
안전 사고의 감소	14.8	정해진 시간 이외에 직원 활용이 어려움	18.5
학부모 만족도 상승	4.9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책임감이 적음	29.6
교사의 업무 효율성 증진	58.0	구성원간 위화감이 발생	1.2

단위: %

활용 시 장점		활용 시 단점	
구분	%	구분	%
기타	8.3	기관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2.5
장점 없음	1.2	어려움 없음	24.7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시 어려움으로는 구직자의 희망 급여가 높다는 점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4.7%, 구직자가 시간제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3%였음.
- 보조교사 채용시 모집방법으로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구인광고와 유관 기관 게시판 등을 통해 채용한다는 응답이 각 22.2%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16〉 유치원 보조교사 채용 시 모집 방법 및 채용 시 어려움

채용시 모집방법		채용시 어려움	
구분	%	구분	%
기관 홈페이지 직접 구인광고	22.2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함	24.7
생활정보지를 통한 구인광고	21.0	구직자의 희망 급여가 높음	38.3
민간 온라인 구직사이트	11.1	구직자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지않음	12.3
공공기관 취업알선 서비스	9.9	구인홍보가 어려움	9.9
지인 혹은 아는 기관 소개	13.6	기타	9.9
유관 기관 게시판을 통해	22.2	어려움 없음	4.9
기타	0.0		

주: 500개 기관 응답 기준임.

4 정책적 시사점

-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요구됨.
- 어린이집의 경우 지원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장시간의 기관 운영시간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확충이 시급함.
- 어린이집은 보육료 상한 규제가 있어서 수익자 부담 비용의 확대가 제한되며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지원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정부는 2016년도에도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우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채용을 지원 (12,344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이는 누리과정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에서 0~2세 영아보육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으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수준의 인력 지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보육·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 확대의 부침이 심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의 인력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보조교사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및 유희 자격증 보유자의 재취업 유인.
- 보조교사는 직접적인 교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수업 준비 등 담임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접촉면이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됨.
 - 따라서, 적절한 직무 교육 및 아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양 교육 후 보조교사가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현재 일하지 않는 유희 자격증 보유자들의 재취업을 유인하여,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한편 이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4)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재정포럼 235권, p23-35 참조.

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1개 핵심과제 <http://www.budget.go.kr/info/2016/pointtask.html>(2016. 4.22일 추출)

● ● ●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11개 핵심과제 <http://www.budget.go.kr/info/2016/pointtask.html>(2016. 4.22일 추출)

김은영·장혜진·조혜주(2013).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규제, 재정포럼 235권, p23-35.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남희

1. 서론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태
 4. 결론 및 정책 제언
-

요약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입각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실내 안전사고 연평균 횟수는 1.09회이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보육실(67.6%)이었으며 안전사고의 유형은 타박상(64.2%)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영유아 개인적인 특성(69.1%), 영유아의 부주의(25.5%)가 대부분이었음.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시설(59.9%)이었고, 시설물은 미끄럼틀(22.3%)이었으며 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58.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56.6%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기관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관 앞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50.4%)가 그렇지 않는 경우(49.6%)보다 조금 더 많았음.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관리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사의 연계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안전 관련 평가 체제 및 법적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1 서론

- 최근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주창함.
 - 어린이 활동공간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경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설비 기준 뿐 아니라 통합 기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영유아의 환경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노력 중임.

* 본 내용은 도남희, 이윤진, 조아라, 박은영(2015)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 임.

- 무상보육 이후 영유아가 육아지원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지원기관은 단순한 교육과 보육 공간을 넘어 생활공간이며, 이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와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균이용 시간을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9시간, 유치원은 7.2시간으로 나타남(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 현재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과 매뉴얼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출처가 다양한 정보와 기준이 다른 평가에 의해 안전관리와 안전 교육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육아지원기관의 안전지침이 있더라도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측면의 연구와 대응이 미비함.
-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입각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의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 실태

가. 기관의 실내 안전관리 실태

- 실내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해 98.1%, 안전사고의 예방과 지도 수준에 대해 98.0%의 원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함.
- 실내 안전사고 연평균 횟수는 1.09회이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보육실(67.6%)이었음.

〈표 1〉 실내환경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67.6	31.5	27.4	13.2	10.4	7.2	0.6	0.8
기관유형								
유치원	68.3	29.6	39.2	9.5	12.7	6.7	0.9	0.4
어린이집	67.1	33.0	18.3	16.0	8.5	7.7	0.4	1.1
지역								
대도시	74.3	23.3	24.7	19.2	13.5	7.3	0.5	1.0
중소도시	62.3	38.0	27.4	9.7	8.7	5.9	0.4	0.6
군지역	72.1	26.6	42.4	6.4	6.0	16.9	2.8	1.1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① 교실/보육실, ② 강당(유학실, 실내놀이터), ③ 복도 또는 계단, ④ 현관문 또는 출입구, ⑤ 화장실 또는 욕실, ⑥ 문 또는 창문, ⑦ 조리실 또는 식당, ⑧ 기타(베란다 등)

□ 실내 안전사고의 유형은 타박상 64.2%, 할퓌거나 물림 43.8%, 찰과상과 자상 43.1%, 끼임 9.6% 순이었음

〈표 2〉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

단위: %

구분	타박상	할킴·물림	찰과상·자상	끼임	치아손상	골절·탈구·염좌	이물질흡입	출혈	추락·낙상	화상	기타
전체	64.2	43.8	43.1	9.6	6.0	5.4	1.5	1.4	1.0	1.0	0.4
기관유형											
유치원	72.2	24.4	58.5	6.7	10.7	6.2	3.0	2.1	0.0	0.5	0.0
어린이집	58.0	58.7	31.1	11.8	2.4	4.9	0.4	0.8	1.8	1.3	0.8
지역											
대도시	59.4	45.0	46.7	12.0	5.5	4.5	2.7	1.1	1.0	0.0	0.9
중소도시	66.9	43.2	39.4	8.0	6.8	5.3	0.7	1.7	1.1	1.7	0.0
군지역	69.6	41.3	51.5	8.9	2.8	11.4	1.5	1.1	0.8	0.2	1.0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기타는 넘어짐, 어린이 자체 질병 등임.

- 안전사고 시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기관(94.5%)이 대부분이었고, 응급의료기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7.7%였음. 응급의료기관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8.4%였음.
- 실내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92.3~98.8%)였음. 주로 교사가 담당자였으나 조리실/식당은 별도 인력이 담당(47.8%)하는 경우가 응답이 많았음.

〈표 3〉 실내환경 안전관리 담당자 유무/주 담당자

단위: %(명)

구분	담당자 유무		주 담당자				계(수)
	있음	없음	교사 중 담당자	원장	원감/주임	별도 인력	
교실/보육실	98.8	1.2	80.4	10.1	8.8	0.6	100.0(988)
화장실 또는 욕실	95.7	4.3	81.0	8.1	4.3	6.6	100.0(957)
조리실 또는 식당	97.0	3.0	24.1	24.2	3.9	47.8	100.0(970)
실내놀이터 또는 유희실	92.3	7.7	77.7	10.3	9.3	2.7	100.0(923)
자료실 또는 기타 공간	92.7	7.3	76.7	7.8	14.3	1.3	100.0(927)

주: 별도 인력은 교사 외 별도의 인력, 교육보조원, 조리사/조리원, 영양사, 청소원, 관리인, 안전관리 담당교사, 행정보/행정담당자, 관리과장/소장, 하모니자원봉사자 등임.

- 실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된다는 응답이 62.0%였으며, 체크리스트 점검을 통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나. 기관의 실외 안전관리 실태

- 원장은 기관의 실외놀이터 시설 및 설비의 안전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한 편(48.6%), 매우 안전(32.6%)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음 16.9%, 위험요소가 매우 많음 1.9%의 의견임.
 -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는 인근 놀이터(51.5%), 옥외 놀이터(42.0%), 그 외 옥상 놀이터였음.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놀이시설(59.9%)이었음

〈표 4〉 실외환경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

단위: %(명)

구분	놀이 시설	바닥	모래 영역	정문 또는 출입구	화단	주차장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59.9	26.9	5.3	3.1	2.0	0.5	2.3	100.0(591)	
기관유형									
유치원	63.4	23.7	4.7	3.7	0.6	0.1	3.8	100.0(250)	13.59(6)*
어린이집	57.4	29.2	5.7	2.7	3.0	0.8	1.2	100.0(340)	

* $p < .05$.

주: 기타는 놀이터 주변 시멘트 바닥, 이동통로, 산책로, 실외계단, 마당 등임.

□ 실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미끄럼틀(22.3%)이었음.

〈표 5〉 실외 놀이시설물 중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설물

단위: %(명)

구분	미끄럼틀	오를 수 있는 기구	그네	시소	바퀴 달린 놀잇감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22.3	22.1	11.6	2.1	7.1	1.7	33.0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23.2	25.1	11.5	1.3	4.9	1.7	32.4	100.0(400)	14.68(14)
어린이집	21.7	20.2	11.6	2.7	8.5	1.8	33.4	100.0(600)	
지역									
대도시	25.3	22.5	8.4	1.3	5.8	2.5	34.2	100.0(356)	22.07(10)*
중소도시	19.5	23.2	12.6	2.6	8.6	1.4	32.1	100.0(558)	
군지역	28.4	14.1	17.7	2.8	2.6	0.3	34.2	100.0(86)	

□ 놀이시설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없음이 58.6%로 응답의 절반이 넘음.

□ 놀이시설 정기 검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83.6%로 많았으며, 놀이시설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66.3%였음.

□ 최근 1년간 실외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6.3%

- 교체 및 보수 이유는 안전상 위험(43.9%)이 가장 높았고 노후로 인해(29.2%), 범개정에 따라(12.2%) 순이었음.

□ 원장의 76.9%는 안전점검 실시대장/놀이기구 관리대장이 안전관리 및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다. 기관의 교통안전 관리 실태

1) 통학차량 운행 현황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56.6%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기관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가 35.4%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 기관이라서(29.5%)’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서(29.3%)’가 비슷한 비율이었음

〈표 6〉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수요가 많지 않아서	국공립 기관이라서	영유아 안전을 위해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기타	계(수)	$X^2(df)$
전체	35.4	29.5	29.3	3.7	2.1	100.0(434)	
기관유형							
유치원	12.9	84.6	1.6	0.9	0.0	100.0(124)	257.05(7)***
어린이집	44.4	7.5	40.3	4.8	3.0	100.0(310)	

*** $p < .001$

□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61.7%로 가장 많았고 자가 소유가 대부분인 75.7%이며,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68.6%)하는 경우가 68.6%임.

〈표 7〉 차량_소유형태/운전자

단위: %(명)

구분	소유형태				계(수)	운전자				계(수)
	소유	지입	전세버스	기타		원장	교사	운전기사	기타	
차량1	75.7	15.8	7.0	1.5	100.0(566)	27.3	2.9	68.6	1.2	100.0(566)
차량2	52.2	31.2	14.4	2.2	100.0(201)	4.5	2.6	90.2	2.7	100.0(201)
차량3	36.9	36.8	24.0	2.3	100.0(78)	0.3	0.3	98.7	0.7	100.0(78)
차량4	29.5	42.0	22.4	6.1	100.0(29)	0.0	2.5	97.5	0.0	100.0(29)

□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를 구비한 경우는 91.8%로 나타남. 설립 유형, 지역, 정원아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응답 결과가 나옴.

2) 기관 주변의 교통안전 현황

□ 기관 주변의 교통사고 발생은 ‘없다’가 99.4%로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된 환경으로 추정되나, 기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매우 위험과 약간 위험 합침)는 인식이 65.1%로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음.

□ 기관 앞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50.4%)가 그렇지 않는 경우(49.6%)보다 조금 더 많았음.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의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된 경우가 적지 않음
- 유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85.6%로 대부분이 지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지정된 경우가 26.9%에 불과함

〈표 8〉 기관 앞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X ² (df)
전체	50.4	49.6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85.6	14.4	100.0(400)	328.55(1)***
어린이집	26.9	73.1	100.0(600)	

*** p<.001.

□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어린이집 정원 100인 미만)가 58.8%로 가장 많았음.

-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예외구역이라 어린이집이 교통 환경 측면에서 유치원에 비해 취약함.
- 기타 의견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직장 내 설치되어 있어서’ 등임.

라. 관리의 어려움

- 실내 안전관리에 있어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34.9%)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음. 다음으로는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관리(25.2%), 전담 인력의 부재(16.3%), 전문지식의 부족(7.0%) 등의 순이었음.

〈표 9〉 실내환경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X ² (df)
전체	34.9	25.2	16.3	7.0	2.8	13.9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29.3	18.2	27.5	8.7	2.8	13.6	100.0(400)	77.84(10)***
어린이집	38.7	29.8	8.8	5.8	2.8	14.1	100.0(600)	

*** $p < .001$.

주: ①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 ②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관리, ③ 전담 인력의 부재, ④ 전문 지식의 부족, 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로 점검, ⑥ 기타(업무량 과다, 원아 수에 비해 공간 부족, 파손에 의한 보수비용, 잘 모름, 해당사항 없음 등)

- 실외 안전관리에 있어도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43.2%)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으며, 놀이시설물 및 놀잇감 관리(20.3%), 영유아, 교사, 부모의 안전 교육(3.5%) 등의 순이었음.

〈표 10〉 실외환경 안전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전체	43.2	20.3	3.5	1.7	1.0	1.6	28.7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48.0	26.7	3.8	1.4	1.7	0.4	18.0	100.0(400)	55.59(11)***
어린이집	40.0	16.1	3.2	2.0	0.5	2.3	35.8	100.0(600)	

*** $p < .001$.

주: ①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 ② 놀이시설물 및 놀잇감 관리, ③ 영유아, 교사, 부모의 안전 교육, ④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로 안전 점검, ⑤ 안전을 위한 비상체계 구축, ⑥ 기타(아파트 놀이터 이용, 보수비용, 동물배설물, 관리 인력 등), ⑦ 어려움 없음

- 실내환경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출입문 및 교실/보육실내 CCTV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복도 및 계단 안전장치(22.3%), 출입문 및 창문의 안전장치(21.4%), 화장실 및 목욕실의 미끄럼 방지장치(18.0%), 기타(3.2%) 순이었음.

〈표 11〉 실내환경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수)	X ² (df)
전체	35.1	22.3	21.4	18.0	3.2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31.7	26.9	17.8	21.5	2.0	100.0(400)	20.42(4)***
어린이집	37.3	19.2	23.9	15.7	3.9	100.0(600)	
지역							
대도시	36.5	26.1	18.4	17.0	2.0	100.0(356)	18.60(8)*
중소도시	35.7	18.8	23.7	17.7	4.1	100.0(558)	
군지역	24.8	29.3	19.2	24.7	2.0	100.0(86)	

* $p < .05$, *** $p < .001$

주: ① 출입문 및 교실/보육실 내 CCTV, ② 복도 및 계단 안전장치, ③ 출입문 및 창문의 안전장치, ④ 화장실 및 목욕실의 미끄럼 방지장치, ⑤ 기타(교실내부에 화장실 설치, 출입자 파악을 위한 알람벨 설치, 책상, 의자 보호대, 창문 방충망 설치, 없다 등)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교육 실태

가. 안전교육 실태

1) 영역별 안전교육과 주체

□ 안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대다수(85.4%)가 오프라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14.6%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형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관 자체교육(45.9%), 보수교육(29.2%), 그 외 교육(22.3%), 승급교육(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표 12〉 실내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 및 교육형태

단위: %(명)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 ² (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전체	85.4	14.6	29.2	2.6	45.9	22.3	100.0(994)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 ² (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그 외 교육		
기관유형								
유치원	83.7	16.3	23.0	0.7	54.0	22.3	100.0(398)	27.45(3) ^{***}
어린이집	86.5	13.5	33.4	3.9	40.5	22.3	100.0(596)	
지역								
대도시	87.4	12.6	26.1	2.7	48.7	22.5	100.0(354)	5.08(6)
중소도시	83.5	16.5	31.6	2.8	43.3	22.3	100.0(554)	
군지역	89.5	10.5	26.6	1.0	51.0	21.4	100.0(85)	

*** $p < .001$

□ 기관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 실시기관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가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안전관리지원기관(24.7%), 육아종합지원센터(23.9%), 교육청(7.7%), 유아교육진흥원(3.7%), 사설기관/업체(1.8%), 안전공제회(1.5%) 순이었음.

〈표 13〉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 실시기관 주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 ² (df)	
전체	36.6	24.7	23.9	7.7	3.7	1.8	1.5	100.0(994)		
기관유형										
유치원	41.3	31.1	2.4	17.4	5.2	1.6	1.0	100.0(398)	229.01(6) ^{***}	
어린이집	33.5	20.5	38.3	1.2	2.8	1.9	1.7	100.0(596)		
정원										
유치원	20명 미만	43.9	32.7	0.0	17.1	4.3	1.9	0.0	100.0(45)	12.57(18)
	20명~50명 미만	35.5	33.6	4.9	15.5	6.4	1.8	2.3	100.0(107)	
	50명~100명 미만	43.5	29.5	0.8	20.7	2.7	2.7	0.0	100.0(96)	
	100명 이상	43.2	29.8	2.4	16.8	6.2	0.6	1.1	100.0(150)	
어린이집	20명 미만	30.4	17.5	43.2	2.7	3.3	0.4	2.4	100.0(198)	33.12(18) [*]
	20명~50명 미만	35.8	17.0	40.2	0.3	2.9	2.8	1.1	100.0(268)	
	50명~100명 미만	31.8	30.0	29.3	1.3	1.9	3.2	2.6	100.0(102)	
	100명 이상	40.4	41.8	17.8	0.0	0.0	0.0	0.0	100.0(27)	

* $p < .05$.

주: ① 자체적으로 실시, ② 안전관리지원기관(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교육청, ⑤ 유아교육진흥원, ⑥ 사설기관/업체, ⑦ 안전공제회

- 기관유형과 어린이집의 정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정원이 20명 미만(43.2%), 20명~50명 미만(40.2%)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 비율이 더 많았고, 100명 이상의 큰 규모의 기관은 안전관리지원기관(41.8%)에서 실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414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의 주된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오프라인 교육이 86.0%로 대부분이었고, 온라인 교육은 14.0%인 것으로 나타남.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형태는 기관 자체교육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보수교육 30.6% 등의 순이었음.
- 기관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유치원은 기관 자체교육(44.3%), 보수교육(34.9%) 순으로, 어린이집은 기관 자체교육(44.5%), 그 외 교육(30.3%)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14〉 실외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주된 교육방법 및 교육형태

단위: %(명)

구분	교육방법		교육형태				계(수)	X2(df)
	오프라인	온라인	보수교육	승급교육	기관 자체교육	그 외 교육		
전체	86.0	14.0	30.6	0.3	44.4	24.7	100.0(414)	
기관유형								
유치원	84.8	15.2	34.9	0.0	44.3	20.7	100.0(244)	8.15(3)*
어린이집	87.8	12.2	24.4	0.7	44.5	30.3	100.0(170)	

* $p < .05$.

-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실시기관의 주체가 어디인지 질문한 결과, 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이나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안전관리지원기관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 33.6%, 육아종합지원센터 12.0%, 교육청 7.6% 등의 순이었으며, 사설기관/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도 3.4%가 있었음.

〈표 15〉 업무 담당자에 대한 주된 실시기관 주체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전체	37.9	33.6	12.0	7.6	3.6	3.4	2.0	100.0(414)	
기관유형									
유치원	45.6	34.8	1.1	12.3	3.4	0.6	2.1	100.0(244)	96.01(6)***
어린이집	26.7	31.8	27.6	0.9	3.9	7.3	1.7	100.0(170)	

*** $p < .001$.

주: ① 안전관리지원기관(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② 자체적으로 실시,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④ 교육청, ⑤ 유아교육진흥원, ⑥ 사설기관/업체, ⑦ 안전공제회

□ 영유아의 안전교육은 약 99%정도가 실시하고 있었으며, 일 년 동안 약 6~8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야동학대 예방교육 등이며 교통안전교육을 많이 함.

〈표 16〉 영유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단위: %(명)

구분	내부실시		외부실시		계(수)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교통안전교육	99.7	0.3	74.2	25.8	100.0(1,000)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99.1	0.9	48.6	51.4	100.0(1,000)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98.6	1.4	40.5	59.5	100.0(1,000)
재난대비 안전교육	98.6	1.4	50.1	49.9	100.0(1,000)
성폭력야동학대 예방교육	99.3	0.7	57.4	42.6	100.0(1,000)

-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은 전문가의 강의도 약 60%정도 실시하고 있었음.

〈표 17〉 영유아 교육 횟수와 방법

단위: %

구분	실시횟수	시청각 교육	전문가(담당자) 강의	장소 상황별 역할극	사례분석
교통안전교육	8.52	80.9	59.8	43.7	10.8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6.81	80.3	37.9	48.0	9.2

구분	실시횟수	시청각 교육	전문가(담당자) 강의	장소 상황별 역할극	사례분석
약물오용남용예방교육	6.36	81.2	33.0	35.3	8.9
재난대비 안전교육	6.52	79.1	36.7	47.9	7.4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95	78.7	48.5	48.4	9.5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첫째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력 습득, 두 번째는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습득,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 형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음.

〈표 18〉 영유아 안전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2(df)$
전체	39.5	31.7	27.2	1.7	100.0(1,000)	
기관유형						23.19(3)***
유치원	30.4	37.4	30.4	1.8	100.0(400)	
어린이집	45.5	27.9	25.1	1.6	100.0(600)	

*** $p < .001$.

주: ①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력 습득, ②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습득, ③ 능동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 형성, ④ 자신과 남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육성

□ 교직원 안전교육은 대부분 자체교육(63.9~72.1%)이었음.

- 교통안전교육과 성폭력아동학대방지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특강과 방문교육을 조금 더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9〉 교사(원장)_내부교육

단위: %

구분	자체교육	특강	방문교육	기타	없음
교통안전교육	63.9	28.1	27.5	5.6	7.2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72.1	23.8	23.8	3.7	-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71.6	19.4	19.6	5.7	-
재난대비 안전교육	72.0	22.6	23.2	5.2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65.2	33.0	32.0	6.1	-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외부교육은 37.5%~53.2% 정도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었음.

〈표 20〉 교사(원장)_외부교육

단위: %

구분	외부 전문기관	육아종합 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안전공제회	기타	없음
교통안전교육	47.8	28.9	23.3	9.8	1.9	16.2
실종유괴예방방지교육	43.6	27.7	12.1	4.4	2.1	-
약물오용남용 예방교육	37.5	22.2	9.6	4.7	2.8	-
재난대비 안전교육	43.3	21.9	11.3	5.1	3.1	-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53.2	32.1	13.9	5.5	1.6	-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 부모교육은 약 84% 정도가 하고 있었으며,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적으로 약 6회 정도였음.

-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이 약 74~85% 정도로 많았음.

〈표 21〉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실시여부		교육내용					계(수)
	예	아니오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통 안전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약물오용 남용 예방교육	
전체	83.5	16.5	84.8	73.9	68.8	56.3	54.2	100.0(835)
기관유형								
유치원	93.4	6.6	88.3	81.9	74.7	66.1	58.7	100.0(374)
어린이집	76.8	23.2	81.8	67.4	64.1	48.4	50.5	100.0(461)
지역								
대도시	84.6	15.4	82.5	71.9	67.1	57.6	52.9	100.0(301)
중소도시	81.6	18.4	85.1	73.0	69.8	53.9	53.6	100.0(455)
군지역	91.3	8.7	91.2	86.3	69.6	65.1	62.5	100.0(78)

- 교육 방법은 안내문이나 가정통신문(84.1%)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 워크숍이나 설명회를 이용함.

〈표 22〉 부모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와 방법

단위: %

구분	실시횟수	방법				
		안내문, 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부모 워크숍이나 설명회	특강	기타
전체	6.58	84.1	50.3	26.8	11.6	1.8
기관유형						
유치원	8.05	86.3	49.1	33.8	14.0	3.0
어린이집	5.39	82.3	51.2	21.2	9.7	0.7

주: 중복응답의 결과임.

나. 안전교육 어려움

□ 기관의 안전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질문한 결과,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에 대한 의견이 43.9%, 체험중심의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7%, 외부교육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에 대한 요구가 16.1%, 마지막으로 신뢰로운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도 있었음.

-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관유형, 지역 및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린이집에서는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유치원은 체험중심의 교육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표 23〉 기관 안전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2(df)$
전체	43.9	31.7	16.1	8.4	100.0(1,000)	
기관유형						
유치원	38.0	39.3	14.5	8.2	100.0(400)	18.35(3)***
어린이집	47.8	26.6	17.1	8.5	100.0(600)	
지역						
대도시	36.6	35.5	19.5	8.4	100.0(356)	16.81(6)*
중소도시	48.0	28.5	15.1	8.3	100.0(558)	
군지역	46.9	36.6	8.3	8.3	100.0(86)	

구분	①	②	③	④	계(수)	$X^2(df)$
정원						
20명 미만	38.7	44.8	11.1	5.3	100.0(45)	
유치원						
20명~50명 미만	37.8	33.2	17.8	11.1	100.0(108)	10.90(9)
50명~100명미만	38.3	46.1	7.1	8.5	100.0(98)	
100명 이상	37.8	37.5	18.0	6.7	100.0(150)	
어린이집						
20명 미만	51.4	25.5	18.0	5.1	100.0(200)	22.67(9)**
20명~50명 미만	51.6	23.9	15.3	9.2	100.0(270)	
50명~100명미만	37.8	33.7	15.3	13.2	100.0(102)	
100명 이상	21.2	35.6	35.3	7.9	100.0(27)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② 체험 중심의 교육 제공, ③ 대체 인력 지원(외부교육을 위한),
④ 신뢰로운 외부 전문 교육기관 지정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관리영역별 안전관리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외 환경 관리를 주도함.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체계화 및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 제공을 위해 체크리스트 목록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연간, 법령별 목록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좀 더 체계화 하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례중심의 매뉴얼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상황별 지각, 인지, 수행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how-to-do 책자를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안전 관리 담당자가 원장의 책임 하에 주로 교사나 간호사 및 보육교직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실과 교실에서 영유아의 지도만으로도 충분히 바쁜 가운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안전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이 필요함.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안전관련 평가나 점검을 받아도 시정내용의 이해와 시설보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으로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함.
- 안전관리를 지역 연계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 기관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환경 관리가 필요함
 - 통학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기관일수록 기관소유의 차량보다는 지입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지입차량을 선호하는 지입 차량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함.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않는 기관이나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반 관광버스와 같은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유아를 위한 차량에 대한 안전규칙 및 지침 마련이 요구됨. 또한 안전장치를 갖춘 안전한 차량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제 도입을 고려함
 - 어린이집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만큼 많지 않은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정원 수에 상관없이 설치 강화를 제안함.
 -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등·하원 시 보호자가 할 것을 제안함.
- 인적환경 관리를 위해 영유아와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이 필요함
 - 시설설비를 잘하고 교사와 부모가 잘 살피더라도 영유아의 특성 상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영유아의 안전 의식을 지도함.
 - 영유아와 교사 및 부모 등의 대상별, 또는 영유아의 연령별 안전의식 지도 등에 대한 체험주도적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 시간이 많지 않은 교직원들을 위해 사례중심의 전문적인 온라인 교육 확대가 요구됨.
 - 기관에서의 안전교육이 가정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위한 홍보와 자료 제공을 제안함.
-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평가체계와 법체계 통합이 필요함.
 -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처 및 지자체에 따라 평가 항목과 중요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체계를 통일하여 일관된 안전관리가 되도록 함.
 -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이 많았으므로 법령 개정 시, 시행 유예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이에 따른 시설·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원금이나 컨설팅, 자문 제공 등의 지원을 제시하도록 함.

나.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 기관 차원에서 안전관리의 필요성
 -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의 시설설비 구조 및 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과 연계하여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지, 해당기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절차 등을 부모와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함. 또한 교사 교육 시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안함.
- 학부모는 ‘일일안전도우미’ 활동과 안전관련 체험 및 역할극 제공을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도록 함.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관리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기관과 연계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부처)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령별, 기관별 안전 기준을 정하여 현재 다양한 주체와 지표에 의해 점검이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통일하도록 함. 또한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지역별로 안전관리와 보수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안전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

● ● ● 참고문헌

- 도남희·이윤진·조아라·박은영(2015). 육아지원기관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의 성과와 개선 과제

유해미

1. 연구 배경
 2. 공공형어린이집 특성 및 추이
 3.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4. 개선 과제
-

요약

- 2012년 이후 공공형어린이집은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이어왔으나, 제도 방향이 모호하고, 그 성과도 의문시되어왔음.
-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를 위해 이용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한 결과, 이용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이며, 이는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서 보다 미흡함.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운영의 방향은 민간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제고로 명확히 하고, 기관 유형 또는 기관규모별로 차별화된 운영 방침이 요구됨.
- 공공형어린이집의 세부 개선 과제로는 지리적 형평성 제고, 선정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특별활동 규제 등 운영 기준 보완, 사후품질관리 강화,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

1 연구 배경

- 기관보육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여성고용률 증진 효과 등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 하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공공형어린이집은 2012년 778개소에서 2015년 6월 기준 1,573개소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예산규모는 2012년 170억에서 2015년 441억원으로 증가함(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 보건복지부, 2015).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보육공공성 차원의 한계점 등으로 효과성이 의문시되어 왔음.

*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의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2014년부터 선정 제외대상으로 월 임대료 및 용자금 상환액 요건 등이 추가되었고, 선정 시 맞벌이 자녀 재원률에 가점이 부여되고, 사후품질관리가 강화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기관규모별로 일괄 지급되던 지원방식이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됨.
- 여기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 및 운영 구조 차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모 만족도를 토대로 그 성과를 진단한 후 개선 과제를 제시함.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평가 결과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측면의 성과를 평가함.

2 공공형어린이집 특성 및 추이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 특성, 운영관리와 재정구조상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인프라 공급 수준과 기관 특성

- 공공형어린이집은 2015년 기준 총 1,57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들 중 가정어린이집은 498개소, 민간어린이집은 1,064개소임.
-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420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지역이 46개소로 가장 적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에 38.8%로 가장 많음.
- 기관규모별로 20인 이하 비율이 가장 높아 31.7%(498개소)를 차지하며, 이들 기관의 평균 정원과 현원은 각각 18.6명과 16.3명이고, 50인 미만 기관수는 전체의 51.4%를 차지함.
- 공공형어린이집의 자가 비율은 2011년 83.3%였으나, 2015년 87.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96.0%로 높게 나타남.

〈표 1〉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2015)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94	94	76	45	87	57	10	420	92	71	94	81	46	101	110	90	1,57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검색일 2015년 7월 26일).

〈표 2〉 기관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현원(2015. 6)

단위: 개소, 명(%)

구분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계
시설수	498	105	284	121	116	104	186	140	41	135	1,730
(비율)	28.8	6.1	16.4	7.0	6.7	6.0	10.8	8.1	2.4	7.8	100.0
정원											
평균	18.6	29.3	42.8	56.1	69.2	81.3	91.8	101.4	116.9	149.5	-
(표준편차)	2.3	3.8	4.6	3.9	4.0	3.0	3.1	4.0	3.2	26.0	-
총계	9,250	3,072	12,157	6,788	8,028	8,451	17,074	14,193	4,793	20,183	103,989
현원											
평균	16.3	25.8	37.3	48.6	60.2	70.2	81.3	88.9	98.8	130.9	-
(표준편차)	3.6	5.5	6.9	8.8	8.1	10.9	12.2	14.1	17.0	28.4	-
총계	8,096	2,706	10,582	5,882	6,984	7,303	15,115	12,449	4,052	17,669	90,838

주: 1) 본 자료는 가정, 민간, 법인·단체등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2)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0 〈표 II-1-1〉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2015년 6월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나. 운영관리

- 공공형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은 2015년 6월말 기준 평균 67.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50% 미만은 15%임.
- 평가인증 점수는 평균 96.2점으로 소폭 상향하는 추세이며, 평가인증 점수가 95.0점 이상인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80%에 육박함.
 - 2015년 기준 월세 비율은 공공형-민간 14.3%, 공공형-가정어린이집 3.2%로 나타남.

〈표 3〉 공공형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2012-2015)

단위: %(개소)

구분	없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	계(수)	평균	표준 편차
2012	2.3	7.7	15.9	40.7	20.4	13.0	100.0(776)	60.3	24.0
2013	1.4	3.1	13.4	43.9	23.3	15.1	100.0(1,473)	64.8	21.7
2014	0.9 ¹⁾	3.0	11.3	41.2	25.7	17.9	100.0(1,613)	67.3	21.6
2015	1.0 ²⁾	3.0	11.0	41.2	24.3	19.4	100.0(1,562)	67.7	22.0

주: 1) 2014년의 1급 보육교사 비율 '없음'칸에는 보육교사 및 1급 보육교사 수가 조사되지 않은 어린이집 3곳을 포함한 수치임.

2) 2015년의 1급 보육교사 비율 '없음'칸에는 보육교사 및 1급 보육교사 수가 조사되지 않은 어린이집 2곳을 포함한 수치임.

3)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4 〈표 II-1-6〉을 수정·보완함.

4) 보육교사 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임.

5) 보육교사 1급은 최종자격 기준이며, 보육교사 1급 최종자격은 2012년도 이상 자료만 존재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 취약보육 실시 기관은 2015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은 26.3%를 차지하나, 공공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85.3%에 달함(표 4 참조).

○ 시간연장형 보육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은 20.3%를 실시하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실시율은 36.9%로 나타남.

□ 공공형어린이집에서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비율은 2015년 기준 85.7%이며, 가정(95.4%)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81.2%로 더 높게 나타남.

○ 공공형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비율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인 66.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이미화 외, 2012: 49).

〈표 4〉 공공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2015. 6)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민간		가정		계(수)
	동일	다름	동일	다름	동일	다름	
2015	85.7	14.3	81.2	18.8	95.4	4.6	100.0(1,562)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6 〈표 II-1-9〉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다. 재정구조

-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총 세입 중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비율은 각각 5.7%와 7.5%로 민간어린이집과 유사한 수준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약 2배 수준임.
- 공공형-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총 세입 중 보육료 수입 비율은 일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는 평균 약 7% 정도 낮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표 5〉 기관유형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2015)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민간 ¹⁾			공공형_민간			가정 ²⁾			공공형_가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기타필요경비	2.6	3.3	1.3	5.8	5.7	4.2	5.7	4.8	4.7	2.4	3.3	1.1	2.8	2.9	2.0
특별활동비	3.8	2.8	3.9	7.2	4.7	7.2	7.5	4.3	7.5	2.6	2.7	2.2	1.9	1.9	1.6
보육료수입	43.7	8.5	44.6	57.4	10.9	59.2	50.1	6.9	50.3	55.7	11.4	57.4	48.4	8.6	49.1
인건비보조	40.6	11.2	39.5	3.8	9.9	-	2.6	3.7	1.7	3.8	8.5	-	6.9	6.8	5.4
기본보육료	0.8	3.7	-	14.3	8.5	13.5	9.4	5.3	8.7	26.9	8.1	27.6	22.7	5.5	23.1
기타지원금	6.9	6.1	6.4	6.2	5.2	5.7	22.5	6.3	21.8	3.7	5.3	1.5	14.0	6.8	12.4
자본보조금	0.6	4.7	-	0.1	1.6	-	0.2	2.2	-	0.1	1.7	-	0.3	2.6	-
기타 수입	0.7	2.9	-	0.9	4.7	-	0.8	3.6	-	1.2	8.2	-	1.3	5.6	-
계(수)	100.0(2,558)			100.0(13,441)			100.0(1,064)			100.0(21,754)			100.0(496)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48 〈표 III-2-2〉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2) 본 자료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일시보육기관 제외)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총 39,422개)의 자료로서, 자료 추출 시점에 해당 비율은 변경 될 수 있음.(자료 추출 일자: 2015년 8월 19일).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2015년 6월말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아동 1인당 필요경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공공형-민간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기관규모가 증가할 수록 높은 경향을 보임.
 - 특히 98인에서 123인 이하 규모의 공공형어린이집의 1인당 기타 필요경비는 월 평균 32,066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관규모에 따라 기타 운영비 등의 지출이 수준이 높은 점과 관련된다고 추측됨.

〈표 6〉 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필요경비 지출(2015)

단위: %, 원(개소)

구분	공공형_민간/공공형_가정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20인 이하	75.3	18,885	15,574	(374)	46.1	15,182	17,627	(35)	56.8	15,627	14,210	(12,399)
21~35인	82.9	21,463	19,612	(87)	62.0	17,317	15,431	(165)	69.5	20,223	19,097	(2,520)
36~49인	84.8	22,270	20,054	(173)	63.5	16,700	17,097	(301)	75.7	21,486	20,372	(3,180)
50~62인	86.3	27,910	24,752	(101)	64.6	14,104	14,212	(184)	83.7	24,503	22,045	(770)
63~76인	86.0	22,749	20,077	(98)	74.1	17,231	20,344	(263)	85.0	25,799	21,699	(896)
77~86인	90.1	25,235	21,184	(91)	66.8	14,462	12,615	(258)	87.4	26,027	22,472	(633)
87~97인	86.1	25,213	18,415	(93)	75.4	14,544	13,156	(178)	86.7	26,849	24,144	(600)
98~111인	95.7	28,716	20,306	(134)	70.9	14,727	16,208	(134)	88.1	26,173	21,299	(590)
112~123인	97.6	29,053	21,343	(40)	79.7	17,675	19,480	(59)	87.8	28,520	23,595	(296)
124인 이상	92.5	25,950	16,757	(124)	76.0	22,101	121,883	(165)	88.6	32,066	26,995	(1,095)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66 〈표 Ⅲ-2-17〉을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2)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일시보육기관 제외)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총 39,422개)의 자료로서, 추출 시점에 따라 자료가 변경 될 수 있음(자료 추출 일자: 2015년 8월 19일).

3) 어린이집 수는 기타 필요경비 지출이 0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2015년 6월말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아동 1인당 기타 운영비 지출 비율은 20인 이하 기관에서는 평균 25,436원으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낮고, 77인 이상 기관에서는 대체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7 참조).

□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 형태별 아동 1인당 지출 비율은 자가인 경우에 비해 월세인 경우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기타 운영비의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이 같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재정구조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부모들의 추가 이용 비용이 높음을 말해줌.

〈표 7〉 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운영비 지출(2015)

단위: %, 원(개소)

구분	공공형_민간/공공형_가정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³⁾
20인 이하	64.2	25,436	18,678	(319)	18.4	19,589	14,632	(14)	77.0	36,742	26,519	(16,825)
21~35인	68.3	33,090	34,906	(71)	13.2	12,135	9,680	(35)	80.1	35,134	25,107	(2,902)
36~49인	77.9	20,692	12,502	(159)	15.8	13,391	8,634	(75)	79.9	31,289	26,391	(3,360)
50~62인	79.3	23,148	14,707	(92)	14.7	11,201	7,627	(42)	83.2	29,696	22,247	(765)
63~76인	82.5	22,341	14,328	(94)	17.7	10,614	6,624	(63)	82.0	27,405	22,022	(864)
77~86인	87.1	22,272	16,374	(88)	16.1	15,654	38,630	(62)	82.9	26,793	18,469	(600)
87~97인	93.5	21,210	13,979	(101)	16.1	10,621	10,039	(38)	83.1	25,890	16,589	(574)
98~111인	87.9	23,580	14,393	(123)	18.5	10,933	8,878	(35)	86.3	24,397	20,626	(572)
112~123인	85.4	20,480	11,796	(35)	13.5	5,592	3,553	(10)	87.2	25,023	15,404	(293)
124인 이상	94.0	21,353	13,604	(126)	15.2	6,810	6,595	(33)	86.2	24,706	15,480	(1,060)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66 〈표 Ⅲ-2-18〉을 2015년 자료로 수정·보완함.

2) 본 자료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일시보육기관 제외)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총 39,422개)의 자료로서, 추출 시점에 따라 자료가 변경 될 수 있음(자료 추출 일자: 2015년 8월. 19).

3) 어린이집 수는 기타필요경비지출이 0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2015년 6월말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표 8〉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 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지출(2015)

단위: %, 원(명)

구분	자가				전세				월세				F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지출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수)	
급간식비	100.0	44,644	13,330	(13,67)	100.0	39,603	11,237	(27)	99.5	453,39	12,287	(166)	2.20
교재교구비	74.0	16,822	14,374	(1,011)	66.7	14,719	13,204	(18)	80.8	19,569	16,037	(135)	2.37
특별활동비	83.2	34,408	21,051	(1,138)	96.3	38,336	25,295	(26)	86.2	39,449	24,013	(144)	3.83*
기타필요경비	84.5	22,923	18,877	(1,155)	88.9	19,830	14,330	(24)	81.4	27,562	22,722	(136)	3.69*
기타운영비	76.5	22,981	17,717	(1,046)	77.8	19,527	13,304	(21)	85.0	28,257	15,291	(142)	6.33***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67 〈표 Ⅲ-2-19〉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2) 본 자료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일시보육기관 제외)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총 39,422개)의 자료로서, 추출 시점에 따라 자료가 변경 될 수 있음(자료 추출 일자: 2015년 8월 19일).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2015년 6월말 기준 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p < .05$, ** $p < .01$, *** $p < .001$

3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분석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707명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기관 운영평가 결과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697명과 비교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인지도와 보육 공공성 인식

- 공공형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0%이며, 이들 중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로 나타남.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63.4%,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34.2%로 응답함.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현재 이용 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0.6%이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임.
 -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이용비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로 가장 높고, 공공형-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부모와의 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용기관 변경 사유로는 ‘비용이 저렴해서’가 3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우수해서’ 19.5%, ‘전문성 있는 교사가 있어서’ 17.8%,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우수해서’ 14.4%, ‘국가에서 관리하여 믿을 수 있어서’ 13.6%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로는 원장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한 비율이 각각 48.1%와 6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현재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의 선택 사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교사와 원장이 신뢰가 가서	48.1	67.2
집에서 가까워서	22.6	36.2
국가가 인증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어서	14.1	38.6
보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4.2	12.7
운영 시간이 적절해서	3.4	8.1
시설·설비가 마음에 들어서	2.7	5.9
주변 환경이 좋아서	1.4	4.0
안전한 먹거리(급간식)가 보장되어서	1.1	1.4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0.8	7.5
특별활동 운영이 마음에 들어서	0.7	1.6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0.4	4.2
기타	0.3	12.3
계(수)	100.0(707)	(70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서비스 이용 실태

1) 입소 대기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해당 응답률이 72.6% 보다 낮음.
 - 평균 대기 기간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8.5개월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3.6개월보다 약 5개월 길게 나타남.
- 공공형-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유경험률은 54.3%로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높으나, 평균 대기 기간은 유사함.

〈표 10〉 어린이집 입소 대기 여부 및 기간

단위: %(명), 개월

구분	대기 경험		입소 대기 기간						계(수)	평균
	있음 비율	1-6 개월 미만	6-12 개월 미만	12-18 개월 미만	18-24 개월 미만	24-30 개월 미만	30-36 개월 미만	36 개월 이상		
전체	59.7	55.7	22.9	14.6	2.3	3.3	0.4	0.8	100.0(838)	6.56
국공립	72.6	41.9	26.3	20.8	3.6	5.5	0.6	1.4	100.0(506)	8.49
공공형	47.0	76.8	17.8	5.1	0.3	-	-	-	100.0(332)	3.62
$X^2(df)/t$	95.879(1)***						-			12.839***
공공형-민간	42.2	79.0	16.0	4.4	0.6	-	-	-	100.0(181)	3.54
공공형-가정	54.3	74.2	19.9	6.0	-	-	-	-	100.0(151)	3.72
$X^2(df)/t$	9.957(1)**						-			0.515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2) 이용시간/이용비용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기관 이용시간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일 기준 평균 등원 시각은 대략 오전 9시이고 평균 하원 시각은 대략 오후 5시이며, 이들 이용시간을 만족한 비율은 98.0%임.

〈표 11〉 월 평균 추가 이용비용

단위: 원(명)

구분	평균		총계(A+B)	(수)
	특별활동비(A)	기타 비용(B)		
전체	52,810	24,117	76,927	(1,404)
국공립	43,832	18,427	62,259	(697)
공공형	61,661	29,726	91,387	(707)
t	-7.647***	-6.284***	-11.064***	
공공형-민간	78,830	38,364	117,194	(429)
공공형-가정	35,167	16,397	51,564	(278)
t	-12.988***	-7.863***	-17.87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 특별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합한 월평균 추가 이용비용은 약 77,000원선이며, 이는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표 11 참조).
 - 공공형어린이집의 총 추가 이용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약 3만원선이 더 많은 평균 91,387원이며, 특별활동비는 61,661원, 기타 비용은 29,726원으로 조사됨.
 - 해당 비용은 공공형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총 이용비용은 공공형-민간 어린이집이 117,194원으로 공공형-가정어린이집 51,564원 보다 약 2배 높고, 특히 특별활동비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이 월평균 78,830원으로 높게 나타남.
 -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모두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응답율은 26.2%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19.9%) 높고,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서 31.9%로 높게 나타남.

다.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주요 항목별 이용 만족도와 운영 관리 사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이를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서비스 만족도

- 공공형어린이집의 5점 척도로 4.41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36점 보다 높게 나타나며, 공공형_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가 4.49점으로 두드러지게 높음.
- 서비스 항목별로는 원장과 교사가 각각 4.58점(만점 5점)과 4.5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물리적 환경 부문 즉 주변 환경과 시설 설비, 실내환경 부문의 만족도는 각각 4.28점과 4.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의 만족도는 4.4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가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모든 항목에 걸쳐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이용비용 항목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만족도를 보임.
 -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건강관리, 급간식관리 부문에서 국공립이나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개선을 요함.

〈표 12〉 서비스 이용 만족도-전반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t
		가정	민간	전체	
원장	4.40	4.65	4.53	4.58	-3.861***
교사	4.49	4.63	4.52	4.56	-1.645
주변 환경	4.14	4.42	4.18	4.28	-2.725**
시설·설비, 실내 환경	4.27	4.39	4.27	4.31	-0.884
교재 교구 및 장비	4.26	4.37	4.30	4.33	-1.486
내부 분위기	4.37	4.48	4.38	4.42	-1.011
이용비용	4.46	4.47	4.24	4.33	2.830**
건강 관리	4.43	4.52	4.38	4.43	0.076
급간식 관리	4.52	4.58	4.41	4.48	0.869
안전관리	4.47	4.51	4.46	4.48	-0.245
교육내용	4.36	4.49	4.45	4.47	-2.454*
부모참여(운영위원회 등)	4.19	4.38	4.25	4.30	-2.379*
부모교육/부모상담	4.28	4.45	4.30	4.36	-1.623

주: 항목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전반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운영 평가

□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를 살펴보면, 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이 평균 4.58점(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보육 환경과 안전관리 부문이 가장 낮은 4.36점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보육교사/상호작용, 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건강·영양관리, 보육교사/상호작용, 운영관리 항목에서는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민간어린이집보다 높게 평가됨.

〈표 13〉 기관 운영 평가_전반

단위: 점

구분	건강·영양 관리	보육환경/안전관리	보육교사/상호작용	운영관리
전체	4.50	4.31	4.53	4.39
국공립	4.50	4.25	4.48	4.39
공공형	4.51	4.36	4.58	4.39
<i>t</i>	-0.268	-2.953**	-3.127**	-0.077
공공형-민간	4.43	4.36	4.52	4.30
공공형-가정	4.62	4.36	4.67	4.53
<i>t</i>	3.989***	-0.117	3.202***	4.542***

주: 항목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 건강·영양관리 부문은 전반적으로 4.3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관유형별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는 항목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높게 평가됨.

- 공공형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게 되었으나, 공공형-민간어린이 집은 더 낮은 평가 점수를 얻음.

〈표 14〉 기관 운영 평가-건강·영양관리 부문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i>t</i>
		전체	민간	가정	
실내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7	4.50	4.42	4.64	-0.874
놀잇감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1	4.44	4.36	4.57	-0.661
화장실과 세면장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6	4.46	4.37	4.59	0.099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49	4.50	4.43	4.61	-0.121
유아의 급간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된다	4.57	4.55	4.48	4.65	0.749
급식 및 간식 제공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	4.66	4.59	4.54	4.67	1.92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	4.41	4.51	4.43	4.62	-2.497*

주: 항목별 어린이집 건강·영양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보육환경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는 항목은 4.4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항목은 4.1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항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4.29점으로 더 높게 평가한 반면, ‘등하원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항목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

〈표 15〉 기관 운영 평가-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t
		전체	민간	가정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4.43	4.42	4.35	4.53	0.125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4.29	4.18	4.19	4.16	2.351*
다양한 보육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4.34	4.40	4.37	4.44	-1.463
등하원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된다	3.71	4.28	4.44	4.05	-9.053***
실내외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 관리된다	4.36	4.41	4.39	4.45	-1.406
비상사태 대비 설비 및 방안이 갖추어져 있다	4.41	4.47	4.44	4.52	-1.572

주: 1)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항목별 어린이집 보육환경/안전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 보육교사와 상호작용 부문은 이외 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인 가운데, 특히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와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한다’에서는 각각 4.60점과 4.61점으로 높게 평가됨.
- 해당 항목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서도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특히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서 높은 평가를 나타냄.
- 반면 교사와의 소통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여 개선 노력이 요구됨.

〈표 16〉 기관 운영 평가_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t
		전체	민간	가정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4.48	4.60	4.55	4.67	-3.211***
교사는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4.49	4.58	4.52	4.67	-2.352*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한다	4.49	4.61	4.57	4.68	-3.377***
교사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4.44	4.55	4.47	4.68	-2.778**

주: 1)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항목별 어린이집 보육교사/상호작용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1$, *** $p < .001$

□ 운영관리 부문에서는 '기타 필요경비가 적정한 수준이다'와 '부모 참여 등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 항목에서 공히 4.4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항목은 4.3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항목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 점수가 국공립어린이집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항목에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도 높은 4.47점으로 평가된 반면,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4.24점으로 더 낮은 평가를 얻음.

〈표 17〉 기관 운영관리 부문 평가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t
		전체	민간	가정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4.39	4.33	4.24	4.47	1.403
기타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등)가 적정한 수준이다	4.51	4.44	4.36	4.58	1.633
특별활동비가 적정한 수준이다	4.48	4.41	4.30	4.56	1.876
부모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공개한다	4.40	4.41	4.30	4.58	-0.228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4.19	4.35	4.24	4.52	-3.372***
부모참여 등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	4.38	4.44	4.35	4.59	-1.542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 활동이 활발하다	4.37	4.36	4.33	4.41	0.399

주: 1)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항목별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01$

라. 기관 변경 의향

-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에 대기 신청을 해두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8.6%로 조사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임(표 3-10 참조).
 - 대기 신청을 해둔 경우, 대기 기관수는 평균 1.49개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균 대기 기관수인 1.45개와 유사한 수준임.
 - 대기 신청을 해둔 경우, 대기 신청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61.6%로 다수를 차지함.
-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에도 타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이유로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가 43.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나, 공공형-민간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는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높게 나타남.

〈표 18〉 대기 신청 및 신청기관 수

단위: %(명), 개소

구분	대기 기관 유무	대기 신청 기관 수			계(수)	평균
	있음 비율	1개소	2개소	3개소		
전체	9.7	56.6	39.7	3.7	100.0(136)	1.47
국공립	10.8	57.3	40.0	2.7	100.0(75)	1.45
공공형	8.6	55.7	39.3	4.9	100.0(61)	1.49
공공형-민간	6.1	57.7	38.5	3.8	100.0(26)	1.46
공공형-가정	12.6	54.3	40.0	5.7	100.0(35)	1.51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타 기관 대기 신청 사유 중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라고 응답한 부모에게 불만족 내용으로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이용비용이 비싸서’, ‘기관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이 지적됨.

4 개선 과제

가. 개선 방향

- 공공형어린이집은 일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므로, 제도의 목표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는 별개로, 민간 인프라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임을 명확히 함.
 - 2012년 이후 선정기준, 운영 기준, 지원내용에 걸친 지속적인 제도 변화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체성이 모호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제도 개선은 일관된 목표 하에 이루어져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만족도는 기관유형과 기관규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성과 등에서 기관 특성에 따른 세밀한 접근을 요함.
 - 단적으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효과가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서비스 질적 수준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추구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 강화와 비용 규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장치의 마련을 요함.

나. 세부 과제

- 지리적 접근성 격차 해소
 -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수준을 감안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견지함.
 - 즉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은 낮으나 대기 아동수가 많아 공보육 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함.
-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 또는 완화하려는 기관의 제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비중이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므로, 해당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함.

- 선정 시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심보육 부문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운 실정
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앞서 다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 결과에 의하면, 건강·영양
관리와 안전관리 부문의 만족도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므로, 사후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선정 시 가·감점 항목의 비중은 점차 축소하되, 교사의 근속연수와 맞벌이 가구의 재
원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표자와 원장의 동일여부는 불일치 시에 감점을 부여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 비용 수준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노력 등은 추가로 고려함.
 - 재선정 기관의 선정 기준은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하되, 대상 기관에 사전 공지하여 대
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기준이나 사후관리 등에서 추가 요건을 마련함.
- 운영 기준 보완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비용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고, 공공형-민간어린
이집의 특별활동 개수와 해당 비용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
여 보육료 수납 제한은 기타 운영비 사용 비율을 규제함.
 - 특별활동 개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상한액에 대한 관리감독도 엄격하게
실시함.
 - 12시간 기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에서 보다 강조함.
- 사후품질관리 내실화
- 현행 교사 연수는 신청제에 의해 운영되므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후품질
관리는 자율공부모임과 재무회계컨설팅 위주로 내실화함.
 - 자율공부모임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 연한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식을
차별화함.
 - 즉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시기로부터 신규 1년, 2~3년, 3년 이후로 각각 그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되, 3년 또는 4년 이후로는 보육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함.
 - 이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보육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을 중
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괄 전달하고, 지방센터로 하달하는 체계를 명시함.

- 자율공부모임과 교사 연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대체교사를 공공형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함.
 - 재무회계컨설팅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재무회계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를 구축하며, 컨설팅 과정에서 시정 조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함.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강화
- 보육교사가 보육활동에만 주력하여 질적 수준이 담보될 수 있도록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고용 시에 인건비를 일정액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
 - 이때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비담임교사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기관 여건에 따라 별도 인건비 지원 수준을 책정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

● ●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_부록.

보건복지부(2015) 내부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사회보장정보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서문희·이혜민·이원선(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김아름·박기원(2015).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국내 웹사이트】

(재)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pi.or.kr/thebcc> (검색일 2015년 7월 26일)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양미선

1. 서론
 2. 부모모니터링 사업 개요
 3.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요구
 4. 개선방안
-

요약

- 본 연구는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운영 현황 파악하고, 부모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안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 부모모니터링 내실화를 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며,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부모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고, 부모모니터링 결과 운영위원회 보고 범위와 방법 마련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을 실시하였으나 품질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지도점검과 평가인증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사업 도입함.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을 신설하여 부모모니터링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운영 현황 파악하고, 부모모니터링 사업 개선 방안 제시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양미선 이윤진(201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평가. 육아정책연구소. 의 일부임.

- 부모모니터링 관련 법 및 운영기준, 통계자료, 관련 국내 선행연구 등을 수집하여 검토
- 부모모니터링 사업 현황 및 요구, 성과 등 파악
- 부모모니터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다. 연구방법

□ 2014년 부모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보육·보건 전문가 250명과 부모 250명 총 500명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 활동 시 애로 및 요구, 처우, 지표 관련 요구, 부모모니터링 기대 효과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표 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99.2(248)	고졸	16.8(42)
남자	0.8(2)	대학 졸(3년제 이하)	45.2(113)
연령		4년제 대학 졸	31.6(79)
35세 미만	22.4(56)	대학원 졸	6.4(16)
35~40세 미만	46.4(116)		
40~45세 미만	22.0(55)		
45~50세 미만	3.6(9)		
50세 이상	0.4(1)		
		전체	100.0(250)

주: 전체 사례수는 무응답에 의해 일치하지 않음.

〈표 2〉 보육보건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전공분야	
여자	96.8(242)	보육	85.2(213)
남자	3.2(8)	보건	14.8(37)
연령		보육전문가 경력	
35세 미만	17.2(43)	5년 미만	17.8(38)
35~40세 미만	26.4(66)	5~10년 미만	32.4(69)
40~45세 미만	26.4(66)	10~15년 미만	33.3(71)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45~50세 미만	13.6(34)	15~20년 미만	9.9(21)
50세 이상	16.4(41)	20년 이상	6.6(14)
학력		보건의전문가 경력	
고졸	2.4(6)	5년 미만	30.8(4)
대학 졸(3년제 이하)	27.2(68)	5~10년 미만	23.1(3)
4년제 대학졸	33.6(84)	10~15년 미만	38.5(5)
대학원 졸	36.8(92)	15~20년 미만	-
		20년 이상	7.7(1)
		전체	100.0(250)

주: 경력은 해당 대상만 분석하였고, 전체 사례수는 무응답에 의해 일치하지 않음.

-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및 시군구 보육공무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사업운영, 지표, 애로 및 요구, 문제점 및 개선사항,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표 3〉 시도 및 시군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직급	
여자	71.4(75)	9급	11.5(12)
남자	28.6(30)	8급	31.7(33)
연령		7급	44.3(46)
35세 미만	34.3(36)	6급	12.5(13)
35~40세 미만	28.6(30)		
40~45세 미만	20.0(21)		
45~50세 미만	8.6(9)		
50세 이상	8.6(9)		
		전체	100.0(105)

주: 전체 사례수는 무응답에 의해 일치하지 않음.

〈표 4〉 육아종합지원센터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보육 경력	
여자	97.9(47)	5년 미만	13.6(6)
남자	2.1(1)	5~10년 미만	38.6(17)
연령		10~15년 미만	20.5(9)
35세 미만	50.0(24)	15~20년 미만	9.1(4)
35~40세 미만	10.4(5)	20년 이상	18.2(8)
40~45세 미만	27.1(13)	센터 경력	
45~50세 미만	4.2(2)	5년 미만	57.8(26)
50세 이상	8.3(4)	5년 이상	42.2(19)
		전체	100.0(48)

주: 전체 사례수는 무응답에 의해 일치하지 않음.

2 부모모니터링 사업 개요

가. 구성

-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를 1: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 모니터링 단원은 공모절차 통해 신청자를 모집,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1) 모니터링단 자격기준

- 부모모니터링단 즉, 부모, 보육·보건전문가, 컨설턴트 각각의 세부 자격요건은 〈표 5〉와 같음.

〈표 5〉 부모모니터링 선정 기준

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

2) 활동수당

- 부모모니터링단 수당은 2015년 2개소 기준 보육전문가 8만원, 부모 7만원 차등 지급
 - 2013년에는 보육전문가와 부모에게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전문성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보육전문가와 부모에게 차등 지급함.
 - 2013년 보육전문가와 부모 모두 5만원(2개소 기준)에서 2014년 보육전문가 7만원, 부모 6만원으로 인상

나. 교육

- 보건복지부(2014)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 또한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 모니터링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나, 다음 <표 1>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표 6> 지원 어린이집 선정기준

선정 기준
1) 모니터링 신청 어린이집
2) 최근 3년간 지도점검 받지 않은 어린이집
3) 언론, 보도, 보육과정 중 사고발생 어린이집
4)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5)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부적정 지적, 행정처분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

다. 모니터링 절차

1) 모니터링 분야

- 모니터링은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3개 분야이며,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총 3시간 동안 활동함.

〈표 7〉 모니터링 분야 및 진행절차

소요 시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전체 분위기 및 현황 파악 • 모니터링 지표항목 및 점검방법 안내
1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모니터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조치 체계) • 급식관리 모니터링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관리, 식재료 관리) • 위생관리 모니터링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 안전관리 모니터링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단 상호 논의(평가) • 원장(에게) 모니터링 결과 안내, 향후 조치사항 협의

주: 모니터링 일과 진행 예시 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부모모니터링 운영매뉴얼.

2) 모니터링 평가

- 부모모니터링은 건강·급식·위생·안전 분야의 지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지표를 관찰과 면담, 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결과를 표시하고 총점을 산출함.
- 모니터링 현장에서 안내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개선지도를 실시하여 자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 건강·급식위생·안전·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 피해가 우려되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당일 통보해야 함.

3)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 및 경찰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라. 사업예산

-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2013년 6억 4천만원, 2014년 12억 8,800만원, 2015년 13억 2,400만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재정 여건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총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음.

〈표 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 총예산	640	1,288	1,324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 부모모니터링 사업 예산은 2013년에는 단원 수당과 사전교육 1회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2014년에는 운영비로 사업비 총액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2015년에는 이 비율이 30%로 증가함.

3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요구

가. 운영체계

- 부모모니터링은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하고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음.
 - 단, 사업이 시군구 단위로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¹⁾ 대상으로 사업에서의 담당 역할을 조사한 결과, 시도 및 시군구 중 다수인 85% 정도가 단원 모집 및 선발과 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약 40%는 교육, 10% 정도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수인 96.1%가 교육, 84.0%는 컨설팅, 절반 정도는 단원모집 및 선발과 사업 운영을 담당함.
- 시도와 시군구 센터별로 보면, 시도 센터 전체는 교육을 담당하고, 87.5%는 컨설팅, 극히 일부는 단원 모집 및 선발과 사업 운영
- 시군구 센터도 대부분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나, 시도센터보다 단원 모집 및 선발과 사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표 9〉 부모모니터링 담당 업무

단위: %(명)

구분	단원 모집 및 선발	교육	사업운영	컨설팅	(수)
시도 및 시군구					
전체	85.9	37.5	85.9	11.7	(124)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49.0	96.1	52.9	84.0	(51)
시도	6.3	100.0	18.8	87.5	(16)
시군구	68.6	94.3	68.6	82.4	(35)

주: 중복응답 결과임.

나. 부모모니터링단 규모

□ 2014년 말 기준 총 1,701명이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부모 892명, 보육전문가 669명, 컨설턴트 140명임.

- 보육전문가나 컨설턴트는 전년도보다 늘었으나 부모는 반대로 감소함.

1)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만 조사에 참여함.

〈표 10〉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년	1,701	288	130	57	72	48	51	51	10	330	101	51	118	23	119	106	127	19
부모	892	106	79	34	38	24	25	37	5	148	65	25	63	7	77	65	85	9
보육전문가	669	108	51	23	32	24	25	13	5	137	36	24	54	15	35	39	39	9
컨설턴트	140	74	-	-	2	-	1	1	-	45	-	2	1	1	7	2	3	1
2013년	1,810	75	107	47	74	44	52	52	10	259	545	80	87	15	115	106	122	20
부모	1,142	34	75	25	59	23	25	46	5	132	359	37	51	6	89	71	94	11
보육전문가	616	27	32	21	14	21	25	6	5	113	176	38	35	8	26	33	27	9
컨설턴트	52	14	-	1	1	-	2	-	-	14	10	5	1	1	-	2	1	-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다. 모니터링단 교육

□ 2014년 기준, 총 468회 교육이 실시되었고, 외부 위탁교육이 226회, 자체교육이 242회임.

- 교육 참여인원은 2014년 말 기준 1,422명이다. 이중 부모가 785명이고, 전문가는 568명, 컨설턴트는 74명임.

〈표 11〉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교육 횟수 및 인원: 2014년

단위: 회, 명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횟수																		
전체	468	69	33	30	20	8	8	14	2	67	28	19	16	12	40	50	48	4
외부위탁	226	31	22	11	8	6	6	7	1	27	13	10	4	1	23	29	24	3
자체교육	242	38	11	19	12	2	2	7	1	40	15	9	12	11	17	21	24	1
교육인원																		
전체	1,422	237	127	58	63	51	48	50	10	205	83	48	77	23	116	101	116	19
부모	785	100	80	35	35	23	24	37	5	91	58	24	41	7	73	63	80	9
전문가	563	102	47	23	28	28	24	13	5	85	25	23	36	15	27	37	36	9
컨설턴트	74	35	-	-	-	-	-	-	-	29	-	1	-	1	6	1	-	1

자료: 보건복지부(2014). 내부자료.

□ 사전교육 외에 보수교육으로 이론교육이 87.5%, 72.9%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론교육은 평균 1.3회이고, 현장실습은 1.3회 정도임.

〈표 12〉 보수교육 형태

단위: %(명), 회

구분	이론교육		현장실습		기타	(수)
	실시 비율	횟수	실시 비율	횟수		
전체	87.5	1.3	72.9	1.3	22.9	(48)
시도	78.6	1.4	78.6	1.3	14.3	(14)
시군구	91.2	1.4	70.6	1.3	26.5	(34)

□ 사전교육 개선사항으로 부모는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로 현장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4.0%, 부모와 전문가 분리교육이 24.5%, 활동 전 모의실습 실시 15.4%, 현장실습 소그룹 진행 12.0% 정도임.

- 보육·보건 전문가의 경우, 역할이나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부모와 전문가를 분리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고,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 현장실습 강화가 29.8%로 부모와 의견이 다름.

〈표 13〉 사전교육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부모와 전문가 분리교육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 현장실습 강화	현장실습 소그룹 진행	활동 전 모의 실습 실시	기타	없음	계(수)
부모	24.5	44.0	12.0	15.4	2.5	1.7	100.0(241)
자녀연령							
영아	30.2	31.7	11.1	22.2	3.2	1.6	100.0(63)
유아	22.5	48.3	12.4	12.9	2.2	1.7	100.0(178)
전문가	50.0	29.8	5.6	7.3	7.3		100.0(248)
유형							
보육	51.7	28.9	4.7	6.6	8.1	-	100.0(211)
보건	47.9	31.3	8.3	8.3	4.2	-	100.0(48)

라. 지원 규모

□ 부모모니터링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2014년 기준 27,16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62.1%가 지원을 받음.

-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9,471개, 14,489개소로 가장 많고, 국공립 1,404개소,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이 1,273개소, 직장 425개소임.

- 부모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 중 현장개선 지도가 이루어진 어린이집은 총 12,688 개소로 지원 어린이집 중 46.7%에 해당.
- 부모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952개소로 약 1/3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임.

〈표 14〉 부모모니터링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시설 유형						현장개선 지도	평가 인증	공공형/ 서울형
		국공립	법인,법단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체 (비율) ¹⁾	27,169 (62.1)	1,404 (56.4)	1,273 (56.0)	9,471 (63.9)	14,489 (62.1)	107 (71.8)	425 (61.4)	12,688 (46.7)	18,952	1,912
서울	4,289(63.2)	396	104	1,450	2,204	21	114	2,530 (59.0)	2,823	967
부산	1,158(59.2)	109	70	523	431	6	19	677 (58.5)	861	52
대구	1,316(82.9)	29	119	608	542	4	14	378 (28.7)	1,000	70
인천	1,706(73.9)	87	29	619	936	7	28	992 (58.1)	1,491	50
광주	1,037(82.3)	11	101	339	562	6	18	219 (21.1)	715	37
대전	667(39.3)	16	26	195	419	3	8	463 (69.4)	471	36
울산	540(57.1)	5	3	288	234	2	8	99 (18.3)	322	24
세종	115(71.9)	6	7	36	60	-	6	22 (19.1)	33	4
경기	10,094(76.1)	403	144	3,081	6,307	49	110	4,819 (47.7)	6,968	341
강원	537(42.7)	47	80	178	222	2	8	173 (32.2)	430	38
충북	462(37.6)	31	55	151	210	3	12	365 (79.0)	305	21
충남	734(35.8)	22	73	247	373	3	16	377 (51.4)	431	36
전북	613(37.1)	13	60	212	320	-	8	- -	439	19
전남	776(62.5)	56	157	272	275	1	15	291 (37.5)	537	30
경북	1,421(64.2)	98	83	577	642	-	21	744 (52.4)	993	67
경남	1,356(38.4)	60	89	524	670	-	13	443 (32.7)	859	92
제주	348(58.1)	15	73	171	82	-	7	96 (27.6)	274	48
2013년 (비율)	16,019 (37.0)	1,331 (57.1)	880 ²⁾	5,437 (36.9)	8,009 (33.9)	66 (51.2)	296 (47.8)		10,329	

주: 1) 전체 어린이집 대비 지원 어린이집 비율을 의미함.

2) 사회복지법인 38.8%, 법인단체 등 37.1% 차지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마. 모니터링 결과

- 2014년 부모모니터링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중 우수 결과를 받은 어린이집은 25,106개소, 보통 1,854개소, 미흡 209개소로, 2013년보다 우수 어린이집 비율이 증가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이 모니터링 지원받은 어린이집 중 우수 비율이 98.6%로 가장 높고, 부모협동이 84.1%로 가장 낮음.

〈표 15〉 부모모니터링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유형						평가인증 여부	
		국공립	법인,법단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인증	비율
2014년	27,169	1,404	1,273	9,471	14,489	107	425	18,952	(69.8)
우수	25,106	1,384	1,231	8,629	13,360	90	412	18,162	(72.3)
보통	1,854	18	39	733	1,037	15	12	728	(39.3)
미흡	209	2	3	109	92	2	1	62	(29.7)
2013년	16,019	1,331	880	5,437	8,009	296	66	10,329	(64.5)
우수	10,998	1,220	724	3,536	5,226	254	38	7,829	(71.2)
보통	4,041	109	137	1,501	2,234	35	25	2,168	(53.7)
미흡	980	2	19	400	549	7	3	327	(33.4)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 부모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는 총 95개소에서 128건이 보고됨.
 - 사안별로 보면, 시정명령이 126건, 운영정지가 2건임. 시도별로 부산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17건, 경북 14건, 강원 12건임.

〈표 16〉 부모모니터링 결과 행정 조치

단위: 개소, 건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개소	95	6	24	-	2	-	17	-	3	5	12	-	-	-	1	14	11	-
건	128	6	55	-	3	-	17	-	3	5	12	-	-	-	2	14	11	-
시정명령																		
개소	93	5	24	-	2	-	17	-	3	4	12	-	-	-	1	14	11	-
건	126	5	55	-	3	-	17	-	3	4	12	-	-	-	2	14	11	-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정지																		
개소	2	1	-	-	-	-	-	-	-	1	-	-	-	-	-	-	-	-
건	2	1	-	-	-	-	-	-	-	1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바. 모니터링 결과 공개

□ 시군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모니터링 종료 후 어린이집에 결과를 어느 정도 공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 시도 및 시군구는 미공개가 33.9%로 높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공개 19.3%, 총점 11.0%, 컨설팅 대상 여부만 공개 9.2%,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 5.5% 순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미공개가 32%로 높았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와 컨설팅 대상 여부 공개가 각각 16%, 총점 12%,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 8% 순임.

〈표 17〉 모니터링 결과 공개 범위

단위: %(명)

구분	미공개	총점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	모니터링 결과 전체	컨설팅 대상 여부만 공개	기타	계(수)
시도·시군구							
전체	33.9	11.0	5.5	19.3	9.2	21.1	100.0(109)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32.0	12.0	8.0	16.0	16.0	16.0	100.0(25)
시도	-	-	-	100.0	-	-	100.0(1)
시군구	33.3	12.5	8.3	12.5	16.7	16.7	100.0(24)

□ 모니터링 결과 공개에 대한 어린이집의 의견을 살펴봄.

-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16.8%는 결과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결과를 안내받았다는 어린이집 중 41.9%는 미흡 사항만 설명, 30.1%는 모니터링 결과 전체, 나머지는 5% 내외 정도임.
- 지역별로 보면,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보육·보건전문가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결과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도시지역이 다소 높음.

〈표 18〉 모니터링 종료 후 결과 안내

단위: %(명)

구분	전혀 알려주지 않음	미흡 사항만 설명	총점	항목별 점수와 총점	모니터링 결과 전체	기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16.8	41.9	2.6	6.1	30.1	1.6	1.0	100.0(625)
지역규모								
대도시	16.4	41.5	2.1	5.6	31.3	2.1	1.0	100.0(195)
중소도시	16.2	42.3	1.8	6.3	31.7	0.7	1.1	100.0(284)
읍면지역	18.5	41.8	4.8	6.2	25.3	2.7	0.7	100.0(146)

사. 모니터링 결과 활용

□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한다는 응답은 39.4% 정도이고, 57.8%는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소수이기는 하나 2.8%는 지도점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운영위원회 안건, 해당 어린이집의 즉각적인 조치 요청 등이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수인 72%가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활용하고, 12.0%는 지도점검 기초자료, 4%는 평가인증 조력대상 선정 활용함.

〈표 19〉 모니터링 결과 활용 방법

단위: %(명)

구분	부모모니터링 사업으로만	평가인증 조력 대상 선정	지도점검 기초 자료	기타	계(수)
시도·시군구					
전체	39.4	57.8	2.8	-	100.0(109)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72.0	4.0	12.0	12.0	100.0(25)
시도	100.0	-	-	-	100.0(1)
시군구	70.8	4.2	12.5	12.5	100.0(24)

□ 2015년 1월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모니터링 결과를 운영위원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결과 공개 방법이나 그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 시도 및 시군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공개방법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도 및 시군구 중 45%는 아직 계획이 없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지역 중 14.7%는 4개 영역별 점수와 총점, 11%는 결과 전체, 9.2%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 8.3%는 총점 순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절반 정도는 아직 계획이 없고, 계획이 있는 센터 중 4개 영역별 점수가 20.8%,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은 12.5% 차지함.
 - 기타 응답으로, 현장개선지도 및 개선요청 사항만 공개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결과 요약하여 공지, 우수사항, 총점 및 지적사항만 공개하는 등의 의견이 있음.

〈표 20〉 운영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공개

단위: %(명)

구분	결과 전체	4개 영역별 점수와 총점	12개 항목별 점수와 총점	총점	기타	계획 없음	계(수)
시도·시군구							
전체	11.0	14.7	9.2	8.3	11.9	45.0	100.0(109)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	20.8	12.5	-	16.7	50.0	100.0(24)
시도	-	-	-	-	-	100.0	100.0(1)
시군구	-	21.7	13.0	-	17.4	47.8	100.0(23)

아. 컨설팅 지원

- 부모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 중 컨설팅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1,253개소로 전체 모니터링 지원 어린이집 중 4.6%에 해당됨.
 - 2013년 933개소에서 30% 정도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과 민간이 각각 555개소, 609개소로 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은 10~30개소로 소수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민간어린이집이 컨설팅을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크게 늘어남.

〈표 21〉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설 유형						평가인증	공공형/ 서울형
		국공립	법인,법단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14년	1,253 (4.6)	30 (2.1)	38 (3.0)	555 (5.9)	609 (4.2)	10 (9.3)	11 (2.6)	629	112
2013년	933 (5.8)	7 (0.5)	18 (2.0)	371 (6.8)	524 (6.5)	5 (1.7)	8 (12.1)	337	-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 서울이 857개소로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기 218개소, 광주 53개소, 나머지는 10~30개소 수준이고 강원과 충남은 컨설팅 실적이 없음.

- 2013년에는 경기 447개소, 서울 300개소로 경기가 서울보다 실적이 많았으나 2014년에는 경기는 절반 이상 감소하고, 서울은 반대로 두배 이상 증가함.

□ 모니터링 어린이집 대비 컨설팅 지원 비율을 산출하면, 서울이 20.0%, 세종 11.3%, 전남 4.8%, 인천 3.1% 순이다. 서울, 부산, 세종, 전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컨설팅 지원 비율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함.

〈표 22〉 시도별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년	1,253	857	23	2	53	2	5	10	13	218	-	6	-	14	37	2	6	4
(비율)	(4.6)	(20.0)	(2.0)	(0.2)	(3.1)	(0.2)	(0.7)	(1.9)	(11.3)	(2.2)		(1.3)		(2.3)	(4.8)	(0.1)	(0.4)	(1.1)
2013년	933	300	5	5	46	11	7	10	-	447	1	9	1	40	5	35	11	-
(비율)	(5.8)	(15.0)	(0.7)	(0.6)	(4.6)	(1.8)	(1.5)	(2.5)	-	(7.8)	(0.2)	(2.4)	(0.3)	(10.0)	(0.9)	(4.1)	(1.2)	-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내부자료.

- 2013년에는 모니터링 점수가 13점 이하인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하였으나, 낙인효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신청 어린이집에 한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모니터링 지원 후 어느 정도 기간 후에 컨설팅이 지원되는지 조사하였다. 시도 및 시군구는 어린이집별로 상이하다는 비율이 33.0%, 한달 후 19.8%, 2주~1달 이내 17.0%, 1~2주 이내 6.6%, 1주일 이내 0.9% 순임.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별로 상이하다는 비율이 41.9%로 다수이고, 1달 이후 18.6%, 2주~1달 16.3%, 1~2주 4.7%, 1주일 이내 2.3% 순으로 시도 및 시군구와 유사함.

〈표 23〉 컨설팅 지원 시기

단위: %(명)

구분	1주일 이내	1~2주 이내	2주~1달 이내	1달 이후	어린이집별로 상이	기타	계(수)
시도·시군구							
전체	0.9	6.6	17.0	19.8	33.0	22.7	100.0(106)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2.3	4.7	16.3	18.6	41.9	16.3	100.0(43)
시도	7.7	15.4	15.4	-	46.2	15.4	100.0(13)
시군구	-	-	16.7	26.7	40.0	16.7	100.0(30)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3.7% 정도만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지역규모별로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컨설팅 지원율이 높음.

- 컨설팅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컨설팅 영역을 추가로 질문한 결과, 안전관리가 52.2%로 높고, 급식관리 17.4%, 영양관리 8.7% 순임.

〈표 24〉 컨설팅 여부 및 영역

구분	받은 (수)	컨설팅 영역				기타	전체(수)
		안전관리	급식관리	영양관리			
전체	3.7 (625)	52.2	17.4	8.7	21.7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3.1 (195)	16.7	33.3	-	50.0	100.0(6)	
중소도시	5.6 (284)	68.8	12.5	6.3	12.5	100.0(16)	
읍면지역	0.7 (146)	-	-	100.0	-	100.0(1)	

자. 사후관리

□ 어린이집에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진 후 사후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적절한 방법에 대해

-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 지도점검이 33.6%로 높고, 부모모니터링 추가 실시 24.8%, 컨설팅 추가 실시 23.0% 순이고, 사후관리가 필요없다는 의견도 14.2%로 높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컨설팅 추가 실시가 25%로 높고, 부모모니터링 추가 실시와 지도점검이 각각 20%를 차지함.

〈표 25〉 컨설팅 후 사후관리 방법

단위: %(명)

구분	필요 없음	부모모니터링 추가 실시	컨설팅 추가 실시	지도점검	기타	계(수)
시도·시군구						
전체	14.2	24.8	23.0	33.6	4.4	100.0(113)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20.0	20.0	25.0	20.0	15.0	100.0(40)
시도	8.3	33.3	16.7	25.0	16.7	100.0(12)
시군구	25.0	14.3	28.6	17.9	14.3	100.0(28)

4 부모모니터링 개선 방안

가.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으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모와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부모모니터링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모니터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강화함.
 - 부모모니터링단 사전교육은 어린이집 규모 및 유형별 현장실습을 확대하고, 활동 전 모의 실습을 강화하며, 부모와 전문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교육함.

나. 부모모니터링단 대상 보수교육 제도화

- 보수교육은 지역 및 피교육자 특성에 따라 집합교육, 소그룹 교육 등 다양하게 실시한다. 또한 이론교육 1회, 현장실습 2회 실시하고, 교육내용은 어린이집 및 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다. 컨설팅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지원한 후에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사후관리는 어린이집의 컨설팅을 통한 개선 정도에 따라 다양화함.
 - 컨설팅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 가시화된 경우에는 컨설팅을 추가 실시하고, 어린이집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함.
 - 또한 아동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컨설팅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하도록 함.

라. 부모모니터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보육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어린이집통합시스템(CIS) 기능 개선을 통해 부모모니터링 사업관리 기능을 추가함.
 - 부모모니터링단 인력 및 파견일정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결과 관리, 업무연락 등이 one-stop으로 이루어져 담당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함.

마. 부모모니터링 결과 운영위원회 보고 범위와 방법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 결과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그 결과 또한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따라서 총점과 4개 영역별 점수, 미흡 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

● ●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5).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5). 부모모니터링단 관련 내부자료.

양미선·이윤진(201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과 평가. 육아정책연구소.

농어촌 유형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 방안

김은설

1. 문제제기
 2. 농어촌의 개념 및 유형
 3.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4. 농어촌 유형별 교육·보육 특징
 5.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 방안
-

요약

- 본 연구는 최근의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살펴 보고, 다문화, 조손가정 증가 등 농어촌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한 제도상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였음. 특히 농어촌의 지역적 특징을 근접하여 보여줄 수 있는 농어촌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였음.
-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의 특징은 지역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영유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의 영유아 지원 정책도 위축되는 감이 있고 신규시설의 부족, 열악한 접근성, 낮은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연령혼합반 비율이 높고 교사가 부족한 것, 다문화 또는 조손가정 자녀비율이 높은 것 등이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농어촌 교육·보육 문제임.
- 개선 방안으로, 시간연장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 영유아 교사 처우의 개선, 혼합연령반 운영 내실화, 조손 가정 영유아 등록 및 개별지원, 특별활동 지도 강사 공동 활용, 농어촌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제안함.

1 문제제기

- 우리나라 농어촌의 교육·보육 서비스는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농어촌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사회가 도시화와 근대화를 거쳐 산업화를 이루면서 나타난 이농현상은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는 영유아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음.
- 농어촌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아져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된 경향이 있으나 영유아에 대한 그것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농어촌은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맡아 키우는 조손가정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지원은 그들의 수요를 포괄해야하는 특징을 또한 지니고 있음(김은설 외, 2007).

* 본 이슈페이퍼는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 농어촌 대상 육아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활기를 띠지 못하는 일로에 있음.
 - 정부는 그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우선적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무상교육·보육의 전면적인 실시로 도·농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구별 없는 보편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농어촌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농어촌의 5세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3년부터 전국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현됨으로써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은 도·농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버스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힘써 왔음.
- 그럼에도 농어촌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은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지역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음.
 -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한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하는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적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 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여전히 낮음(서문희 외, 2011).
 -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경우 학력과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한편 농어촌 유치원의 대다수가 공립병설유치원이고 많은 경우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해 다연령혼합반을 이루고 있어,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에 최적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집 또한 읍면 소재지에만 국공립 또는 법인시설이 설치되어 농어촌 가정 영유아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노정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은 미진하며 이 부문에 대한 연구 또한 많지 않음. 따라서 사회통합과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의 교육과 보육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최근의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 실태와 그 외 양육서비스의 활성화 실태를 살펴보고, 다문화, 조손가정 증가 등 농어촌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한 제도상의 개선점을 찾아보고자함.
- 농어민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근접하여 보여줄 수 있는 농어촌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농어촌의 개념 및 유형

가. '농어촌' 개념

- 정부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행정구역상 읍(邑)·면(面)지역과 동(洞)지역 중 정부가 별도로 선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축약 농어업식품기본법)」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기본법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법은 이 법이 정한 '농어촌 지역'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음.
- 정부가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농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상의 구분이 아니고 다양한 법령에 의해 시(市)지역 중 국도이용 및 정비와 관련한 '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을 농어촌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함.
- 따라서 현행 제도화된 '농어촌'의 개념은 행정구역상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읍·면지역과 정부가 지정하는 동 지역 중 일부 농어촌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법상의 농어촌 지역 개념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동(洞)지역의 경우 양육지원체계의 측면에서 농어촌으로의 포함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행정구역상 읍·면 그리고 기초자치체인 '군(郡)' 지역을 농어촌으로 보았음.
- 일부 광역시에 포함된 군 또한 농어촌으로 동일하게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도농복합도시의 행정구역상 읍·면은 포함하지 않았음.

나. 농어촌의 유형

- 도시지역이 동으로 단일하게 구분되는 것과 달리 읍과 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농어촌은 주민들의 경제생활 수준이나 산업, 교통·통신 등 기간 인프라 구비 현황 등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은 알려진 사실임.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별 인구수나 자녀양육 행태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농어촌을 단일한 지역으로 묶기 보다는 그 특징에 따라 구분하고 구별된 유형에 따라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이동필 외, 1996)는 농어촌의 유형을 지역의 공업개발 여건에 따라 구분하고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단면적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분류함. 즉, 일반농어촌(33.6%), 추가지원 농어촌(24.6%), 우선지원 농어촌(41.8%)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유형을 제시함.
- 박대식·최경환(2006)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농어촌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농촌(시·군)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18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에 따라 관광부문이 중심인 ‘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한 ‘도시인접지역’, 지역발전이 오히려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 일차산업 중심 평야지대의 ‘평야 농업 중심지역’ 등의 유형을 제시한 것임.
- 국토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연구」(김창현, 이순자, 이성수, 2006)는 농어촌의 특성을 인구, 산업경제, 토지이용, 생활여건 등 4개 차원으로 제시하고 이를 축으로 하여 총 16개의 유형으로 농어촌을 구분하여 각 군을 군집화하여 보여주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OECD는 국민경제와의 통합정도를 기준으로 농촌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농촌(economically integrated rural area)’, ‘중간 농촌(intermediate rural area)’, 그리고 ‘벽지(remote rural area)’임(OECD, 1993).
 - 첫 번째 유형은 도시 근교이며 도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원예,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나 인구측면에서도 성장하는 농촌임.
 - 두 번째 중간 농촌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도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며,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지역임.
 - 세 번째의 벽지는 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산간,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인구가 희박한 유형임.

- 송미령 외(2008)는 도시와의 거리, 인구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고, 김광선 외(2012)는 농가인구비율, 도시농촌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GRDP¹⁾,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성장농촌, 정체농촌, 침체농촌, 낙후농촌 등 4가지로 분류하였음.
- 영유아 인구나 보육 및 유아교육 인프라 등에 관심이 있는 본 연구는 보다 최근에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농촌유형화 방식에 근거하여 농어촌을 구분해 보고자 함. 국토연구원 김창현 외(2013) 연구에서는 농촌을 인구규모, 인구이동, 연령구조 등의 지표로 의미하는 인구정주 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농촌을 유형화하였음.
 -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농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인구실태와 인구변화를 근거 자료로 하는 이 유형화 방식은 A, B, C 3가지 차원으로 농촌을 구분함.
 - 유형 A는 인구규모가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인구 유출이 심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노령화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유형 B는 유형 A에 비해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하지 않으며, 인구규모와 노령화 지수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중간 정도임.
 - 유형 C는 인구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인구 변화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층이 많아 노령화 지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김창현·변필성·구형수, 2013: p. 26).
- 김창현 외(2013)의 유형 구분을 고려하고 지리적 입지 즉, 소재 지역을 함께 감안하여 연구자는 전국의 농어촌 군(郡) 지역을 12개 특성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군을 분류함. 먼저 인구정주 실태와 지리적 입지를 함께 고려한 3대 유형의 특징은 다음의 <표 1>과 같음.

1)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표 1〉 농촌유형별 인구정주 실태 및 지리적 입지

유형	명칭	특징
A	인구과소 낙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가 심함 • 노령화지수²⁾가 높음 • 인구유출이 심함 •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입지
B	농업농촌 중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가 일부 존재 • 노령화지수가 조금 높음 • 인구유출이 유입을 조금 초과함 •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 수행
C	도시농촌 혼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가 적음 • 노령화지수가 낮음 • 인구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음 • 광역시 소재 또는 광역 시도청 소재지 인근에 입지

자료: 김창현·변필성·구형수(2013).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p. 28

□ 위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군을 김창현 외(2013)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제시함. 이 중 여주군과 당진군은 시로 승격되었고, 청원군은 충주시로, 연기군은 세종시로 포함 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표 2〉 농촌 유형에 따른 군지역의 분류

구분	수도권 소재	광역시 소재	광역시·도청소재지 인접	기타
유형A			보은군, 함평군, 장성군, 청도군, 성주군	과산군, 청양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 산청군, 합천군
유형B		강화군	홍천군, 화천군, 인제군, 옥천군, 금산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고령군, 창녕군, 고성군(경남)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강원), 양양군, 영동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 태안군, 무주군, 고창군, 해남군 , 영광군, 완도군, 울진군, 울릉군, 함양군, 거창군
유형C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기장군 달성군, 울진군, 울주군	양구군, 완주군, 무안군, 철곡군, 함안군	철원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홍성군

주: 굵은 글씨체 지역은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 표본 군임.

자료: 김창현·변필성·구형수(2013).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p. 27

2) 김창현 외(2013)에 의하면, “노령화지수는 14세 미만 유소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p. 21).

3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현황

가. 영유아 인구

- 인구분포를 보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0~5세 영유아는 총 2,733,31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94.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5.6% 즉, 152,414명이 농어촌 읍·면 지역 인구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23만 내지 25만 사이에서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0세 인구는 2015년 내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1세 인구 또한 2~4세보다는 2천명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농어촌 영유아 인구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표 3〉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

단위: 명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
0세	181,212	209,625	23,108	413,945
1세	187,837	223,668	24,295	435,800
2세	206,823	250,893	26,701	484,417
3세	200,213	247,307	26,345	473,865
4세	201,087	251,044	26,904	479,035
5세	186,346	234,846	25,061	446,253
합계	1,163,518	1,417,383	152,414	2,733,315
비율	42.5%	51.9%	5.6%	100.0%
영아합계	575,872	684,186	74,104	1,334,162
유아합계	587,646	733,197	78,310	1,399,153

자료: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2015. 2월 말 기준)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은 8,826개원이고 그 중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 도서벽지의 유치원은 33.9%인 2,989개원임.
- 전체 국립 유치원 3개원 중 2개원이 농어촌 지역에 있으며, 공립유치원은 전체 4,616개원의 52.5%인 2,424개원이 농어촌 지역에 있음.

- 사립유치원은 전체 4,207개원의 13.4%인 563개원이 농어촌에 있어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농어촌 소재 비율이 낮은 편임.
- 유치원에 다니는 전국의 유아 652,546명 중 16.1%인 105,105명이 농어촌 지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 그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148,011명 중 31%인 45,810명,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504,277명의 11.7%인 59,146명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비율이 높음.
- 농어촌 영유아 인구가 전국의 5.6%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농어촌에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도시에 비해 타 기관보다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유아인구수와 비교한다면 공립유치원의 시설수는 과도하게 많아 보이기도 함.

〈표 4〉 농어촌 지역 유치원 및 원아수 현황

단위: 명, 개원

구분	계		유치원					
	원아수	시설	국립		공립		사립	
			원아수	시설	원아수	시설	원아수	시설
부산	2,890	31	0	0	820	16	2,070	15
대구	3,491	42	0	0	619	19	2,872	23
인천	751	32	0	0	477	26	274	6
대전	10	1	0	0	10	1	0	0
울산	3,648	53	0	0	719	27	2,929	26
세종	480	19	0	0	480	19	0	0
경기	28,762	545	0	0	7,888	372	20,877	173
강원	5,674	237	66	1	3,622	207	1,986	29
충북	5,908	192	83	1	4,002	169	1,823	22
충남	12,127	367	0	0	5,932	305	6,195	62
전북	4,304	264	0	0	3,578	250	726	14
전남	8,088	381	0	0	5,643	343	2,445	38
경북	11,968	429	0	0	5,227	344	6,741	85
경남	15,746	335	0	0	5,978	270	9,768	65
제주	1,255	62	0	0	815	57	440	5
계	105,105	2,989	149	2	45,810	2,424	59,146	56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2014. 4. 1. 기준)

- 어린이집은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43,742개소이고 그 중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은 8,265개소로 약 18.9%정도임.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2,489개소의 23.6%인 587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20개소의 53.1%인 754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852개소의 42%인 358개소, 민간 어린이집 14,822개소의 21.9%인 3,244개소, 가정 어린이집 23,318개소의 13.6%인 3,178개소 등임.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국공립 순으로 농어촌 소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영유아 1,496,671명 중 22.8%인 341,403명이 농어촌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음. 그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전체 159,241명의 19.2%인 30,651명,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전체 104,552명의 50.4%인 52,647명,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전체 49,175명의 39.6%인 19,493명 등이나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5〉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및 영유아현원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계		어린이집													
	현원	시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현원	시설		
부산	7,145	189	715	13	966	11	0	0	3,382	52	1,839	109	28	2	215	2
대구	6,061	141	348	6	1,044	13	0	0	3,843	70	810	51	16	1	0	0
인천	1,294	32	617	13	0	0	56	1	485	10	136	8	0	0	0	0
광주	637	8	0	0	226	4	28	1	383	3	0	0	0	0	0	0
울산	7,566	175	500	7	609	8	235	3	5,273	105	712	45	15	1	222	6
세종	3,707	88	286	3	733	8	349	4	1,712	32	627	41	0	0	0	0
경기	92,371	2,392	7,529	134	3,127	43	3,065	54	59,786	1,025	17,239	1,099	244	11	1,381	26
강원	19,670	449	3,058	57	4,610	83	1,338	32	8,269	161	1,560	96	50	2	785	18
충북	24,286	435	2,104	33	6,583	86	1,552	24	11,304	163	1,944	112	122	4	677	13
충남	41,042	1,027	2,727	49	7,285	108	2,246	46	21,069	355	6,484	447	0	0	1,231	22
전북	16,121	332	1,152	25	4,832	80	2,822	55	6,443	121	780	46	0	0	92	5
전남	26,461	586	2,795	63	8,473	125	2,619	45	9,634	175	2,586	171	0	0	354	7
경북	32,390	908	4,167	104	3,602	50	1,315	27	17,773	347	5,005	373	0	0	528	7
경남	39,352	1,022	3,390	59	4,383	60	1,682	32	22,202	399	7,272	462	115	3	308	7
제주	23,300	481	1,263	21	6,174	75	2,186	34	11,475	226	1,817	118	0	0	385	7
계	341,403	8,265	30,651	587	52,647	754	19,493	358	183,033	3,244	48,811	3,178	590	24	6,178	120

자료: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2014. 12. 31. 기준)

4 농어촌 유형별 교육·보육 특징³⁾

가. A형 농어촌: 인구감소 낙후 지역

1) 유치원

- 학비는 낮은 편이고 통학차량 운행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차량 운행에 장거리로 오래 행하는 경우가 많음.
 - 유치원의 경우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25%p 이상 높고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 비율은 낮음. 병설유치원 비율이 높으므로 초등학교 건물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부모부담 학비가 월 4천원대로 상당히 낮음. 방과후 특성화 교육비 또한 월 700원 정도로 매우 낮은 가격대를 보임.
 -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비율은 96.7%로 다른 지역유형보다 월등히 높고, 운행거리도 농어촌 유형 중 가장 길.
 - 유치원 급·간식 조리 담당자는 타지역보다 조리사자격을 가진 조리취사부가 일하는 비율이 낮고 영양사가 조리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사가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도 3.3% 정도로 나타남.
- 혼합연령반을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기관별 정원충족률은 낮음.
 - 학급구성과 관련해서 연령혼합 복식학급 구성 비율이 86.8%로 상당히 높음. 이는 B형이나 C형 농어촌에 비해서 꽤 높은 것임. 열 중 여덟아홉은 복식학급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됨. 같은
 - 유치원의 정원 충족률 또한 59.9%로 3개 유형 중 가장 낮음. 유치원 취원아 모집에서 정원을 크게 미달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혼합복식반 운영으로 인해 이들의 지도에 대한 어려움, 질 좋고 수준높은 누리과정 수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또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3) 이 절의 내용은 김은설 외(2015)에서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총 601개원의 원장 및 학부모 각각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근거함.

- 교사 1인만이 교직원(교사)의 전부인 유치원이 다수임.
 - A형 농어촌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가 1명인 경우가 74%에 이른다는 점임. C형 농어촌이 45%인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교사 1인 유치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사가 1명뿐이고 혼합연령반이 대부분인 교육 환경이 누리과정의 적절한 운영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교사의 근무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함.
 - 이 지역의 교사는 평균연령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교사들이 많은 특징이 있음. 또한 교사의 1일 평균 근무 시간은 8.3시간으로 가장 짧음. 그러나 다행히도 공립유치원이 많은 까닭에 방과후전담 교사가 배치된 비율이 84%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교사 연수를 받는 데 있어서는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유형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방과후 특성화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과후 특성화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인근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함께 운영하는 비율이 다른 농어촌 유형 지역보다 높음. 연계 하는 부분은 대부분 강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일부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화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도시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으로 인해 강사초청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사료를 높게 책정할수도 없어 강사영입도 쉽지 않음. 이에 따라 강사풀을 확대하고 강사의 자질을 강화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음.

- 취업모 비율이 높고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정 유아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아침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야간돌봄 실시 비율은 낮은 편임. 어머니가 취업한 비율(66%)이 다른 유형의 농어촌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평균(53.4%)을 상회하고 있고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해 유치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비율은 낮음.

2)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A형 농어촌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다른 유형 지역에 비해 국공립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단독 실외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도 높고 텃밭이나 화단을 갖추고 있는 비율도 높아 물리적 보육 환경이 나쁘지 않음.
-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B형이나 C형 농어촌보다 상당히 낮고 특별활동비나 기타 필요경비 또한 대부분 낮은 수준을 보임. 이는 국공립 비율과도 연동되어 있을 것임.
- A형 농어촌에서 차량운행 비율이 기타 지역보다 높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구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운행거리도 가장 짧.
- 다른 지역에 비해 원장이 급간식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고 조리사 자격 취사부가 가장 많이 채용되어 있는 편임.

□ 0세반 설치율이 낮고 영아 입소 대기율이 매우 높음.

- 영유아 반구성을 보면, 0세반을 설치한 비율이 타 유형지역보다 거의 14%p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 반면 3세반, 4세반, 5세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또한 혼합반 설치 비율도 매우 높음.
- 이 지역 정원충족률은 77%로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휴일보육이나 시간연장보육 운영률은 높지 않고 입소대기야가 있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음.
- 영아의 입소대기야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유아대기율은 낮음. 따라서 영아에 대한 보육수요가 있는데도 0세반 설치가 부족하고 유아반은 비교적 설치가 충분한 편임을 알 수 있음.

□ 농어민가구, 모취업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음.

- 유치원과 비교하면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므로 취약가정의 유아인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됨.

□ 교사채용과 원아모집, 취약 영유아 지도, 혼합반 지도가 어려움

- 어린이집은 운영상 어려운 점으로 교사채용을 첫째로 꼽고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영유아, 장애영유아 등을 보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음. 부모참여나 가정연계도 다른 지역 보다 잘 되지 않음.
- 연령혼합반 지도 또한 힘든 일로 응답되었고, 교재교구비 부족에 대한 요구도 있었음.

- 특별활동 강사 채용이 어려우므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한 비용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큼.
 - 특별활동 실시와 관련해서 강사초청이 어려워 외부강사를 이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또한 특별활동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C형 농어촌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이 높거나 학력 수준이 낮은 보육교사가 많음.
 - 교사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많고 학력은 고졸이 12%로, 비율이 높은 편인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타 지역보다 3%p정도 낮아 교사의 학력이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의 어려운 점으로 대체교사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고 지원자가 적어 교사채용이 어렵다는 반응은 농어촌 3개 유형 중 가장 높았음.
 - 운영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나 지원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음.

나. B형 농어촌: 농업농촌 중심 지역

- B형 농어촌은 전체적으로 A형 농어촌과 C형 농어촌의 중간적인 특징을 보여줌. 예를 들면 공립유치원 설치비율이 A형보다는 낮지만 C형보다는 높고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구비 비율 또한 A형보다는 낮지만 C형보다는 높음. 이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보육 비용 부모 부담액이나 특별활동비, 차량운행율, 연령혼합반 설치률, 정원충족률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중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야간돌봄 및 휴일보육 운영률이 높음.
 - 유치원은 야간돌봄 운영률이 높고 이용 유아 수도 많음. 어린이집 휴일보육 또한 운영률이 높고 영아 이용아 수가 많음. 입소대기 영아가 있는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편이나 유아의 경우는 거의 입소대기가 없음. 영아 보육 수요가 많고 이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농어업 종사자 비율이 낮고 모취업율은 높음.
 - A형에 비해 농어업종사자 비율이 떨어지는데 이는 농어업 이외에도 영유아부모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다양하게 더 있다는 의미임. 이것이 인구감소율을 낮추는 역할을 함.
 - 모취업율은 C형에 비해 상당히 높고 A형과 거의 비슷한 정도임.

- 교사의 근무 시간이 비교적 길고 업무가 과다함.
 - 농어촌 유형 중 유치원교사가 가장 긴 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였음. 둘 다 평균 8.9시간(표준편차 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어린이집은 교사채용, 원아모집과 함께 운영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했으며, 운영비 중 인건비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B형 지역에서 특성화나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채용이 어려움.
 - 어린이집 중 정규교사가 11명 이상인 규모가 큰 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사의 학력은 고졸이 비교적 적고 4년제 졸업자가 약간 높은 편임. A형 농어촌보다 보육교사의 직무보수교육 이수시간이 길지만 대체교사 부재에 대한 고충은 더 많은 비율로 지적됨.
 - 유치원은 교사채용에 대해 어려움이 크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급여수준향상 이외에 숙식제공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함.

다. C형 농어촌: 도시농촌 혼합 지역

- 농어촌 중 가장 국공립 설치 비율이 가장 낮고 가정어린이집 설치율이 높음.
 - 공립유치원 비율이 72%로 농어촌 유형 중 가장 낮은 편이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8% 정도 설치되어 있음. 가정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높아 도시 형태에 가까운 이용 유형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농어촌이 가진 육아지원의 열세한 경향을 덜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에 가까운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입소대기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차량은 운행거리가 가장 짧은 편이고,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원장이 급간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혼합반 설치 비율은 가장 낮고 정원 충족률은 농어촌 유형 중 가장 높은 편이나 유치원은 77%, 어린이집은 84% 수준임. 유치원 모집 정원 대비 지원자가 초과한 비율이 24%가 되고 어린이집은 입소대기아가 있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있음. 영아와 유아 모두 입소대기자 수가 비교적 많음.

- 상대적으로 취업모 비율이 낮고 영어특성화교육 실시율이 높음.
 - 농어업 종사자 수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취업모 비율도 40%대로 가장 낮은 편임.
 - 유치원 특성화활동 중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C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별활동 등을 타 기관과 협력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강사 초빙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가장 낮음.
- 교사 평균 학력 수준이 낮고 급여 수준 또한 낮음.
 - 유치원 교사는 연령분포나 경력이 가장 낮고 어린이집은 고졸 학력자가 13%로 3개 지역 유형 중 가장 많음. 어린이집 교사 급여 수준은 가장 떨어짐.
 - 교사채용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갖고 있는 문제이나 다른 두 유형에 비해서는 어려운 정도가 비교적 적음.

5 농어촌 영유아 교육·보육 개선 방안

가. 방안 제시의 기본 방향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입장에 기본적인 방향을 두고 있음.
 -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함.
 - 농어촌의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고려함.
 - 농어촌이 가진 지역특성 즉, 높은 모의 취업률, 공급이 부족한 영아보육에 대한 상대적 고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을 포함함.

나. 농어촌 육아를 위한 우선적 개선안

- 농어촌의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편적 개선안을 먼저 살펴보고자 함.
- 시간연장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 구역별 거점 기관 활용

- 맞벌이 비율이 높은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 부모가 기존보다 연장된 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충족해주는 시설이나 기관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고 공립유치원이 대부분인 농어촌에서 연장보육 또는 돌봄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지역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장 보육 운영을 구역별로 거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구분 없이 지역 공동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어린이집에 지원될 수 있는 연장보육료는 해당 아동이 유치원에서 연장보육을 받더라도 해당자에게 인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따라 기관 구분 없이 지원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유치원 유아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됨.

□ 공립유치원의 장애·특수 교육 거점 역할 강화

- 농어촌의 취약가정이나 장애아, 특별한 요구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거점역할로서 공립유치원의 역할이 커져야 함.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활용,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교육청 및 교육전문가의 개입 등 전문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요구되는 시설·설비에 대한 정비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농어촌 교사 처우의 개선

- 농어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이 어려운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농어촌 교사에 대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면담조사에 의하면, 교통비나 체재비 등을 고려하면 교사 채용에 큰 장점으로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 농어촌 교사에 대한 수당이 일정 정도 증액되거나 근린주거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교사 복지 방안 실현이 필요함.

□ 부모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강화

- 농어촌 부모에 대한 다양한 부모교육 제공의 기회를 높여야 함. 농어촌 부모일수록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취업모가 많아 부모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체험의 인프라 또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자녀와 함께 부모가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근무 인원으로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우므로,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 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필요한 지역으로 교육 인력과 도구가 이동하여 부모교육이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시간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공된다면 농어촌 부모의 교육·문화적 욕구,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음.

다. 농어촌 유형에 따른 교육·보육 기관 지원 방안

1) A형 농어촌: 인구감소 낙후 지역

□ 혼합연령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연령이 혼합되어 구성된 반이 많아 누리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한 가지 방안은 누리과정 진행을 위한 교사를 투입하여 연령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유치원의 경우 70% 이상이 교사 1명만이 있는 유치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순회교사 투입 등 수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함.
-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가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누리과정보조금으로써 우선적으로 보조교사 활용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인근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간 협력을 통해 일정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개별 학습으로 힘든 누리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집단 활동으로 진행해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유아교육네트워크 사업만으로는 어린이집이 포함되기 힘이 들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함.

□ 유치원 급식담당 인력 지원 강화

- 급간식 마련을 교사가 직접해야 하는 유치원에 대해 구체적 실태파악을 하여 일일 일정시간 인력지원을 하여 급간식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혹은 이웃한 초등학교 등의 급식기관으로부터 이동차량을 통해 간단한 급간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 장애 및 문제 영유아 지도 지원

- 영유아수가 적지만 농어촌에 있을 수 있는 인지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3명이 이하 이더라도 이들을 위한 지원 교사, 전문가 진단에 대한 접근성 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의 경우 지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이 장애유아를 위한 거점 교육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상으로 먼 경우에도 장애 또는 경계선 장애에 있는 문제 유아들이 단시간에 등하원 할 수 있는 차량과 노선을 확보하여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단선화함.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장애아 교육을 위한 주요 역할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전문 교사나 교육 교구, 장비 등이 구비된 특수교실이 마련되어야 함.

□ 조손 가정 영유아 등록 및 개별 지원

- 조부모 양육가정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함. 즉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특히 조손가정 영유아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조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일이 필요함. 또한 혼자 두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을 유도하며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전화를 통한 안내를 하는 것이 요구됨.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이용하여 문화적 실조에 빠지지 않도록 조손가정 영유아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함.

□ 특별활동 지도 강사 공동 활용

- 농어촌 유치원, 어린이집은 특성화활동, 특별활동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사섭외 등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강사풀 구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 농어촌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차량유류대 지원 등을 농어촌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차량의 운행 거리나 범위가 다른 유형에 비해 A형 농어촌이 훨씬 길고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들의 현장학습 등에 활용하는 기관 또한 거리가 멀리 위치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 교사 보수교육 등에서 대체교사 활용이 어렵고 교육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A형 농어촌에 대한 대체교사 우선 활용을 관할 교육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채택하여 교사교육에 허점이 없고 영유아 교육·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2) B형 농어촌: 농업중심 농촌 지역

□ 야간돌봄 및 휴일보육 확충

- 취업모의 비율이 높아 야간돌봄이나 휴일보육 운영률이 높고 이용영유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농어촌 취업모를 위한 보육 운영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장보육, 야간돌봄을 위한 운영 지원이 현실에 적절하도록 검토할 만함.

□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한 교사 지원 인력 양성

- 특히 교사 근무 시간이 길고 업무가 과다한 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에 나타나므로, 교사 지원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이나 학력 등을 완화한 지역 내 인력을 활용한 보조 인력 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교사 교통비 및 체류비 지원

- 교사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으므로 이 유형 농어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유치원방과후 전담교사,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 교통비, 체류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3) C형 농어촌: 도시농촌혼합·인구 유입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 지역

- 공립유치원의 비율은 높은 편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농어촌 중 가장 높지만 입소대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는 있는 곳임. 각 군·읍·면별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 지역부터 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 참고문헌

-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창현·이순자·이성수(2006).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창현·변필성·구형수(2013).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 특성과 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 박대식·최경환(2006). 농촌노인의 사회안전망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2014. 12. 31. 기준)
- 서문희·도남희·송신영(2011).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방안. 농림수산식품부·육아정책연구소.
- 송미령·이동필·성주인·김정섭·박주영·윤병석(2008). '창조적 광역발전' 시대의 농식품부사업의 광역화 및 체계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이상문(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2014. 4. 1. 기준)
- 행정자치부(2015). 주민등록인구통계(2015. 2월 말 기준)
- OECD(1993). What Future for Our countryside?: A Rural Development Policy.

p a r t

03

유아교육·보육 과정 성과 및 개선 연구

-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 박창현
-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개편 방안 | 문무경
- 창의·인성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방안 | 최은영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 인식과 정책 개선 방안: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박창현

-
1. 들어가며
 2. 누리과정 정책 효과 분석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요약

- 본고에서는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2011-2015)을 중심으로 개념연결망분석(Concep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음.
-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관한 104개의 개념어와 출현 비율 1% 이상의 22개의 개념어를 분석한 결과, 국가 책임, 0-5세 누리과정, 재원 부족, 부모 부담, 무상교육(보육) 등의 순서로 주요 개념어가 나타났음.
- 0-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예산 문제(재원부족, 지방채 발행 등)와 부모 부담 문제, 보육대란 및 복지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유아무상보육 정책의 내실있는 운용과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할 추후 과제임.
- 부모추가부담 증가 및 보육대란/복지 디폴트, 지방채 발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어들도 의미있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학교) 타사업 운영 불가, 무상급식폐지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육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명칭임에도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취약계층 지원미비, 증세 논의, 공공성 부족 등은 중심의 개념어보다는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0-2세 무상보육, 보편복지, 지방채발생, 국가책임 등의 중앙에 위치하는 개념어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볼 때, 현재 인식의 지형도에서 강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의미있게 고려해야할 이슈들임.

*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 연구보고서인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의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연구보고 2015-16) 중, SNA 분석의 일부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그림 도표, 정책제언을 추가하였음.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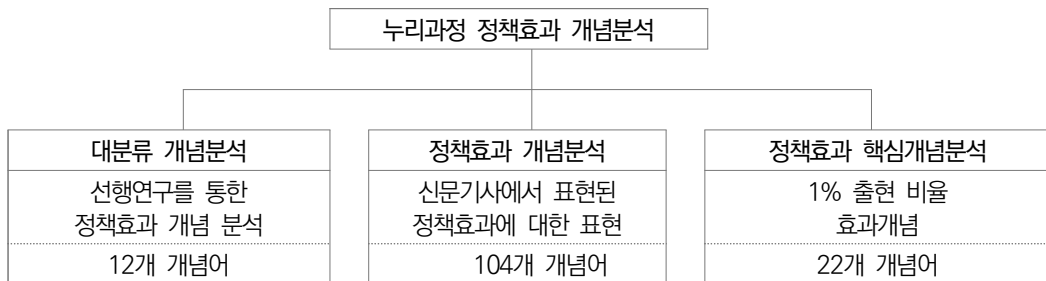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11년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실행해왔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정책은 무상보육(교육) 정책이자, 유·보통합 정책이며,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의 핵심 정책임. 현재 누리과정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의 양적, 질적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0-5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조하였으며,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제공, 동등한 학습 출발선을 보장하는 무상보육(교육)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 이외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출산율 제고 및 여성 취업기회 향상, 영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와 질 제고,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유-초 연계 등의 측면에서의 성과를 기대하였음(참고 표 1).
- 누리과정 정책이 시행된지 5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정책에서 강조했던 목표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누리과정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임.
-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효과와 방향성 검토는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자인 부모와 유아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함. 누리과정 정책 분석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일은 정책개발의 기초가 됨. 특히 정책결정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임.
- 최근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또는 연결망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SNS나 언론에 나타난 국민 여론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연구기법이기에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대한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신문을 중심으로 개념연결망분석(Concept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사회연결망 분석은 언론에 나타난 누리과정 개념어에 대한 관계를 제시해주어 여론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음.
 - 개념연결망분석은 특정 텍스트 안의 개념들 간의 결합 상태와 관계적 의미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생산되는 담론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한 방법임.
- 국내 주요 5개 신문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기사 중, 누리과정 정책효과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음.
 - 분석대상 기사는 누리과정 정책 고시 및 시행되기 시작한 2011년 5월 2일부터 최종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2015년 6월 5일까지 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한정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신문기사에 나타난 누리과정 정책 효과에 관한 개념들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민 여론의 동향과 요구를 살펴보고, 향후 누리과정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나.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그림 1] 누리과정 정책효과 개념어 분석 절차

□ 누리과정의 정책효과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12개의 정책효과와 대분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104개의 누리과정 정책효과 개념어를 신문기사에서 추출하였음. 또한 신문기사 등장 빈도나 SNA에서의 중심성 수치 등을 고려하여 1% 출현 비율을 나타내는 대표성 있는 핵심개념어 22개를 추출하였음. 분석 절차는 [그림 1]과 같음.

- 대분류 개념어는 누리과정 및 무상교육·보육에 관한 정부의 보도자료, 부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12개를 추출하였음. 이를확인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음.
- 정책효과 핵심 개념어는 신문기사에서 직접 수집, 분석한 효과 개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분석결과와 간명성을 위해 신문기사 등장 빈도나 SNA에서의 중심성 수치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개념들을 추출함. 본 연구에서는 출현 비율 1%대로 한정하여 제시함.

<표 1> 누리과정 정책효과와 대분류 개념과 내용

대분류 개념	내용	출처(근거)
국가책무성 강화	0-5세 영유아교육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달성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5. 2 교육과학기술부, 2011. 12. 14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18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모든 영유아의 생애초기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1. 18일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누리과정 지원정책(아이행복카드 등)의 체계화로 행·재정적 절차의 투명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1. 31.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2014. 11. 19
가계경비 부담완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효과로 유아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가계경비 부담 완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5. 2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27
출산율 향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효과로 친 양육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18
여성 취업기회 향상	모든 소득계층 대상 지원으로 여성 취업 및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지환경 마련 및 기회제공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1. 18
영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미래세대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1. 18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	공통과정의 적용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업 및 교육의 질 격차 완화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5. 2

대분류 개념	내용	출처(근거)
동등한 학습 출발선 제공	모든 계층의 영유아의 생애초기 발달 및 학습역량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012. 1. 18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7. 6
기관의 교육보육 질향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5. 2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12. 21
유·초 연계	초등학교(교육과정 등)와의 연계성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1. 9. 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2. 7. 6

자료: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1).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보도자료. 2011. 5. 2.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1). 「만5세 누리과정」 고시. 보도자료. 2011. 9. 2
 교육과학기술부(2011). 5세 누리과정 만 4세, 만 3세 확대. 보도자료. 2011. 12. 14.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1). 3만 2천여명의 유치원·어린이집교사, 한자리에 모여 5세 누리과정 연수 시작. 보도자료. 2011. 12. 21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12). 「3-4세누리과정」 도입계획. 관계부처 합동(붙임) 보도자료. 2012. 1. 18.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2012). 내년 만 3~4세아도 '누리과정(공통과정)' 도입 및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대폭 확대. 보도자료. 2012. 1. 18.
 교육과학기술부(2012). 만 3~4세 유아 내년부터 '누리과정' 도입. 보도자료. 2012. 1. 18.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유아학비·보육료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12. 1. 31
 교육과학기술부(2012). 3~4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완료. 보도자료. 2012. 2. 27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20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고시. 보도자료. 2012. 7. 6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2014).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보도자료. 2014. 11. 19

2) 표집 및 자료 코딩, 분석방법

- 누리과정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검색어는 누리과정(정책), 누리과정 성과(효과), 무상보육(교육)으로 한정하였음. 누리과정에 관한 개념어로 찾은 기사수는 총 732개였으나, 누리과정의 정책 효과와 관련된 유효기사는 총 412개로 정리되었음.
- 1차 코딩은 대분류 개념어, 신문기사에서 개방 코딩된 CIPP 정책효과 개념을 기사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음. 이는 다음의 <표 2>, <표 3>과 같음. 2차 코딩은 1차 코딩된 자료를 SPSS 입력 자료 파일로 변경하였으며 각각의 코딩요소를 수치적 정보로 변경하여 엑셀파일로 재코딩하였음.

〈표 2〉 대분류 개념어 코딩체계

코딩번호	대분류 개념
01	국가책무성 강화
02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
03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04	가계경비 부담완화
05	출산율 향상
06	여성 재취업기회 향상
07	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08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
09	동등한 학습 출발선 제공
10	기관의 교육보육 질향상
11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12	유·초 연계

□ 3차 코딩은 NetMiner 입력자료를 만들기 위해 1차 코딩된 자료에서 대분류와 성과 개념간의 동시 출현 빈도를 산출하여 엑셀파일로 매트릭스 파일을 구성하였음. 코딩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코더간 합치(intercoder agreement)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의 10%인 73개의 기사를 관련분야 박사학위자에게 분석틀에 따른 코딩을 요청하였으며 70% 이상이 일치하였음.

〈표 3〉 누리과정 정책 효과 개념어 코딩 체계

대분류	개념어	대분류	개념어
01	보편복지	03	보조금 질관리(보조금 수령 비리)
01	국가책임	04	유치원비 인상
05	출산율 향상	01	시설부족
01	의무교육	01	무상복지과속
01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투자	02	지원방식다양화논의
06	여성경제활동지원	02	세대간 갈등
02	맞춤형 복지	01	물가안정
04	부모부담경감	01	세수확보
09	취학전 출발선 평등	02	무상급식삭감
02	재원마련(보육예산확보)	02	양육수당신청자증가
02	사회정의	01	보육지출급감
10	취학전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02	재정격차

대분류	개념어	대분류	개념어
02	0-5세 무상보육	02	NOOP현상
02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08	유치원 몰림현상
02	3-4세 누리과정(무상보육)	01	예산돌려막기
02	0-2세 무상보육	02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09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01	온라인의 부정적 여론
02	0-2세 우선지원	01	정부정책용어 이해어려움
02	정부목적예비비집행	01	국비지원(촉구, 요청)
02	누리예산의무지출경비지정	04	부모만족
02	누리예산삭감	04	부모부담
02	12시간 종일제 기준 보육지원	01	지방채발행
02	양육수당 확대	01	교부율 조정
02	육아휴직자 보육료 이종지원	01	가정양육지원(필요)
02	어린이집누리예산편성	06	여성경제활동지원 미비
02	누리예산편성	05	저출산
01	특별활동정보공시규제강화	05	출산율증가
01	무상보육감사	01	보육대란, 복지디폴트
02	누리과정운영시간(최소 3-4시간)	02	무상급식폐기
02	재원부족	02	타사업운영불가
02	예산갈등	02	보편복지
02	교육청예산부담	01	증세논의
10	사교육 배제	01	조세제도개편
10	서비스 공공성	07	아동학대
08	유치원 수요 증가	01	복지축소
02	보육수요예측오류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삭감
01	세수예측오류	10	유보통합, 유보일원화
10	시설중심지원	02	0-2세 양육수당지원필요
01	경기침체	07	영아애착문제
10	어린이집집단휴원	07	부모모럴해저드
10	국공립기관 입학전쟁	02	일시보육제도
01	이익단체	02	선별복지
11	비정규직교사해지	03	아이사랑(즐거움)카드
01	무상보육중단위기	02	취약계층지원미비
01	복지예산증가	01	지방재정효율화
02	0-2세시설이용율증가	01	국비회차지원
01	교부금 규모 갈등	01	지방정부반발
04	부모추가부담증가(특별활동비 등)	04	만 4세 보육료지원

대분류	개념어	대분류	개념어
04	전업주부 역차별	04	셋째아이 무상보육시행
04	맞벌이 직장여성 부담	04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04	3-4세 부모 보육차별	10	질 낮은 교육, 보육 서비스
01	영유아보육법개정(촉구, 요청)	01	무상보육, 홍보필요

주: 대분류 코드: 국가책무성 강화 01,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 02,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03, 가계경비 부담 완화 04, 출산율 향상 05, 여성 재취업기회 향상 06, 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07,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 08, 동등한 학습 출발선 제공 09, 기관의 교육보육 질향상 10,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11, 유·초 연계 12.

2 누리과정 정책 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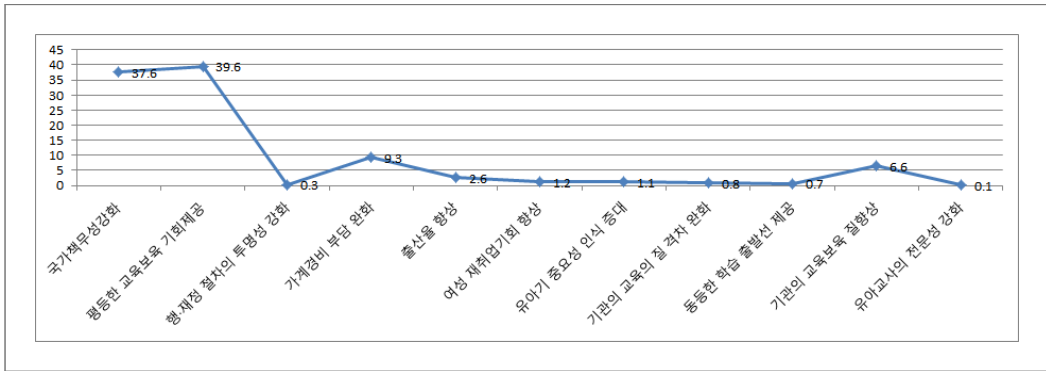
가. 누리과정 정책 효과 개념어의 출현 비율 분석결과

□ 1,906개의 개념어 빈도 중, 대분류에 따른 개념어의 빈도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분류 중 02 코드를 가진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의 비율이 39.6%, 국가책무성 강화가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가계경비 부담 완화가 9.3%, 기관의 교육 보육 질 향상이 6.6%의 순이었음.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유·초 연계의 경우 정책효과의 측면에서 분류된 개념어는 각각 2%, 0%였음.

〈표 4〉 대분류에 따른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대분류	빈도	백분율
국가 책무성 강화	717	37.6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	755	39.6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6	0.3
가계경비 부담 완화	178	9.3
출산율 향상	50	2.6
여성 재취업기회 향상	23	1.2
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21	1.1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	15	0.8
동등한 학습 출발선 제공	13	0.7
기관의 교육보육 질향상	126	6.6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2	0.1
유초연계	0	0.0

단위: 개, %



[그림 2] 대분류에 따른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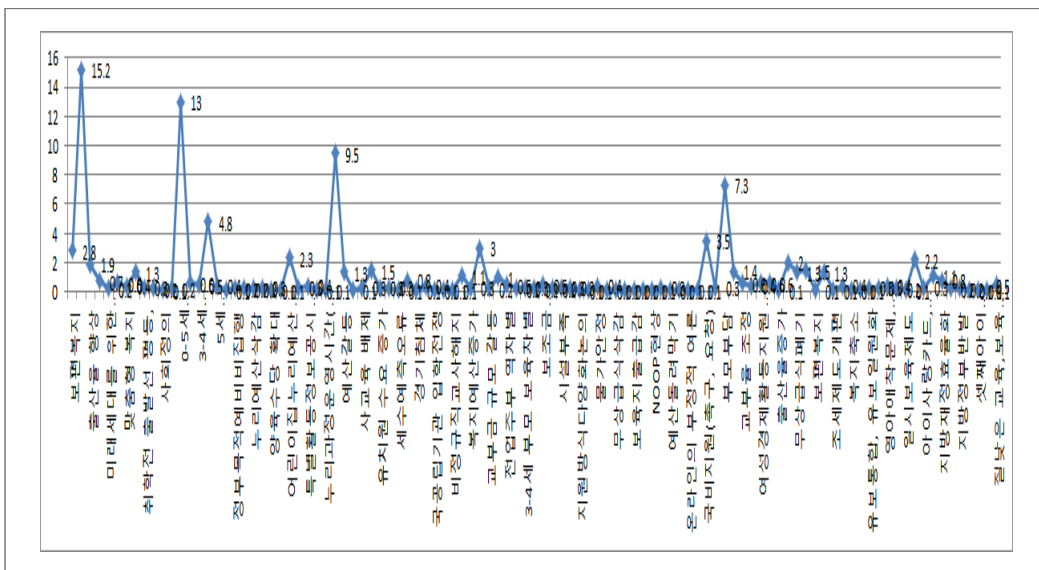
□ 104개 개념어 전체의 출현 빈도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가 책임이 15.2%, 0-5세 누리과정(무상교육)이 13.0%, 재원 부족이 9.5%, 부모 부담이 7.3%, 0-2세 무상교육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5개 개념어의 출현 비율이 전체 출현 빈도의 약 50%를 차지하였음.

<표 5>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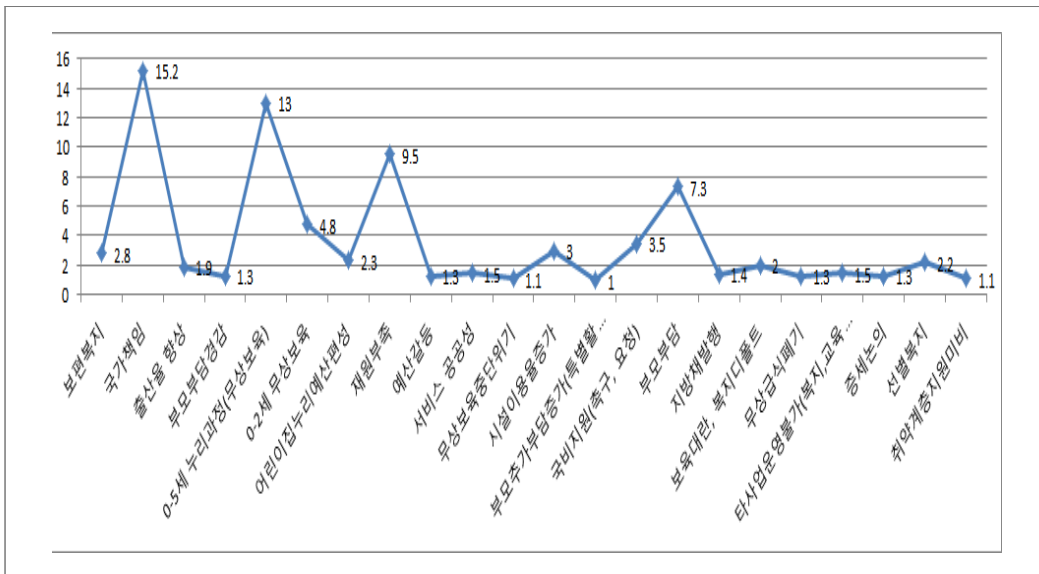
개념어	빈도	비율	개념어	빈도	비율
보편복지	53	2.8	보조금 질관리(보조금 수령 비리)	10	.5
국가책임	289	15.2	유치원비 인상	3	.2
출산율 향상	37	1.9	시설부족	6	.3
의무교육	14	.7	무상복지과속	6	.3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투자	3	.2	지원방식다양화논의	1	.1
여성경제활동지원	11	.6	세대간 갈등	2	.1
맞춤형 복지	8	.4	물가안정	8	.4
부모부담경감	24	1.3	세수확보	1	.1
취학전 출발선 평등,	5	.3	무상급식삭감	2	.1
보육예산확보	3	.2	양육수당신청자증가	1	.1
사회정의	2	.1	보육지출감감	2	.1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3	.2	재정격차	2	.1
0-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248	13.0	NOOP현상	1	.1
3-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12	.6	유치원 몰림현상	5	.3
3-4세 누리과정(무상보육)	9	.5	예산돌려막기	1	.1
0-2세 무상보육	92	4.8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1	.1

개념어	빈도	비율	개념어	빈도	비율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	7	.4	온라인의 부정적 여론	2	.1
0-2세 우선지원	1	.1	정부정책용어 이해어려움	2	.1
정부목적예비비집행	3	.2	국비지원(촉구, 요청)	67	3.5
누리에산의무지출경비지정	4	.2	부모만족	6	.3
누리에산삭감	3	.2	부모부담	139	7.3
12시간 종일제 기준 보육지원	6	.3	지방채발행	27	1.4
양육수당 확대	1	.1	교부율 조정	12	.6
육아휴직자 보육료 이종지원	1	.1	가정양육지원(필요)	7	.4
어린이집누리에산편성	43	2.3	여성경제활동지원 미비	11	.6
누리에산편성	6	.3	저출산	12	.6
특별활동정보공시규제강화	8	.4	출산율증가	1	.1
무상보육감사	2	.1	보육대란, 복지디폴트	38	2.0
누리과정운영시간(최소 3-4시간)	2	.1	무상급식폐기	24	1.3
재원부족	181	9.5	타사업운영불가(복지,교육환경사업 등)	29	1.5
예산갈등	24	1.3	보편복지	1	.1
교육청예산부담	1	.1	증세논의	24	1.3
사교육 배제	5	.3	조세제도개편	2	.1
서비스 공공성	29	1.5	아동학대	8	.4
유치원 수요 증가	5	.3	복지축소	2	.1
보육수요예측오류	6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삭감	1	.1
세수예측오류	1	.1	유보통합, 유보일원화	5	.3
시설중심지원	15	.8	0-2세 양육수당지원필요	6	.3
경기침체	2	.1	영아애착문제, 아동발달저해	8	.4
어린이집집단휴원	8	.4	부모모럴해저드	4	.2
국공립기관 입학전쟁	2	.1	일시보육제도	1	.1
이익단체	2	.1	선별복지	42	2.2
비정규직교사해지	1	.1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5	.3
무상보육중단위기	21	1.1	취약계층지원미비	21	1.1
복지예산증가	5	.3	지방재정효율화	16	.8
시설이용율증가	58	3.0	국비우회지원	4	.2
교부금 규모 갈등	4	.2	지방정부반발	4	.2
부모추가부담증가(특별활동비 등)	20	1.0	만 4세 보육료지원	1	.1
전업주부 역할별	9	.5	셋째아이 무상보육시행	1	.1
맞벌이 직장여성 부담	3	.2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1	.1
3-4세 부모 보육차별	5	.3	질 낮은 교육,보육 서비스	10	.5
영유아보육법개정(촉구, 요청)	3	.2	무상보육홍보필요	1	.1



[그림 3] 개념어 출현 빈도 및 비율

□ 104개의 개념어 중에서 출현 비율이 1% 이상인 경우만 골라서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와 같음.



[그림 4] 1% 이상 출현 개념어의 출현 비율

나. 누리과정 정책 효과 개념어에 관한 개념 연결망 분석결과

- 신문기사에 등장한 누리과정 정책 효과와 관련된 개념어 간의 관계를 개념 연결망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크게 개념어의 중심성(centrality) 분석과, 개념어 간의 관련성 분석의 2가지 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개념어 간의 관련성은 관계빈도를 통하여 도출되는 Spring-Ed 방식의 도표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 출현비율이 1% 이상인 22개의 관련어에 대한 개념 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22개의 전체 평균 중심성은 0.31로 104개 개념어의 중심성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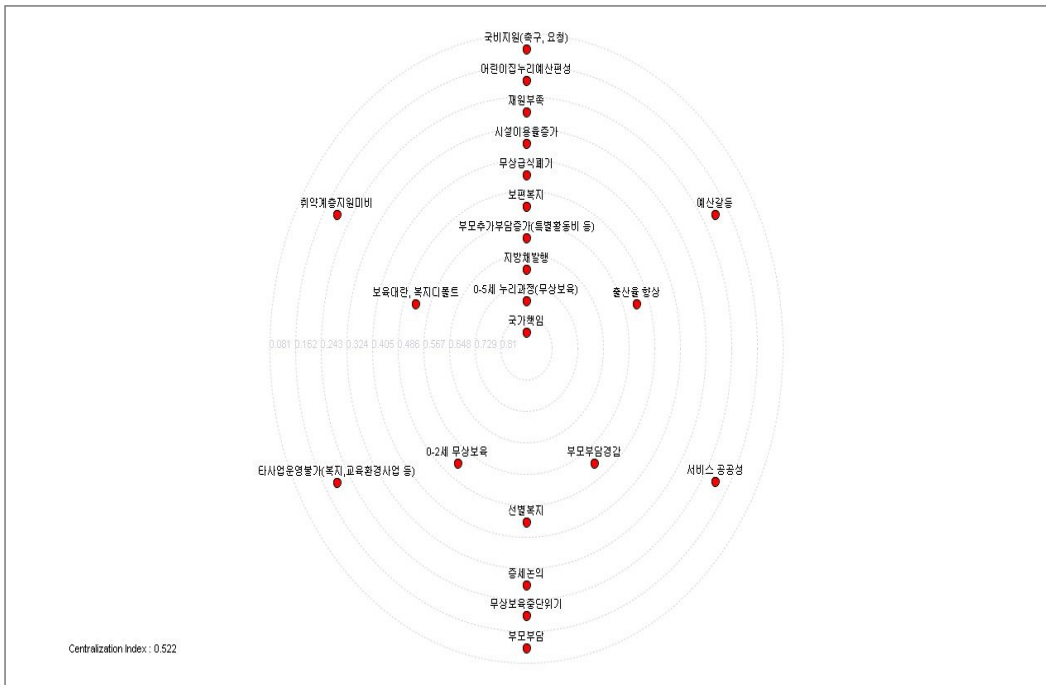
〈표 6〉 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 중심성 통계량

대분류	개념어	중심성	대분류	개념어	중심성
01	보편 복지	0.48	02	0-2세 시설이용율 증가	0.29
01	국가 책임	0.81	04	부모추가 부담 증가 (특별활동비 등)	0.52
05	출산율 향상	0.43	01	국비 지원(촉구, 요청)	0.05
04	부모 부담 경감	0.43	04	부모 부담	0.00
02	0-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0.71	01	지방채 발행	0.57
02	0-2세 무상보육	0.48	01	보육대란, 복지디폴트	0.43
02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0.10	02	무상 급식 폐기	0.38
02	재원 부족	0.19	02	타사업 운영 불가	0.10
02	예산 갈등	0.10	01	증세 논의	0.19
10	서비스 공공성	0.10	02	선별 복지	0.33
01	무상보육 중단 위기	0.10	02	취약계층 지원 미비	0.10
평균: 0.31					

주: 대분류 코드: 국가책임 강화 01, 평등한 교육보육 기회제공 02, 행·재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03, 가계경비 부담 완화 04, 출산율 향상 05, 여성 재취업기회 향상 06, 유아기 중요성 인식 증대 07, 기관의 교육의 질 격차 완화 08, 동등한 학습 출발선 제공 09, 기관의 교육보육 질향상 10,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 11, 유-초 연계 12.

- 이 개념어 중 중심성이 가장 높은 개념어는 ‘국가책임’으로, 104개 전체의 개념어 분석에서도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국민들은 누리과정을 무상보육의 관점에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자리잡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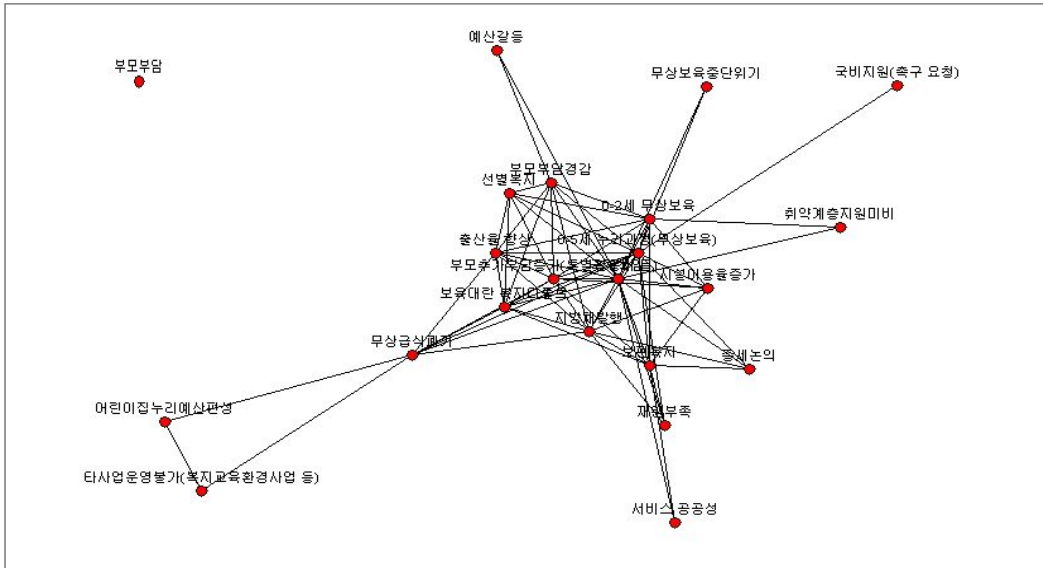
- 0-5세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 부모 추가 부담 증가(특별활동비 등), 출산율 향상, 부모부담경감, 0-2세 무상교육, 보육대란/복지디폴트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 누리과정은 0-5세 무상보육(교육), 0-2세 무상보육, 부모부담경감, 출산율 향상과 같은 주요 개념어도 중요하였으나, 동시에 부모추가부담 증가 및 보육대란/복지 디폴트, 지방채 발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어들도 의미있게 나타났음.
- 이는 누리과정 정책이 무상보육정책으로서 성공적으로 부모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지 못하고, 보육대란, 복지 디폴트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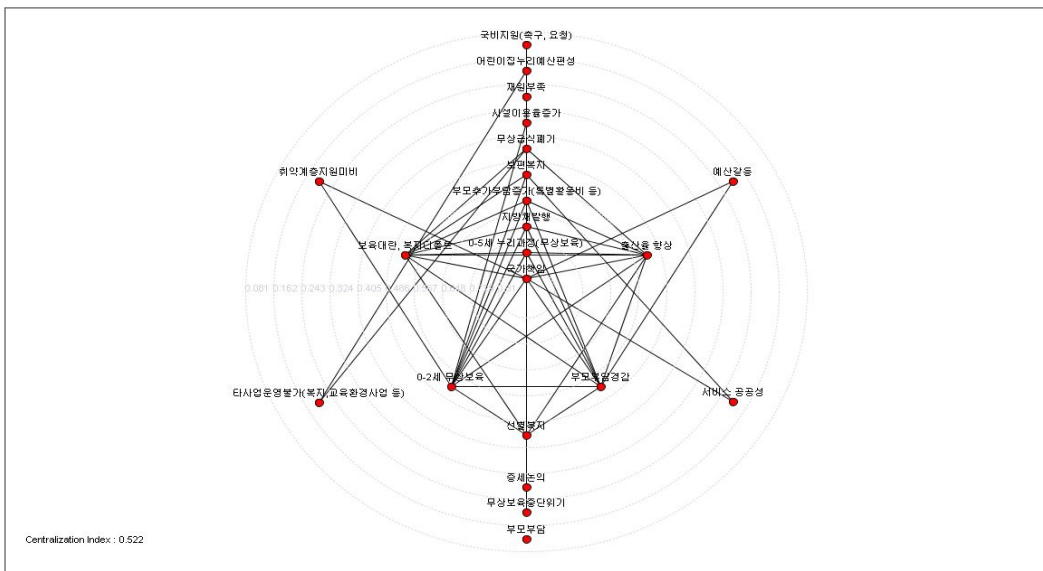
[그림 5] 1% 이상 출현빈도 개념어 중심성 원도표

- 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의 Spring-Ed 도표를 분석한 결과, 부모 부담은 동떨어져 있어서 주요 개념어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음. 부모부담은 104개의 개념어 분석에서와 일관되게 누리과정 정책의 효과로서 등장 비율은 높으나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음.
- 즉, 다른 누리과정 정책효과와 요소들과의 관련성이 적은 채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었음. 이는 국민들이 부모부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함.

-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은 타사업 운영 불가와 연결되면서 이 둘은 다시 무상급식폐기와 연결되어 다른 핵심적인 관련어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임.
- 무상급식폐기는 부모의 추가부담 증가, 보육대란, 복지디폴트, 지방채발행, 출산율향상, 국가책임 등과 연결되는 개념어임.



[그림 6] 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 Spring-Ed 도표



[그림 7] 1% 이상 출현비율 개념어 관계망

- 전체적인 그림의 모습을 보면 누리과정의 효과 측면에서 조밀한 그물망을 만들고 있는 개념어와 주변부 또는 외곽지역에 위치하는 개념어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주변부 또는 외곽지역에는 부모부담, 타사업 운영 불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서비스 공공성, 취약계층 지원 미비, 국비지원, 무상보육 중단 위기, 예산 갈등 등으로 연결성이 0개, 1개, 2개 정도로 관련성이 낮게 나타남.
 - 반면 조밀한 그물망을 구성하는 개념어들은 국가 책임, 무상급식폐기, 보편복지, 지방채발행, 시설이용율 증가, 0-5세 누리과정, 0-2세 누리과정, 부모부담경감, 선별복지, 출산율 향상, 부모추가 부담 증가, 보육대란/복지디폴트 등이었음. 이상의 개념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
- 무상보육중단위기, 국비지원(촉구 요청), 취약계층 지원미비, 증세 논의, 재원부족, 공공성 부족 등은 중심의 개념어보다는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0-2세 무상보육, 보편복지, 지방채발행, 국가책임 등의 중앙에 위치하는 개념어와 연결되어 나타났음.
 - 국비지원의 경우 국가책임과 연결되고, 취약계층지원미비의 경우 0-2세 무상보육과 국가책임과 연결되어 있었음.
 - 타사업 운영 불가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과 연관되었고, 무상급식 폐기와 관련되어 있었음. 관련성이 낮은 개념어의 경우 국가책임이나 이와 관련된 무상급식 등과의 연결 관계가 강함.
- 중심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이용율, 선별복지, 증세논의, 지방채발행, 보육대란/복지디폴트, 부모추가부담증가 등의 개념어들은 다른 개념어와의 관련성 구조에서 비교적 연관성이 높은 위치를 갖고 있었음.
 - 시설이용율 증가의 경우, 0-2세 무상보육, 0-5세 누리과정(무상보육), 국가책임, 보육대란/복지디폴트, 지방채발행, 보편복지 등의 개념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음.
 - 0-2세 시설이용율 증가 현상도 0-5세 무상보육정책과 예산문제와 관련된 개념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예산갈등, 무상보육 중단 위기,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증세 논의, 서비스 공공성, 재원부족 등과 같이 예산과 공공성과 관련된 개념어들은 Sprign-Ed에서 상대적으로 외각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다른 개념어들과 연관성은 낮았음. 그러나 부모부담경감과 국가책임 등과 같은 중심성이 높은 개념어들과 연결되어 있었음.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가. 국가책무와 평등성의 관점에서 ‘무상보육(교육)’ 정책 방향 제고

- 국민들은 누리과정 정책을 ‘국가책임’과 ‘평등한 기회제공’의 관점에서 0-5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0-5세 무상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책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가의 역할은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를 통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여 부모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민들은 누리과정 정책을 0-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 지원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누리과정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0-2세, 3-5세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고민해야함.

나. ‘누리과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

- 부모추가부담 증가 및 보육대란/복지 디폴트, 지방채 발행과 같은 부정적 개념어들도 의미있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과 이미지 개선 및 홍보 정책을 통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음.

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부모부담경감’, ‘지방교육재정’, ‘복지’의 관점에서 제고.

-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부모 부담 문제, 보육대란 및 복지 디폴트와 연결되고 있으므로, 유아무상보육 정책의 내실있는 운용과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청) 간 예산 갈등의 경우, 부모부담경감과 국가책임과 연계되어 있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 (학교) 타사업 운영 불가, 무상급식폐지 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육복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관한 개념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누리과정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라.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유보통합 정책으로서의 인식 강화

-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교육(보육)과정 명칭임에도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특히,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나 유-초 연계의 경우 관련어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누리과정은 교육(보육)과정을 통한 유·보 통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이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비한 편임.

마. 공공성, 증세 논의,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취약계층 지원미비, 증세 논의, 공공성 부족 등은 중심의 개념어보다는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0-2세 무상보육, 보편복지, 지방채발생, 국가책임 등의 중앙에 위치하는 개념어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볼 때, 현재 인식의 지형도에서 강하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으나 의미있게 고려해야할 이슈들임.

● ● ● 참고문헌

- 이진화·박창현·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5-26.
- 현영섭(2015). 평생학습 성과 동향 연구.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57-163).
- Creswell, J. W.(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Gibbs, G. R.(2008). Analyzing Qualitative Data. London: Sage.
- Huberman, A. M., & Miles, M. B.(1994). Data management and analysis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428-444). Thousand Oaks, CA: Sage.

전문가 의견 분석을 통한 누리과정 개편 방안

문무경

1. 문제제기
 2. 전문가 조사 개요
 3. 누리과정 총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4. 누리과정 각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5. 누리과정 개편안
-

요약

- 누리과정은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3-5세 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고자 도입됨.
- 누리과정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 현장 안착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어 온 선행연구와 현장에서 지적된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전문가 약 120명(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60명씩)을 대상으로 3-5세 누리과정 총론과 각론 개편의 필요성 정도 및 개편 내용, 즉 보완·수정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함.
- 누리과정 총론의 구성체제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이도록 함. 누리과정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인간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여 추가하고, '구성방향'을 '구성의 중점'으로 수정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부모참여를 강화하도록 함.
- 현재 누리과정 총론은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한 목적 아래 영역별 목표가 구성되어 있으나 누리과정 전체 목표를 먼저 제시하도록 함.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원리, 유아평가의 원칙과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도록 함.
- 각론 전반에 있어 영역의 명칭과 내용을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 저학년 교과와 연계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함.
- 향후 누리과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편안에 대한 주요 관계자 집단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도 교육과정, 초등교육, 유아특수교육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본 이슈페이퍼는 2015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3-5세 누리과정 개편 방안 연구」(문무경, 배윤진, 송신영)를 토대로 작성됨.

1 문제제기

- 누리과정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선행연구와 현장에서 지적된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은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개발됨으로 인하여 현장적용을 통한 검토과정 없이 시행하게 됨.
 - 지난 3년간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이 약 150여 편에 달하며, 학계에서는 주로 누리과정의 세부내용 활동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
- 2011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근거하여 배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자 0세부터 초등저학년까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하여 누리과정 개편 필요.
- 특히,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의 주요 골자를 반영하여 누리과정의 총론체제를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학교급별 개정 중점사항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명시함(교육부 보도자료, 2014.9.24.).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발맞추어 제시된 인간상을 비롯하여 학교급별 공통사항 등을 3-5세 누리과정에서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향후 누리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로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 인식과 요구 분석을 토대로 누리과정 총론과 각론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전문가 조사 개요

가. 응답자 특성

- 누리과정 해설서, 지침서, 지도서 개발에 참여한 현장교원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의 전문가 풀을 약 120명(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60명씩)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음.
- 1차에 53명, 2차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전문가들의 특성은 <표 1>과 같음.

<표 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1차		2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공	유아교육	31	58.5	27	62.8
	보육	22	41.5	16	37.2
직위	교수	28	52.8	23	53.5
	원장, 원감 (누리과정 개발에 참여)	19	35.9	17	39.5
	센터장	3	5.7	1	2.3
	장학관, 장학사	3	5.7	2	4.7
연령	30대	3	5.7	1	2.3
	40대	17	32.1	13	30.2
	50대	30	56.6	25	58.1
	60대	3	5.7	4	9.3
계		53	100.0	43	100.0

나.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선행연구 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3-5세 누리과정 총론과 각론 개편의 필요성 정도 및 개편 내용, 즉 보완·수정사항으로 구성함. 주요 문항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구분	내용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론 구성체제 (추구하는 인간상/구성방향(초등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실태)/목적과 목표 • 편성 및 운영/교수·학습 방법/유아평가 • 기타 보완사항
각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영역별 목표 내용체계, 중복 및 추가필요 내용, 난이도 수준 등

3 누리과정 총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총론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개편 요구 조사 결과는 전문가의 특성(전공, 직위,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 응답 경향을 제시함.

가. 총론 구성체제

- 추구하는 인간상 추가>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전반적인 구성 순으로 총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매우 필요’가 45.3%로 가장 많음).
 - 한편, 누리과정 시행이 3년밖에 되지 않은 정착단계의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구성을 개편하게 되면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표 3〉 총론 구성의 수정·보완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수)
누리과정의 전반적인 구성	3.21	3.8(2)	26.4(14)	30.2(16)	24.5(13)	15.1(8)	100.0(53)
추구하는 인간상 추가	3.89	3.8(2)	17.0(9)	11.3(6)	22.6(12)	45.3(24)	100.0(53)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3.42	1.9(1)	20.8(11)	30.2(16)	28.3(15)	18.9(10)	100.0(53)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3.25	3.8(2)	22.6(12)	25.8(19)	20.8(11)	17.0(9)	100.0(53)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3.62	3.8(2)	13.2(7)	20.8(11)	41.5(22)	20.8(11)	100.0(53)

- 누리과정 총론을 초중등교육과정의 구성과 일관성 있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편성과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른 장으로 구성하도록 함.
 - 자연탐구영역의 수학적 탐구와 과학적 탐구를 구분하도록 함(동의+매우 동의, 48.9%)

〈표 4〉 총론 구성 전반에 대한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초중등교육과정의 구성체제와 일관된 재구성	3.26	4.7(2)	27.9(12)	18.6(8)	34.9(15)	14.0(6)	100.0(43)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성	3.77	0.0(0)	9.3(4)	23.3(10)	48.8(21)	18.6(8)	100.0(43)
자연탐구영역을 수학적 탐구와 과학적 탐구로 구분	3.26	9.3(4)	30.2(13)	11.6(5)	23.3(10)	25.6(11)	100.0(43)

□ 다수의 전문가들은 2015 개정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간상 및 제3차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과 일관된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 초중등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므로 연계성과 통일성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유아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제3차 0-2세 대상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3-5세 유아 수준에 맞게 서술된 것이므로 누리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제시되거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제안함.
 - 추가될 내용으로는 인성, 타인에 대한 배려, 감정 조절, 다문화의 이해, 창의·융합형 인재 등이 제시됨. 아울러, 아동인권, 민주시민, 세계시민의식 등에 대한 의견이 소수 제시됨.

〈표 5〉 추구하는 인간상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	4.09	0.0(0)	9.3(4)	11.6(5)	39.5(17)	39.5(17)	100.0(43)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간상과의 일관성의 중요성	4.00	0.0(0)	9.3(4)	18.6(8)	34.9(15)	37.2(16)	100.0(43)
표준보육과정의 인간상과의 일관성의 중요	3.98	2.3(1)	7.0(3)	16.3(7)	39.5(17)	34.9(15)	100.0(43)

- 현재 총론 구성방향은 내용과 체계에 대한 방향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부가적으로 창의성, 정서조절, 다문화 이해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기초한 인성교육 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함을 제안함.

〈표 6〉 누리과정 구성방향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현 구성방향에서 내용과 체계 구분 필요성	3.59	0.0(0)	14.6(6)	29.3(12)	39.0(16)	17.1(7)	100.0(41)
정서조절 관련 내용 추가	3.72	0.0(0)	9.3(4)	25.6(11)	48.8(21)	16.3(7)	100.0(43)
다문화 이해 관련 내용 추가	3.44	0.0(0)	16.3(7)	34.9(15)	37.2(16)	11.6(5)	100.0(43)
인성교육 관련 내용 강화	4.17	0.0(0)	2.4(1)	19.0(8)	38.1(16)	40.5(17)	100.0(42)

- 총론의 구성방향에서 현재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 과정과의 연계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수준보다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전반적 연계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여부	2.83	4.8(2)	28.6(12)	45.2(19)	21.4(9)	0.0(0)	100.0(42)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여부	2.79	9.5(4)	26.2(11)	42.9(18)	19.0(8)	2.4(1)	100.0(42)

-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수준의 경우, 각론에서 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져있다고 인식함. 총론의 구성〈편성 및 운영〉해설서·지침서·지도서 순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하여 총론 구성에서의 연계가 가장 잘 이루어져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각론〈편성 및 운영〉해설서·지침서·지도서 순으로 조사됨.

- 누리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수준에 대하여 모두 보육 전문가들이 유아교육 전문가보다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총론 연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 수준							
총론의 구성	4.0(2)	20.0(10)	34.0(17)	32.0(16)	10.0(5)	100.0(50)	3.24
편성 및 운영	4.0(2)	22.0(11)	40.0(20)	24.0(12)	10.0(5)	100.0(50)	3.14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수준							
총론의 구성	8.5(4)	34.0(16)	40.4(19)	14.9(7)	2.1(1)	100.0(47)	2.68
편성 및 운영	6.4(3)	44.7(21)	38.3(18)	8.5(4)	2.1(1)	100.0(47)	2.55

-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현재 5개 영역별로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누리과정 전체의 목표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며 연령별 구분이 필요함.

〈표 9〉 누리과정 목적과 목표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연령별로 목표 제시	3.28	4.7(2)	30.2(13)	23.3(10)	16.3(7)	25.6(11)	100.0(43)
영역별이 아닌 누리과정 전체 목표 제시	3.58	2.3(1)	18.6(8)	16.3(7)	44.2(19)	18.6(8)	100.0(43)

나. 편성 및 운영

- 누리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일 4~5시간 운영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이 지적됨.
 - 또한 편성에 놀이중심, 운영에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평가에서는 유아 평가와 운영 평가 기준의 차이점이 애매하다

는 지적도 있음.

- 유아들의 자유놀이와 구분하여 놀이중심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 학급 편성에 있어서는 장애유아 통합에 대한 편성 방향, 혼합연령학급 편성, 방과 후 과정 및 교사 대 유아 비율 등 학급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운영에 대하여 ‘교육계획안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함’이 제시되어야 하며, 교사교육과 부모교육 관련 내용이 현재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표 10〉 편성과 운영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1일 4~5시간 운영의 의미 명확한 제시 필요	4.17	0.0(0)	0.0(0)	19.0(8)	45.2(19)	35.7(15)	100.0(42)
놀이중심의 의미 상세한 기술 필요	4.14	0.0(0)	2.4(1)	14.3(6)	50.0(21)	33.3(14)	100.0(42)
장애유아 통합에 대한 방향 제시 필요	3.95	0.0(0)	0.0(0)	26.2(11)	52.4(22)	21.4(9)	100.0(42)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내용 제시 필요	4.05	0.0(0)	4.8(2)	14.3(6)	52.4(22)	28.6(12)	100.0(42)
방과 후 과정이나 4~5시간 이후 시간에 대한 언급 필요	3.90	0.0(0)	7.1(3)	23.8(10)	40.5(17)	28.6(12)	100.0(42)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제시 필요	3.52	0.0(0)	19.0(8)	28.6(12)	33.3(14)	19.0(8)	100.0(42)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의 필요	4.26	0.0(0)	0.0(0)	7.1(3)	59.5(25)	33.3(14)	100.0(42)
교사교육 및 부모교육 관련 내용의 보완	3.93	2.4(1)	9.5(4)	11.9(5)	45.2(19)	31.0(13)	100.0(42)
교육계획안에 기초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언급 필요	3.98	0.0(0)	9.5(4)	9.5(4)	54.8(23)	26.2(11)	100.0(42)

다.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 교수·학습 방법에서 주제중심 통합활동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그리함 48.8%, 매우 그리함 41.5%), 교재·교구 등 자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그리함 34.1%, 매우 그리함 31.7%).

〈표 11〉 교수·학습방법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수)
주제중심 통합활동의 구체적인 설명의 필요성	4.29	0.0(0)	2.4(1)	7.3(3)	48.8(20)	41.5(17)	100.0(41)
활동자료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성	3.78	2.4(1)	14.6(6)	17.1(7)	34.1(14)	31.7(13)	100.0(41)

- 평가에 있어서 현재 서술된 내용이 발달에 대한 평가인지 교육내용의 습득에 대한 평가인지 모호하여 평가기준 설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체적인유아평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전문가는 누리과정 운영평가에 교사평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표 12〉 평가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수)
유아평가 내용, 방법 등의 상세한 기술 필요성	4.12	0.0(0)	4.9(2)	17.1(7)	39.0(16)	39.0(16)	100.0(41)
누리과정 운영 평가에서의 교사에 대한 평가 추가 필요성	3.88	0.0(0)	14.6(6)	9.8(4)	48.8(20)	26.8(11)	100.0(41)

4 누리과정 각론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 분석

- 각론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 및 개편 요구 조사 결과는 전문가의 특성(전공, 직위, 연령)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전체 응답 경향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있어서 전공분야(유아교육, 보육)에 따른 전문가 의견의 차이를 제시함.
- 또한 1차 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2차 의견조사 문항이 작성되었으므로 본 고에서는 2차 의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함.

가. 각론 전반

- 총론 내용의 각론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적정하다고 인식한 반면, 총론과 각론이 연계되지 않아 별개로 이루어진 듯하고 총론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론에 반영되지 않음이 지적됨.
- 또한 누리과정의 5개 영역 간 내용연계 수준은 응답자의 40%가 적정하다고 인식하나, 3-5세 연령 간 연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음.
 - 이에, 영역 간 연계보다는 연령 간 내용연계가 요구되며, 연령별 내용수준에 있어 적절한 구분의 필요성이 지적됨.

〈표 13〉 각론 내용연계의 적정성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각론에서의 총론 반영	3.47	2.0(1)	11.8(6)	31.4(13)	47.1(24)	7.8(4)	100.0(51)
5개 영역 간 내용연계	3.28	4.0(2)	16.0(8)	34.0(17)	40.0(20)	6.0(3)	100.0(51)
3-5세 연령 간 연계	3.24	0.0(0)	19.6(10)	45.1(23)	27.5(14)	7.8(4)	100.0(51)

- 영역별 수정·보완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및 예술경험 영역에서 모두 연령별 수준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 간 연계 측면에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며, 연령별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편차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경우, 연령별 수준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48.9%)이 가장 우세하였음. 내용 분량> 내용 범주>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내용 중복>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의 순으로 응답됨.
 -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과 내용범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1.4%, 33.3%)
 - 한편 전문가들은 신체운동·건강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함.
- 의사소통 영역에서 연령별 내용수준에 대한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내용 중복> 내용 분량>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내용범주 순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내용범주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적음(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44%임).
- 사회관계 영역도 마찬가지로 연령별 내용수준에 대한 개편의 요구가 가장 많음. 전반적으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보통 수준이며, 내용 중복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44.9%로 많이 나타남.
 -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내용 분량>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과 내용범주> 내용중복 순으로 개편의 요구가 높음
- 예술경험 영역에서 연령별 내용수준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개편 불필요, 22.4%).
 - 특히 내용중복이나 분량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비해 개편의 필요성을 낮은 것으로 조사됨(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20%대임).
- 자연탐구 영역에서 내용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음(매우 필요+ 필요, 50%).
 - 지나치게 학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음이 지적됨.

〈표 14〉 영역별 수정·보완 필요성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계(수)
신체운동·건강 영역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3.06	2.0(1)	31.4(16)	29.4(15)	33.3(17)	3.9(2)	100.0(51)
내용 범주	3.20	2.0(1)	33.3(17)	19.6(10)	33.3(17)	11.8(6)	100.0(51)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3.16	0.0(0)	22.4(11)	46.9(23)	22.4(11)	8.2(4)	100.0(49)
내용에서 연령별 수준	3.45	0.0(0)	16.3(8)	34.7(17)	36.7(18)	12.2(6)	100.0(49)
내용 중복	3.14	0.0(0)	26.5(13)	40.8(20)	24.5(12)	8.2(4)	100.0(49)
내용 분량	3.22	0.0(0)	24.5(12)	38.8(19)	26.5(13)	10.2(5)	100.0(49)
의사소통 영역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2.88	3.9(2)	29.4(15)	43.1(22)	21.6(11)	2.0(1)	100.0(51)
내용 범주	2.78	4.0(2)	40.0(20)	32.0(16)	22.0(11)	2.0(1)	100.0(50)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3.14	2.0(1)	28.0(14)	30.0(15)	34.0(17)	6.0(3)	100.0(50)
내용에서 연령별 수준	3.36	2.0(1)	18.0(9)	34.0(17)	34.0(17)	12.0(6)	100.0(50)
내용 중복	2.92	2.0(1)	28.0(14)	50.0(25)	16.0(8)	4.0(2)	100.0(50)
내용 분량	2.92	2.0(1)	28.0(14)	52.0(26)	12.0(6)	6.0(3)	100.0(50)
사회관계 영역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3.14	4.0(2)	24.0(12)	32.0(16)	34.0(17)	6.0(3)	100.0(50)
내용 범주	3.14	4.0(2)	26.0(13)	32.0(16)	28.0(14)	10.0(5)	100.0(50)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3.26	2.0(1)	20.0(10)	36.0(18)	34.0(17)	8.0(4)	100.0(50)
내용에서 연령별 수준	3.35	2.0(1)	18.4(9)	32.7(16)	36.7(18)	10.2(5)	100.0(49)
내용 중복	3.04	2.0(1)	26.5(13)	44.9(22)	18.4(9)	8.2(4)	100.0(49)
내용 분량	3.20	2.0(1)	22.0(11)	40.0(20)	26.0(13)	10.0(5)	100.0(49)
예술경험 영역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3.08	2.0(1)	25.5(13)	41.2(21)	25.5(13)	5.9(3)	100.0(51)
내용 범주	3.14	2.0(1)	28.0(14)	34.0(17)	26.0(13)	10.0(5)	100.0(50)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3.28	2.0(1)	10.0(10)	38.0(19)	28.0(14)	12.0(6)	100.0(50)
내용에서 연령별 수준	3.37	2.0(1)	20.4(10)	30.6(15)	32.7(16)	14.3(7)	100.0(49)
내용 중복	2.86	2.0(1)	28.6(14)	55.1(27)	10.2(5)	4.1(2)	100.0(49)
내용 분량	3.01	2.0(1)	24.0(12)	50.5(25)	16.0(8)	8.0(4)	100.0(50)
자연탐구 영역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	3.06	0.0(0)	30.8(16)	40.4(21)	21.2(11)	7.7(4)	100.0(52)
내용 범주	3.10	0.0(0)	33.3(17)	33.3(17)	23.5(12)	9.8(5)	100.0(51)
내용의 전반적 난이도	3.46	2.0(1)	22.0(11)	26.0(13)	28.0(14)	22.0(11)	100.0(50)
내용에서 연령별 수준	3.38	2.0(1)	22.0(11)	26.0(13)	36.0(18)	14.0(7)	100.0(50)
내용 중복	2.96	2.0(1)	28.0(14)	46.0(23)	20.0(10)	4.0(2)	100.0(50)
내용 분량	3.26	2.0(1)	18.0(9)	46.0(23)	20.0(10)	14.0(7)	100.0(50)

□ 한편, 보육전문가들은 현재 5개 영역의 학습내용은 실제 수업상황에 알맞게 조절되므로 현재 제시된 분량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적절함 44.2%, 매우 적절함 7.0%).

〈표 15〉 학습 분량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학습내용이 많음	3.10	4.8(2)	21.4(9)	42.9(18)	21.4(9)	9.5(4)	100.0(42)
학습내용은 실제 수업에서 조절되므로 현재 적절함	3.40	0.0(0)	18.6(8)	30.2(13)	44.2(19)	7.0(3)	100.0(43)

□ 각론 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개편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영역 간 연계보다는 내용의 적절성이 더 중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러함 66.7%, 매우 그러함 19.0%). 특히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90% 이상이 동의함.
- 또한 현재 영역별 활동 균형의 적절성은 평균 3.55점(5점 만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영역별 내용의 진술방식이 모호하여 좀 더 명확한 용어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수가 동의함.(76.7%). 이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약 92.3%, 보육 전문가의 경우는 약 52.9%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임.
 - 또한 영역 간 일관적인 진술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 영역별 구체적인 목표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함(그러함+매우 그러함, 60%)
- 3-5세 연령 구분보다는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문항에는 유아교육보다 보육 분야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음.

〈표 16〉 각론 내용 전반의 개편 의견

단위: %(명), 점

구분	평균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영역 간 연계보다는 내용의 적절성이 더 중요함	3.98	0.0(0)	7.1(3)	7.1(3)	66.7(28)	19.0(8)	100.0(42)
영역별 활동 균형이 적절함	3.55	0.0(0)	9.5(4)	45.2(19)	26.2(11)	19.0(8)	100.0(42)
영역별 '내용'의 명확한 수정의 필요성	4.00	0.0(0)	7.0(3)	16.3(7)	46.5(20)	30.2(13)	100.0(43)
영역별 구체적인 목표나 성취기준 제시	3.88	4.7(2)	2.3(1)	25.6(11)	34.9(15)	32.6(14)	100.0(43)
3-5세 연령 구분보다는 수준 구분이 적절함	3.10	7.1(3)	19.0(8)	35.7(15)	33.3(14)	4.8(2)	100.0(42)

나. 각론 영역별 개편 의견

□ 신체운동·건강 영역

- 1차 조사 결과,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내용이 많으나 이는 영역 특성 상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과 신체운동과 건강의 두 영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됨. 또한 안전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 보완 및 강화되어야 함.
- 2차 조사에서 안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였으며(평균 점 3.74, 69.1%), 특히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그러함+매우 그러함 응답이 76.9%로 나타남.
- 영역의 명칭을 신체운동·안전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수준이 낮음(평균점 2.65/5점 만점, 22.5%).
-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내용 양이 많으므로 신체운동과 건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평균 3.0점으로 보통 수준임(동의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의 비율이 동일함).
 - 보육 전문가들이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비하여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은 (56.3%) 반면,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내용 양이 많지 않으므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48.0%)이 절반 정도 차지함.

□ 의사소통 영역

- 1차 조사에서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전문가들이 읽기와 쓰기 난이도를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기나 문학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2차 조사에서 말하기, 문학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반가량 동의 함(평균점 3.21점. 그러함 35.7% +매우 그러함 11.9%),
-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음이 약 42.9%,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40.5%로 이분화됨.
- 보육전문가들은 말하기와 문학 관련 내용의 추가 및 문해력의 난이도 상향 조정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62.5%, 56.2%로 유아교육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사회관계 영역

- 1차 조사에서 사회관계 영역은 포함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내용 범주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됨. 전문가들은 다문화 혹은 장애에 대한 이해나 통일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즉, 갈등상황에서의 대처, 또래관계, 따돌림, 나와 다른 타인 이해 등에 관한 내용을 강조할 것을 제안함.
- 2차 조사에서 추가되거나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 즉, 갈등대처, 또래관계, 예절, 나와 다른 타인이해 등을 제시한 문항에 대해 90% 이상(그러함 52.4%+매우 그러함 38.1%)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점, 4.29점).
- 또한 다문화와 통일에 관한 내용 추가(평균점 3.74점)와 사회관계 내용과 지리, 경제 등의 사회과학적 내용을 분리하는 것(평균점 3.43점)에는 과반수가 동의함.
 - 특히 보육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약 75.0%)

□ 예술경험 영역

- 1차 조사에서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움직임’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목표 및 내용 진술방식에 있어서 보다 적합한 용어 사용 등이 제안됨. 또한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탐색활동이 강조됨.
- 2차 조사에서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유아 수준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탐색보다는 예술적 요소 탐색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문항 둘 다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점 3.81점; 3.52점).

□ 자연탐구 영역

- 1차 조사에서 자연탐구 영역에 자연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과 수학적 탐구하기 및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등의 내용 보완이 필요함이 제시됨.
- 2차 조사에서 자연보호 관련 내용과 수학적 탐구하기 및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평균 3.83점).
 - 자연보호 관련 내용 추가에 대해 분야별로 동의하는 수준은 비슷함. 한편, 보육전문가들은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전혀 없는 반면,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보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음(약 19.2%).
- 수학적 탐구하기 및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관련 내용 보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 분야에서 약 72.0%가 그러함 혹은 매우 그러함으로 응답하여 보육 분야보다 동의 수준이 높음.
- 한편 자연탐구 영역에 지나치게 학문지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통 34.1%, 그렇지 않음 26.8%, 그러함 24.4%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임.

□ 각론 내용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응답한 전문가들은 대인관계 관련 내용(4.29점)와 자연보호 관련 내(3.83점)의 추가와 강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17〉 각론 내용 영역별 보완 의견

구분	평균	계(수)
안전에 대한 내용 보완	3.74	100.0(42)
명칭을 신체운동·안전으로 변경	2.65	100.0(40)
두 개 영역으로 분리	3.00	100.0(41)
말하기, 문학 등과 관련된 내용의 추가	3.21	100.0(42)
읽기와 쓰기의 난이도 상향 조정	2.93	100.0(42)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 추가 및 강조	4.29	100.0(42)
다문화, 통일 등과 관련된 내용 추가	3.74	100.0(42)
사회관계 내용과 사회과학적 내용 분리 필요함	3.43	100.0(42)
‘움직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함	3.81	100.0(42)
‘아름다움’보다는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는 것으로 수정	3.52	100.0(42)
자연보호 관련 내용 추가	3.83	100.0(42)
수학적 탐구하기 및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등과 관련된 내용 보완	3.76	100.0(41)
지나치게 학문지식적인 내용 포함 여부	2.98	100.0(41)

5 누리과정 개편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5세 누리과정 개편안의 요지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총론 개편을 위한 제안

- 누리과정 총론의 구성체제를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간의 연계 수준을 높이도록 함.
 - 특히 5개 영역을 제시하기 전에 누리과정 비전,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 등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연결성을 제고하도록 함.
- 표준보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을 통해 누리과정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인간상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도출하여야 함. 추구하는 인간상과 더불어 2015 개정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도입한 핵심역량 개념을 누리과정에 도입,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을 ‘구성의 중점’으로 교체하여 초중등교육과정과의 총론체제를 동일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 구성의 중점에는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부모 참여를 강화하도록 함.
- 현재 누리과정은 표준보육과정과 동일한 목적 아래 영역별 목표가구성되어 있으나 누리과정 전체 목표를 먼저 제시하도록 함.
- 편성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수·학습 원리의 강조점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유아 평가의 원칙과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여 실제 누리과정 운영 시 평가가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함.

나. 각론 개편을 위한 제안

- 각론 전반에 있어 영역의 명칭과 내용을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초등 저학년 교과와 연계하여 조정할 것을 제안함.

- 각론 영역별 구체적인 목표나 성취기준이 제시할 것을 제안함.
- 각론 영역별 개편을 위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영역 명칭과 내용에서 안전을 강조하도록 함.
 -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목표 진술 시 반복설명을 축소하고 소목표에서 상 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내용의 수준을 검토하여 연령별 수준에 따른 내용을 재구성하기를 제안함.
 - 사회관계 영역의 경우,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며, 내용 및 세부내용의 위계 보완 및 사회관계적 측면의 보완을 제안함.
 -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와 내용에서 ‘움직임’의 의미를 제시하거나 탐색활동의 대상을 수정하는 등 진술방식에 있어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내용 진술의 수준이나 진술 방식이 유아의 수준에 적절하며 일 관성 있고 명확하도록 수정하고,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부분에서 수학적 소양 관련 내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다. 개편 추진을 위한 제안

- 누리과정의 개편은 먼저 총론의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 각론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동시에 검토, 논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총론체제에 기초하 여 각론을 검토, 개편안을 제시한 제한점이 있음.
- 향후 누리과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개편안에 대한 주요 관계자 집단의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요구되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이외에도 교육과정, 초등교육, 유아 특수교육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국가수준의 초중등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위하여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학회, 서울특별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국가 교육과정 포럼”을 운영하고 방대한 종합보고서(2014)를 발간함.
 - 이와 같이, 누리과정 개정 역시 최소 2년 이상의 탄탄한 준비작업을 통하여 국가수준 커리큘럼이라는 면모에 걸맞는 깊이를 갖춘 누리과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4.9.23.).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요약.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창의·인성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방안

최은영

1. 논의 배경
 2.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 및 요소
 3. 창의·인성 교육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 평가
 4. 개선 방안
-

요약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인성 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인성 교육임.
-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한 유치원교육과정을 평가하여 단위 유치원 수준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개발된 지표는 창의·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첫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음.
-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1 논의 배경

- 미래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아가 미래 마주치게 될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
- 유아의 잠재력,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은 '창의성'과 '인성'으로(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발전 전략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창의·인성 교육'을 정책적으로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임.
- 2013년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과제 또한 '행복교육, 창의인재'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인성을 키우는 학교풍토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 창의·인성 교육은 미래사회 인재양성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됨.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수시연구과제인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심사 지표 및 매뉴얼 개발: 창의·인성 교육을 중심으로(최은영, 박창현, 임준범, 2015)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 최근의 창의·인성 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과 인성 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함(문용린·최인수, 2010).
 - 현장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며(박영태, 2002), 과거에는 창의성과 인성이 독립적인 관계였지만 현대사회의 창의·인성은 상호 독립과 중첩되는 부분이 함께 존재함(박춘성, 2010).
 - 창의성의 한 속성인 독창성과 인성의 속성인 배려의 경우 둘은 상당히 독립적인 개념으로 공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나 독창성을 개인의 사고과정에서 독창성이라 보고, 배려를 조직 내 구성원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는 교육이라는 목적에서 독창성과 배려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임(최미정, 2010).
- 미래사회 인재양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문제로 귀결됨.
 - 교육과정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임.
 -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새로운 교육과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교육과정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에 의해 실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제정된 교육과정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평가 기준이나 지표들은 교육과정의 질을 개념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을 문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활동, 평가 등의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총체적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문서, 실행, 성과에 이르는 전 영역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임(함수곤, 2002).
 - 따라서 평가의 목적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 어떤 영역을 무슨 관점에서 평가할 것인가 즉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며,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이 상이함.

- 본 글은 단위 유치원 수준에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하고자 수행된 최은영·박창현·임준범(2015)의 연구의 일부임.
- 지표 개발 과정에서 학계전문가(유아교육 전공 교수), 현장전문가(장학사, 연구관, 원장, 원감)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쳤으며, 지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서는 각 시·도에 서 추천을 받아 선발된 심사위원 9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2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 및 요소

가. 유아기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요소

- 과거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이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이제는 점차 창의와 인성의 공통부분인 창의적 사고 덕목의 함양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김왕동(2010)은 창의·인성 교육을 창의적 사고 덕목 함양 교육, 윤리적 덕목 함양 교육, 글로벌 시민 덕목 함양 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창의적 사고 덕목은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등의 인지적 요소나 민감성, 개방성, 도전성 등의 정의적 요소임.
 - 윤리적 덕목은 과거로부터 중시되어 오던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의 덕목을 말하는 일종의 협의의 인성교육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민 덕목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다양성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교육, 평화의식, 인권의식, 평등 의식 등의 광의의 인성교육임.
- 창의·인성 교육이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되면서도,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함(교육부, 한국창의재단, 2015, p.4).
 - 또한 창의·인성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대안적인 교육과정의 병합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의 관점을 정형화된 지식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융합 학문적,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요구함(교육과학기술부, 2010).
- 창의·인성 교육의 관련 요소들은 독립성(용기, 자율성), 개방성, 참을성, 몰입, 호기심, 흥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논리분석사고, 정직, 약속(실행), 책임(협동), 배려(존중, 다양성), 소유(절제), 공정(정의로움) 등을 포함함(교육부, 한국창의재단, 2015, p.4).

나. 누리과정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관련 요소

-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은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유아의사회적, 발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강조함.
 -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정을 기초 인성확립과 체험·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배려 공동체 의식, 창의성 개방성 등을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유아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함.
 -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교육 목표임을 강조하고, 유아 단계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내실화를 중요한 내용으로 제시함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3)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우선 인성교육 요소로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를 제시했고, 창의성 교육 요소로는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를 제시함.
 - 만 3~5세 누리과정의 목적, 목표, 구성방향, 영역별 목표에 창의·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함.
 - 누리과정의 교육목표는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 기르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 기르기,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 기르기,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기르기,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 기르기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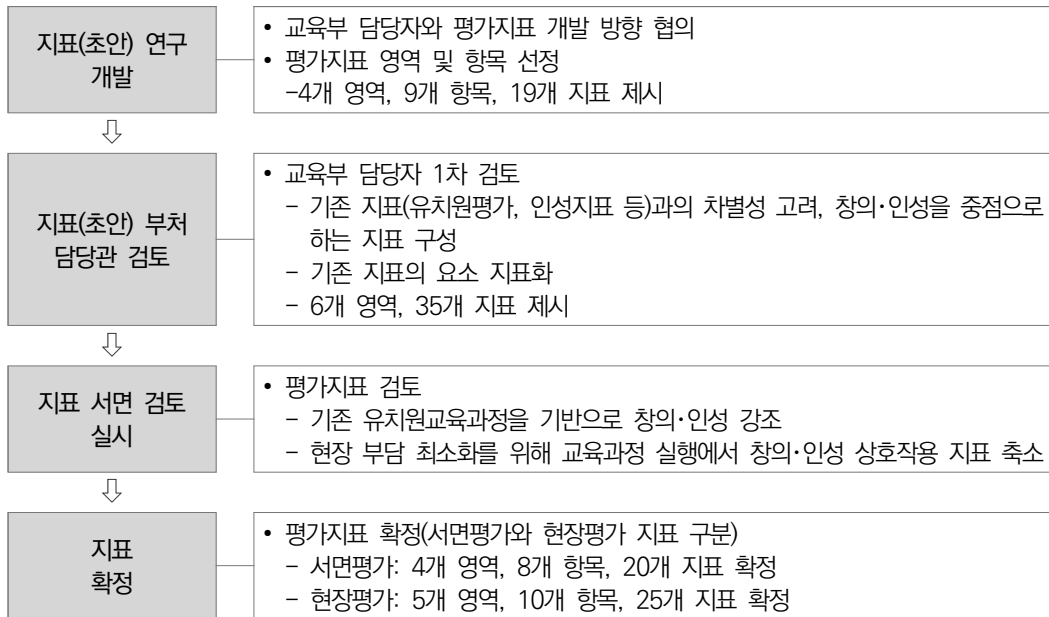
3 창의·인성 교육에 기반한 유치원교육과정 평가

가. 평가지표 개발 방향

- 창의·인성을 기본으로 하는 유치원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시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충실도를 반영함.
 - 유치원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는 배려, 협력, 존중 등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강화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함.
 - 따라서 유치원 평가의 교육과정 영역을 근간으로 유아의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을 중점적으로 평가함.
 - 유치원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
 - 또한 창의·인성 교육이 유치원 일과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창의·인성 개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아의 창의·인성 발달을 위한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놀이 중심의 체험활동을 장려함.
 - 이와 더불어 전체 교원이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지 파악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통해 부모의 인식과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풍토 조성에 중점을 둬.

나. 평가지표 개발 절차

- 유아 창의·인성 관련 문헌(보도자료 및 연구자료 등)과 유관 평가지표(유치원 평가지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등) 등을 참고하여 지표 초안을 개발함.
 - 학계 전문가, 현장 관계자, 교육부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표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지표를 확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평가지표 개발 절차

다. 평가지표의 구성

□ 지표의 체계는 영역, 항목, 지표로 구분하고, 영역은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성함.

- 교육과정 계획 영역은 교육과정 계획 단계에서 창의·인성의 반영 정도와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함.
- 교육과정 실행 영역은 창의·인성 교육의 실행을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함. 교육과정의 실행 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수법의 적합성, 설명이나 주입식이 아니라 유아가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함.
- 교육과정 평가 영역은 교육과정 평가가 결과 중심의 일회성, 획일적인 평가 방식을 지양하고, 유아의 창의·인성 핵심 역량에 중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들로 구성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유아의 발달 수준과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이를 가정과 공유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를 누적적으로 기록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함.

-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적절한 지원과 구성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함.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가정연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유치원교육과정과 유아의 창의·인성을 지원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유아에게 맥락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지역적 특성의 반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로 구성함.

교육과정 계획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운영지원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립의 적절성 • 내용구성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의 적절성(인성) • 상호작용의 적절성(창의성) • 교수방법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의 적합성 •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의 충분성 • 교원역량 제고의 노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연계 정도 • 지역사회 연계 정도

[그림 2] 평가지표의 구성

- 영역별 지표 개수와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의 경우, 4개 영역(교육과정 실행 영역 제외), 8개 항목, 20개 지표이며, 현장평가는 5개 영역, 10개 항목, 25개 지표로 구성함.
- 교육과정 실행 영역은 5개의 지표로 구성하되 인성과 창의성 상호작용을 분리하였으며, 창의·인성 상호작용은 현장 관찰지표로 구성함. 최종 확정된 지표를 제시하면 <표 1>과 같음¹⁾.

1) 인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부처의 정책방향에 따라 개발된 지표에서는 인성·창의성으로 제시함.

〈표 1〉 평가지표 및 배점

영역	항목	지표	서면 평가 배점		현장 평가 배점	
1. 교육 과정 계획	가. 목표 수립의 적절성	1) 교육목표는 전인발달에 맞추어 설정하되, 인성·창의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	10	20	5	10
		2) 교육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가?	10		5	
	나. 내용 구성의 적합성	3) 인성·창의성 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7.5	30	5	20
		4) 인성·창의성 교육내용은 누리과정 5개 영역을 다루고 있는가?	7.5		5	
		5) 연간, 주간, 일일 계획의 목표, 활동,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성·창의성 관련 교육내용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계획하고 있는가?	7.5		5	
		6) 바깥놀이와 자유선택활동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가?	7.5		5	
2. 교육 과정 실행*	가-1. 상호작용의 적절성 (인성)	7) 유아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규칙을 이해하고 질서있게 행동하는가?			5	25
		8) 유아는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아이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는가?			5	
		9) 유아는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가?			5	
		10) 교사는 유아의 요구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5	
	가-2. 상호작용의 적절성 (창의성)	11)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를 보이는가?			5	
		7)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가?			5	
		8) 유아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5	
	나. 교수방법의 적합성	9) 유아들 간에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5	
		10) 교사는 유아의 독창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하는가?			5	
		11) 교사는 유아의 확산적 사고를 유발하는 개방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5	
		12) 유아의 인성·창의성 발달에 적합한 교수법을 시도하고 있는가?			5	
		13)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5	
	3. 교육 과정 평가	가. 평가방법의 적합성			14) 인성·창의성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15) 유아 발달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5	2.5		
나.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6) 평가 결과를 유아에 대한 이해에 활용하는가?	2.5	5	2.5	5
		17) 평가 결과를 누적적으로 기록하고, 보완하여 교육 운영 개선에 활용하는가?	2.5		2.5	

영역	항목	지표	서면 평가 배점		현장 평가 배점	
4.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가. 물리적 환경의 충분성	18) 인성·창의성 교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교재·교구 및 실내환경이 제공되고 있는가?	5	10	2.5	5
		19) 인성·창의성 교육을 지원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시설·설비 및 실외환경이 제공되고 있는가?	5		2.5	
	나. 교원역량 제고와 노력의 정도	20) 교사에게 인성·창의성 교육 관련 연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	10	20	5	10
		21) 인성·창의성 교육과 관련한 자율장학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10		5	
5. 가정 및 지역 사회 연계	가. 가정연계 정도	22) 인성·창의성 교육에 대한 가정연계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5	5	2.5	5
		23) 인성·창의성 교육에 대해 부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2.5		2.5	
	나. 지역사회 연계 정도	24) 인성·창의성 교육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2.5	5	2.5	5
		25)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인성·창의성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가?	2.5		2.5	
계			100		100	

* 교육과정 실행 영역은 서면평가에서 제외됨.

- 개별 지표는 5단계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며, 문서상의 교육과정 계획과 내용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시 강조되어야 할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 계획 영역에서 ‘목표수립의 적절성’ 항목의 2개 지표와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역의 2개 지표는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한편 교육과정 계획 영역의 내용구성의 적합성 항목의 4개 지표는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우수 유치원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평가는 서면과 현장평가로 구분되며, 우수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에서 현장평가의 비중을 두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의 비중을 3:7로 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실행에 중점을 둬م.

라. 평가지표의 적합성 분석

- 지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지표의 각 영역별로 세부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교육과정 계획 영역에서 대부분의 응답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대부분이 목표수립의 적절성과 내용구성의 적합성이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 또한 4점 만점에 3.6점~3.8점으로 매우 높았음.

〈표 2〉 지표의 적합성: 교육과정 계획 영역

단위: %, 점

교육과정 계획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약간적절	매우적절	평균 (4점척도)
목표수립의 적절성	지표 1	3.2	2.1	22.3	72.3	3.6
	지표 2	2.1	1.1	13.8	83.0	3.8
	지표 3	3.2	1.1	23.7	72.0	3.7
내용구성의 적합성	지표 4	3.3	2.2	23.9	70.7	3.6
	지표 5	4.3	2.2	19.6	73.9	3.6
	지표 6	2.2	0.0	14.0	83.9	3.8

- 교육과정 계획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 유치원교육과정 평가가 창의·인성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목표와 내용은 전인발달 및 5개 영역의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만 평가해야 하며, 창의·인성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중적 지표라는 지적도 있어 학계 및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향후 지표 수정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호작용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의견은 전반적으로 매우 적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창의성에 관한 상호작용 적절성이 인성에 관한 상호작용 적절성 보다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교수방법의 적절성 또한 매우 적절과 약간 적절하다는 응답에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점수도 3.6점~3.8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

〈표 3〉 지표의 적합성: 교육과정 실행 영역

단위: %, 점

교육과정 실행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약간 적절	매우 적절	평균 (4점척도)	
상호작용의 적절성	인성	지표 7	1.1	3.2	20.4	75.3	3.7
		지표 8	1.1	4.3	16.1	78.5	3.7
		지표 9	1.1	5.4	21.5	72.0	3.7
		지표 10	1.1	5.4	14.0	79.6	3.7
		지표 11	1.1	3.2	12.9	82.8	3.8
	창의성	지표 7	1.1	3.2	15.1	80.6	3.8
		지표 8	1.1	4.3	19.4	75.3	3.7
		지표 9	1.1	3.2	11.8	83.9	3.8
		지표 10	0.0	4.3	15.1	80.6	3.8
		지표 11	1.1	6.4	13.8	78.7	3.7
		교수방법의 적합성	지표 12	2.2	9.7	17.2	71.0
지표 13	2.1		4.3	21.3	72.3	3.6	

□ 교육과정 실행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단순한 일회성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자칫 유치원 교사 간 수업 운영의 차이로 인한 점수 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제한된 시간에 관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현장 교사의 부담을 우려하기도 함.

- 교육과정 실행의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 과정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관찰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되므로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도 있음.

□ 평가방법의 적합성과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평가지표 영역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임.

- 매우 부적절과 다소 부적절에 응답한 인원이 3명 남짓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평가방법의 적합성과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은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창의·인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전인 발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고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 지표의 적합성: 교육과정 평가 영역

단위: %, 점

교육과정 평가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약간 적절	매우 적절	평균 (4점척도)
평가방법의 적합성	지표 14	1.1	2.2	29.3	67.4	3.6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지표 15	1.1	1.1	18.3	79.6	3.8
	지표 16	1.1	2.2	22.6	74.2	3.7
	지표 17	1.1	2.1	14.9	81.9	3.8

□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역에서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평균 3.6~3.7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정량지표인 연수 실적은 이전 년도는 제외하고 2015년도 연수실적만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장학이나 연수가 창의·인성 교육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지표를 추가하여 정성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연수 실적은 현장평가만이 아니라 서면평가 과정에서도 정량지표로 측정 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우려는 다소 보완될 수 있을 것임.

〈표 5〉 지표의 적합성: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역

단위: %, 점

교육과정 운영지원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약간 적절	매우 적절	평균 (4점척도)
물리적 환경의 충분성	지표 18	1.1	5.3	22.3	71.3	3.6
	지표 19	1.1	4.3	23.4	71.3	3.7
교원역량 제고와 노력의 정도	지표 20	2.1	7.4	21.3	69.1	3.6
	지표 21	2.1	4.3	23.4	70.2	3.6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없었으며, 대다수 평가 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지표로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료 평가보다 전화나 면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 차후 지표의 개선 시 부모와 직·간접적인 면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 지표의 적합성: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

단위: %, 명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매우 부적절	다소 부적절	약간 적절	매우 적절	평균 (4점척도)
가정연계 정도	지표 22	0.0	2.1	21.3	76.6	3.7
	지표 23	0.0	3.2	21.3	75.5	3.7
지역사회 연계 정도	지표 24	0.0	4.3	26.6	69.1	3.7
	지표 25	0.0	6.5	24.7	68.8	3.6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개 영역 모두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기타 의견으로 차후 지표 수정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의견도 있었음.
- 이에 개발된 지표의 시범적용 등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유치원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내실 있는 평가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 개선 방안

-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에서 창의·인성 측면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성과 창의성을 구분하는 지표는 현장 및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지표 수정에 반영되어야 함.
- 우수 유치원교육과정 평가에서 교육목표와 내용은 전인발달 및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전인발달은 교육 목표로서 지향점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것으로 전인발달을 지향한다는 것은 창의·인성을 갖춘 인간을 가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과정 실행 영역은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 교육과정 실행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 의견에 따르면 단순한 일회성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자칫 유치원 교사 간 수업 운영의 차이로 인한 점수 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제한된 시간에 관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현장 교사의 부담을 우려하기도 하였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되므로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포함한 바 있으나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도 있음.
 - 다만 개발된 유치원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평가지표는 1차 서면과 현장, 2차 서면과 현장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회 이상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 평가 영역은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우수한 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특정화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 교육과정 평가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 의견에 의하면 창의·인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전인발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누리과정의 5개 영역에 따른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방법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과정의 평가를 위한 지표나 기준들은 교육과정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평가 지표가 평가의 맥락과 시대적 요구를 따라 특정 영역에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가 기준 자체를 교육과정의 질 개념화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황규호·김경자·서경혜·홍원표·온정덕·이미지·김수진, 2012).

- 지표의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우수 기관으로서 연수 실적에 대한 합의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본 지표에 포함된 정량지표인 연수 실적은 현장평가만이 아니라 서면평가 과정에서도 정량지표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연수 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현장의 합의된 시각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임.

- 실제로 연수를 받기 어려운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수준을 높여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차후 지표의 개선 시 부모와 직·간접적인 면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가정 및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 대한 전문가 조사 의견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은 협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료 평가보다 전화나 면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치원이 지역사회 유아교육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지표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발된 지표는 창의·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의 첫 출발로써 의미를 가짐.
 -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창의·인성 교육 기본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 인성교육 기본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3).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한국창의재단(2015). 창의·인성 교육 컨설팅 매뉴얼.
- 김왕동(2010). 창의·인성 교육의 근본적인 해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ssue and Policy. 2010.11.
- 문용린·최인수(2010). 창의·인성교육 표준지침(교장 연수용). 창의·인성 선도학교 관리자 연수 발표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5.18.)
- 박춘성(2010). 창의·인성의 특성과 학교에서의 발현을 위한 방안 탐색. 창의력 교육연구 10(2), 61-72.
- 최미정(2010).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모형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501-526.
- 함수곤(2002).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 연구 39, 8-13.
- 황규호·김경자·서경혜·홍원표·온정덕·이미지·김수진(2012). 국가수준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준거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p a r t

04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2005-2014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 | 최은영
-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 박진아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 최은영
- 지방정부 재정 지원 현황과 보육비용 | 양미선

2005-2014 유아교육 현황과 정책 과제

최은영

1. 논의 배경
 2. 유아교육 현황 추이 분석: 2005-2014
 3.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 및 과제
-

요약

- 정부는 선진 유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아교육정책 방안과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시행, ‘유아교육발전 5개년(‘13~‘17) 계획’ 등으로 유아교육에서 획기적인 정책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 만 3세의 취원율은 4.6%p, 만 4세의 취원율은 3.5%p 증가하여 2012년 누리과정 도입·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크게 확대되어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 보육 재정을 합산하여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최근 유아교육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글에서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교원, 질 관리,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과제를 도출함.

1 논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아를 교육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교육적 평등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회적 책무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 및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아교육정책에 대하여 사회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음.
- 유아교육 관련 정책의 개발은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국민행복’ 구현의 국정과제 실천과 맞물려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연구과제안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최은영·이진화·김승진, 2015)’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함.

- 정부는 선진 유아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유아교육정책 방안과 제도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 발전 방안’,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2013년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 시행, ‘유아교육발전 5개년(13~17) 계획’ 등으로 유아교육에서 획기적인 정책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 대비 2013년 만 3세의 취원율은 4.6%p, 만 4세의 취원율은 3.5%p 증가하여 2012년 누리과정 도입·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크게 확대되어 2013년 기준 GDP 대비 총 유아교육 재정은 0.3%, 보육 재정을 합산하여 0.9%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a).
 - 2014년 유아교육 예산은 2013년에 비해 약 1조 6,645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것으로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급식 지원이 포함된 교육복지 예산이 전체 유아교육 재정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가 급변하고 있는 최근 유아교육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글에서는 유치원 설치와 이용, 교원, 질 관리,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유아교육의 성과지표로 설정한(김은영 외, 2011; 김은설 외, 2010) 선행연구를 근거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과제를 도출함.
 -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아교육 현황은 교육부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유아교육연차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제시함. 다만 유아교육 지원체계 현황 등 일부 자료는 정책도입 시기와 연동하여 2010년 이후 현황을 제시함.

2 유아교육 현황 추이 분석: 2005-2014

가. 유치원 설치 및 이용

1) 유치원 수

□ 최근 10년간의 유치원 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은 2006년도에 53.8%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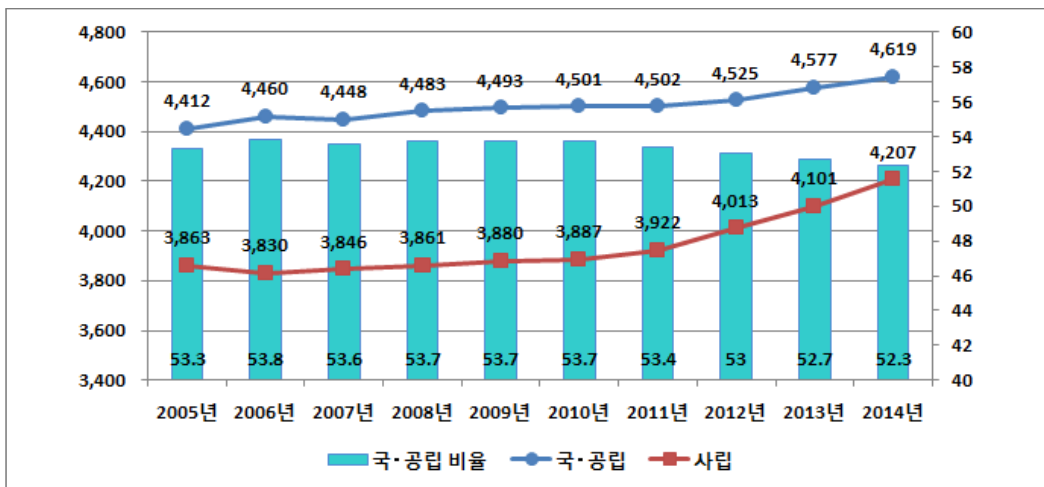
- 2013년 대비 2014년에 유치원 수가 1.7%p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2013년 52.7%에서 52.3%로 다소 감소함.

〈표 1〉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개원, %

구분	전체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사립 (법인)	사립 (사인)	국·공립 비율
2005	8,275	3	72	4,337	516	3,347	53.3
2006	8,290	3	83	4,374	509	3,321	53.8
2007	8,294	3	94	4,351	503	3,343	53.6
2008	8,344	3	101	4,379	511	3,350	53.7
2009	8,373	3	116	4,374	504	3,376	53.7
2010	8,388	3	131	4,367	498	3,389	53.7
2011	8,424	3	146	4,353	454	3,468	53.4
2012	8,538	3	167	4,355	469	3,544	53.0
2013	8,678	3	184	4,390	470	3,631	52.7
2014	8,826	3	228	4,388	493	3,714	52.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1] 유치원 수 추이: 2005-2014

2) 학급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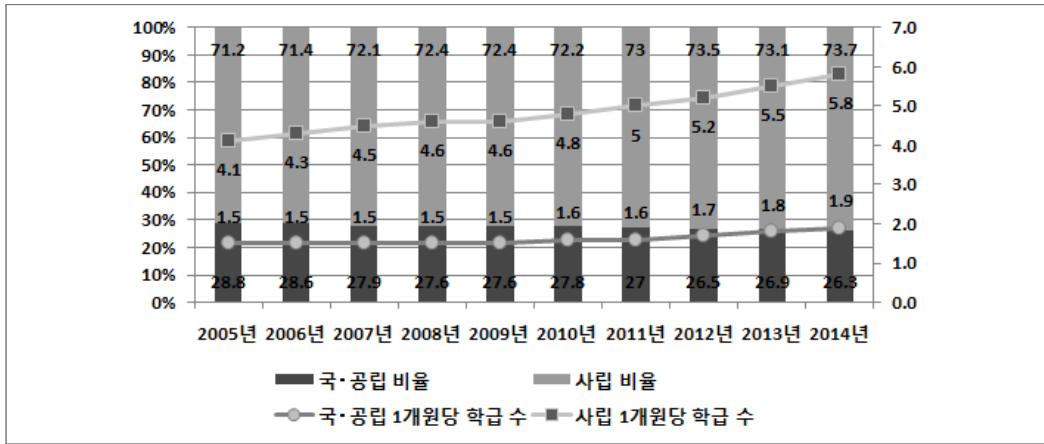
- 유치원 학급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급 수는 유치원 수 증가와 유사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5~2010년까지 200~800개 정도의 증가폭을 보였으나 2011~2012년 1,300여개, 2012~2014년 2,200~2,400여개로 학급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1개 원당 평균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결과임.
- 평균 학급 수 또한 지난 10년간 2005년 2.7개에서 2014년 3.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설립유형별로 비교하면 국·공립은 학급 수가 지난 10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비율은 2005년 28.8%에서 2014년 26.3%로 감소함.
 - 이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모두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 학급 수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1개 원당 평균 학급 수도 국·공립은 1.9개, 사립은 5.8개로 2005년도 국·공립 1.5개, 사립 4.1개에 비해 증가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증가폭이 비교적 큼.

〈표 2〉 유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단위: 학급, 개, %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학급 수	1개원당 학급 수	학급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학급 수	비율	1개원당 학급 수
2005	22,409	2.7	6,451	28.8	1.5	15,958	71.2	4.1
2006	23,010	2.8	6,588	28.6	1.5	16,422	71.4	4.3
2007	23,860	2.9	6,646	27.9	1.5	17,214	72.1	4.5
2008	24,567	2.9	6,789	27.6	1.5	17,778	72.4	4.6
2009	24,908	3.0	6,887	27.6	1.5	18,021	72.4	4.6
2010	25,670	3.1	7,129	27.8	1.6	18,541	72.2	4.8
2011	26,990	3.2	7,279	27.0	1.6	19,711	73.0	5.0
2012	28,386	3.3	7,535	26.5	1.7	20,851	73.5	5.2
2013	30,597	3.5	8,220	26.9	1.8	22,377	73.1	5.5
2014	33,041	3.7	8,693	26.3	1.9	24,348	73.7	5.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2] 치원 학급 수 추이: 2005-2014

3) 취원아 수

□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국립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공립은 전체 원아 수 대비 취원아 수 비율이 2005년 22.9%에서 2014년 22.7%로 추이에 큰 변화가 없음.

- 사립유치원에서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체 원아의 75%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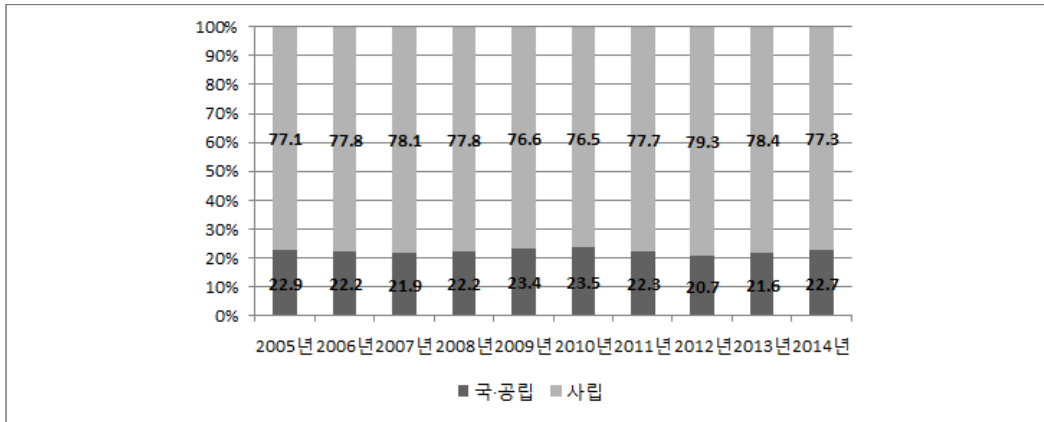
<표 3>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전체
	국립	공립	합계		
2005	0.0(253)	22.9(124,030)	22.9(124,283)	77.1(417,320)	100.0(541,603)
2006	0.0(253)	22.2(121,071)	22.2(121,324)	77.8(424,488)	100.0(545,812)
2007	0.0(261)	21.8(118,161)	21.9(118,422)	78.1(423,128)	100.0(541,550)
2008	0.0(249)	22.1(118,879)	22.2(119,128)	77.8(418,694)	100.0(537,822)
2009	0.0(231)	23.3(125,305)	23.4(125,536)	76.6(411,825)	100.0(537,361)
2010	0.0(236)	23.5(126,341)	23.5(126,577)	76.5(412,010)	100.0(538,587)
2011	0.0(240)	22.3(125,855)	22.3(126,095)	77.7(438,739)	100.0(564,834)
2012	0.0(226)	20.7(127,121)	20.7(127,347)	79.3(486,402)	100.0(613,749)
2013	0.0(225)	21.5(141,827)	21.6(142,052)	78.4(516,136)	100.0(658,188)
2014	0.0(258)	22.7(148,011)	22.7(148,269)	77.3(504,277)	100.0(652,546)

주: 기관별 취원율 = (기관별 취원아 수/전체 취원아 수)×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3] 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2005-2014

□ 취원율은 2005년부터 2014년의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연령별로 취원율 추이에
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3세는 2005년 13.5%에서 33.1%로, 만 4세는 28.3%에서
51.0%로, 만 5세는 46.2%에서 57.3%로 증가함.

- 만 3세가 10년간 2.5배 상승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으나,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만 4
세, 만 5세가 1.0%p 상승하여 만 3세보다 증가폭이 큼.

<표 4> 유치원 취원율 변화 추이: 2005-2014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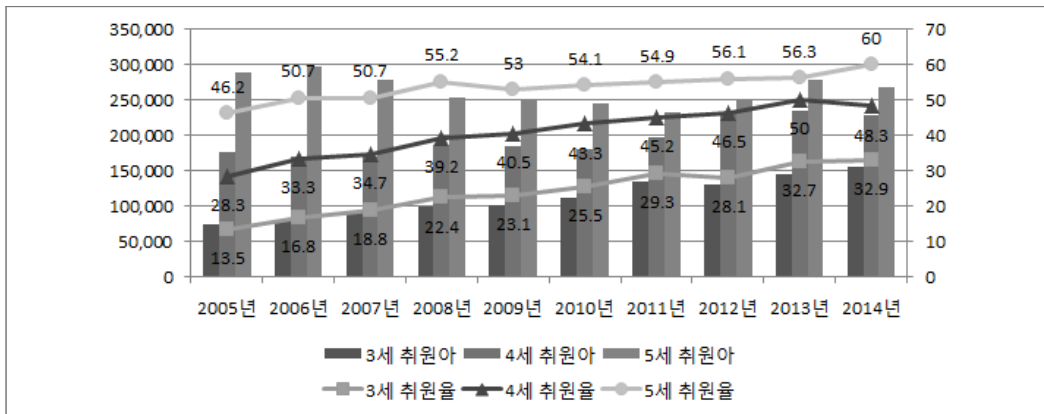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취원아	취원 대상아	취원율
2005	74,824	552,396	13.5	176,963	624,442	28.3	289,816	626,631	46.2
2006	77,669	461,161	16.8	170,652	512,465	33.3	297,491	586,441	50.7
2007	93,005	494,348	18.8	170,726	491,882	34.7	277,819	547,636	50.7
2008	99,499	443,361	22.4	184,178	470,166	39.2	254,145	460,634	55.2
2009	100,406	434,080	23.1	185,195	457,676	40.5	251,760	474,727	53.0
2010	111,482	436,773	25.5	181,441	418,993	43.3	245,664	454,264	54.1
2011	133,986	457,953	29.3	196,602	435,184	45.2	233,724	425,872	54.9
2012	130,986	466,807	28.1	229,911	494,388	46.5	251,897	448,774	56.1
2013	145,778	446,256	32.7	233,926	467,432	50.0	278,484	494,810	56.3
2014	156,089	474,932	33.1	228,129	472,731	51.0	268,328	447,531	57.3

주: 연령별 취원율 = (연령별 취원아 수/연령별 취원대상아 수)×100

자료: 1) 2005~2013년: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31.

2) 2014년 취원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교육통계연보.

3) 2014년 취원대상아: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2014. 12. 기준).



[그림 4] 유치원 취원아 및 취원율 추이: 2005-2014

4)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013년 10.1%에서 2014년 10.7%로 0.6%p 증가함.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2014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도 대비 이용률이 0.1%~7.4%p 증가함.

<표 5>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2010-2014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9.7	9.7	9.0	10.1	10.7
서울	4.2	4.1	4.4	4.9	5.7
부산	4.1	4.5	4.3	4.9	5.5
대구	5.9	5.6	5.5	6.5	7.4
인천	9.0	7.9	7.6	9.9	10.3
광주	8.3	8.1	8.1	8.8	9.0
대전	7.9	7.5	7.2	8.5	9.8
울산	8.2	8.3	7.7	8.7	9.5
세종	-	-	-	27.1	34.4
경기	9.8	9.8	8.7	10.1	10.4
강원	15.6	18.0	15.2	16.2	16.3
충북	16.9	18.0	17.6	18.9	19.3
충남	16.4	18.6	14.5	14.9	15.6
전북	13.8	14.6	13.2	14.2	15.2
전남	17.4	18.9	18.1	18.8	19.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북	12.2	13.7	13.4	14.7	15.8
경남	12.5	11.8	11.4	11.8	11.9
제주	12.3	11.2	11.1	12.1	12.7

주: 국·공립유치원 이용률=(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취원대상아 수)×100

자료: 1) 각 시·도 교육청(2014).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 보고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국립유치원은 현재 강원, 충북, 충남에 설립되어 있어 전국 총 3개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공립유치원은 2014년 현재 4,616개원으로 2010년 이후 기관 수, 학급 수, 원아 수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립유치원 기관 수 중 병설유치원의 비율은 95.1%, 단설유치원의 비율은 4.9%로 병설유치원의 비율이 단설유치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 학급 수를 기준으로 보아도 단설이 17.5%, 병설이 82.5%로 병설유치원의 학급 수가 단설유치원 학급 수의 4배 이상 많으며, 마찬가지로 원아 역시 병설유치원에서 약 81%를 수용하고 있음.

〈표 6〉 공립유치원 현황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개원, 학급, 명)

구분	기관 수			학급			원아		
	단설	병설	계	단설	병설	계	단설	병설	계
2010	2.9	97.1	100.0(4,498)	10.9	89.1	100.0(7,115)	12.9	87.1	100.0(126,341)
2011	3.3	96.7	100.0(4,499)	12.1	87.9	100.0(7,264)	14.1	85.9	100.0(125,855)
2012	3.7	96.3	100.0(4,522)	13.7	86.3	100.0(7,521)	16.1	83.9	100.0(127,121)
2013	4.0	96.0	100.0(4,574)	14.6	85.4	100.0(8,205)	16.5	83.5	100.0(141,827)
2014	4.9	95.1	100.0(4,616)	17.5	82.5	100.0(8,678)	19.4	80.6	100.0(148,0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나. 유치원 교원

1)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5년 17.5명에서 2014년 13.4명으로 4.1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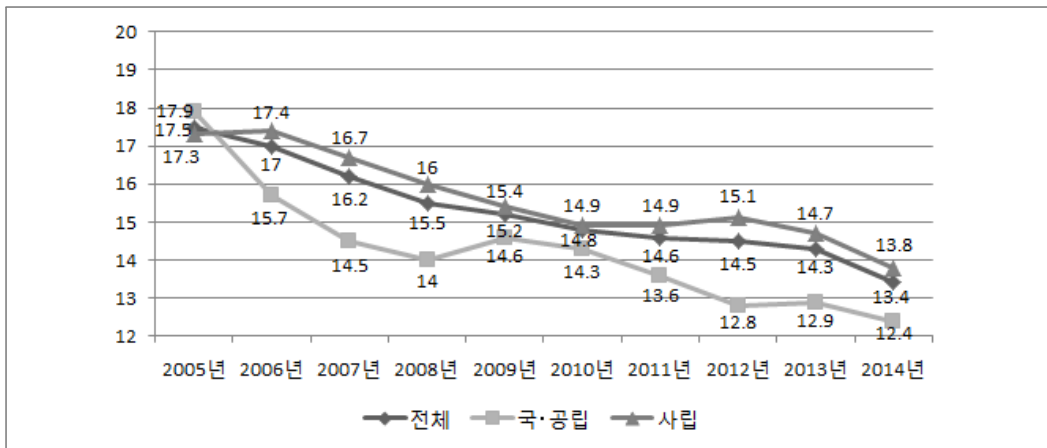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은 2005년 17.9명에서 2014년 12.4명으로, 사립유치원은 2005년 17.3명에서 2014년 13.8명으로 감소하여 국·공립유치원의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남.

〈표 7〉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교원수	원아수	교원1인당 원아수
2005	31,033	541,603	17.5	6,946	124,283	17.9	24,087	417,320	17.3
2006	32,096	545,812	17.0	7,737	121,324	15.7	24,359	424,488	17.4
2007	33,504	541,550	16.2	8,163	118,422	14.5	25,341	423,128	16.7
2008	34,601	537,822	15.5	8,482	119,128	14.0	26,119	418,694	16.0
2009	35,415	537,371	15.2	8,628	125,546	14.6	26,787	411,825	15.4
2010	36,461	538,587	14.8	8,827	126,577	14.3	27,634	412,010	14.9
2011	38,662	564,834	14.6	9,239	126,095	13.6	29,423	438,739	14.9
2012	42,235	613,749	14.5	9,969	127,347	12.8	32,266	486,402	15.1
2013	46,126	658,188	14.3	10,997	142,052	12.9	35,129	516,146	14.7
2014	48,530	652,546	13.4	11,931	148,269	12.4	36,599	504,277	13.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5] 설립유형별 교원 1인당 원아 수 추이: 2005-2014

- 지난 10년간의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원장, 원감,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의 수가 증가했고,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수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10년간 총 교원의 수가 31,033명에서 48,530명으로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위는 기간제 교사(5.2배), 시간강사(3.0배)였으며. 원장(1.3배), 원감(1.7배), 교사(1.4배) 중에서는 원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표 8〉 유치원 직위별 교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기타	계
2005	3,318	870	-	26,383	3	-	459	29	-	31,033
2006	3,309	904	-	27,412	3	-	468	25	-	32,096
2007	3,487	986	-	28,535	3	-	493	35	-	33,504
2008	3,533	1,033	-	29,460	3	-	572	115	-	34,601
2009	3,507	1,079	-	30,170	3	1	655	125	-	35,415
2010	3,658	1,169	-	31,007	4	-	623	163	-	36,461
2011	3,704	1,248	-	32,792	4	-	914	369	-	38,662
2012	3,670	1,327	14	35,760	3	-	1,461	356	-	42,235
2013	3,818	1,385	29	37,599	2	-	2,343	207	950	46,126
2014	4,379	1,489	42	38,042	2	1	2,397	88	2,178	48,530

주: 기타는 특수교사 등이 포함. 전체 합계는 시간강사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자격별 유치원 교원의 10년간 변화 추이의 경우 원장(1.4배), 원감(1.8배), 1급 정교사(1.5배), 2급 정교사(1.6배)가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총 교원의 증가 비율인 1.6배와 유사한 수준임.
- 반면 준교사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보건교사는 200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표 9〉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 2005-2014

단위: 명

구분	원장	원감	수석 교사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보건 교사	영양 교사	기타	계
2005	3,286	832	-	8,084	18,717	10	48	-	56	31,033
2006	3,371	881	-	8,427	19,326	9	44	-	38	32,096
2007	3,621	973	-	8,794	20,006	5	68	-	37	33,504
2008	3,674	1,032	-	9,103	20,749	4	3	-	36	34,601
2009	3,650	1,129	-	9,527	21,052	10	3	1	43	35,415
2010	3,801	1,159	-	9,995	21,447	10	4	1	44	36,461
2011	3,834	1,235	-	10,649	22,872	24	3	-	45	38,662
2012	3,864	1,289	-	11,253	25,757	21	7	-	44	42,235
2013	4,116	1,387	-	12,002	28,566	11	6	-	38	46,126
2014	4,571	1,517	16	12,363	30,008	7	10	1	37	48,53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전체 유치원에서 40.6%, 국·공립에서 76.6%, 사립에서 30.2%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유치원에서 51.4%, 국·공립에서 86.7%, 사립에서 39.9%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약 1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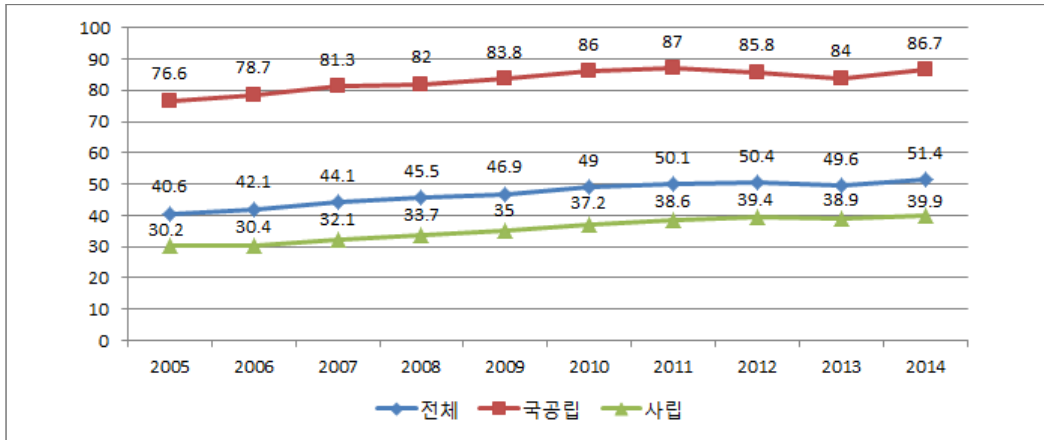
○ 국·공립 교사의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사립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표 10〉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0.6	42.1	44.1	45.5	46.9	49.0	50.1	50.4	49.6	51.4
국·공립	76.6	78.7	81.3	82.0	83.8	86.0	87.0	85.8	84.0	86.7
사립	30.2	30.4	32.1	33.7	35.0	37.2	38.6	39.4	38.9	39.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그림 6]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 추이: 2005-2014

다. 유아교육 질 관리: 유치원 평가

- 제1주기 유치원 평가는 전체 유치원의 99.8%가 참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유치원 평가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전체 유치원의 1/3씩 진행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음.
- 제2주기 평가실적을 보면, 2011년 1년차 평가는 전체 유치원의 26.5%인 2,226개원이 참여하였고, 2012년 2년차 평가는 34.1%인 2,963개원이 참여하였으며 2013년 3년차 평가는 3,167개원이 완료함.
- 제2주기 평가 완료율은 전국 96.3%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95.0%의 완료율을 보임.

〈표 11〉 제2주기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제2주기(1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제2주기(2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제2주기(3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완료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전국	75.5	24.5	100.0 (2,226)	60.4	39.6	100.0 (2,963)	30.5	69.5	100.0 (3,167)	96.9	95.6	96.3
서울	31.7	68.3	100.0 (221)	23.1	76.9	100.0 (308)	5.1	94.9	100.0 (316)	92.9	98.3	97.2
부산	87.9	12.1	100.0 (66)	-	100.0	100.0 (151)	4.3	95.7	100.0 (139)	91.4	93.3	93.0
대구	100.0	-	100.0 (105)	-	100.0	100.0 (104)	14.6	85.4	100.0 (130)	96.9	92.3	93.9

시도	제2주기(1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제2주기(2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제2주기(3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완료율		
	국· 공립	사립	계	국· 공립	사립	계	국· 공립	사립	계	국· 공립	사립	계
인천	36.8	63.2	100.0 (117)	36.1	63.9	100.0 (122)	29.7	70.3	100.0 (138)	84.2	96.1	106.3
광주	38.4	61.6	100.0 (86)	52.2	47.8	100.0 (90)	41.8	58.2	100.0 (91)	98.3	85.1	90.5
대전	100.0	-	100.0 (87)	-	100.0	100.0 (74)	-	100.0	100.0 (89)	96.7	95.9	96.2
울산	29.4	70.6	100.0 (68)	96.6	3.4	100.0 (58)	-	100.0	100.0 (57)	98.7	92.2	94.8
세종	-	-	-	100.0	-	100.0 (6)	72.7	27.3	100.0 (11)	63.6	100.0	68.0
경기	64.3	35.7	100.0 (423)	67.0	33.0	100.0 (719)	32.5	67.5	100.0 (870)	96.6	96.2	96.4
강원	77.3	22.7	100.0 (119)	69.3	30.7	100.0 (127)	73.9	26.1	100.0 (134)	100.7	99.0	100.3
충북	100.0	-	100.0 (121)	100.0	-	100.0 (122)		100.0	100.0 (84)	95.7	96.6	95.9
충남	93.6	6.4	100.0 (157)	100.0	-	100.0 (132)	43.2	56.8	100.0 (222)	101.6	98.6	100.8
전북	91.4	8.6	100.0 (128)	63.0	37.0	100.0 (192)	61.4	38.6	100.0 (189)	98.1	95.7	97.3
전남	94.0	6.0	100.0 (149)	89.0	11.0	100.0 (163)	61.9	38.1	100.0 (210)	95.4	96.4	95.6
경북	100.0	-	100.0 (206)	86.6	13.4	100.0 (291)	2.5	97.5	100.0 (200)	99.1	99.2	99.1
경남	97.9	2.1	100.0 (142)	67.6	32.4	100.0 (250)	41.5	58.5	100.0 (265)	98.8	91.9	96.2
제주	100.0	-	100.0 (31)	100.0	-	100.0 (54)	-	100.0	100.0 (22)	94.4	100.0	95.5

자료: 1) 교육부(2014). 제2주기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2)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51. 2014년 12월 기준으로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가 완료되어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에는 전체 유치원의 29.7%인 2,635개원이 참여함.

□ 제 3주기 1년차 유치원 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유치원의 29.7%인 2,635개원이 참여함.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39.3%인 1,815개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19.5%인 820개원이 참여함.

〈표 12〉 유치원 평가 추진 현황

단위: %(개원)

시도	제3주기(1년차) 평가완료유치원			완료율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전국	68.9(1,815)	31.1(820)	100.0(2,635)	39.3	19.5	29.7
서울	48.9(113)	51.1(118)	100.0(231)	61.1	16.9	26.1
부산	50.0(64)	50.0(64)	100.0(128)	84.2	20.1	32.4
대구	85.2(104)	14.8(18)	100.0(122)	82.5	7.2	32.5
인천	40.6(52)	59.4(76)	100.0(128)	33.8	29.5	31.1
광주	31.7(32)	68.3(69)	100.0(101)	26.0	37.3	32.8
대전	100.0(93)	-	100.0(93)	100.0	-	35.1
울산	29.4(20)	70.6(48)	100.0(68)	25.6	40.7	34.7
세종	100.0(14)	-	100.0(14)	51.9	-	46.7
경기	54.6(342)	45.4(284)	100.0(626)	31.4	27.1	29.3
강원	76.5(91)	23.5(28)	100.0(119)	32.9	25.9	30.9
충북	100.0(111)	-	100.0(111)	44.2	-	32.3
충남	100.0(121)	-	100.0(121)	32.9	-	23.9
전북	71.6(121)	28.4(48)	100.0(169)	33.5	29.1	32.1
전남	100.0(137)	8.0(11)	100.0(148)	31.6	9.4	24.9
경북	100.0(208)	-	100.0(208)	44.6	-	29.1
경남	69.4(127)	30.6(56)	100.0(183)	30.3	21.3	26.8
제주	100.0(65)	-	100.0(65)	70.7	-	57.0

자료: 교육부(2015a). 제3주기(1년차)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라. 방과후 과정

-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은 2013년 대비 0.8%p 감소하였으나 이용률은 4.7%p 증가함.
 -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73.3%에서 2014년 97.2%로 크게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이용률 역시 2005년 20.8%에서 2014년 67.5%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13〉 방과후 과정 운영·이용률 추이: 2005-2014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	-	73.3	82.6	90.9	95.5	98.1	97.6	98.1	98.0	97.2
방과후 과정 이용률	20.8	25.4	28.3	36.1	44.8	52.6	47.4	62.0	62.8	67.5

주: 1) 방과후 과정 운영비율=(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수/총 유치원 수)×100

2) 방과후 과정 이용률=(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총 취원아 수)×100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b). 2013-2014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40, p.54.

2) 각 시·도 교육청(2014). 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 보고자료.

□ 방과후 과정비 지원은 3-5세 유치원 재원아 외에 어린이집 재원아도 포함되며, 2013년 전국 6,442억 원이 지원됨.

- 정부의 방과후 과정비 지원 범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70,000원임.

〈표 14〉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금액: 2013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07. 1. 1~2010. 2. 28	50,000	70,000	70,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3). 201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p. 2.

□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78만원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로 나타남.

〈표 15〉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 비율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3-5세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아수	3-5세 취원아 수	지원율
전국	303,278	423,253	658,188	64.3
국립	71	136	225	60.4
서울	31,059	41,576	92,400	45.0
부산	16,618	22,425	44,217	50.7
대구	20,300	27,542	34,550	79.7

구분	3-5세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아수	3-5세 취원아 수	지원율
인천	15,684	21,952	41,594	52.8
광주	12,456	16,883	22,676	74.5
대전	12,236	16,146	25,263	63.9
울산	8,736	11,900	19,032	62.5
세종	843	1,328	1,305	101.8
경기	69,993	100,458	182,231	55.1
강원	10,408	14,679	16,007	91.7
충북	9,693	15,148	17,446	86.8
충남	12,312	18,172	26,411	68.8
전북	15,608	21,599	23,266	92.8
전남	12,416	18,308	18,895	96.9
경북	24,481	33,114	37,230	88.9
경남	26,987	37,064	50,370	73.6
제주	3,377	4,823	5,295	91.1

주: 1) 취원아 수는 2013. 4. 기준, 지원아수는 2013. 6~8(2분기) 지원액은 2013. 12. 기준임.
지원율 = (유아교육비 지원아 수/총 3-5세 취원아 수)×100

2) 지원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은 유아의 기관 이동으로 인한 중복집계의 결과임.

자료: 1)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3). 교육통계연보.

3) KERIS(2014).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수.

마. 유아교육 지원체계

1)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 운영

□ 유아교육진흥원 수는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체험 교육원의 수 또한 2010년 대비 9개원이 증가함.

- 진흥원 이용아 수는 2012년 183,784명에서 2014년 229,24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체험원 이용아 수는 2012년 84,925명에서 2013년 56,57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0,552명으로 크게 증가함.

〈표 16〉 유아교육진흥원·체험교육원(체험센터) 수 및 이용률 추이: 2010-2014

단위: %(개원)

지역	구분	유아교육 진흥원 수	체험 교육원 수	진흥원 이용아 수	체험원 이용아 수	취원아 수	유아 이용률
	2014	15	14	229,242	120,552	652,546	53.6
	2013	15	13	206,126	56,578	658,188	39.9
	2012	12	13	183,784	84,925	613,749	43.8
	2011	7	4	-	-	564,834	49.5
	2010	5	5	-	-	538,587	-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6.
 2)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8.
 3) 김은설·황성온·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46.
 4) 김은설·이윤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36.
 5)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38.

2)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 2014년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886개로 2013년 691개에 비해 195개 증가 하였으며,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또한 2014년 최대 700개로 2013년 431개에 비해 269개 증가함.
- 참여유치원 수는 5,052개로 2013년 3,912개에 비해 1,140개 증가하였으나, 예산의 경우 6,144,326천원으로 2013년 8,393,005천원에 비해 26.8%p 감소함.

〈표 17〉 협력 네트워크 현황 추이: 2010-2014

단위: 개, 개원, 천 원

지역	구분	네트워크 수	총 참여 유치원 수	네트워크 당 참여유치원 수		예산
				최소	최대	
	2014	886	5,052	1	700	6,144,326
	2013	691	3,912	1	431	8,393,005
	2012	521	4,111	1	269	10,853,970
	2011	505	4,533	347	802	8,536,730
	2010	808	-	-	-	11,060,574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a).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8.
 2)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3) 김은설·이윤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37.
 4)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p 38.

3 유아교육정책의 향후 방향 및 과제

가. 유아교육의 공적 인프라 확대

1) 공립유치원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 시·도 교육청의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에 의한 신증설이 조항에 포함되면서(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의 2, 개정 2013.3.23)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나 최근 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 교육부가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 비율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교육부 공고 제2015-187호, 교육부 2015. 9. 16), 이에 관련 단체에서는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선호를 외면하고, 유아교육 의무 공교육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보도자료, 2015. 9. 18).
- 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호는 해마다 증가하여, 전국의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은 평균 2.11대 1로 사립유치원(1.14대 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전민일보, 2015. 9. 13),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정책의 추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일정 비율의 공립유치원의 확충은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함.

2) 5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추진

□ 2014년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비율은 52.3:47.7로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다소 높으나 학급 수, 원아 수, 교원 수에서 70%이상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국의 단설유치원 비율은 전체 유치원의 2.6%, 전체 국·공립유치원의 원아분담률이 22.7%에 불과한 상황으로 OECD 국가의 평균 국·공립 분담률 68.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90% 이상이 병설유치원이고, 병설유치원의 70% 이상이 1, 2학급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는 병설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전임 원감 배치, 일정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단설유치원 전환 등을 통한 공립유치원 운영의 내실화화 함께 추진되어야 함.

3)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유치원 원아분담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확충과 함께 일정 기준을 갖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의 경우도 민간의존율이 90%에 달해 국·공립 확충 계획과 더불어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유아교육 선진화정책을 기반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를 위해 회계제도의 사용, 정보공시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이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공공형 제도를 구체화하여 유아교육의 공적 기반을 확대하는 세부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나. 교원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1) 교원 1인당 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축

- 유치원의 학급규모는 최대 학급규모와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학급당 원아 수에 대한 규정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되어(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시·도별로 편차가 큰 상황임.
 - 최근 10년 간 유치원의 교원 1인당 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기는 하나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의 감소 추이가 큰 상황임.
 - 교사 1인당 유아 수 또한 OECD(2014) 평균과 비교해보면 OECD 평균(2012년 기준) 14.0명, EU21 평균(2012) 13.0명에 비해 우리나라(2012년 기준)는 16.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감소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교원의 안정적 지위 보장

- 직위별 유치원 교원 현황은 2012년을 기점으로 기간제 교사의 수가 급증하여 2013년 2,343명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0년간 총 교원의 수가 31,033명에서 48,530명으로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직위는 기간제 교사(5.2배)로 나타남.

- 기간제 유치원 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이 75.3%(연합뉴스, 2014. 5.29)로 높은 상황에서 정교사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야 함.

3) 교원 양성·자격 체계의 중장기적인 정비

- 최근 10년간 4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교원 비율은 2004년 전체 38.5%, 국·공립 72.2%, 사립 28.8%로 국·공립 교사의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4년에는 전체 유치원의 51.4%, 국·공립 86.7%, 사립 39.9%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약 11%p 증가하였으나 국·공립 교사의 4년제 이상 학력 교사 비율이 사립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단계 중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0단계의 분류범주 5에서 교원의 자격을 교직이수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박은혜·신은수, 2012에서 재인용) 유보통합 추진의 교사양성·자격체제 정비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다. 질 관리 체제의 안정적 정착

1) 유치원평가 제도의 방향성 재고

- 유아교육기관의 모니터링과 질을 평가하는 것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유아의 발달과 웰빙을 위해 교사를 조력할 수 있음(OECD, 2015).
- 실제로 질적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교실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Rand, 2008; Reach and Risk Report, 2011-2012; Yazejian, & Iruka, 2014, 장혜진·송신영, 2014에서 재인용) 많은 나라에서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기관대상 평가에 접근하고 있음.
- 2014년 2월 발족한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1단계 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2014년 12월 개발하였음.

- 보도자료(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4 .12. 16)에 따르면 시설유형에 관계 없이 공통 핵심사항을 점검·평가하고, 현장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지표를 간소화하였으며,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2015년 10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평가안을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국가의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찰하고, 시사점 도출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2) 내부평가자로서 교사, 학부모의 평가 참여방안 마련

- 유아기는 부모의 결정과 판단, 양육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부모참여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동반자이므로, 양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 질 때 양질의 교육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음.
 - 미국의 많은 주(Iowa, Colorado, Georgia, Massachusetts 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와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QRIS 질 관리 체제 지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NCCCQI, 2015), OECD에서 보고한 Starting Strong III(2012)에서도 누리과정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부모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부모를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안함.
-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2012년 4월부터 '5세 누리과정 부모 체험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 모니터링단을 단계적으로 구성·운영하여 누리과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부모의 눈으로 진단하고 보완하도록 제도화하였으며, 부모 참여 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하여 평가인증 시 가점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함.
 - 유치원 평가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며 전년도 평가결과 중 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

라. 방과후 과정 운영의 합리화

1)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 자격 제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2012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여 현재 유치원 이용 유아의 63%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있음.
 -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으며, 현재 모든 방과후 과정 이용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방과후 과정의 운영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이에 취업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정립하고,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의 자격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2)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선별 지원

-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78만원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임.
 - 부모들도 누리과정은 무상지원을, 방과후 과정은 소득별 차등지원을 선호(58.1%)하는 것으로 나타난(장명립, 2013. 1. 10; 최은영·김은영·이세원, 2013) 결과들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유치원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보편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

마. 유아교육 지원체계 확대 및 역할 강화

1) 유보통합 고려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 2014년까지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예산을 감소하는 있는 추세로 협력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김은영 외, 2011)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가 낮은 지역 등 지역별로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2) 지역사회 유아교육지원 체계로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유아교육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시·도에서 체험시설 이용을 어린이집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가 높은 상황임.
 - 육아종합정보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유아교육진흥원이 보다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영유아, 학부모들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 ● 참고문헌

- 교육부(2013). 각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 교육원 운영현황. 내부자료.
- 교육부(2014). 유치원 13년 결산 및 14년 예산. 내부자료.
- 교육부(2014). 제2주기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 교육부(2015. 9. 16). 교육부 공고 제2015-18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부(2015a). 제3주기(1년차) 유치원 평가. 내부자료.
-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2014. 12. 16).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등급 공개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보도자료.
- 김은설·문무경·최윤경·김경미(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설·이운진·김경미(2011). 2010-2011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설·황성운·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혜·신은수(2012). 2011 국제표준교육분류 0단계(ISCED 0단계)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유아교육제도로서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2), 341-356.
- 시·도 교육청(2014). 국·공립유치원 취원아 수. 보고자료.
- 시·도 교육청(2014). 방과후 과정 등록 취원아 수. 보고자료.
-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 인구통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6조, 제 17조의 2, 제 29조 제 1~2항. ([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25962,20150106\)](http://www.law.go.kr/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25962,20150106))). 2015. 5. 26 인출.
- 장혜진·송신영(20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 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전민일보(2015. 9. 13). 사립보다는 공립 유치원 선호.
- 전민일보(2015. 9. 13). 사립보다는 공립 유치원 선호.
-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3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2015. 9. 18). 유아교육법시행령(유아수용계획)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05-2014).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2014). 유아학비 시·도별 지원아 수.

- NCCCQI(2015). QRIS Standards, Levels, and Rating Systems (https://qrisguide.acf.hhs.gov/files/QRIS_Levels_Rating.pdf) 2015. 11. 16인출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 OECD(2015). 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 RAND education(2008). Assessing child-care quality: How well does Colorado's qualistar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work.
- Yazejian, N., & Iruka, I. U. (2014). Associations among tiered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supports and quality impro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in press.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박진아

1. 서론
 2. 유치원 및 교사 현황
 3. 중장기 원아 수와 교사 수 예측
 4. 결론
-

요약

-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0-2세 무상보육 시행, 2013년 3-4세 누리과정, 양육수당 지급 등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정책이 확대됨.
-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를 양성하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사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시계열 예측 방법을 통해 유치원 취원율을 예측하고 향후 유치원 취원아수 변화에 따라 유치원 교사 수요를 예측함.
- 전체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는 2015년 1,377,034명에서 2024년 1,345,510명으로 31,524명(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유치원 취원아수는 2015년 650,829명에서 670,169명으로 19,340(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교사 수요 예측을 위해 예측변수로는 교사 1인당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시도 학급당 정원 기준을 활용함. 세 가지 예측 변수 모두 예측 기간 동안 유치원 교사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서론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생애초기 인적자원투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최근 2-3년간 정책 지원을 확대함.
 - 2012년 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시행, 2013년 3-4세 누리과정 확대시행,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양육수당 지급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함.
 - 평생 학습의 기초가 되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임(OECD, 2006: 이미화 외, 2008 재인용).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인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박진아·박창현·엄지원, 2015)」 연구보고서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세계 각국은 교육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사의 질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사안으로 교원의 수급정책을 들 수 있음(이미화 외, 2008).
 -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교사를 양성하는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사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님(김현철, 2000).
-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추이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유치원 취원아 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요를 예측하고자 함.

2 유치원 및 교사 현황

가. 유치원 수

〈표 1〉 연도별 유치원 수

단위: 개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8,292 (100.0)	8,246 (100.0)	8,275 (100.0)	8,290 (100.0)	8,294 (100.0)	8,344 (100.0)	8,373 (100.0)	8,388 (100.0)	8,424 (100.0)	8,538 (100.0)	8,678 (100.0)	8,826 (100.0)
국립	3	3	3	3	3	3	3	3	3	3	3	3
공립	4,281 (51.7)	4,325 (52.5)	4,409 (53.3)	4,457 (53.8)	4,445 (53.6)	4,480 (53.7)	4,490 (53.7)	4,498 (53.7)	4,499 (53.4)	4,522 (53.0)	4,574 (52.7)	4,616 (52.3)
사립	4,008 (48.3)	3,918 (47.5)	3,863 (46.7)	3,830 (46.2)	3,846 (46.4)	3,861 (46.3)	3,880 (46.3)	3,887 (46.3)	3,922 (46.6)	4,013 (47.0)	4,101 (47.3)	4,207 (47.7)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16.

- 유치원은 2003년 8,292개원에서 2014년에는 8,826개원으로 약 10여 년 간 534개원이 늘어나 2003년에 비해 약 6.4%가 증가함.
 - 매해 국공립이 사립보다 약간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은 3개원으로 해당기간동안 수의 변화가 없었으며, 공립과 사립은 약 4천여 개 내외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추세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공립과는 달리 사립은 2006년까지 매해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됨.

나. 유치원 원아 수

- 연도별 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2003년에서 2014년까지 증가 추세임.
 - 2003년 546,536명에서 2014년 652,546명으로 2003년 대비 약 19.4%가 증가한 것임.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소폭 감소하였고, 공립은 2003년 약 12만명, 2014년 약 14만명으로 약 2만명이 늘었고, 사립은 2003년 약 42만명, 2014년 약 50만명으로 약 8만명이 증가함.
 - 지난 10여년 동안 재원아수가 19.4% 증가하였으나 설립유형별 재원아 수의 비율은 매해 국공립이 20.7~23.5%, 사립이 76.5~79.3%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유치원 재원 유아 수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46,563	541,713	541,603	545,812	541,550	537,822	537,361	538,587	564,834	613,749	658,188	652,546
국립	269	268	253	253	261	249	231	236	240	226	225	258
공립	120,592 (22.1)	123,638 (22.9)	124,030 (22.9)	121,071 (22.2)	118,161 (21.9)	118,879 (22.2)	125,305 (23.4)	126,341 (23.5)	125,855 (22.3)	127,121 (20.7)	141,827 (21.6)	148,011 (22.7)
사립	425,702 (77.9)	417,807 (77.1)	417,320 (77.1)	424,488 (77.8)	423,128 (78.1)	418,694 (77.8)	411,825 (76.6)	412,010 (76.5)	438,739 (77.7)	486,402 (79.3)	516,136 (78.4)	504,277 (77.3)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종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20.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유치원 재원 유아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음.
 - 국공립의 변화는 매우 소폭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난 반면, 사립유치원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이후 유아학비 지원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2012, 2013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20.

[그림 1] 연도별 유치원 자원 유아 수

다. 유치원 교원 수

□ 연도별 유치원 재직 교원(원장, 원감,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수는 다음 <표 3>과 같음.

- 유치원 재직 교원 수는 2003년 30,287명에서 2014년 48,258명으로 17,971명 증가 - 이는 2003년 대비 59.3%가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동안 기관 수(6.4% 증가)나 재원아 수(19.4% 증가)가 증가한 것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임.
-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의 교원 수는 큰 변화가 없고, 공립유치원의 교원은 2003년 6,535명에서 2014년 11,648명으로 78.2%(약 5천명)가 증가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원은 2003년 23,736명에서 2014년 36,594명으로 54.2%(약 1만3천명)가 증가함.

〈표 3〉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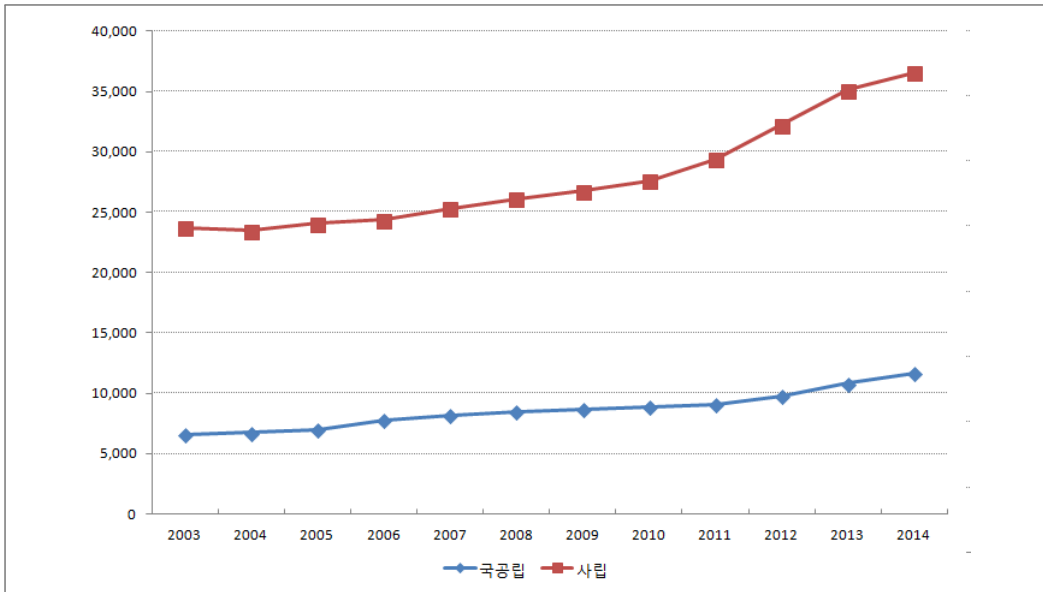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0,287	30,202	31,030	32,093	33,501	34,598	35,411	36,457	38,468	42,030	45,936	48,262
국립	16	16	17	18	19	20	19	19	15	16	20	20
공립	6,535 (21.6)	6,709 (22.3)	6,928 (22.4)	7,718 (24.1)	8,143 (24.4)	8,461 (24.5)	8,608 (24.4)	8,807 (24.2)	9,037 (23.5)	9,759 (23.3)	10,794 (23.5)	11,648 (24.2)
사립	23,736 (78.4)	23,477 (77.7)	24,085 (77.6)	24,357 (75.9)	25,339 (75.6)	26,117 (75.5)	26,784 (75.6)	27,631 (75.8)	29,416 (76.5)	32,255 (76.7)	35,122 (76.5)	36,594 (75.8)

주: 원장, 원감,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23.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23.

[그림 2] 연도별 유치원 교사 수

□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를 설립유형별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음.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수 증가가 두드러짐.

□ 교원 중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교사 수는 <표 4>와 같고 원장, 원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교사 수는 <표 5>와 같음.

-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수도 증가하고 있고 2014년 기준 전체 유치원 교사 중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비율은 25.5%로 나타남.
- 기간제 교사 수를 제외한 정규 교사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사립에 비해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높아 기간제 교사 수를 제외하였을 경우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비율은 21.3%로 나타남.

<표 4> 연도별 유치원 교사 수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6,106	26,085	26,842	27,880	29,028	30,032	30,825	31,630	33,516	37,033	40,733	42,394
국립	12	12	13	13	14	15	15	15	12	13	17	17
공립	6,309 (24.2)	6,451 (24.8)	6,632 (24.8)	7,359 (26.4)	7,735 (26.7)	8,019 (26.8)	8,140 (26.5)	8,304 (26.3)	8,506 (25.4)	9,185 (24.8)	10,195 (25.1)	10,808 (25.5)
사립	19,785 (75.8)	19,622 (75.2)	20,197 (75.2)	20,508 (73.6)	21,279 (73.3)	21,998 (73.2)	22,670 (73.5)	23,311 (73.7)	24,998 (74.6)	27,835 (75.2)	30,521 (74.9)	31,569 (74.5)

주: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표 5> 연도별 유치원 교사 수: 기간제 교사 제외

단위: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5,483	25,358	26,383	27,412	28,535	29,460	30,170	31,007	32,602	35,572	38,390	39,996
국립	12	12	12	12	13	12	15	15	12	12	14	17
공립	5,706 (22.4)	5,812 (23.0)	6,252 (23.7)	6,933 (25.3)	7,331 (25.7)	7,544 (25.6)	7,595 (25.2)	7,719 (24.9)	7,624 (23.4)	7,786 (21.9)	7,943 (20.7)	8,513 (21.3)
사립	19,765 (77.6)	19,534 (77.0)	20,119 (76.3)	20,467 (74.7)	21,191 (74.3)	21,904 (74.4)	22,560 (74.8)	23,273 (75.1)	24,966 (76.6)	27,774 (78.1)	30,433 (79.3)	31,467 (78.7)

주: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라. 교사 1인당 유아 수/학급당 유아 수

- 유치원의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03년 20.9명에서 2014년 15.4명으로 줄어듦.
 - 설립유형별로는 공립과 사립 모두 최근에 이를수록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최근에 이를수록 유아의 인적 교육환경이 점차 나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6〉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0.9	20.8	20.2	19.6	18.7	17.9	17.4	17.0	16.9	16.6	16.2	15.4
국립	22.4	22.3	19.5	19.5	18.6	16.6	15.4	15.7	20.0	17.4	13.2	15.2
공립	19.1	19.2	18.7	16.5	15.3	14.8	15.4	15.2	14.8	13.8	13.9	13.7
사립	21.5	21.3	20.7	20.7	19.9	19.0	18.2	17.7	17.6	17.5	16.9	16.0

주: 1)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취원아수/교사 수(일반교사, 수석교사, 기간제교사, 보직교사 포함)임.

2) 국립의 경우 기관 수가 3개원이고 재직 교사 수가 16~20명으로 소수에 해당되어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유치원 교사 중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계산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음.
 - 설립유형에 따라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산출한 결과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1인당 유아 수가 13.7명에서 17.4명으로 약 4명 가량 증가함.

〈표 7〉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 기간제 교사 제외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1.4	21.4	20.5	19.9	19.0	18.3	17.8	17.4	17.3	17.3	17.1	16.3
국립	22.4	22.3	21.1	21.1	20.1	20.8	15.4	15.7	20.0	18.8	16.1	15.2
공립	21.1	21.3	19.8	17.5	16.1	15.8	16.5	16.4	16.5	16.3	17.9	17.4
사립	21.5	21.4	20.7	20.7	20.0	19.1	18.3	17.7	17.6	17.5	17.0	16.0

주: 1)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취원아수/교사 수(일반교사, 수석교사, 보직교사 포함)임.

2) 국립의 경우 기관 수가 3개원이고 재직 교사 수가 16~20명으로 소수에 해당되어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 취원아수 대비 학급 수로 산출한 학급당 유아 수는 2003년 25.0명이었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14년 19.8명으로 나타남.
 - 설립유형에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은 학급당 유아 수가 17명, 사립 유치원은 20.8명으로 교사 1인당 유아 수와 비교할 때, 3~4명 많은 수준임.
 - 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유아 수는 17.1명으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경우의 교사 1인당 유아 수와 비슷한 수치로 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정규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8〉 학급당 유아 수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5.0	25.7	24.4	24.0	22.8	22.1	21.7	21.0	21.0	21.7	21.7	19.8
국립	22.4	22.3	19.5	21.1	20.1	17.8	16.5	16.9	16.0	16.1	15.0	17.2
공립	19.7	20.0	19.3	18.4	17.9	17.6	18.3	17.8	17.5	17.1	17.4	17.1
사립	27.1	28.1	26.4	26.2	24.8	23.7	23.0	22.3	22.3	23.4	23.3	2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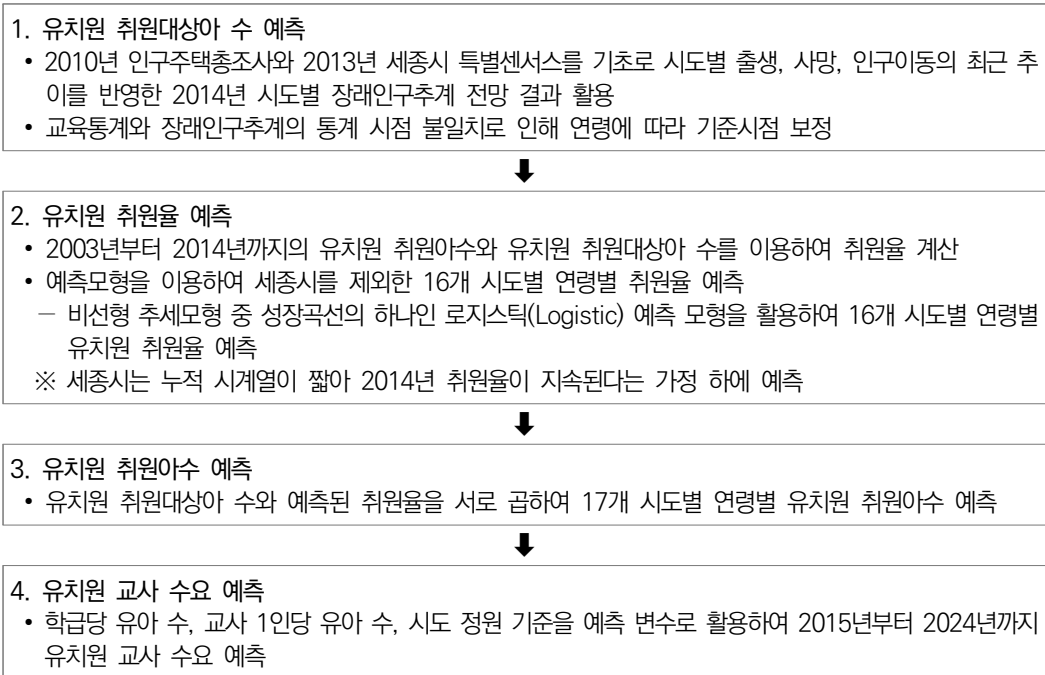
3 중장기 원아 수와 교사 수 예측

가. 예측방법

1) 예측과정

- 전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같음.
-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 예측, 유치원 취원율 예측, 유치원 취원아 수 예측, 교사 수요 예측 단계를 거쳐 유치원 교사 수요를 예측함.
 -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 2013-2040 자료를 활용함.
 - 유치원 취원율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을 변수로 비선형 추세모형을 추정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예측함.

- 연령과 지역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따라 3-5세 연령별 취원율을 예측함.
-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와 예측된 취원율을 서로 곱하여 17개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수를 예측하고 지역별 합계로 전국 규모를 예측함.
- 학급당 유아 수, 교사 1인당 유아 수, 시도 정원 기준을 예측 변수로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 지역별 통계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시도 정원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17개 시도에 따른 유치원 교사 수 예측



[그림 3] 유치원 교사 수요 예측 과정

2) 교사 수 예측 변수

- 유치원 취원아수를 기준으로 이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세 가지 예측 변수를 고려함.
 - 교사 수 예측을 위해 사용된 첫 번째 변수는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고려하여 예측함.

- 2014년도 교육통계에 따라 시도별 유치원 취원아수를 유치원 교사 수로 나누어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17개 시도별로 산출하여 예측된 유치원 취원아수에 적용하여 교사 수요를 예측함.
- 교사 수 예측을 위해 사용된 두 번째 변수는 학급수로 2014년 기준의 유치원 학급수를 이용함.
 - 2014년도의 17개 시도별 원아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급당 유아 수를 산출한 후, 이 학급당 유아 수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예측된 유치원 취원아수를 기초로 교사 수를 예측함.
- 교사 수 예측을 위해 사용된 세 번째 변수는 시도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을 적용함.
 - 2014년도 17개 시도교육청별 연령별 학급당 정원 기준을 적용하여 3-5세 연령별, 시도별 교사 수를 예측함.
 - 시도별 학급당 정원 기준은 시도에 따라 유치원 설립형태 및 학급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부표 1 참조).
 - 공립과 사립, 학급 형태에 따라 학급당 정원 기준이 다를 경우 학급당 정원이 적은 것을 적용하여 교사 수요를 예측함.
- 전체 예측 과정은 17개 시도별로 이루어졌으며, 시도별 예측 자료를 합하여 전국 단위의 예측값을 산출함.

□ 분석자료로 쓰인 예측 변수값을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음.

<표 9> 교사 수 예측을 위한 예측 변수값(2014년도 기준)

단위: 명

시도	교사 1인당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시도별 학급당 정원 기준		
			3세	4세	5세
서울	16.3	21.9	18	24	28
부산	14.8	21.9	18	26	28
대구	14.2	20.8	18	24	28
인천	17.6	20.2	20	26	28
광주	14.5	17.7	20	22	25
대전	15.4	19.1	18	25	30
울산	17.4	22.5	20	25	30
세종	13.2	15.9	15	20	25
경기	16.6	20.0	16	22	26
강원	14.0	17.8	16	22	24
충북	13.7	17.9	15	20	24

시도	교사 1인당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시도별 학급당 정원 기준		
			3세	4세	5세
충남	14.7	19.2	15	20	25
전북	12.9	16.0	16	20	25
전남	12.4	15.3	15	20	23
경북	14.8	18.1	17	22	27
경남	14.7	21.4	19	25	28
제주	12.0	21.1	20	24	26

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취원아수/교사 수(일반교사, 수석교사, 기간제교사, 보직교사 포함)임.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이진화·민정원·엄지원(2014). 혼합연령학급 효율적 운영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20.

나. 예측결과

1)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 예측 결과

□ 다음 <표 10>은 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연령 보정을 통해 예측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 예측값임¹⁾.

□ 전체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는 2015년 1,377,034명에서 2024년 1,345,510명으로 31,524명(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각 연령별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는 3세 1.4%, 4세 6.8% 감소하고, 5세는 1.1%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표 10> 유치원 취원대상아수 예측치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4년 대비
3-5세	1,377,034	1,382,429	1,372,470	1,357,064	1,355,071	1,354,303	1,354,405	1,353,305	1,349,844	1,345,510	2.3
3세	467,419	453,541	453,211	452,013	451,577	452,471	452,141	450,508	449,032	447,826	7.1
4세	462,598	466,866	452,989	452,650	451,441	450,998	451,882	451,543	449,903	448,421	1.0
5세	447,017	462,022	466,270	452,401	452,053	450,834	450,382	451,254	450,909	449,263	0.3

주: 7월 1일 기준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12월 31일 기준의 통계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2040.

1)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정한 후 이를 시도별 결과를 모두 합한 전국단위의 예측치로 시도별, 연령별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 예측값은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연구의 부록을 참고 바람.

2) 유치원 취원율 예측 결과

- 유치원 취원아 수와 취원율은 시도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이는 시도에 따라 공급된 기관 유형의 비중이 다르고 지역 특성에 따라 부모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치원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연령별 유치원 취원율을 시도별로 예측함.
- 전국 단위의 유치원 취원아 수를 예측한 후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를 분모로 하여 산출한 유치원 취원율 예측값은 다음 <표 11>과 같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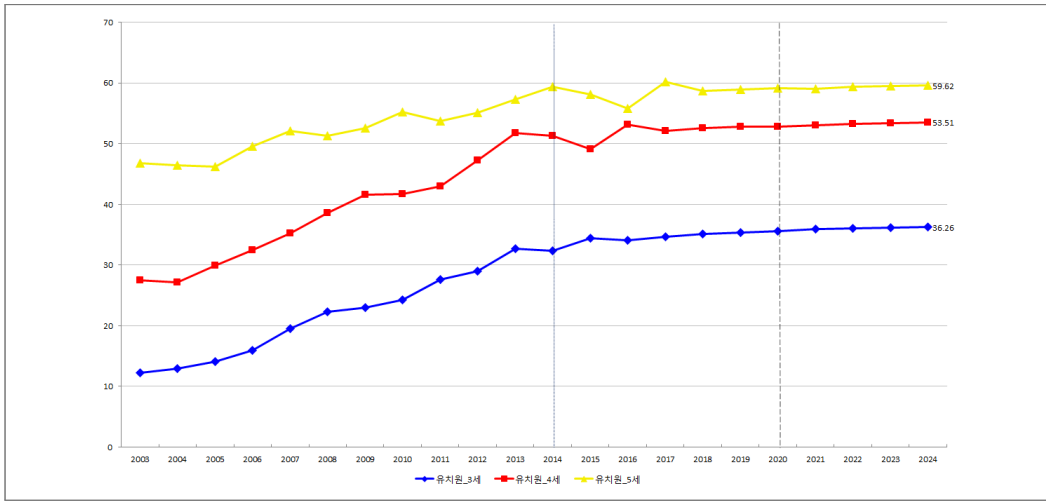
<표 11> 유치원 취원율 예측치: 2015-2024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 (%p)
3-5세	47.3	47.17	47.87	48.97	48.79	49.06	49.18	49.34	49.58	49.71	49.81	2.51
3세	32.4	34.42	34.07	34.65	35.11	35.36	35.61	35.92	36.05	36.17	36.26	3.86
4세	51.3	49.09	53.20	52.10	52.57	52.84	52.86	53.04	53.31	53.42	53.51	2.21
5세	59.4	58.11	55.87	60.16	58.66	58.98	59.14	59.06	59.36	59.50	59.62	0.22

- 유치원의 연령별 취원율을 산출한 결과, 2014년 대비 2024년에 2.51%p 증가하고 연령에 따라서는 3-5세 모두 유치원 취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치원 취원율 추이를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예측한 결과로, 유아학비 지원에 따라 최근 유치원 취원율이 증가하여 2015~2024 유치원 취원율 예측값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2) 유치원 취원율 예측은 시도별, 연령별로 이루어져 전국 단위의 이용률 예측치가 추정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추이와 함께 향후 이용률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 수를 산출하여 지역별 예측값을 합하여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 취원율을 계산함.



-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3)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2040.
 4)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60.

[그림 4] 유치원 취원율 예측치

3) 유치원 취원아수 예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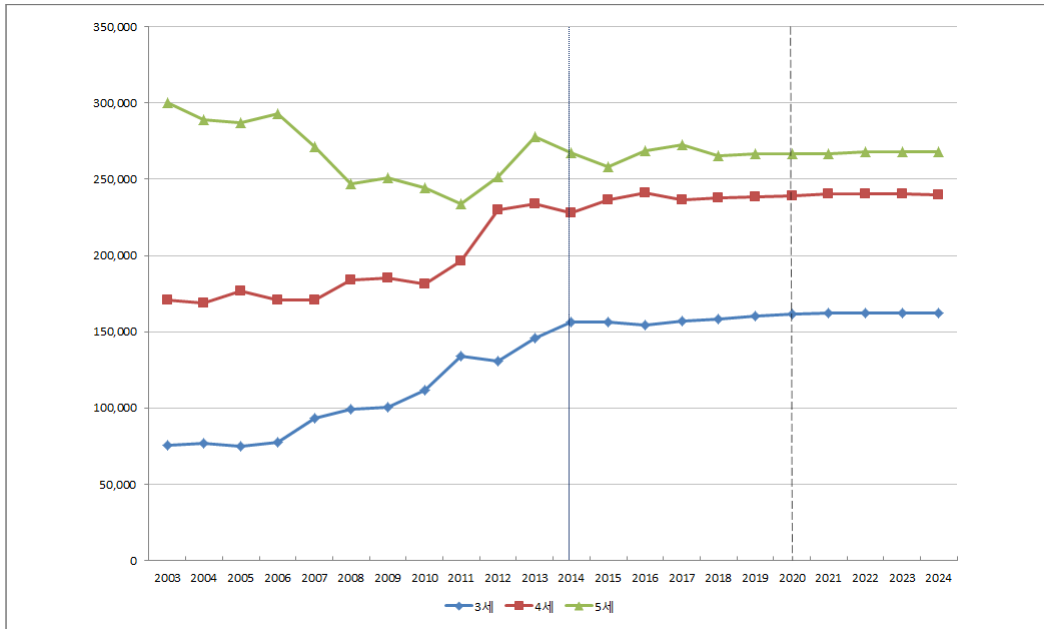
- 유치원 취원아 수 예측 결과(표 12 참조) 유치원 이용 유아 수는 2015년 650,829명에서 2024년 670,169명으로 매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2014년 대비 전체 2.8% 증가함.
- 연령에 따라서는 매해 다른 양상을 보이거나 2014년에 비해 4세가 5.2%로 상승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3세(4.0%), 5세(0.1%) 순으로 나타남.

<표 12> 유치원 취원아수 예측치

단위: 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4년 대비증감
전체	650,829	664,593	665,881	662,345	665,166	666,886	669,099	670,974	671,003	670,169	2.8
3세	156,264	154,716	157,058	158,574	159,984	161,471	162,279	162,398	162,406	162,385	4.0
4세	236,306	241,249	236,340	238,035	238,416	238,911	240,239	240,697	240,324	239,937	5.2
5세	258,259	268,628	272,483	265,736	266,766	266,504	266,581	267,879	268,273	267,847	0.1

자료: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p.63.



자료: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p.63.

[그림 5] 2003-2024 연령별 유치원 취원아수 추이

4) 유치원 교사 수 예측 결과

□ 유치원 취원아수 예측값에 세 가지 예측 변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 교사 수 예측값은 다음 <표 13>과 같음.

- 2014년 기준의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유치원 교사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2015년 42,282명에서 2024년 43,305명으로 1,023명(2.4%)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2015년에 비해 2024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43,367명)을 기점으로 추세가 전환된 결과임.
- 2014년 학급당 유아 수를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2015년 32,853명에서 2024년 33,773명으로 920명(2.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시도별 학급당 정원 기준을 적용하여 유치원 교사 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 29,096명에서 2024년 30,015명으로 919명(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세가 2015년 9,135명에서 2024년 9,518명으로, 4세가 10,294명에서 10,471명으로, 5세가 9,667명에서 10,026명으로 모든 연령에서 2015년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표 13〉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유치원 교사 수 예측값

단위: 명

	교사 1인당 유아 수 적용에 따른 예측값	학급당 유아 수 적용에 따른 예측값	시도정원 기준 적용에 따른 예측값			
			소계	3세	4세	5세
2015	42,282	32,853	29,096	9,135	10,294	9,667
2016	43,171	33,546	29,612	9,048	10,511	10,053
2017	43,248	33,609	29,676	9,182	10,297	10,197
2018	42,982	33,413	29,592	9,276	10,369	9,947
2019	43,098	33,529	29,734	9,363	10,390	9,981
2020	43,137	33,596	29,841	9,454	10,417	9,970
2021	43,245	33,702	29,958	9,508	10,475	9,975
2022	43,367	33,805	30,040	9,515	10,499	10,026
2023	43,362	33,810	30,047	9,519	10,486	10,042
2024	43,305	33,773	30,015	9,518	10,471	10,026

□ 교사 1인당 유아수를 적용하여 교사 수를 예측할 경우, 학급당 유아 수와 시도정원 기준 적용에 따라 예측한 경우보다 교사 수 예측값이 크게 나타남.

○ 학급당 유아 수와 시도 정원 기준에 따른 교사 수 예측은 학급당 유치원 교사 1명이 배치된다는 가정으로 이루어진 예측값임.

-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학급당 1명 이상의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학급당 유아 수나 시도정원 기준으로 예측된 교사 수는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적용한 예측값은 교육통계에 보고되는 교사 수를 기준으로 예측된 값으로 2014년 교육통계에 보고된 교사(보직교사,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사) 42,394명에 가장 근접한 예측값임.
- 유치원 현장에서 담임교사의 1.5배까지 교육청에 임용 보고 할 수 있어 교육통계에 보고되는 교사 수는 학급 담임을 담당하지는 않으나 그 외에 정규교사를 포함하는 수치로 판단됨.

4 결론

-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추이를 시계열 분석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유치원 취원아수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 수요를 예측함.
 - 전체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는 2015년 1,377,034명에서 2024년 1,345,510명으로 31,524명(2.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교사 수요 예측을 위해 예측변수로는 교사 1인당 유아 수, 학급당 유아 수, 시도 학급당 정원 기준을 활용함.
 - 세 가지 예측 변수 모두 예측 기간 동안 유치원 교사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교사 예측 결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 취원대상아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에 따른 유치원 취원율의 상승으로 인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교사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됨.
 -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수요만 예측하였으나, 우리나라 유아교육학과 졸업생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 획득이 가능하여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공급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수요를 논의해야 할 것임.
 - 향후 교사 수 예측값이 2014년 기준이 유지되는 가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1인당 유아 수를 현재 수준보다 줄이고자 한다면 교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따라서 유치원 수요에 맞춘 유치원 교사 양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교사 수요 전망이 필요할 것이며, 이 같은 계획에 의해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교사 대 유아 비율에 대한 표준 지침이 요구됨.
 - 교사 대 유아비율은 2014년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6.3명³⁾이나 연령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남.

3)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때 수치이며 기간제 교사를 포함할 경우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5.4명임.

- 2014년 기준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최소 12명부터 최대 17.4명까지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남.
 -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주어지는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르면 연령과 학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학급당 정원 기준이 최소 13명부터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프로그램에서 교직원 1인당 유아의 비율은 10명 미만으로 OECD 19개 국가들은 교직원 1인당 최대 유아수는 평균 18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10-15인 미만으로 규정함(김은영 외, 2013).
 - 어린이집은 연령별 반편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3세는 교사 1인당 15명, 4,5세는 20명으로 전국 공통 적용하고 있음.

● ● ● 참고문헌

- 김은영·박진아·김문정(2013). 국·공립유치원 교원 중장기 수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철(2000). 중·장기 유아교육 수요예측(I): 원아수 예측. 유아교육연구, 20권 제4호, 35-57.
- 박진아·박창현·엄지원(2015).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수요 예측 및 재정 지출 전망.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장명립·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김현철·신나리·장명립(2008). 유치원교사의 수요 전망. 유아교육연구 28권 제1호, 53-67.
- 이진화·민정원·엄지원(2014). 혼합연령학급 효율적 운영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통계서비스.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통계청(2014).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3-2040.

〈부표 1〉 2014년 시·도별 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

지역	공립						사립						비고
	3세	4세	5세	혼합			3세	4세	5세	혼합			
				3,4	4,5	3~5				3,4	4,5	3~5	
서울	18	24	28	23			18	24	28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은 인가 정원 내 학급당 인원 조절 가능 • 신설 사립유치원은 공립기준 준수 • 기존 사립유치원은 30명 기준이나 재원아가 진급하는 경우 33명까지 인정
부산	18	26	28	22	26	24	30	30	30	30			
대구	18	24	28	20	26	24	18	24	28	20	2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 기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기준 권장(인가받는 학급당 정원 준수) • ()는 군지역 유치원 급당 원아수 기준 • 사립 기 유치원은 권장 사항
인천	20 (18)	26 (24)	28 (26)	24 (22)			20 (18)	26 (24)	28 (26)	24 (22)			
광주	20	22	25	22			20	22	2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연령학급의 경우, 원아모집 시, 연령별 비율 권장(1:3:6)
대전	15 ~20	25	30	25			15 ~20	25	30	25			
울산	20	25	30	25			30	30	3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지표보다 학급당 2명 초과 수용 • 연령별 유아 4명까지 초과 허용 • 공사립 같은 기준
세종	15	20	25	25			15	20	25	25			
경기	16	22	26	16	22	20	16	22	26	16	2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유치원 인가정원 정비방안 조정 (2013. 10. 27)에 의거 '14년 적용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16년까지 유예
강원	16	22	24	16	20	18	16	22	24	16	20	18	
충북	13~ 16	18~ 21	22~ 25	8~21			13~ 16	18~ 21	22~ 25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시설 부족시 2명 초과 허용 • 수용시설 부족시 5명 초과 허용
충남	15	20	25	25			15	20	25	25			
전북	16	20	25	18	24	18	16	20	25	18	2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편성 최소 인원 5명(농산어촌 4명, 도서 지역 3명) • 사립유치원은 연령별 2명씩, 총 6명 이내 정원 조정 가능 • ()는 읍이하 학급편성 기준임 • 최초 1학급 편성 최저 원아수는 5명(단, 1도서 1병설유치원, 유아교육시설이 없는 1면 1병설유치원은 3명 이상 허용) • 혼합반 편성시 학급편성 기준 초과인원 1명 이상인 경우 추가 학급편성 가능
전남	15	20	23	22(18)			15	20	23	22(18)			
경북	17	22	27	25			17	22	2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원아수 24명 이하는 혼합반으로 편성 • 2007년 이전 인가 유치원 공립기준 권장하되, 학급/정원 변경인가 시 공립기준 적용 • 2007년 이후 인가 유치원 공립 기준 적용
경남	19	25	28	24			19	25	28	24			
제주	20	24	26	22	24	22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립유치원 규칙에 의한 학급편제 및 정원에 근거하여 편성 • 5명 이하 학급편성 불가(단, 도서지역은 지역 내 유아교육(보육)시설 고려 편성)

〈부표 2〉 시도별 3세 유치원 취원을 예측치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30.4	31.2	31.9	32.5	33.0	33.4	33.7	34.0	34.2	34.3
부산	39.1	39.4	39.6	39.7	39.8	39.9	39.9	40.0	40.0	40.0
대구	28.6	29.7	30.6	31.4	32.0	32.4	32.8	33.1	33.3	33.5
인천	33.5	33.9	34.2	34.5	34.6	34.7	34.8	34.9	34.9	34.9
광주	35.3	35.6	35.7	35.8	35.9	35.9	35.9	36.0	36.0	36.0
대전	38.6	39.6	40.3	40.9	41.4	41.8	42.1	42.3	42.4	42.6
울산	32.2	32.7	33.0	33.2	33.4	33.6	33.7	33.8	33.8	33.9
세종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22.7
경기	35.0	36.1	37.0	37.7	38.2	38.7	39.0	39.2	39.4	39.6
강원	30.2	30.8	31.3	31.7	32.0	32.2	32.4	32.5	32.6	32.7
충북	30.4	30.8	31.1	31.3	31.5	31.6	31.7	31.8	31.8	31.9
충남	30.5	30.9	31.2	31.4	31.6	31.7	31.8	31.8	31.9	31.9
전북	39.4	39.6	39.8	39.8	39.9	39.9	40.0	40.0	40.0	40.0
전남	32.9	32.9	32.9	33.0	33.0	33.0	33.0	33.0	33.0	33.0
경북	37.0	37.3	37.5	37.7	37.8	37.9	37.9	37.9	38.0	38.0
경남	34.9	35.4	35.8	36.1	36.3	36.5	36.6	36.7	36.8	36.8
제주	8.8	9.0	9.2	9.4	9.5	9.6	9.7	9.7	9.8	9.8

〈부표 3〉 시도별 4세 유치원 취원을 예측치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43.9	44.8	45.5	46.2	46.7	47.2	47.6	48.0	48.3	48.5
부산	62.9	63.7	64.2	64.7	65.0	65.2	65.4	65.6	65.7	65.8
대구	62.3	63.1	63.6	64.0	64.3	64.5	64.7	64.8	64.8	64.9
인천	53.8	54.2	54.4	54.6	54.7	54.8	54.9	54.9	54.9	55.0
광주	51.0	51.5	51.9	52.2	52.4	52.6	52.7	52.8	52.9	52.9
대전	59.2	59.9	60.4	60.8	61.1	61.3	61.5	61.6	61.7	61.8
울산	58.9	59.2	59.4	59.6	59.7	59.8	59.8	59.9	59.9	59.9
세종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8.0
경기	50.5	51.4	52.2	52.8	53.2	53.6	53.9	54.1	54.3	54.5
강원	42.5	42.9	43.2	43.4	43.5	43.7	43.8	43.8	43.9	43.9
충북	42.0	42.2	42.4	42.6	42.7	42.8	42.8	42.9	42.9	42.9
충남	46.4	46.8	47.1	47.4	47.5	47.7	47.8	47.8	47.9	47.9
전북	49.9	49.9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전남	44.0	44.3	44.5	44.6	44.7	44.8	44.9	44.9	44.9	44.9
경북	62.4	62.6	62.8	62.8	62.9	62.9	63.0	63.0	63.0	63.0
경남	56.5	56.9	57.2	57.4	57.6	57.7	57.8	57.8	57.9	57.9
제주	24.4	24.7	25.0	25.1	25.3	25.4	25.4	25.5	25.5	25.5

〈부표 4〉 시도별 5세 유치원 취원을 예측치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47.4	48.1	48.8	49.5	50.1	50.7	51.3	51.9	52.5	53.0
부산	66.6	67.1	67.6	68.0	68.3	68.6	68.8	69.0	69.2	69.3
대구	69.1	69.3	69.5	69.6	69.7	69.8	69.8	69.9	69.9	69.9
인천	62.6	62.9	63.2	63.4	63.6	63.7	63.8	63.8	63.9	63.9
광주	56.2	56.4	56.6	56.7	56.8	56.9	56.9	56.9	57.0	57.0
대전	64.7	65.1	65.4	65.7	65.9	66.1	66.2	66.4	66.5	66.6
울산	68.7	68.9	69.1	69.3	69.4	69.5	69.6	69.7	69.7	69.8
세종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53.3
경기	58.1	58.5	58.8	59.0	59.2	59.4	59.5	59.6	59.7	59.7
강원	51.3	51.4	51.5	51.6	51.7	51.8	51.8	51.9	51.9	51.9
충북	48.7	48.9	49.1	49.2	49.4	49.5	49.6	49.6	49.7	49.7
충남	53.5	53.6	53.7	53.8	53.8	53.9	53.9	53.9	53.9	54.0
전북	51.0	51.5	51.9	52.3	52.5	52.8	53.0	53.2	53.3	53.4
전남	50.4	50.7	50.9	51.1	51.3	51.4	51.5	51.6	51.6	51.7
경북	70.8	71.2	71.5	71.8	72.0	72.2	72.4	72.5	72.6	72.6
경남	63.6	63.7	63.8	63.8	63.9	63.9	63.9	63.9	64.0	64.0
제주	52.0	52.1	52.2	52.2	52.3	52.3	52.4	52.4	52.4	52.5

〈부표 5〉 시도별 3세 유치원 취원아수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23,544	23,220	23,541	24,777	25,922	26,023	26,188	26,186	26,138	26,064
부산	10,541	10,287	10,388	9,875	9,360	9,382	9,300	9,202	9,113	9,036
대구	6,014	6,107	6,288	6,256	6,176	6,222	6,222	6,198	6,176	6,157
인천	9,406	9,358	9,515	9,668	9,808	9,923	9,984	10,005	10,018	10,027
광주	5,211	5,090	5,089	5,279	5,425	5,350	5,311	5,257	5,211	5,177
대전	5,821	5,774	5,892	6,043	6,141	6,219	6,279	6,304	6,319	6,323
울산	3,839	3,801	3,947	3,807	3,607	3,619	3,590	3,556	3,532	3,522
세종	653	760	856	880	916	974	1,014	1,047	1,064	1,076
경기	44,885	44,999	46,015	48,109	50,193	50,802	51,421	51,735	51,959	52,123
강원	3,749	3,671	3,696	3,656	3,661	3,728	3,758	3,778	3,794	3,808
충북	4,464	4,382	4,373	4,346	4,314	4,387	4,418	4,435	4,448	4,458
충남	6,210	6,160	6,158	6,270	6,369	6,471	6,540	6,574	6,594	6,602
전북	6,431	6,220	6,180	5,898	5,721	5,781	5,780	5,773	5,773	5,778
전남	5,136	4,956	4,935	4,445	4,078	4,165	4,151	4,148	4,156	4,174
경북	8,426	8,223	8,301	7,874	7,467	7,532	7,492	7,443	7,404	7,374
경남	11,389	11,166	11,327	10,842	10,291	10,347	10,280	10,203	10,149	10,124
제주	545	542	557	549	535	546	551	554	558	562

〈부표 6〉 시도별 4세 유치원 취원아수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32,741	34,072	33,218	33,423	34,987	36,402	36,380	36,556	36,513	36,430
부산	16,697	17,116	16,726	16,925	16,107	15,310	15,395	15,279	15,137	15,006
대구	13,208	13,321	13,139	13,206	12,874	12,516	12,472	12,357	12,224	12,113
인천	15,036	15,247	15,043	15,193	15,373	15,553	15,696	15,762	15,774	15,779
광주	7,840	7,668	7,510	7,517	7,785	7,982	7,877	7,830	7,758	7,698
대전	8,991	9,014	8,819	8,907	9,043	9,115	9,178	9,227	9,230	9,228
울산	6,952	7,030	6,892	7,101	6,800	6,419	6,431	6,363	6,293	6,245
세종	1,070	1,308	1,461	1,561	1,598	1,655	1,745	1,806	1,857	1,882
경기	64,831	66,070	65,129	65,750	68,094	70,465	70,850	71,425	71,631	71,771
강원	5,396	5,329	5,165	5,151	5,057	5,044	5,113	5,130	5,141	5,149
충북	6,000	6,208	6,044	6,004	5,942	5,885	5,975	6,003	6,016	6,027
충남	9,324	9,547	9,413	9,372	9,518	9,641	9,776	9,865	9,905	9,927
전북	8,136	8,189	7,888	7,817	7,450	7,235	7,316	7,308	7,296	7,293
전남	6,576	6,874	6,640	6,629	5,990	5,539	5,682	5,660	5,660	5,672
경북	13,720	14,141	13,700	13,769	13,014	12,344	12,459	12,376	12,290	12,221
경남	18,269	18,563	18,034	18,169	17,282	16,354	16,420	16,273	16,123	16,017
제주	1,519	1,552	1,519	1,541	1,502	1,452	1,474	1,476	1,476	1,479

〈부표 7〉 시도별 5세 유치원 취원아수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	33,510	35,367	36,598	35,571	35,773	37,490	39,023	39,045	39,393	39,510
부산	16,845	17,800	18,153	17,684	17,865	16,973	16,145	16,263	16,140	15,999
대구	14,466	14,767	14,761	14,464	14,463	14,039	13,618	13,563	13,426	13,275
인천	16,952	17,580	17,778	17,517	17,662	17,865	18,074	18,233	18,305	18,317
광주	8,694	8,735	8,500	8,290	8,262	8,505	8,674	8,546	8,490	8,407
대전	9,651	9,869	9,854	9,629	9,698	9,822	9,882	9,946	9,995	9,996
울산	7,769	8,114	8,185	8,013	8,245	7,881	7,443	7,469	7,390	7,311
세종	1,457	1,789	2,087	2,235	2,349	2,399	2,473	2,589	2,668	2,733
경기	72,309	74,969	75,474	73,659	73,762	75,934	78,124	78,158	78,559	78,581
강원	6,412	6,546	6,426	6,209	6,174	6,050	6,035	6,114	6,125	6,133
충북	6,760	7,003	7,229	7,028	6,978	6,908	6,849	6,961	6,992	7,009
충남	10,528	10,769	10,965	10,764	10,675	10,818	10,930	11,064	11,149	11,181
전북	8,033	8,450	8,560	8,300	8,271	7,922	7,741	7,862	7,871	7,877
전남	7,096	7,534	7,846	7,561	7,549	6,830	6,359	6,547	6,518	6,521
경북	14,735	15,530	16,010	15,525	15,632	14,794	14,082	14,259	14,174	14,092
경남	19,866	20,525	20,741	20,069	20,163	19,124	18,088	18,173	17,993	17,822
제주	3,176	3,281	3,316	3,218	3,245	3,150	3,041	3,087	3,085	3,08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최은영

1. 배경
 2.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3.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4. 정책 제언
-

*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2015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최은영, 최효미, 김정민, 2015)'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요약

-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방식, 방과후 돌봄과 특성화 활동이 구분되지 않는 비용의 공시로 인해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방과후 과정 교육비 산출을 통해 지원 금액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고에서는 방과후 과정의 교육비를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서의 가치를 두고,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에 기초하여 산출 모형을 설정함.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운영비를 합산한 결과, 3학급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월평균 11,454천 원, 사립은 14,235천원으로 산출됨.
- 적정 교육비를 산정하는 가장 좋은 모형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향후 다양한 모형들을 적용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적정교육비 산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1 배경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짐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확대 운영됨(문무경·김문정, 2008).
 - 방과후 과정 운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73.3%에서 2014년 97.2%로 크게 증가하여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이용률 역시 2005년 20.8%에서 2014년 67.5%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 유아교육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누리과정 운영시간인 4~5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포함함.
 -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거,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동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필요경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방과후 과정비 지원범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 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각 70,000원임(교육부, 2015).
 -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78만원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임(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 정부는 방과후 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며, 전담교사 자격은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방과후 과정 학급을 1일 8시간 또는 시간제(3~5시간)로 담당함.
 -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함(서울시교육청, 2015).
-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과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과 더불어 방과후라는 맥락으로 법적 규정된 유아교육과정이 됨.
 -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방식, 방과후 돌봄과 특성화 활동이 구분되지 않는 비용의 공시로 인해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실제적인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으며(이누리, 2015), 방과후 과정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부담은 월평균 152,420원(서울특별시, 만 5세 이상 기준)을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박은혜·방신영·최성진, 2015)
 - 이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산출을 통해 지원 금액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글은 최은영·최효미·김정민(2015)의 연구에서 각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공사립유치원 총 262개원(공립 151개원, 사립 11개원)을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함.

2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가. 방과후 과정 운영 형태 및 시간

- 방과후 과정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독립편성반과 오후재편성반의 비율은 49%대로 비슷하며, 공립은 독립편성반이 62.9%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립은 오후 재편성반이 68.2%로 높은 편이어서 설립 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

〈표 1〉 방과후 과정 운영 형태

단위: %, (개원)

구분	독립편성 방과후반	오후 재편성반	두 가지 유형 모두 운영	계(수)	χ^2 (df)
전체	49.8	49.0	1.1	100.0(261)	
설립 유형(전체)					
공립	62.9	35.1	2.0	100.0(151)	28.742
사립	31.8	68.2	-	100.0(110)	(2)***

*** $p < .001$.

- 방과후 과정 시작시각과 종료시각, 총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시작시각은 14:00 이후가 69.7%로 높고, 종료시각은 17:00 이후가 62.9%로 나타남.
- 설립 유형별로 종료시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17:00 이전에 종료하는 비율이 높고, 운영시간이 짧은 편이며, 운영시간은 평균 244.98분으로 약 4시간임.

〈표 2〉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단위: %, 분, (개원)

구분	시작시각		종료시각			운영시간			평균	계(수)
	14:00 이전	14:00 이후	17:00 이전	17:01~ 18:00	18:01 이후	3시간 이하	3~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전체	30.3	69.7	37.2	32.6	30.3	27.2	38.7	34.1	244.98	100.0(261)
설립 유형(전체)										
공립	37.1	62.9	44.4	29.1	26.5	31.1	37.1	31.8	240.40	100.0(151)
사립	20.9	79.1	27.3	37.3	35.5	21.8	40.9	37.3	251.27	100.0(110)
t	-1.925			-2.603**			-1.424			

** $p < .01$

나. 방과후 과정 학급 수 및 원아 수

- 방과후 과정 학급 수는 평균 4.18개로, 학급 수가 5개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36.4%임.
-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이 평균 4.21개, 사립 평균 4.14로 차이가 없었음. 이는 전체 응답에 공립단설(29%), 공립병설(28.6%)이 포함되어 공립단설이 실제보다 과표집되어 나타난 결과임.

〈표 3〉 방과후 과정 학급 수

단위: %, 개, (개원)

구분	1~2개	3~4개	5개 이상	평균	계(수)	t/F
전체	30.7	33.0	36.4	4.18	100.0(261)	
설립 유형(전체)						
공립	27.8	30.5	41.7	4.21	100.0(151)	0.212
사립	34.5	36.4	29.1	4.14	100.0(110)	

- 독립편성반 이용 유아는 95.92명, 오후 재편성반은 78.25명으로 독립편성반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 수가 더 많음.

〈표 4〉 방과후 과정 원아 수

단위: 명(개원)

구분	독립편성 방과후 과정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3세	4세	5세	전체	(수)	3세	4세	5세	전체	(수)
전체	20.35	34.19	41.38	95.92	(133)	18.41	29.20	30.64	78.25	(131)
설립 유형(전체)										
공립	17.47	33.15	41.91	92.53	(98)	12.70	25.71	32.57	70.98	(56)
사립	28.43	37.09	39.89	105.40	(35)	22.68	31.80	29.20	83.68	(75)
t	-2.593*	-1.041	0.433	-1.114		-3.504***	-1.554	0.763	-1.194	

* $p < .05$, *** $p < .001$.

- 방과후 과정 학급당 유아 수는 공립 20.5명, 사립은 22.4명으로 사립이 높은 편임.
- 학급 편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독립편성반의 경우 공립은 20.4명, 사립은 22.3명이고, 오후 재편성반은 공립 20.8명, 사립 22.4명으로 오후 재편성반 학급당 유아 수는 사립이 유의하게 높음.

〈표 5〉 방과후 과정 학급당 유아 수

구분	공립			사립			전체 평균	t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 편차		
전체	20.5	151	3.4	22.4	110	6.0	21.3	-2.9
독립 편성	20.4	98	3.6	22.3	35	8.0	20.9	-1.4
오후 재편성	20.8	56	3.1	22.4	76	4.9	21.7	-2.2*

* $p < .05$

다. 방과후 과정 인력 및 인건비 현황

1)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 방과후 과정 인력 현황 파악을 위하여 독립편성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근무 여부와 주당 근무일수를 조사한 결과, 전담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로 대부분 전담교사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음.

- 오후 재편성반의 경우 전담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4%로 대부분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독립편성반과 비교하여 전담교사가 있다는 비율이 높은 편임.
- 오후 재편성반도 독립편성반과 마찬가지로 공·사립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공립의 경우 응답자 전체가 별도의 전담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은 없는 경우가 13.2%로 나타남.

〈표 6〉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유무

단위: %, 개원

구분	전담교사 유무		수
	있음	없음	
독립 편성	84.2	15.8	133
설립 유형(전체)			
공립	94.9	5.1	98
사립	54.3	45.7	35
$X^2(df)/t$	39.991(1)***		
오후 재편성	92.4	7.6	132
설립 유형(전체)			
공립	100.0	-	56
사립	86.8	13.2	76
$X^2(df)/t$	7.972(1)**		

** $p < .01$, *** $p < .001$.

-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기관 당 평균 전담교사 수는 3.38명이며, 1인당 월 평균 인건비는 약 132만원으로 나타남.
-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수는 공립 3.91명, 사립 2.47명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며, 전담교사 인건비도 공·사립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인력 수 및 월평균 인건비

단위: 명, 원, 개원

구분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평균(명)	월평균 지출비용(평균)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평균)	수
전체	3.38	4,304,427.3	1,315,854.7	231
설립 유형(전체)				
공립	3.91	5,248,775.1	1,359,430.9	146
사립	2.47	2,780,879.7	1,245,551.6	85
<i>t</i>	5.480	5.592	1.094	

* $p < .05$

2) 담임교사 겸직 유무

- 독립편성 방과후 과정반의 담임교사가 겸직 근무 여부와 겸직 근무할 경우 주당 근무 횟수를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가 겸직하는 비율은 30.8%로 나타남.
- 오후 재편성반의 담임교사 겸직 여부를 살펴보면 담임교사가 겸직하는 경우가 29.5%로, 공립(10.7%)에 비해 사립(43.4%)에서 담임교사가 겸직 근무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

〈표 8〉 방과후 과정 담임교사 겸직 유무

단위: %, 일, 개원

구분	담임교사 겸직 유무		수
	있음	없음	
독립 편성	30.8	69.2	133
설립 유형(전체)			
공립	10.2	89.8	98
사립	43.4	56.6	35
$\chi^2(df)/t$	74.275(1)***		

구분	담임교사 겸직 유무		수
	있음	없음	
오후 재편성	29.5	70.5	132
설립 유형(전체)			
공립	10.7	89.3	56
사립	43.4	56.6	76
$\chi^2(df)/t$	16.569(1)***		

*** $p < .001$.

- 정규과정 담임교사가 방과후 과정을 겸직하는 경우 기관 당 평균 겸직 교사 수는 4.77명이며, 월 평균 인건비는 42만 8천원으로 담임교사 여럿이 순환 근무하고, 근무 수당을 받는 형태로 운영됨.
- 공·사립 간 겸직 교사 수에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은 2.44명, 사립은 5.37명으로 사립의 경우 겸직하는 담임교사 수가 더 많음.

〈표 9〉 방과후 과정 정규과정 담임교사 겸직 인력 수 및 월평균 인건비

단위: 명, 원, %, 개원

구분	정규교사 담임교사 겸직 평균	월평균 지출비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수
전체	4.77	1,942,802.3	428,237.6	79
설립 유형(전체)				
공립	2.44	705,474.5	626,368.6	16
사립	5.37	2,004,668.7	418,331.1	63
t	-3.093**	-0.595	0.541	

** $p < .01$.

3) 지원 인력

-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은 조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지원인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6%로 높은 편임.
- 그 중 64.1%는 방과후 과정으로 인해 추가 고용한 인력이 아님으로 응답하여 기존의 교육과정반 인력이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0〉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 유무 및 주당 근무일수

단위: %, 일, (개원)

구분	지원인력 유무		추가고용 여부		계(수)
	있음	없음	예	아니오	
전체	73.6	26.4	35.9	64.1	100.0(261)
설립 유형(전체)					
공립	59.6	40.4	30.0	70.0	100.0(151)
사립	92.7	7.3	41.2	58.8	100.0(110)
$\chi^2(df)/t$	35.906(1)**		2.594(1)		

* $p < .05$, ** $p < .001$.

□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은 평균 1.92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지출비용은 74만 5천원으로 나타남.

- 방과후 과정으로 인해 추가 고용된 지원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4.1%로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추가 근무 수당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방과후 과정 지원인력 수 및 월평균 인건비

단위: 명, 원, 개원

구분	지원인력 평균(명)	월평균 지출비용(평균)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평균)	수
전체	1.92	1,471,276.5	744,592.2	192
설립 유형(전체)				
공립	1.49	1,168,636.8	837,310.3	90
사립	2.30	1,706,161.1	672,631.9	102
t	-4.387	-2.158	1.593	

라. 방과후 과정 간식제공 현황

□ 방과후 과정 중 간식을 제공하는 비율은 98.5%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오후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 간식 횟수는 평균 1.22회이며, 이용 유아는 88.57명으로 나타남.

- 이는 설립 유형별 차이를 보였는데 공립 1.11회, 사립 1.38회로 사립이 더 자주 간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방과후 과정 간식 제공 여부

단위: %, (개원)

구분	제공함	제공하지 않음	계(수)	χ^2 (df)	간식횟수	(수)
전체	98.5	1.5	100.0(261)		1.22	(257)
설립 유형(전체)						
공립	98.0	2.0	100.0(151)	0.490(1)	1.11	(148)
사립	99.1	0.9	100.0(110)		1.38	(109)

마. 방과후 과정 비용 지출 현황

- 방과후 과정에 지출하는 비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식비, 특성화 활동 교재교구비,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기본운영비, 기타로 항목 비용을 조사한 결과, 방과후 과정 간식비에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평균 154만 3천원으로, 공립 지출 비용이 사립에 비하여 높은 편임.
- 공립의 평균 간식 이용 유아 수와 간식 제공 횟수가 사립보다 낮지만, 평균 지출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아 공립의 1회 간식비 지출이 사립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13〉 방과후 과정 월 평균 지출 비용: 간식비

단위: %, 개원

구분	10만원 미만	10만원 ~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계	평균비용	수
전체	18.0	25.0	25.8	31.1	100.0	1,543,329	244
설립 유형(전체)							
공립	21.0	19.6	23.1	36.4	100.0	1,611,176	143
사립	13.9	32.7	29.7	23.8	100.0	1,447,267	101

- 교재교구비는 특성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방과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분하고, 방과후 과정으로 인해 추가로 지불하는 교재교구비를 추정하여 응답하도록 함. 이에 따른 방과후 과정 특성화 활동 교재교구비 월 평균 지출 비용은 평균 2만 7천원으로 나타남.
- 공·사립별로 살펴보면 공립은 2만 3천원, 사립은 3만 3천원으로 사립의 평균 특성화 활동 교재교구비가 높은 수준임.

-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로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5만 8천원으로, 특성화 활동 교재교구비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임.
- 공·사립별로는 공립 5만 1천원, 사립 6만 7천원으로 사립이 약간 높음.

〈표 14〉 방과후 과정 월 평균 지출 비용: 교재교구비

단위: %, 원, 개원

구분	1만원 미만	1만원 ~ 2만 5천원 미만	2만 5천원 이상	계	평균비용	수
교재교구비(특성화 활동)	22.1	39.2	38.7	100.0	27,350	181
설립 유형(전체)						
공립	28.3	43.4	28.3	100.0	23,398	113
사립	11.8	32.4	55.9	100.0	33,915	68
교재교구비(방과후 과정)	17.9	37.4	44.7	100.0	58,514	179
설립 유형(전체)						
공립	25.0	39.4	35.6	100.0	51,893	104
사립	8.0	34.7	57.3	100.0	67,696	75

- 차량운영비는 방과후 과정 유아를 위해 별도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으로 차량운영비 월 평균 지출 비용은 평균 47만 3천원으로 나타남.
- 공립은 37만 4천원, 사립은 48만 8천원으로 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평균 지출 비용은 사립이 높으며, 차량운영비를 지출하는 공립유치원 수는 4개원으로 차량운영을 하지 않는 공립 유치원이 다수임.

〈표 15〉 방과후 과정 월 평균 지출 비용: 차량운영비

단위: %, 원, 개원

구분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계	평균비용	수
전체	38.7	61.3	100.0	473,416	31
설립 유형(전체)					
공립	75.0	25.0	100.0	374,750	4
사립	33.3	66.7	100.0	488,034	27

- 기본운영비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지비 등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기본 운영비 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작성하도록 함. 방과후 과정 기본운영비 월 평균 비용은 72만 1천원으로 나타남.

- 공립은 54만 9천원, 사립은 95만 7천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사립의 지출 비용이 큼.

〈표 16〉 방과후 과정 월 평균 지출 비용: 기본운영비

단위: %, 원, 개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평균 비용	수
전체	39.4	60.6	100.0	721,460	104
설립 유형(전체)					
공립	48.0	52.0	100.0	549,669	50
사립	31.5	68.5	100.0	957,283	54

□ 인건비를 제외한 방과후 과정의 교재교구비와 운영비 총 지출 비용은 월 평균 250만 2천원으로 나타남.

- 설립 유형별로 공립 병설의 지출 비용이 가장 낮고, 공립 단설은 높은 편임.

〈표 17〉 방과후 과정 월 평균 총지출 비용

단위: %, 원, 개원

구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 비용	수
전체	29.6	33.5	37.0	100.0	2,502,323	257
설립 유형(전체)						
공립	29.5	34.9	35.6	100.0	2,375,489	149
사립	29.6	31.5	38.9	100.0	2,677,306	108

□ 방과후 과정 원아 1인당 월평균 지출 비용은 설립 유형과 상관없이 전체 유치원의 원아 1인당 월 평균 지출 비용은 9만 5천원으로 나타남.

- 방과후 과정 교재교구비가 5만 8천원으로 가장 높고, 기본운영비 2만 9천원, 특성화 활동 교재교구비 2만 8천원 순임.
-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의 원아 1인당 월 평균 지출 비용은 8만 8천원이고, 사립은 10만원임.

〈표 18〉 방과후 과정 원아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원, 개원, 점

구분	공립			사립			전체 평균	t	
	평균	사례 수	표준 편차	평균	사례 수	표준 편차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간식비	18,231	49	10,950	20,963	69	23,820	19,829	-0.75
	교재교구비 (특성화활동)	24,358	36	58,129	32,784	42	29,507	28,895	-0.82
	교재교구비 (방과후과정비)	53,431	39	137,132	62,603	47	94,445	58,444	-0.37
	차량운영비	25,806	1	-	7,922	20	4,180	8,773	-
	기본운영비	22,764	20	30,473	33,079	37	34,038	29,460	-1.13
	기타	24,084	10	30,570	17,712	9	22,518	21,066	0.51
	소계	88,000	52	127,006	100,102	73	105,093	95,067	-0.58

3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방과후 과정 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분석하였고, 항목을 검토하여 보완함.

-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부모의 특성화 활동에 대한 요구, 돌봄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임. 따라서 기본 유치원의 시설·설비를 갖춘 상황을 전제로 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항목으로 구성함.
- 인건비는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별도로 투입되는 교사와 지원인력을 포함하였고, 교재교구비는 방과후 활동(특성화 포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였으며, 운영비 항목에는 간식비, 차량운행비,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운영비로 구성함.
- 방과후 과정 모형은 공립 151개원, 사립 11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은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설립 유형에 따른 공·사립 구분을 적용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의 준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산출함.

가. 방과후 과정 운영 모형 설정

- 방과후 과정 인력 배치는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립 오후 재편성반은 전담교사 1명, 지원인력 0.5명을 배치하였으며, 사립의 오후 재편성반은 전담교사 1명, 지원인력 1명을 기준으로 함.
- 공립유치원의 지원인력을 0.5명 배치한 이유는 조사결과, 공립의 경우 지원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비율이 사립에 비해 낮았기 때문임.

〈표 19〉 방과후 과정 운영 모형

단위: 명, 개원

구분		공립			사립		
		1학급	2학급	3학급	1학급	2학급	3학급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학급 수	1	2	3	1	2	3
	원아 수	20	40	60	22	44	66
	전담교사 수	1	2	3	1	2	3
	지원 인력	0.5	1	1.5	1	2	3

나. 항목별 비용 산출 결과

1) 방과후 과정 인건비

- 방과후 과정 모형에서 설정한 인력 배치에 인력 1인당 인건비를 반영하여 설립 유형별 인건비를 산출함.
- 방과후 과정 모형에 의해 공립 오후 재편성반과 사립 오후 재편성반 모두 3학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표 20〉과 같음.

〈표 20〉 방과후 과정 인건비 산출 결과

단위: 원, 명

구분		공립			사립		
		1인당 인건비	인력 수	총액	1인당 인건비	인력 수	총액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	1,336,207	3	4,008,621	1,306,656	3	3,919,968
	지원 인력	711,945	2.5	1,779,863	697,972	3	2,093,916
인건비 총액		2,048,152		5,788,484	2,004,628		6,013,884

2)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경비

-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경비는 적정 방과후 과정 원아 수에 원아 1인당 소요되는 항목별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방과후 과정 모형에 따라 공립의 학급당 유아 수는 20명, 사립은 22명으로, 공립 오후 재편성반은 3학급 기준 60명, 사립 오후 재편성반은 66명을 기준으로 함.

〈표 21〉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경비 산출 결과

단위: 원, 명

구분	공립			사립		
	유아1인당 지출 비용	적정 원아 수	총액	유아1인당 지출 비용	적정 원아 수	총액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방과후 교재교구비	53,431	60	3,205,860	62,603	66	4,131,798

3) 방과후 과정 운영비

-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경비 및 공통운영비는 방과후 과정 원아 수에 원아 1인당 소요되는 항목별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 방과후 과정 모형에 따라 공립의 학급당 유아 수는 20명, 사립은 22명으로, 공립 오후 재편성반은 3학급 기준 60명, 사립 오후 재편성반은 3학급 기준 66명을 기준으로 함.

〈표 22〉 방과후 과정 운영비 산출 결과

단위: 원, 명

구분		공립			사립		
		유아1인당 지출 비용	적정 원아 수	총액	유아1인당 지출 비용	적정 원아 수	총액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간식비	18,231	60	1,093,860	20,963	66	1,383,558
	차량운영비	25,806	60	1,548,360	7,922	66	522,852
	기본운영비	22,764	60	1,365,840	33,079	66	2,183,214
	소계	66,801		4,008,060	61,964		4,089,624

다.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의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운영비를 합산한 결과, 3학급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월평균 11,454천원, 사립은 14,235천원으로 산출됨.
- 이 비용에 학급당 원아 수인 공립 20명, 사립 22명을 적용하여 원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하면 공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방과후 과정 총 비용은 190천원, 사립유치원은 215천원으로 산출됨.

〈표 23〉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 산출 결과

단위: 원

구분		총액			원아 1인당 비용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평균
오후 재편성 방과후 과정	인건비 총액	5,788,484	6,013,884	11,802,368	96,475	91,119	93,797
	교육활동 경비 총액	3,205,860	4,131,798	7,337,658	53,431	62,603	58,017
	운영비 총액	2,459,700	4,089,624	6,549,324	40,995	61,964	51,480
	간식비	1,093,860	1,383,558	2,477,418	18,231	20,963	19,597
	차량운영비	-	522,852	522,852	-	7,922	7,922
	기본운영비	1,365,840	2,183,241	2,183,241	22,764	33,079	27,922
방과후 과정비 총액		11,454,044	14,235,306	25,689,350	190,901	215,686	203,294

4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과정의 교육비를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지수로서의 가치를 두고, 방과후 과정 운영 현황에 기초하여 산출 모형을 설정함.
- 표준교육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비 산정 모형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유치원 특성 상 비용함수 추정으로 적정 유아교육비를 산출하는 데 제약이 있어 실증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모형을 구성하여 교육비를 산출함.
- 적정교육비를 산정하는 가장 좋은 모형은 존재하기 어렵지만 향후 다양한 모형들을 적용하고,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적정교육비 산출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방과후 과정 지원 금액의 적정성 및 보편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방과후 과정 조사결과, 방과후 과정 원아 1인당 월평균 지출(인건비 제외) 공립 8만8천원, 사립 10만원으로 나타남. 또한 모형에 근거해 산출한 방과후 과정 적정교육비(원아 1인당)는 공립 190,901원, 사립 215,686원(인건비 제외: 공립 94,426원, 사립 124,567원)으로 나타남.
 - 이는 방과후 과정 지원액(공립 5만원, 사립 7만원)이 실제 방과후 과정 지출과 방과후 과정 적정 교육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는 방과후 과정의 적정교육비 수준을 공립유치원에 근거해 제시한다(94,426원)고 하더라도 현재 지원액이 증가해야 함을 보여줌.
 - 그러나 2014년 기준, 방과후 과정 이용률 67.5%(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을 고려하고, 방과후 과정이 선택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재 방과후 과정 이용에 대한 보편 지원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일본의 경우도 이용기관, 연령에 따라 이용자 부담액을 소등계층을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과정까지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방과후 과정 이용자격을 선별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비율과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14년 기준, 취원아의 67.5%)로,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을 상회하는 수치임.
 -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취업모, 취약계층 등의 양육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정립하고, 방과후 과정 이용자격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유치원의 수익자부담 경비의 항목을 설정하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학부모 부담 경비의 실비징수 내용을 기관유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①교재, 학용품, 교복, 앨범 ②특별행사, 원외활동 ③1호 인정 어린이 급식, 2호 인정 어린이의 주식 ④스쿨버스 ⑤그 외 시설 이용에 있어서 통상 필요한 편익에 소요하는 비용임.
- 한편 실비 징수는 그 때마다 설명하여, 보호자의 동의(서면동의를 불필요)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시정촌이 정한 기본부담액에 덧붙여서 특정부담액을 징수할 경우에도 사전설명, 서면동의를 사전절차를 통하여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함.
- 수익자 부담 경비와 관련하여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은 수익자 부담 경비 중 급식비와 차량운영비를 기본운영비로 포함하고,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유치원의 자율적 영역으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 간식비, 차량운영비 등은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후 과정의 수익자 부담 경비 항목 설정, 부담비용에 대한 동의 절차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유형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내부자료.
- 문무경·김문정(2008). 유치원 종일반 운영 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은혜·박신영·최혜윤(2013).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본 전국 유치원 운영시간 현황 분석. *교육과학연구*, 44(2), 97-118.
- 서울시교육청(2015).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5).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방정부 재정 지원 현황과 보육비용

양미선

1. 서론
 2.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현황
 3.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요구
 4.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5.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

요약

-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산출하는데 목적을 둬.
- 시도 간 보육비용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에는 정부의 재정중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4년 간 동결되었던 0~2세 보육료가 3% 인상되었고(조선일보 2015년 3월 9일자 기사), 2016년에는 6%가 추가 인상될 예정임(경향신문, 2015년 12월 31일자 기사).
- 서문희 외(2013, 2014)는 두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보육비용 산정 시 어린이집 유형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물가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2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4)에서 어린이집 설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및 매입 시 소요되는 설비비와 임대료의 지역 간 차이가 컸고, 평당 공시지가 또한 지역 차이를 나타냄.
 - 지역별 생활물가 지표(한국물가협회, 2015)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차가 존재하므로 보육비용 산출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른 차이를 ‘지역 특성’으로 간주하고, 중앙정부 지원 외에 시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인건비나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보육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양미선 박원순, 이동하(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육아정책연구소. 의 일부임.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도 특수보육시책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항목 및 지원금 규모 등을 검토함.
- 지역별 보육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원 항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
-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지역차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다. 연구방법

- 어린이집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어린이집 재정운영 및 특수보육사업시책 관련 실태 및 요구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어린이집 재정 운영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특성은 <표 1>과 같음.

<표 1> 조사 완료 어린이집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국공립	36.9(321)	20인	15.1(131)
사회복지법인	6.9(60)	45-55인	25.2(219)
법인단체등	5.3(46)	72-82인	24.6(214)
민간개인	36.0(313)	92-102인	22.0(191)
가정	13.9(121)	124인 이상	13.1(114)
직장	0.9(8)	지역규모	
		대도시	45.3(394)
		중도시	35.0(304)
		소도시	19.7(171)
		전체	100.0(896)

2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 지원 현황

가. 규모

□ 시도 지원 보육예산은 2014년 기준 1조가 넘으며, 국고 대비 8% 가까이를 차지함.

〈표 2〉 연도별 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사업비 (A)	특수시책사업			국고사업대비 시·도 특별사업비 (B/A)	국고사업대비 시·군·구 특별사업비 (C/A)
		시·도 특별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비 (C)	계		
2005년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13.3	7.3
2006년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13.0	5.2
2007년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12.8	4.4
2008년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8.7	3.7
2009년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10.6	3.7
2010년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11.3	4.0
2011년	5,018,610	455,187	271,159	5,744,956	9.1	5.4
2012년	6,132,183	438,914	552,566	7,132,663	7.2	9.0
2013년	8,341,814			1,036,342		
2014년	8,557,370			1,084,360		

주: 2011년까지는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고,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2012년은 시·도 특별사업비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도 사업 분담금과 시·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재인용.

□ 특수보육시책 세부사업을 보면, 종류가 다양하고, 시도 전체가 지원하는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며, 평가인증이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수보육시책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고 복잡하여 비교가 어려움.

〈표 3〉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내용	지역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	전체 16개 시·도
교사 교통급식비(복지비) 지원	부산, 대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보육료 차액 지원	충북
저소득층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대전, 충남, 경북
저소득층 기타 경비 지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서울, 광주, 충북, 경북, 경남
냉난방비 지원	인천, 울산, 강원도, 전북
차량운행비 지원	경북, 전북, 전남
친환경 식재료 비용 지원	전남

자료: 보건복지부(2013). 시도 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나. 보육비용 산정 항목별 지원 규모

1) 인건비

중앙 정부의 인건비 지원 외에 지방 정부가 특수보육시책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의 시도가 보육교사에게 월 6만원에서 19만원 선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함.

- 시도별로는, 정부지원 보육교사에게 월 2만원을 지원하는 경남이 가장 적고, 인천이 19만원으로 가장 많다. 시도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 근속년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함.

〈표 4〉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천원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단가
			계	시비	구비	
서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 선비					정부지원: 원장 19만5천원 교사 14만5천원 민간: 교사 20만원 방과후 10만
인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6~19만 차등지급
대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73	7,896,000	4,198,000	3,698,000	월 9만원
대전	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7,620	4,572,000	2,286,000	2,286,000	월 5만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8,000	800,000	800,000		10만원(연 1회)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7,700	3,132,000	1,566,000	1,566,000	월 3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8,889	7,467,600	7,467,600		월 7만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7,000	1,680,000	1,680,000		월 2만원
울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558,400	2,779,200	2,779,200	월 12만원
광주	겸직원장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10만원
세종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857,600	2,857,600		월 10~25만원 차등지급
	보육교사 시간외수당		272,600	272,600		월 2만원
강원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8,500	1,190,000	238,000	952,000	1인당 연 14만원
경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8,139	11,454,072	2,178,520	9,275,552	월 6~15만원 차등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46,601	93,503,696	17,207,110	76,296,586	월 6~20만원 차등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55,000	19,800,000	9,900,000	9,900,000	월 3만원
충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7,930	7,663,200	3,065,280	4,597,920	월 6, 8, 13만원.
	0~2세 담임교사 수당	4,800	1,152,000	345,600	806,400	월 2만원
충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1,120	14,472,000	4,342,000	10,130,000	원장 15만원 교직원 10만원
전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060	9,156,000	9,156,000		월 5, 10만원
경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9,734,000			월 1만5천~10만차등지원
경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3,100	11,400,000	3,420,000	7,980,000	정부지원: 월 2만원 정부미지원: 월 4만원 평가인증기간 월 5만원
	어린이집 종사자격무수당	21,000	2,100,000	630,000	1,470,000	설날 5만원, 추석 5만원 (연2회)
제주	취사부 및 운전기사 인건비		1,139,600			미지원시설 기사 월 10만 취사부 월 45만,

주: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 지원이 없는 시도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2) 급간식비

□ 보육료에는 점심 급식 1회와 간식 2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다만,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중 기존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 중 일부를 급간식비로 지출할 수 있음.

□ 17개 시도 중 충남과 세종은 영유아 급식비로 1인당 1일 기준 300원, 경북은 1인당 월 9,000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5〉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천원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단가
			계	시비	구비	
충남	영유아 급간식비	69,000	5,175,000	1,552,000	3,623,000	1인 300원/일
세종	영유아 급·간식비	-	633,060	633,060	-	1인 300원/일
경북	보육아동 간식비	73,000	-	-	-	1인당 9,000원/월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3) 교재교구비

□ 누리과정 교재교구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교재교구비를 지원함.

〈표 6〉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개소, 천원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단가
			계	시비	구비	
제주	교재교구비	-	164,000	-	-	정부지원 연 100만원 정부미지원 정원별 차등지급 40~100만원

주: 사업량과 시비, 구비 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시도특수보육시책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임.

- 제주는 정부지원 시설 연 100만원, 정부미지원 시설은 정원별로 40~100만원을 지원함.

4) 관리운영비

□ 국고지원 사업에는 관리운영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이 외에 차량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일부 특수사업 어린이집에 지원됨.

- 대전은 도서구입비로 개소 당 연 13만원, 충북은 어린이집의 의무가입 사항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를 아동 1인당 연 2,500원 지원하고, 경남도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며, 세종시는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를 정원별로 차등 지원함.

〈표 7〉 특수보육시책 사업

단위: 명, 개소, 천원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단가
			계	시비	구비	
대전	도서구입비	1,670	217,100	217,100	-	연 13만원
세종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	-	106,200	106,200	-	정원별 차등지급
강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030	452,700	90,540	362,160	개소당 45만원
충북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52,000	130,000	52,000	78,000	유아1인당 연 2,500원
경북	어린이집 안정공제회비	73,000	182,500	-	-	유아1인당 연 2,500원
경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110,000	555,000	277,500	277,500	-

자료: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3 특수보육시책에 대한 요구

가. 인건비

□ 어린이집이 시도 및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으로 지원받는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 어린이집 대다수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았고, 65.1%는 취사부 등 지원 인력 인건비, 30% 정도는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 수당, 담임수당을 각각 지원받았으며, 26.4%는 복리후생비, 18.5%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나머지는 5% 내외로 지원 비율이 낮음.
- 대도시 어린이집 대부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받고, 75.6%는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40.9%는 복리후생비, 10% 정도씩은 장기근속수당과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을 지원받고 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도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이 40~50%대로 높다. 특히 읍면지역은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 94.2%로 높음.

〈표 8〉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인건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도시	중도시	읍면 지역	20인	45-55인	72-82인	92-102인	124인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8.5	96.7	94.2	100.0	95.9	97.2	96.3	96.5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75.6	52.0	64.3	29.8	71.2	77.6	69.1	64.0
장기근속수당	16.2	53.3	44.4	38.9	25.1	36.0	35.1	45.6
복리후생비	40.9	18.1	7.6	29.0	26.0	27.6	28.3	18.4
보육교사 교통비	8.6	1.6	9.4	6.9	7.8	6.5	4.7	5.3
평가인증 수당	17.5	49.3	47.4	51.9	27.4	28.0	32.5	43.9
담임수당	18.5	43.8	43.9	36.6	22.8	39.3	29.3	37.7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	-	94.2	16.8	12.8	17.8	21.5	28.1
누리과정지원비	5.1	3.6	4.1	-	3.7	4.7	8.9	2.6
교사 인건비	1.8	1.3	1.2	3.8	2.3	-	0.5	1.8
교사 연구수당	1.8	0.3	-	0.8	1.4	1.4	0.5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7.6	3.9	6.4	8.4	8.7	5.6	4.7	1.8
보조교사 인건비	1.0	0.7	0.6	3.1	0.5	0.9	-	-
명절, 휴가 등 상여	1.0	0.3	2.3	0.8	-	1.9	0.5	2.6
시간외 근무수당	3.3	1.3	-	-	1.4	2.3	3.1	2.6
영유아, 장애아 등 특별수당	3.6	4.9	5.3	3.1	3.2	4.2	6.3	5.3
장려수당	1.5	1.3	0.6	-	0.5	-	2.1	5.3
기타1	1.3	3.9	5.8	3.8	3.2	4.2	2.1	1.8
기타2	-	-	0.6	-	0.5	-	-	-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 현재 어린이집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인건비 지원을 1, 2순위로 알아봄.
- 1순위로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48.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3.0%, 나머지는 5% 내외로 적음.
 - 2순위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30.6%,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가 20.1%임.
 - 1,2순위를 합산하면,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각각 60%대, 담임수당 18.8%, 장기근속수당 11.0%, 복리후생비와 평가인증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이 8~9%대임.

〈표 9〉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인건비 지원: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사부 등 지원인력 인건비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교통비	평가인증수당	담임수당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누리과정지원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인건비	보조교사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특별수당	장려수당	기타	(수)
1순위	33.0	48.2	2.2	0.7		2.5	6.7	2.4	1.2	0.1	0.8	0.2	0.3	-	-	1.7	100.0(869)
2순위	30.6	20.1	8.9	8.2	1.2	6.0	12.2	6.6	0.8	0.9	0.8	0.2	0.6	0.6	0.1	1.4	100.0(862)
1+2순위	63.4	68.1	11.0	8.9	1.2	8.5	18.8	9.0	2.0	1.0	1.6	0.5	0.9	0.6	0.1	1.8	(869)

주: 특별수당은 영유아·장애아 특별수당이 포함됨.

나. 사업운영비

- 급간식 및 교재교구비 등 사업 운영비 지원 항목을 보면, 교재교구비가 83.8%로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영유아 급간식비 47.0%, 보육교사 중식비 27.6%, 친환경 급간식비 17.0%, 우유급식비 8.9% 순임.
 -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교재교구비가 모두 80%를 상회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영유아급간식비가 도움된다는 비율이 50%가 넘음. 대도시는 보육교사 중식비가 58.9%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단연 높음.
 - 이 외에 대도시는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가 20.6%, 중소도시는 우유급식비가 13.5%로 높은 편임.

〈표 10〉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사업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도시	중도시	읍면 지역	20인	45-55인	72-82인	92-102인	124인이상
영유아 급간식비	53.3	35.5	52.6	48.1	47.5	49.5	45.5	42.1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20.6	12.5	17.0	6.9	12.8	22.4	20.9	20.2
우유 급식비	7.9	13.5	2.9	8.4	7.3	13.6	5.8	8.8
보육교사 중식비	58.9	2.0	1.2	13.7	35.2	35.0	24.6	20.2
교재교구비	81.7	86.2	84.2	84.0	79.0	86.0	86.9	83.3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0.5	3.0	2.3	3.1	1.4	1.4	1.0	2.6
시간연장 운영비	1.5	1.6	-	0.8	1.4	0.9	1.6	1.8
현장학습 및 행사비	2.0	-	0.6	-	1.4	1.9	-	1.8
영유아반 운영비	0.8	1.0	1.8	2.3	0.9	1.4	-	0.9
기타	1.3	2.0	1.2	1.5	1.4	0.9	1.6	2.6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지원 항목을 1,2순위로 조사함.
- 1순위로 교재교구비와 영유아급간식비가 각각 39.6%, 38.7%로 높고, 다음으로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가 10.1%이고, 나머지는 5% 미만임.
 - 2순위도 교재교구비가 38.3%로 높고, 영유아급간식비 25.1%, 보육교사중식비 16.5%,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 10.4% 순임.
 -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재교구비가 72.3%, 영유아급간식비 60.1%, 친환경(유기농)급간식비 19.0%, 보육교사 중식비 18.8% 순이 됨

〈표 11〉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사업운영비 관련 지원(1순위)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급간식비	친환경(유기농) 급간식비	보육교사 중식비	우유 급식비	교재교구비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운영비	시간연장 운영비	현장학습 및 행사비	영유아반 운영비	기타	계(수)
1순위	38.7	10.1	4.7	2.8	39.6	0.8	0.7	0.1	0.3	2.2	100.0(869)
2순위	25.1	10.4	16.5	6.3	38.3	1.1	0.5	0.4	0.7	0.7	100.0(741)
1+2순위	60.1	19.0	18.8	8.2	72.3	1.7	1.2	0.5	0.9	2.7	(869)

다. 관리운영비

□ 관리운영비 항목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를 보면, 냉난방비가 57.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안전공제가입비 32.3%, 차량운영비 23.2%, 배상보험료 10.8%,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와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가 각각 8%대 정도임.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안전공제가입비가 중소도시에 비해 지원 비율이 높고, 대도시는 배상보험료와 소독방제비가 각각 10%대, 중소도시는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12.5%, 읍면지역은 차량운영비가 80.1%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관리운영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도시	중도시	읍면 지역	20인	45-55인	72-82인	92-102인	124인이상
안전공제 가입비	37.3	25.7	32.7	31.3	32.4	35.0	31.4	29.8
배상보험료	15.0	6.9	8.2	8.4	12.3	13.1	8.4	10.5
공기질관리비	4.1	2.6	2.9	2.3	3.2	3.3	2.1	7.0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4.1	12.5	9.9	8.4	8.2	7.9	8.4	7.9
소독방제비	10.7	3.6	4.1	3.8	7.8	7.5	5.8	9.6
재무회계시스템 사용료	8.6	8.2	9.9	8.4	10.5	7.5	7.3	10.5
냉난방비	48.0	67.4	61.4	71.8	55.7	59.3	50.3	52.6
차량운영비	6.3	13.2	80.1	16.0	19.2	24.3	26.7	31.6
기타	1.0	1.0	1.2	1.5	1.4	1.4	0.5	-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를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냉난방비가 51.6%로 높고, 다음으로 안전공제가입비 17.1%, 차량운영비 15.8% 순임.

〈표 13〉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관리운영비 관련 지원:1+2순위

단위: %(명)

구분	안전공제 가입비	배상 보험료	공기질 관리비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소독 방제비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료	냉난방비	차량 운영비	기타	계(수)
1순위	17.1	3.3	4.3	1.5	2.3	2.0	51.6	15.8	2.2	100.0(869)
2순위	19.4	8.1	8.6	4.1	8.3	5.0	25.2	20.0	1.2	100.0(823)
1+2순위	36.5	11.4	12.9	5.6	10.6	7.0	76.8	35.8	3.4	(869)

- 2순위도 냉난방비 25.2%, 차량운영비 20.0%, 안전공제가입비 19.4% 순임.
- 1,2순위를 합산하면, 냉난방비가 76.8%로 단연 높고, 안전공제가입비와 차량운영비가 35% 정도, 공기질관리비 12.9%, 배상보험료 11.4%, 소독방제비 10.6% 순임.

라. 시설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개보수비 등 시설비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의 추가 지원 비율을 보면,
 - 시설비는 앞서 살펴본 관항목 중 지원률이 가장 낮아서, 조사대상 중 1/3 정도가 시설개보수비를 지원받고, 비품수선비나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설치비, CCTV 설치비 등은 1~2%대로 매우 소수임.
 - 지역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표 14〉 지역규모 및 정원규모별 시설비 지원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지역규모			어린이집 규모				
	대도시	중도시	읍면지역	20인	45-55인	72-82인	92-102인	124인이상
시설개보수비	38.1	27.0	33.3	13.7	33.3	42.5	37.7	30.7
비품수선비	3.0	2.0	2.9	2.3	2.7	2.8	2.1	3.5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2.3	0.7	2.3	2.3	2.3	0.9	1.0	2.6
시설설치비	0.3	-	0.6	-	-	0.5	0.5	-
CCTV설치비	-	-	1.2	-	0.5	0.5	-	-
환경개선비	-	1.0	0.6	0.8	-	0.9	0.5	-
기타	0.3	-	-	-	0.5	-	-	-
(수)	(394)	(304)	(171)	(131)	(219)	(214)	(191)	(114)

- 시설비로 도움되는 지원은 1순위로 시설개보수비가 93.4%로 높고, 2순위는 비품수선비가 90.0%로 다빈도를 나타냄.

〈표 15〉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되는 시설비 관련 지원: 1+2순위

단위: %(명)

구분	시설 개보수비	비품 수선비	비품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설치비	CCTV 설치비	환경 개선비	기타	계(수)
1순위	93.4	3.7	0.2	0.1	-	0.3	2.2	100.0(869)
2순위	4.4	90.0	3.9	0.1	0.5	0.9	0.2	100.0(803)
1+2순위	97.8	93.7	4.1	0.2	0.5	1.2	2.4	(869)

- 1, 2순위를 합산하여도 시설개보수비와 비품수선비가 다른 항목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4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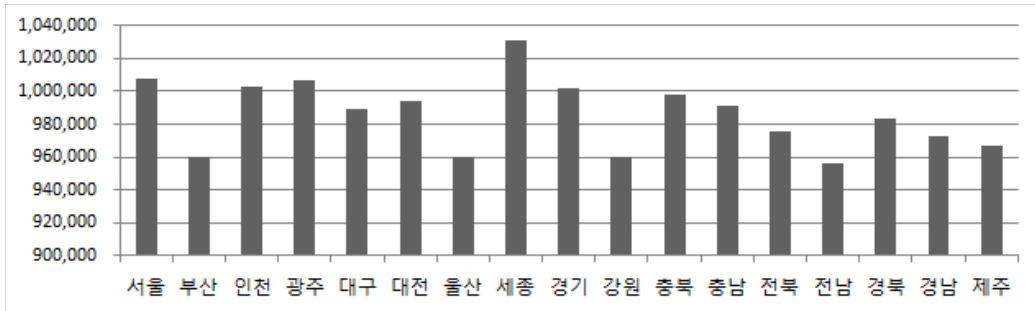
- 지역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양미선 외(2015)의 77인 보육비용에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비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 16〉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1안)

단위: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인건비	819,600	517,500	388,100	224,100	184,900
급간식비	26,900	33,700	33,7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45,300	41,000	30,000	39,500	34,000
관리운영비	50,700	50,700	50,700	50,700	50,7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70,580	671,010	530,600	390,510	345,809

- 먼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6개 지역의 연령 및 시설규모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보면,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지역은 보육교사 1인당 10만원 내외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하여 1안보다 보육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함.



[그림 1]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0세아(7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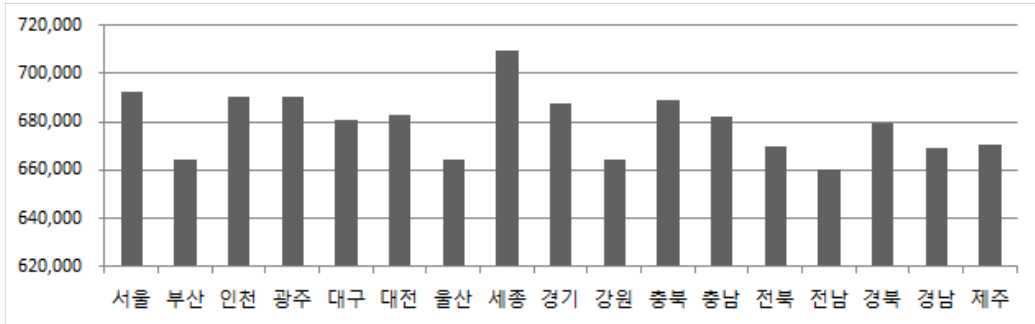
□ 0세아는 서울이 세종이 1,031,300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음. 특히,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은 10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96~99만원 선이고, 전남이 95만원대로 가장 낮음.

<표 17> 0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867,900	819,600	861,300	861,300	849,600	859,600
급간식비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1,007,600	960,100	1,002,600	1,006,400	988,900	994,5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819,600	884,600	864,600	819,600	852,900	854,850
급간식비	26,900	27,200	26,900	26,900	26,900	27,2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45,3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60,400	1,031,300	1,001,600	960,300	997,900	991,2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844,600	819,600	839,600	839,600	825,440	
급간식비	26,900	26,900	26,900	26,900	26,900	
교재교구비	45,300	45,300	45,300	45,300	46,0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975,400	956,200	983,410	972,800	966,700	

□ 1세아는, 세종이 709,500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67만원에서 69만원 사이에 분포함. 부산, 울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66만원으로 가장 낮음.



[그림 2]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1세아(7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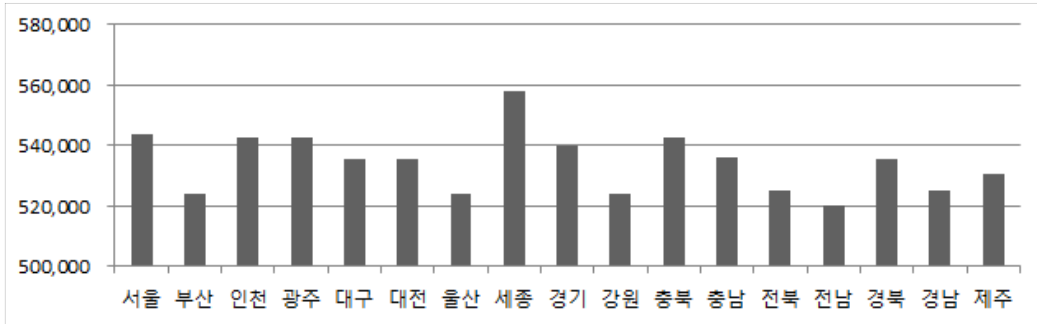
<표 18> 1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546,500	517,500	542,500	542,500	535,500	541,5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92,500	664,300	690,100	690,100	681,100	682,7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517,500	556,500	544,500	517,500	537,500	539,450
급간식비	33,700	34,000	33,700	33,700	33,700	34,0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64,600	709,500	687,800	664,500	688,800	682,1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532,500	517,500	529,500	529,500	523,340	
급간식비	33,700	33,700	34,11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41,000	41,000	41,000	41,000	41,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669,600	660,400	679,610	669,000	670,900	

□ 2세아도 세종이 56만원 정도로 0,1세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52~53만원 선에 분포함.

- 울산, 전남과 전북, 경남이 52만원대로 가장 낮음.



[그림 3]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2세아(77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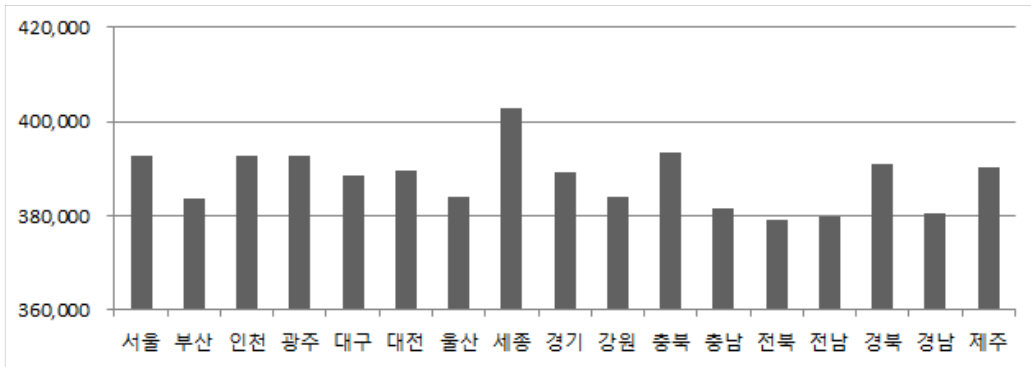
〈표 19〉 2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408,800	388,100	406,000	406,000	401,000	405,200
급간식비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543,800	523,900	542,600	542,600	535,600	535,4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388,100	416,000	407,400	388,100	402,400	404,350
급간식비	33,700	34,000	33,700	33,700	33,700	34,0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524,200	558,000	539,700	524,100	542,700	536,0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398,800	388,100	396,700	396,700	393,940	
급간식비	33,700	33,700	34,110	33,700	33,700	
교재교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524,900	520,000	535,810	525,200	530,500	

□ 3세아는 세종만 40만원이 넘고 나머지는 37~39만원 대에 분포함.

- 전남과 전북만 37만원 대이고, 경남,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부산, 대구, 대전은 38만원대, 나머지 지역은 39만원 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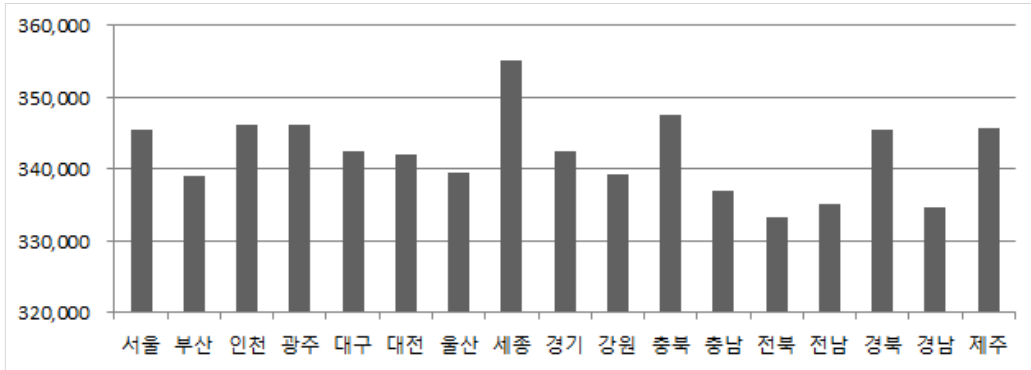
[그림 4]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3세아(77인)

<표 20> 3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233,800	224,100	232,400	232,400	230,100	235,4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92,700	383,800	392,900	392,900	388,600	389,5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224,100	237,100	233,100	224,100	229,400	226,050
급간식비	48,100	48,400	48,100	48,100	48,100	48,4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39,5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84,100	403,000	389,300	384,000	393,600	381,6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229,100	224,100	228,100	228,100	229,940	
급간식비	48,100	48,100	48,51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9,500	39,500	39,500	39,500	40,2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79,100	379,900	391,110	380,500	390,400	

□ 4세 이상아도 세종이 35만원으로 가장 높다. 나머지 지역은 33~34만원 대로 앞서 살펴본 0~3세보다 시도 간에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5] 17개 시도별 아동 1인당 보육비용: 4세아(77인)

<표 21> 4세 시도별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 77인

단위: 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인건비	192,200	184,900	191,200	191,200	189,400	193,400
급간식비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43,200	44,000	44,800	32,700	42,800	38,4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45,600	339,100	346,200	346,200	342,400	342,000
구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인건비	184,900	194,700	191,700	184,900	188,900	186,850
급간식비	48,100	48,400	48,100	48,100	48,100	48,4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관리운영비	44,300	49,900	40,500	44,200	48,500	39,6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39,400	355,100	342,400	339,300	347,600	336,950
구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건비	188,700	184,900	187,900	187,900	190,740	
급간식비	48,100	48,100	48,510	48,100	48,100	
교재교구비	34,000	34,000	34,000	34,000	34,760	
관리운영비	34,300	40,100	46,900	36,700	44,000	
시설비	28,100	28,100	28,100	28,100	28,100	
소계	333,200	335,200	345,410	334,800	345,700	

5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

□ 시도 특수보육 시책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가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나 세부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간의 유사 중복 문제가 심각하여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들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급간식비, 시설비 지원 등의 사업들은 17개 시도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단가 또한 통일시킴. 이 외의 지원사업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함.

□ 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

-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특례 지역 어린이집에는 취사부와 차량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에 2013년부터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 난방 연료로 도시지역은 도시가스를 이용하나, 읍면지역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북해도 지역에 난방비나 제설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 ● ● 참고문헌

- 17개 시도(2015).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3). 시도 특수보육시책 내부자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재인용.
- 양미선 박원순, 이동하(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용 산출연구 2015.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 경향신문. “2016년 보육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12월 31일).

p a r t

05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 어린이집 24시간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 양미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 유해미
-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 | 이윤진
-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 도남희

어린이집 24시간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양미선

1. 서론
 2. 개요
 3. 운영 현황 및 애로
 4. 개선방안
-

요약

- 본 연구는 24시간보육이 운영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서비스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 24시간보육 내실화를 위하여 24시간 실수요자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이용 아동 보호자의 의무 이행 기준을 개정하며, 24시간보육 지정조건에 전용보육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현대경제연구원, 2014)¹⁾, 경직적인 장시간 고용체제에서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대부분의 보육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아옴.
 - 여성의 취업활동 확대 및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보육·교육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감.
- 본 연구는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 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인 24시간 보육(보건복지부, 2015)의 운영 및 이용 현황, 애로, 요구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둬.

* 본 연구는 양미선, 배운진, 김정민(2015).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의 일부임.

1)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증가함(현대경제연구원, 2014).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련법 및 제도, 예산, 각종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함.
 - 24시간보육 운영 및 이용 현황, 제공기관 기관장 요구 및 애로 파악
 - 24시간보육 내실화를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도출함.

다. 연구방법

- 24시간보육 지정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반 수, 인력 배치, 보육료 수입 및 사용처, 어려움, 업무량 증가, 교사 수, 이용 유아수, 취업모 자녀수, 차량운영,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가 비용, 재정 도 움정도, 문제점 및 요구, 내실화 방안 관련 의견 등으로 구성함.
- 조사된 사례수는 총 64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음.
 -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원장도 대다수가 여자이고, 과반수 이상이 4년제 이상의 학 력을 소지하였으며, 현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이 28.1%, 6~10년이 25.0%, 3~5년 이 21.9% 순임.
 -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개인이 34.4%, 국공립 32.8%, 가정 21.9%로 많고, 정원은 50명 이하가 54.7%, 51~100명 이하 37.5%로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음.
 - 지역은 대도시가 64.1%로 다수이고, 중소도시 23.4%, 읍면지역 12.5% 정도임.

〈표 1〉 24시간보육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기관 유형		원장 성별	
국공립	32.8(21)	여자	93.8(60)
사회복지법인	7.8(5)	남자	6.3(4)
법인단체	3.1(2)	원장 학력	
민간개인	34.4(22)	고졸	4.7(3)
가정	21.9(14)	대졸(3년제 이하)	20.3(13)
정원		4년제 졸	37.5(24)
50명 이하	54.7(35)	대학원 이상	37.5(24)
51~100명 이하	37.5(24)	원장 현 재직기간	
101~150명	6.3(4)	3년 미만	28.1(18)
151명 이상	1.6(1)	3~5년 이하	21.9(14)
지역규모		6~10년 이하	25.0(16)
대도시	64.1(41)	11~15년 이하	14.1(9)
중소도시	23.4(15)	16년 이상	10.9(7)
읍면지역	12.5(8)	전체	100.0(64)

2 개요

□ 24시간 보육은 야간보육(19:30~익일 07:30) 지원 사업으로 1995년부터 추진였고, 2007년, 24시간 보육 아동이 5명 이상 10명 이하 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24시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정 제도를 실시함.

- 이후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함(보건복지부, 각 년도).

□ 24시간 보육은 인건비를 지원함.

- 2006년까지 월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다가 2007년 지정 제도로 전환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추가함.
-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정부지원시설은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민간 지정시설은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하였다가 2013년 민간지정시설 인건비 지원이 120만원으로 인상됨(보건복지부, 각 년도).

- 24시간 보육료는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함.
 - 단,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야간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아동으로 주관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지원함(보건복지부, 2015).

〈표 2〉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야간 보육	406,000	357,000	295,000	220,000	220,000	220,000
24시간보육	609,000	535,500	442,500	330,000	330,000	330,000

주: 야간보육료는 정부지원 단가를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의 150%까지 정부에서 차등 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월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 수납할 수 있음.
 - 반면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 수납 가능함(보건복지부, 2015).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일반 편성 시에는 연령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야 함.

3 운영 현황 및 애로

가. 운영 및 이용

- 2014년 기준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277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0.6%의 극소수만 운영하고 있음.
 - 24시간보육 지정시설 제도가 도입된 2007년과 비교하여 2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실정임.
 -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각각 90여 개소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함.

〈표 3〉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수								이용 아동수							
	전체	국 · 공립	사회 · 복지 법인	법인 ·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전체	국 · 공립	사회 · 복지 법인	법인 ·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2014	277	69	14	4	95	90	-	5	867	193	55	9	361	230	-	19
(비율)	(0.6)	(2.8)	(1.0)	(0.5)	(0.6)	(0.4)		(0.7)	(0.06)	(0.12)	(0.05)	(0.02)	(0.05)	(0.06)		(0.05)
2013	284	65	15	4	103	91	-	6	853	165	60	7	371	232	-	18
2012	268	53	13	3	103	90	-	6	871	167	58	6	395	224	-	21
2011	268	48	13	3	104	94	-	6	900	149	53	10	417	269	-	2
2010	230	33	12	3	99	80	-	3	945	93	75	12	488	274	-	3
2009	138	32	13	3	61	29	-	-	520	45	74	11	274	116	-	-
2008	125	23	11	2	58	31	-	-	546	49	69	12	300	116	-	-
2007	148	20	6	1	72	49	-	-	698	43	58	10	416	171		

주: 24시간 보육은 2007년 지정시설 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자료만 생산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2014년 기준 867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중 0.06%로 극소수임.

- 24시간 보육 아동수는 2007년 698명에서 2010년 945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어린이집 유형 중에서 민간, 가정, 국공립 순으로 이용 아동 수가 많다. 운영률을 보면, 국공립이 0.12%, 가정 0.06%, 사회복지법인과 민간, 직장이 0.05% 순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유형보다 다소 높음.

□ 24시간 보육 아동은 어린이집 당 평균 4.3명이고, 영아가 1.9명, 유아가 2.4명으로 유아 영아보다 다소 많음 .

-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평균 5.3명으로 많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4.2명, 가정이 3.1명 순이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님.

〈표 4〉 어린이집별 이용 아동수

단위: 명(개소)

구분	영아	유아	총유아수 (수)	구분	영아	유아	총유아수 (수)
전체	1.9	2.4	4.3 (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3	2.8	4.2 (26)	대도시	2.0	2.4	4.5 (41)
민간/법인단체등	1.9	3.3	5.3 (24)	중소도시	2.1	1.3	3.4 (15)
가정	3.0	0.1	3.1 (14)	읍면지역	1.1	4.3	5.4 (8)
F	3.8*	11.9***	3.1		0.8	4.3*	1.5

* $p < .05$, *** $p < .001$

나. 부모 의무규정

□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주 1회 이상 가정 보호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15).

〈표 5〉 24시간 보육 이용 부모의 의무이행

단위: %(개소)

구분	부모 대부분 성실 이행	일부 부모 전화, 방문 등 아동과 접촉, 집에 데려가지 않음	계(수)
전체	73.4	26.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15.4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66.7	33.3	100.0(24)
가정	64.3	35.7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78.0	22.0	100.0(41)
중소도시	60.0	40.0	100.0(15)
읍면지역	75.0	25.0	100.0(8)

□ 73.4%는 부모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26.6%는 일부 부모가 전화, 방문 등 아동과 접촉하거나 집에 데려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부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이 15.4% 정도 이나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은 각각 33.3%, 35.7%로 2배 정도 높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높음.

- 24시간 보육 이용 부모 중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는 경우, 조치 방법으로,
 - 부모와 연락 후 어린이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64.7%, 부모와 연락 후 가정에 데려다 주는 경우와 부모와 연락 후 복지시설에 인계한 경우가 17.6%, 시 및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11.8%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돌본다고 답하였지만, 가정은 부모에게 연락한 후 복지시설로 인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음.

〈표 6〉 부모 의무 미이행 시 조치방법

단위: %(명)

구분	부모 연락 후 어린이집에서 돌봄	부모 연락 후 가정에 데려다 줌	부모 연락 후 복지시설 인계	시도 및 시군구청 담당자 연락	(수)
전체	64.7	17.6	17.6	11.8	(1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00.0	-	-	-	(4)
민간/법인단체등	62.5	25.0	12.5	25.0	(8)
가정	40.0	20.0	40.0	-	(5)
지역규모					
대도시	88.9	11.1	-	22.2	(9)
중소도시	33.3	16.7	50.0	-	(6)
읍면지역	50.0	50.0	-	-	(2)

주: 중복응답 결과임.

다. 보육과정 운영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 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보건복지부, 2015).
- 24시간 보육 운영 시 중점을 두는 사항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는 표와 같음.
 - 1, 2순위를 합산하면, 안전한 보호·돌봄과 가정에서와 같은 보육환경이 각각 75%로 높고,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 26.9%, 기본 생활습관지도 14.3% 순임.

〈표 7〉 24시간 보육 중점사항: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가정과 같은 보육환경 조성	균형잡힌 급간식 제공	안전한 보호 또는 돌봄	야간 프로그램 운영	기본생활 습관 지도	실외놀이 (놀이터, 산책 등)	기타	계(수)
1순위	51.6	6.3	39.1	-	1.6	-	1.6	100.0(64)
2순위	23.8	20.6	36.5	3.2	12.7	1.6	1.6	100.0(63)
1+2순위	75.4	26.9	75.6	3.2	14.3	1.6	3.2	(64)

□ 정부가 2014년에 보급한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의 인지 및 활용 여부를 알아본 결과, 68.8%는 잘 알고 활용하고 있고, 23.4%는 잘 알고 있으나 참고하지 않았으며, 6.3%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함.

-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과 가정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활용하는 경우가 70%대로 높은 반면, 민간/법인단체등은 알고 있으나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8〉 시간연장형 보육프로그램 인지 및 활용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잘 알고 현재 활용하고 있음	잘 아나, 참고하지 않음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계(수)
전체	68.8	23.4	6.3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76.9	19.2	3.8	-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54.2	37.5	8.3	-	100.0(24)
가정	78.6	7.1	7.1	7.1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70.7	22.0	4.9	2.4	100.0(41)
중소도시	66.7	26.7	6.7	-	100.0(15)
읍면지역	62.5	25.0	12.5	-	100.0(8)

라. 관리감독

□ 24시간 보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수인 81.3%임.

- 가정이 92.9%로 높고,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민간/법인단체 등이 70.8% 순이고, 도시지역일수록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음.
- 2014년 기준 지도점검 횟수는 1회가 59.6%, 2회 이상 40.4%임.

〈표 9〉 지도점검 지원 여부 및 횟수

단위: %(개소)

구분	지원 여부				지원 횟수		
	받음	받지 않음	비해당	계(수)	1회	2회 이상	계(수)
전체	81.3	17.2	1.6	100.0(64)	59.6	40.4	100.0(5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84.6	11.5	3.8	100.0(26)	59.1	40.9	100.0(22)
민간/법인단체등	70.8	29.2	-	100.0(24)	58.8	41.2	100.0(17)
가정	92.9	7.1	-	100.0(14)	61.5	38.5	100.0(13)
지역규모							
대도시	85.4	14.6	-	100.0(41)	71.4	28.6	100.0(35)
중소도시	80.0	20.0	-	100.0(15)	25.0	75.0	100.0(12)
읍면지역	62.5	25.0	12.5	100.0(8)	60.0	40.0	100.0(5)

주: 비해당은 2015년 24시간보육 지정 또는 2015년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을 말함.

마. 24시간 보육교사

1) 보육교사 수

□ 24시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2014년 300명임.

- 2007년 199명에서 2012년 314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보건복지부, 각 년도). 이는 24시간보육 이용 아동 수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성임.

□ 앞서 살펴본 24시간보육 어린이집이나 이용 아동과 같이 민간과 가정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은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음.

〈표 10〉 24시간보육 교사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2014	300	37	18	2	125	103	-	15
2013	305	34	18	3	135	102	-	13
2012	314	54	20	3	129	103	-	5
2011	293	38	16	3	130	106	-	-
2010	258	25	16	3	125	88	-	1
2009	120	13	18	3	53	33	-	-
2008	416	76	64	13	194	69	-	-
2007	199	16	22	4	102	55	-	-

주: 24시간 보육은 2007년 지정시설 제도를 실시하여 이후 통계 자료만 생산됨.
2008년 이전 통계는 종사자수로 집계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 채용 형태

-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형태를 보면, 93.8%가 별도 교사를 채용하고, 17.2%는 시간연장보육 교사가 연장 근무하며, 3.1%는 원장이 직접 보육하고 있음.
- 가정은 원장이 직접 보육하는 경우가 14.3%로 높고, 도시지역도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2~6% 정도 됨.

〈표 11〉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단위: %(개소)

구분	교사 별도 채용	시간연장 보육 교사 연장근무	원장 (수)	구분	교사 별도 채용	시간연장 보육 교사 연장근무	원장 (수)
전체	93.8	17.2	3.1 (64)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00.0	19.2	- (26)	대도시	95.1	17.1	2.4 (41)
민간/법인단체등	100.0	8.3	- (24)	중소도시	86.7	26.7	6.7 (15)
가정	71.4	28.6	14.3 (14)	읍면지역	100.0	-	- (8)

주: 중복응답 결과임.

3) 교대 근무시각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 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할 수 있고,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5).
- 시간연장 보육교사와 24시간보육 담당교사의 교대 근무시각은 오후 22시에서 23시 사이가 33.9%, 오후 23시에서 24시가 25.8%, 오후 22시 이전도 30%가 넘는다.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오후 22시에서 23시가 42.3%로 다빈도이나 가정은 오후 23시에서 24시 사이가 33.3%로 높음.

〈표 12〉 24시간보육교사 교대시각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개인/ 법인단체등	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1시 이전	3.8	16.7	25.0	12.5	21.4	-	12.9
21~22시 이전	23.1	16.7	8.3	15.0	14.3	37.5	17.7
22~23시 이전	42.3	29.2	25.0	35.0	21.4	50.0	33.9
23~24시 이전	23.1	25.0	33.3	30.0	28.6	-	25.8
24시 이후	7.7	12.5	8.3	7.5	14.3	12.5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6)	(24)	(12)	(40)	(14)	(8)	(62)

4) 지원 인력

□ 어린이집 대부분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외 추가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21.9%는 취사부, 3.1%는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음.

〈표 13〉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외 추가인력

단위: %(개소)

구분	보조 교사	취사부	없음	계(수)	구분	보조 교사	취사부	없음	계(수)
어린이집 유형					지역규모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34.6	65.4	100.0(26)	대도시	-	22.0	78.0	100.0(41)
민간/법인단체등	-	20.8	79.2	100.0(24)	중소도시	13.3	26.7	60.0	100.0(15)
가정	14.3	-	85.7	100.0(14)	읍면지역	-	12.5	87.5	100.0(8)

주: 중복응답 결과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취사부를 채용한 경우가 각각 34.6%, 20.8%이고, 가정은 보조교사가 14.3%임.
- 지역규모별로는 대부분 취사부를 추가 채용하지만, 중소도시 13.3% 정도는 보조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음.

바. 재정 운영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 수납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2015).
- 이러한 경우 부모가 보육료를 미납 또는 연체하는지 조사한 결과, 42.2%가 보육료 미납 또는 연체 경험이 있고, 그 금액은 평균 141만 7천원임.
 -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미납 및 연체 경험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4.2%로 높고, 미납 금액 역시 208만 2천원으로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많음.

〈표 14〉 24시간 보육료 미납·연체 여부 및 금액

단위: %(개소), 만원

구분	미납 및 연체 여부		미납금액				계(수)	평균
	'있다'는 비율	(수)	50만원 미만	52~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1만원 이상		
전체	42.2	(64)	25.9	40.7	11.1	22.2	100.0(27)	141.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4.6	(26)	11.1	66.7	-	22.2	100.0(9)	102.4
민간/법인단체등	54.2	(24)	23.1	23.1	23.1	30.8	100.0(13)	208.2
가정	35.7	(14)	60.0	40.0	-	-	100.0(5)	39.3
X2(df)/F					-			3.4*
지역규모								
대도시	43.9	(41)	11.1	55.6	11.1	22.2	100.0(18)	131.3
중소도시	46.7	(15)	71.4	14.3	14.3	-	100.0(7)	127.6
읍면지역	25.0	(8)	-	-	-	100.0	100.0(2)	284.0
X2(df)/F					-			1.0

* $p < .05$

사. 운영에의 도움

- 24시간보육 운영 동기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3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의 참여 권장 25.0%, 재원아 부모의 요구 17.2% 순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참여 권장이 34.6%, 민간/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은 원아 확보가 25.0%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역규모별로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 주요 운영 동기이나, 읍면지역은 재원아 부모의 요구가 62.5%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5〉 24시간보육 운영 동기

단위: %(개소)

구분	정부의 참여 권장	원아 확보	재원아 부모의 요구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필요성 인식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조건	기타	계(수)
전체	25.0	15.6	17.2	31.3	9.4	1.6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4.6	3.8	11.5	26.9	23.1	-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16.7	25.0	20.8	37.5	-	-	100.0(24)
가정	21.4	21.4	21.4	28.6	-	7.1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24.4	17.1	12.2	39.0	7.3	-	100.0(41)
중소도시	26.7	13.3	6.7	26.7	20.0	6.7	100.0(15)
읍면지역	25.0	12.5	62.5	-	-	-	100.0(8)

□ 24시간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 되는지 조사한 결과,

-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32.8%가 도움, 7.8%는 매우 도움으로 40.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2.9점임.
-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 어린이집은 도움된다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읍면지역일수록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님.

〈표 16〉 어린이집 운영에의 도움정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5점 평균
전체	20.3	21.9	17.2	32.8	7.8	100.0(64)	2.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38.5	19.2	15.4	15.4	11.5	100.0(26)	2.4
민간/법인단체등	8.3	25.0	16.7	45.8	4.2	100.0(24)	3.1
가정	7.1	21.4	21.4	42.9	7.1	100.0(14)	3.2
X2(df)/F			-				2.6
지역규모							
대도시	14.6	24.4	22.0	34.1	4.9	100.0(41)	2.9
중소도시	33.3	20.0	6.7	33.3	6.7	100.0(15)	2.6
읍면지역	25.0	12.5	12.5	25.0	25.0	100.0(8)	3.1
X2(df)/F			-				0.5

- 24시간 보육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분야를 추가로 조사함.
 - 원아모집이 42.3%로 높고, 재정 운영과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각각 19.2%로 동일함.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재정 운영과 부모의 만족도 향상이 높은 반면, 민간/법인단체등과 가정은 원아 모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7〉 24시간보육의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 분야

단위: %(개소)

구분	원아 모집	재정 운영	부모의 어린이집 만족도 향상	어린이집이 공보육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계(수)
전체	42.3	19.2	19.2	19.2	100.0(2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	42.9	42.9	14.3	100.0(7)
민간/법인단체등	58.3	8.3	8.3	25.0	100.0(12)
가정	57.1	14.3	14.3	14.3	100.0(7)
지역규모					
대도시	31.3	25.0	18.8	25.0	100.0(16)
중소도시	100.0	-	-	-	100.0(6)
읍면지역	-	25.0	50.0	25.0	100.0(4)

아. 애로 및 요구

-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으로 1순위는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34.4%로 가장 높고,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17.2%, 운영비 부담과 추가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수납 어려움이 15.6%,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12.5% 순임.
 - 2순위는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이 2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부담과 안전문제가 17.7%, 운영비 부담 16.1% 순임.
 -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이 52.1%로 높고, 운영비 추가 부담과 24시간 보육교사 채용이 각각 31.7%,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30.2%, 추가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23.7%, 교사 1인 근무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어려움 21.0% 순임.

〈표 18〉 24시간 보육 운영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부담	운영 비 추가 부담	보육료 연체 및 미납에 따른 보육료 수납의 어려움	24시간 보육 담당교사 채용	야간보육에 따른 영유아 및 교사 안전문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도 점검	교사 1인 근무로 임금상향 발생 시 어려움	기타	계(수)
1순위	34.4	15.6	15.6	17.2	12.5	4.7	-	-	100.0(62)
2순위	17.7	16.1	8.1	14.5	17.7	3.2	21.0	1.6	100.0(62)
1+2순위	52.1	31.7	23.7	31.7	30.2	7.9	21.0	1.6	(62)

□ 앞서 살펴본 24시간보육 운영에의 어려움에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함.

- 계속 운영이 42.2%로 절반에 못 미쳤고, 운영 여부를 현재 고민중인 경우가 42.2%, 그만둘 예정이 15.6%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은 계속 운영이 53.8%로 높은 반면 가정은 앞으로 그만둘 예정이 21.4%로 높았다. 읍면지역일수록 운영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경우가 많음.

〈표 19〉 24시간 보육 운영 여부 계획

단위: %(개소)

구분	앞으로 그만둘 예정	운영 여부 현재 고민 중	계속 운영	계(수)
전체	15.6	42.2	42.2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5.4	30.8	53.8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12.5	54.2	33.3	100.0(24)
가정	21.4	42.9	35.7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14.6	39.0	46.3	100.0(41)
중소도시	20.0	46.7	33.3	100.0(15)
읍면지역	12.5	50.0	37.5	100.0(8)

자. 24시간보육 정책 관련 의견

□ 24시간 보육을 취약보육이 아닌, 장애아나 영아 전문어린이집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이에 대해 찬성이 51.6%, 절대 찬성이 9.4%로 절반 이상인 61.0%가 찬성함.
- 찬성 의견은 가정이 64.3%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높았으나, 절대 반대 의견도 28.6%로 높은 편임.

〈표 20〉 24시간보육 전문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

단위: %(개소)

구분	절대 반대	반대	찬성하는 편	절대 찬성	계(수)
전체	21.9	17.2	51.6	9.4	100.0(6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9.2	23.1	50.0	7.7	100.0(26)
민간/법인단체등	20.8	16.7	58.3	4.2	100.0(24)
가정	28.6	7.1	42.9	21.4	100.0(14)
지역규모					
대도시	14.6	19.5	56.1	9.8	100.0(41)
중소도시	46.7	6.7	33.3	13.3	100.0(15)
읍면지역	12.5	25.0	62.5	-	100.0(8)

-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추가 질문함.

〈표 21〉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찬성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강화	24시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24시간 보육 아동 체계적인 관리	24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	야간 보육 시 안전 강화	계(수)
전체	17.9	10.3	10.3	30.8	17.9	12.8	100.0(3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13.3	6.7	6.7	33.3	26.7	13.3	100.0(15)
민간/법인단체등	20.0	13.3	6.7	40.0	13.3	6.7	100.0(15)
가정	22.2	11.1	22.2	11.1	11.1	22.2	100.0(9)
지역규모							
대도시	11.1	14.8	3.7	37.0	22.2	11.1	100.0(27)
중소도시	28.6	-	28.6	14.3	14.3	14.3	100.0(7)
읍면지역	40.0	-	20.0	20.0	-	20.0	100.0(5)

- 먼저,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 24시간 보육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가 30.8%로 높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24시간 보육 관련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17.9%, 야간보육 시 안전 강화 12.8% 순임.
 - 가정은 24시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읍면지역일수록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이 높음.
-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낙인효과가 68.0%로 가장 높고,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28.0%, 기타 4.0% 순임.
 - 어린이집 유형별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에서 낙인으로 인한 반대 이유가 높은 편이고, 가정어린이집은 부모의 접근성 저하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2〉 24시간 전문어린이집 운영 반대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낙인효과	부모의 어린이집 접근성 저하	기타	계(수)
전체	68.0	28.0	4.0	100.0(2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사회복지법인	72.7	27.3	-	100.0(11)
민간/법인단체등	66.7	22.2	11.1	100.0(9)
가정	60.0	40.0	-	100.0(5)
지역규모				
대도시	57.1	35.7	7.1	100.0(14)
중소도시	87.5	12.5	-	100.0(8)
읍면지역	66.7	33.3	-	100.0(3)

4 개선방안

- 24시간보육 실수요자 검증체계를 마련함.
 - 24시간 보육은 부모와 격리된 아동의 정서상 문제,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확보, 시설 허위 아동 및 교사 등록, 야간 시간 운영 등의 문제로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24시간 보육이 반드시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군구 보육정책위원회에 ‘24시간보육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수요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함.
- 24시간 보육 이용 아동의 보호자 의무 이행 기준을 개정함.
 - 현재,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주 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하고,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주5일 근무보다는 3교대 근무, 자영업, 격일 근무 등 근무가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정기적으로 토요일에 아동을 하원시켜 보호하기가 쉽지 않음.
 - 주 1회 이상 가정에서 보호하게 하되, 부모의 가정형편이나 근로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는 요일을 부모가 지정하도록 함.
- 24시간보육 지정조건에 전용보육실 설치를 의무화함
 - 24시간보육은 보육 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기존 보육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24시간보육은 낮 시간 동안의 보육활동과 다른 수면과 휴식이 주가 되므로 환경이 이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전용 보육실 설치기준을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지정조건으로 설정하여 24시간보육 이용 아동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
 -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에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함.
- 24시간보육은 지정제에서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함.
 -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전담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24시간 보육을 전담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24시간보육에 적절한 보육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추가 인력 지원 등이 가능하여 현 체제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담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는 아동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집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임.

● ● ● 참고문헌

- 양미선, 배윤진, 김정민(2015). 맞춤형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유해미

1. 연구 배경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과 가정양육지원 사업내용
 3. 영유아 부모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4. 운영 방향 및 내실화 방안
-

요약

- 수요자 맞춤형 육아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의 내실화가 요구됨.
-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는 자유놀이실/육아카페와 어린이도서관 대여서비스 부문에서 높고, 도움 정도는 시간제보육과 장난감 대여서비스 부문에서 높게 인식됨.
- 개선 요구로는 집과 가까운 거리내의 기관 설치와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이 각각 41.8%와 26.4%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필요도는 자유놀이실/육아카페, 장난감 대여서비스에서 높게 나타남.
- 가정양육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으로는 부모소통 공간 구비, 전문상담사 배치, 평일 및 토요일 연장 운영, 공동사업에 놀이체험프로그램과 양육참여 교류 공간 제공을 포함하며, 아동연령별 프로그램 다양화와 발달검사 등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함.

1 연구 배경

- 그동안의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이 기관보육 지원 위주로 추진되어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에 부합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적인 확장을 위해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전국 시·군·구 설치를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음(보건복지부, 2013: 32).
 - 상대적으로 간과된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칭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보완해왔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내 양육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추세이므로 가정양육지원사업의 내실화가 시급히 요구됨.

* 이 원고는 「유해미·박창현·박기원(2015).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내 양육지원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고 지역적 격차도 심하며, 세부 운영 기준이 미비하여 신규 기관을 중심으로 가정양육지원사업의 추진 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여기서는 맞춤형 육아지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가정양육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과 가정양육지원 사업내용

전국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과 가정양육지원 사업내용, 그리고 15개의 시·도 센터와 52개 시·군·구 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 기준 가정양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전국 설치 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 8월말 기준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69개소로 총 86개소가 설치·운영 중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9월 3일).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지역별 격차를 보여 서울 지역은 모든 자치구 지역에 설치가 완료되고 경기 지역은 75%의 설치율을 보이는 반면, 전남과 경북 지역의 설치율은 각각 4.3%와 8.3%에 불과함(표 1 참조).
- 센터 1개소당 영유아 수는 시·군·구 센터의 설치율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이 18,307명으로 가장 낮고, 대구 지역은 12만명을 초과하여 약 7배의 격차를 나타냄(표 2 참조).

〈표 1〉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5. 8)

단위: 개소, %

구분	광역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수			비율
	시·도	시·군·구	소계	시·도	시·군·구	소계	
전체	17	229	246	18	67	85	34.6
서울	1	25	26	1	25	26	100.0
부산	1	16	17	1	3	4	23.5

구분	광역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수			비율
	시·도	시·군·구	소계	시·도	시·군·구	소계	
대구	1	8	9	1	0	1	11.1
인천	1	10	11	1	5	6	54.5
광주	1	5	6	1	0	1	16.7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1	0	1	50.0
경기	1	31	32	2	22 ¹⁾	24	75.0
강원	1	18	19	1	1	2	10.5
충북	1	11	12	1	1	2	16.7
충남	1	15	16	1	1	2	12.5
전북	1	14	15	1	4	5	33.3
전남	1	22	23	1	0	1	4.3
경북	1	23	24	1	1	2	8.3
경남	1	18	19	1	3	4	21.1
제주	1	2	3	1	0	1	33.3

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5년 9월 3일).

〈표 2〉 영유아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현황(2015. 8)

단위: 명, 개소

행정구역	만0-5세 인구수 ²⁾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센터1개소 당 영유아수 ³⁾
전체	2,740,607	85 ¹⁾	850,027
서울	475,975	26	18,307
부산	161,735	4	40,434
대구	122,703	1	122,703
인천	162,969	6	27,162
광주	83,427	1	83,427
대전	86,563	1	86,563
울산	70,707	2	23,569
세종	15,991	1	15,991
경기	736,908	24	30,057
강원	71,812	2	35,906
충북	84,766	2	42,383
충남	117,584	2	58,792
전북	93,557	5	18,711

행정구역	만0-5세 인구수 ²⁾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센터1개소 당 영유아수 ³⁾
전남	94,330	1	94,330
경북	135,322	2	67,661
경남	189,636	4	47,409
제주	36,622	1	36,622
총계	2,740,607	85	850,027

주: 1) 센터 수는 부속사업장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한 수치이며, 2015. 8월말 기준임.

2) 영유아 수는 2015. 8. 31일 기준임.

3) 센터 1개소 당 영유아수=(시·도별 영유아수/시·도별 센터수).

자료: 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http://rcps.egov.go.kr>, 검색일 2015년 9월 3일).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검색일 2015년 9월 3일).

나. 가정양육지원 사업내용 및 실시 현황

1) 사업내용

□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전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외에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함(보건복지부, 2016: 387).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 사업내용은 공통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표 3>과 같음(보건복지부, 2016: 394).

<표 3>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 내용(2016)

공통사업	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 대한 상담 • 부모에 대한 교육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 •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 그 밖의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p. 394.

2) 사업별 실시 현황¹⁾

□ 2015년 기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이나, 시·도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이 평균 66.1%, 시·군·구 센터는 가정양육 지원이 평균 54.3%라고 응답함.

- 시·도 센터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비중이 40~60%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고, 시·군·구 센터는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비중이 40~60%라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음.

〈표 4〉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비중 전반(2015)

단위: %(개소)

구분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수)
	0~20	21~40	41~60	61~80	81~100	평균	0~20	21~40	41~60	61~80	81~100	평균	
전체	4.5	26.9	53.7	10.4	4.5	50.3	7.5	29.9	41.8	17.9	3.0	49.7	(67)
시·도 센터	0.0	0.0	53.3	26.7	20.0	66.1	20.0	53.3	26.7	0.0	0.0	33.9	(15)
시·군·구 센터	5.8	34.6	53.8	5.8	0.0	45.7	3.8	23.1	46.2	23.1	3.8	54.3	(52)
t	5.061***						-3.748***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상' 결과임.

*** $p < .001$

□ 시·도 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실시율이 53.3%로 가장 낮은 실시율을 보이며, 시·군·구 센터에서는 도서대여 사업의 실시율이 71.2%로 가장 낮음.

- 이외에도 가족 대상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 가정방문 부모교육, 전문상담, 돌봄 취약계층 양육지원사업 등이 실시됨.

1) 이하 사업 비중 및 추진 현황은 2015년 시·도 센터 15개소와 시·군·구 센터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5〉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 추진 현황(2015)

단위: %(개소)

구분	실시 비율		
	전체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육아 상담	97.0	100.0	96.2
아동 발달 진단 및 검사	76.1	80.0	75.0
부모 대상 교육	100.0	100.0	100.0
장난감 대여	91.0	73.3	96.2
도서 대여	71.6	73.3	71.2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제공	91.0	73.3	96.2
놀이공간(놀이실) 제공	83.6	60.0	90.4
시간제보육	80.6	53.3	88.5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85.1	80.0	86.5
부모정보지(육아관련 정보지) 발간	83.6	100.0	78.8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 제공	100.0	100.0	100.0
(수)	(67)	(15)	(52)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상' 결과임.

- 가정양육지원 사업별 비중은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장난감 대여가 4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모 대상 교육 26.9%, 체험프로그램 13.4% 순으로 응답함.
 - 1, 2순위를 합하면, 장난감 대여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모 대상 교육, 체험프로그램, 놀이공간 제공, 육아 상담 순임.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시·도 센터는 부모 대상 교육이라고 응답한 기관이 7개소(46.7%), 시·군·구 센터는 장난감 대여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기관이 26개소(50%)임.
 - 1, 2순위를 합하면, 시·도 센터에서는 육아상담, 시·군·구 센터에서는 체험프로그램과 놀이 공간 제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별 비중-1순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장난감 대여	44.8	26.7	50.0
부모 대상 교육	26.9	46.7	21.2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제공	13.4	6.7	15.4
육아 상담	6.0	13.3	3.8
놀이공간 제공	4.5	0.0	5.8
시간제보육	4.5	6.7	3.8
계(수)	100.0(67)	100.0(15)	100.0(52)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상' 결과임.

〈표 7〉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별 비중-1+2순위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시·도 센터	시·군·구 센터
장난감 대여	62.7	40.0	69.2
부모 대상 교육	38.8	53.3	34.6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제공	37.3	20.0	42.3
놀이공간 제공	17.9	20.0	17.3
육아 상담	16.4	26.7	13.5
시간제보육	11.9	13.3	11.5
아동 발달 진단 및 검사	6.0	6.7	5.8
도서 대여	3.0	0.0	3.8
부모 정보지 발간	3.0	13.3	0.0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1.5	0.0	1.9
우리동네 보육반장	1.5	6.7	0.0
(수)	(67)	(15)	(52)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상' 결과임.

3 영유아 부모의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전국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부모 815명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와 개선 요구를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최초 이용 및 동기

- 현재 이용 중인 센터를 최초로 이용한 시기를 질문한 결과, 12개월 미만이 4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2개월~24개월 미만 37.5%이며, 평균 약 15개월로 조사됨 (표 8 참조).
- 현재 이용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동기는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어서’ 50.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성장에 도움이 되어서’ 32.8%, ‘집에서 자녀를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서’ 14.1% 순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최초로 이용한 서비스를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장난감 대여가 62.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놀이실 이용 42.1%, (부모참여)놀이체험프로그램 38.8% 순으로 조사됨.

〈표 8〉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구분	12개월 미만	12~24개월 미만	24~36개월 미만	36~48개월 미만	48~60개월 미만	평균	(수)
전체	43.2	37.5	11.9	4.9	2.5	15.43	(815)
모의 취업 여부							
취업중	33.8	36.0	15.1	9.4	5.8	18.28	(139)
비취업	41.6	37.9	13.7	5.2	1.7	15.81	(483)
휴직중	53.9	37.8	5.2	1.0	2.1	12.44	(193)
X2(df)/F	37.216(8)***						
기관 이용 여부							
이용	26.1	35.7	20.1	11.3	6.7	20.70	(283)
미이용	52.3	38.5	7.5	1.5	0.2	12.63	(532)
X2(df)/t	122.514(4)***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 p < .001

〈표 9〉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초 이용 서비스(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대여	놀이실 이용 (육아 카페, 육아나눔터 등)	(부모참여) 놀이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도서 대여	부모 교육 프로그램	육아상담 (발달검사 포함)	일시 보육 (시간제 보육)	(수)
전체	62.5	42.1	38.8	20.9	13.7	5.8	4.9	(815)
자녀 연령								
만0세	79.5	36.5	27.6	17.3	7.7	2.6	5.8	(156)
만1세	67.3	39.5	38.4	17.0	10.5	3.4	7.5	(294)
만2세	56.9	47.3	44.7	25.0	16.0	6.9	3.7	(188)
만3세	51.9	53.8	40.4	27.9	20.2	7.7	0.0	(104)
만4세	36.0	36.0	48.0	20.0	22.0	16.0	4.0	(50)
만5세 이상	34.8	30.4	43.5	30.4	30.4	17.4	0.0	(23)
기관 이용 여부								
기관 이용	56.5	44.2	41.0	26.9	24.0	10.6	2.8	(283)
기관 미이용	65.6	41.0	37.6	17.7	8.3	3.2	6.0	(532)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나. 센터 이용 실태

- 현재 이용 거리에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31.3%이고 너무 멀다는 16.1%였으며, 읍면 지역의 이용자가 멀다고 응답한 비율은 21.8%로 도시 지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거리는 도보로 10분 이내와 자동차로 10분 이내가 각각 24.4%와 2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자동차로 30분 이내인 경우도 24%로 조사됨.

〈표 10〉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집과의 거리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너무 멀다	계(수)
전체	31.3	52.1	16.1	100.0(815)
대도시	30.7	55.9	13.4	100.0(397)
중소도시	32.2	48.9	18.8	100.0(329)
읍면지역	31.0	47.1	21.8	100.0(87)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 평일에는 주로 오전 9시부터 11시 또는 오후 2시부터 4시에 이용하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대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일에 오후 2시 이후부터 이용하는 비율은 기관 이용자에서 약 40%선으로 높고, 오후 6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비율은 취업모에서 1.5%로 나타남.
-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이용하기 시작하는 비율은 12.9%, 오후 4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약 6.4%로 나타남.

〈표 1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간-평일 종료 시각

단위: %, 시/분, (명)

구분	모의 취업 여부			기관 이용 여부		전체
	취업중	비취업	휴직중	이용	미이용	
이용 안함	22.3	6.2	5.7	18.0	3.9	8.8
14:00 이전	2.9	6.6	7.8	2.5	8.3	33.6
14:01~15:00	10.1	14.5	15.5	11.0	15.6	14.0
15:01~16:00	12.2	17.0	15.0	11.0	18.2	15.7
16:01~17:00	13.7	20.7	11.4	21.2	15.2	17.3
17:01~18:00	15.1	7.5	9.3	15.9	5.6	9.2
18:00 이후	5.8	0.4	1.0	1.5	1.5	1.5
평균	15:36	14:53	14:31	15:31	14:38	14:54
(수)	(139)	(483)	(193)	(283)	(532)	(815)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표 12〉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간-주말 종료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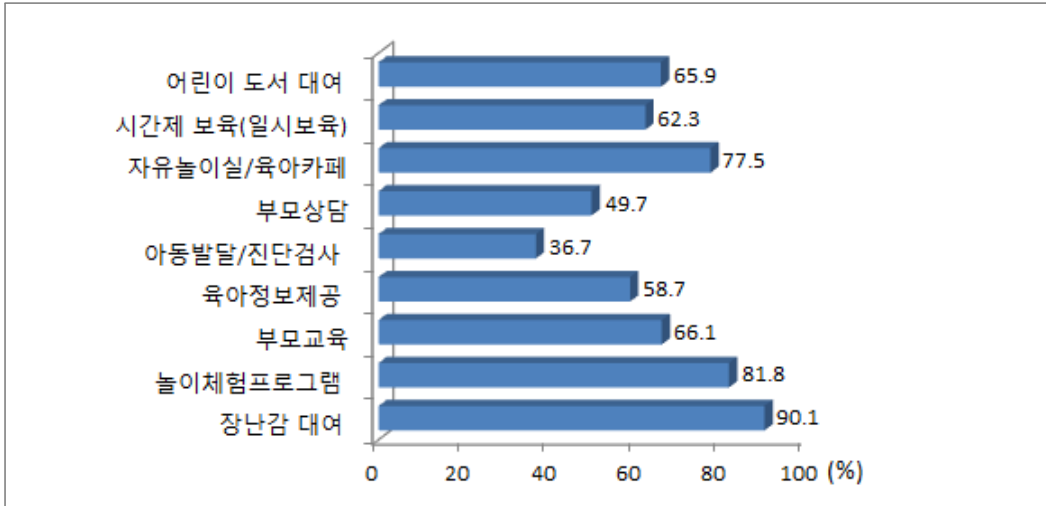
단위: %, 시/분, (명)

구분	모의 취업 여부			기관 이용 여부		전체
	취업중	비취업	휴직중	이용	미이용	
이용 안함	43.2	64.0	62.7	45.9	67.7	60.1
12:00 이전	12.2	7.9	12.4	12.4	8.3	11.3
12:01~13:00	7.9	2.7	2.1	4.9	2.6	3.4
13:01~14:00	7.2	3.9	4.7	8.1	2.8	4.7
14:01~15:00	12.9	8.3	7.8	9.9	8.5	9.0
15:01~16:00	5.0	5.8	3.6	7.1	4.1	5.2
16:00 이후	8.6	6.2	5.2	9.2	4.9	6.2
평균	14:09	14:28	13:56	14:17	14:17	14:17
(수)	(139)	(483)	(193)	(283)	(532)	(815)

다.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유형별 인지율은 장난감 대여가 9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놀이체험프로그램 81.8%, 자유놀이실/육아카페 77.5% 순이며, 아동발달 및 진단검사와 부모상담 인지율은 50.0% 이하임.

단위: %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그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인지율

〈표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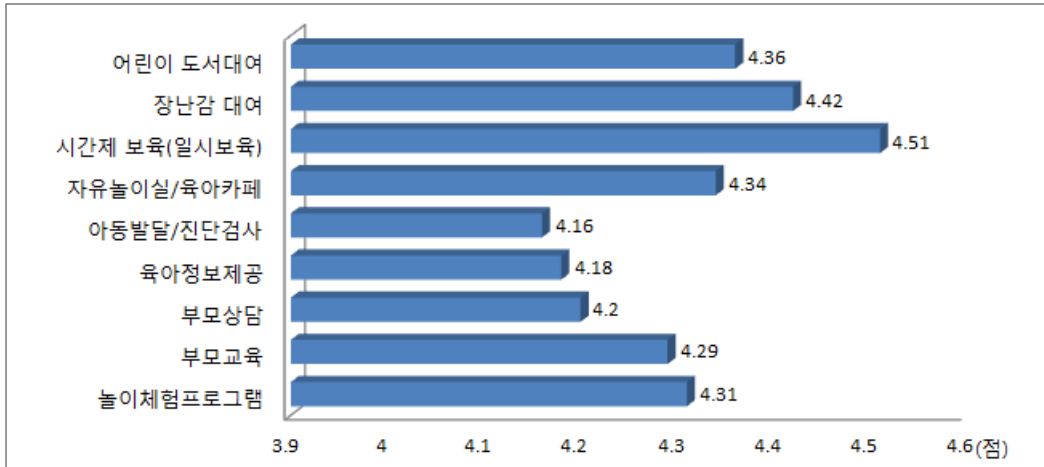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5점)
어린이 도서 대여	0.3	1.7	8.3	60.9	28.7	100.0(289)	4.16
자유놀이실/육아카페	0.4	1.7	8.0	66.4	23.5	100.0(464)	4.11
놀이체험프로그램	0.4	2.3	10.4	68.8	18.9	100.0(472)	4.03
부모교육	1.4	1.4	11.5	62.0	23.6	100.0(208)	4.05
부모상담	0.0	2.4	20.0	58.8	18.8	100.0(85)	3.94
육아정보 제공	0.6	0.0	23.6	57.3	18.5	100.0(157)	3.93
아동발달/진단검사	1.8	1.8	16.4	60.0	20.0	100.0(55)	3.95
시간제보육(일시보육)	0.0	5.2	9.1	58.4	27.3	100.0(77)	4.08
장난감 대여	0.4	3.2	9.5	59.6	27.3	100.0(527)	4.10

주: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단위: 점



주: 도움 정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그림 2]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움 정도

- 서비스 이용 이용 만족도는 자유놀이실/육아카페와 어린이 도서 대여서비스에 만족한다(만족함+매우 만족함)는 응답률이 각각 89.9%와 89.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장난감 대여 평균 4.10점, 시간제보육 4.08점, 부모교육 4.05점 순임.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도움 정도는 시간제보육이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4.5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장난감 대여 4.42점, 어린이 도서 대여 4.36점, 자유놀이실/육아카페 4.34점, 놀이체험프로그램 4.31점 순이며, 아동발달 및 진단검사와 육아정보 제공 부문은 각각 평균 4.16점과 4.18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라. 개선 요구 및 수요 전반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집과 가까운 거리내의 기관을 늘린다'가 4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가 26.4%로 조사됨.
 - 유아를 둔 경우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취업모의 경우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과 기관 운영시간의 연장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선 요구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집과 가까운 거리내에 기관을 늘린다	41.8	53.6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6.4	48.1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	9.2	31.7
부대시설을 보강한다	7.1	17.4
기관 운영 시간을 늘린다	5.9	15.3
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2.8	11.4
이용 비용을 낮춘다	2.3	7.7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2	7.1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2	5.3
계(수)	100.0(815)	(815)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 희망하는 기관 운영 시간은 평일 기준으로 시작 시각은 8시부터가 42.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고, 종료 시각은 평균 약 7시로 조사되었으며, 주말 기준으로 시작 시각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71.2%, 종료 시각은 오후 5시부터 6시 까지가 26.4%로 나타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는 자유놀이실/육아카페, 장난감 대여 서비스가 필요하다(필요함+매우 필요함)는 응답률이 각각 93.3%와 9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놀이체험프로그램이 평균 4.42점(만점 5점), 어린이 도서 대여 4.39 점, 육아정보 제공 4.23점 순임.
 - 자녀 연령별로는 영아를 둔 가구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장난감 대여, 육아정보 제공, 시간제보육, 아동발달 및 진단검사 부문에서 유아보다 높은 수요를 보임.

〈표 15〉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전반

%(명), 점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5점)
놀이체험프로그램	0.1	0.1	6.3	44.9	48.6	100.0(815)	4.42
부모교육	0.1	1.1	14.8	52.0	31.9	100.0(815)	4.14
부모상담	0.1	1.7	16.9	52.9	28.3	100.0(815)	4.08
육아정보 제공	0.1	0.9	12.6	49.3	36.9	100.0(815)	4.23
아동발달/진단 검사	0.1	1.3	13.7	50.3	34.5	100.0(815)	4.18
자유놀이실/육아카페	0.0	0.5	6.3	41.6	51.7	100.0(815)	4.44
시간제보육(일시보육)	0.5	1.6	13.5	48.0	36.4	100.0(815)	4.18
장난감 대여	0.1	0.9	6.4	36.3	56.3	100.0(815)	4.48
어린이 도서 대여	0.0	1.0	8.2	41.3	49.4	100.0(815)	4.39

주: 필요도는 '전혀 필요없음' 1점~'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표 16〉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유형별 필요도-자녀 연령별

단위: 점(명)

구분	영유아 구분		t
	영아	유아	
놀이체험프로그램	4.42	4.41	2.500
부모교육	4.16	4.10	0.914
부모상담	4.10	3.98	1.929
육아정보 제공	4.26	4.11	2.528*
아동발달/진단검사	4.22	4.02	3.363***
자유놀이실/육아카페	4.47	4.36	1.800
시간제보육(일시보육)	4.24	3.98	3.975***
장난감 대여	4.53	4.30	3.678***
어린이 도서 대여	4.41	4.33	1.312
(수)	(638)	(177)	

주: 필요도는 '전혀 필요없음' 1점~'매우 필요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 $p < .05$, *** $p < .001$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육아지원시설의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1순위 기준으로 53.1%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시설 및 건물의 안전관리, 접근성, 담당 인력의 전문성 순임(표 17 참조).

- 자녀 연령과 기관 이용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접근성은 영아에서, 아동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유아에서 보다 중시됨.
- 기관 이용 가구는 아동 연령에 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미이용 가구는 위생관리와 청결 유지를 보다 중시됨(표 18 참조).

〈표 17〉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전반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아동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53.1	71.9
놀이시설 및 건물의 안전관리	15.0	36.4
접근성(교통 편의, 집과의 거리)	11.3	26.9
담당 인력의 전문성	7.4	21.1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및 청결 유지	7.0	20.7
적절한 규모와 설비	3.9	12.5
저렴한 이용료	2.3	10.1
계(수)	100.0(815)	(815)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표 18〉 육아지원서비스 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자녀 연령/기관이용 여부별

단위: %(명)

구분	영유아 구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여부	
	영아	유아	이용	미이용
아동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51.6	58.8	58.0	50.6
놀이시설 및 건물의 안전관리	14.3	17.5	13.4	15.8
접근성(집과의 거리)	12.7	6.2	13.1	10.3
담당 인력의 전문성	6.9	9.0	5.3	8.5
위생관리 및 청결 유지	8.0	3.4	3.9	8.6
적절한 규모와 설비	4.2	2.8	3.5	4.1
저렴한 이용료	2.4	2.3	2.8	2.1
$\chi^2(df)$	13.250(6)*		12.924(6)*	
계(수)	100.0(638)	100.0(177)	100.0(283)	100.0(532)

자료: 본 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요구 조사-영유아 부모 대상' 결과임.

* $p < .05$

4 운영 방향 및 내실화 방안

가. 운영 방향

□ 기능 및 목표 명료화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대여와 부모참여 놀이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종합육아지원서비스 기능에 부합하도록 부모상담과 정보제공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장난감 대여와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 위주에서 육아정보 제공과 육아상담서비스를 보다 강화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인식하는 가정양육지원사업별 비중은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순이며, 영유아 부모들이 센터의 부모상담과 육아정보 제공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7%와 59.7%에 그치므로 육아상담과 육아정보 제공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규정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거점 기능은 단순 육아정보 제공에서부터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을 뜻함.
- 그러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 및 가구 전반을 포괄하고,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기본 방침

- 지역내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서비스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육아지원 네트워크의 충추적 기능을 담당함.
- 아동 및 부모에 대한 포괄적 지원서비스 추구
 - 장애아 등 특별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을 제공하여 육아지원 수요에 온전히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을 포괄하고, 필요시 개별 아동 및 가구의 욕구 사정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 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함.

- 중앙정부 보육사업과의 연계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보육정책과 일관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단계 부터 중앙정부 보육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주력 사업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 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취함.
 - 현재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안전교육 등을 중앙정부 보육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나, 일회성 추진이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연계를 요함.
- 센터간 역할 분화 및 전달체계 효율화
 - 시·군·구 센터의 점진적인 확충에 따른 시·도 센터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화를 위해 지역유형별 시·도와 시·군·구 센터와의 역할 분화 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 다양화와 전문화
 - 종합육아지원서비스 기관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하되, 각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는 물론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수준을 제고함.
 - 서비스 다양화는 지역별 특성 즉 지역내 정기적인 부모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며, 이때 다양한 가족유형과 아동 특성을 고려함.

나. 내실화 방안

□ 시설·설비 기준 보완

- 부모소통을 위한 공간 구비
 - 영유아 부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모들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시에 자녀를 맡길 공간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2015년 개정에 따라 보완된 휴게 공간은 부모 소통 공간(부모 카페)으로 그 기능을 명료하여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 제시함.
- 주차 공간 마련
 - 영유아 부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미비 등은 주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므로, 입지 조건은 공공기관 등 주차장을 확보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지역 및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인력 배치 기준 보완: 전문상담사 배치 의무화

- 추가 배치 인력으로는 전문상담사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으므로,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센터의 파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를 통해 2015년 규정된 상담사 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

□ 센터 운영시간 연장

- 특히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센터 이용이 용이하도록 토요일 운영을 상시화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평일 야간 운영을 월 2회 이상,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을 권고함.

□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 중인 영유아 부모들이 최초로 동 센터를 이용한 시기는 대체로 약 12개월선이나, 전업모의 경우는 12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2%에 달하므로 이용대상은 3개월아 이상으로 명시함.

□ 사업내용(공통/자체) 보완 및 조정

- 현행 규정에 명시된 공통사업에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자체사업으로 명시된 양육참여 교류 공간 제공은 공통사업으로 변경함.
- 사업 대상은 영아 위주로 운영하되, 예비부모를 포괄하고,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영아와 유아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영유아 부모 조사결과에 의하면, 센터 최초 이용 시기는 자녀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43.2%에 달하여 0세아 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영아를 둔 가구는 시간제보육, 육아카페, 놀이체험프로그램, 육아정보 제공 부문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냄.

□ 아동 연령별 프로그램 체계화

- 서비스별 부모들의 불만족 내용에 의하면, 특히 놀이체험프로그램은 인원 마감에 지적되므로, 연령별로 다양한 정원 규모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영유아 발달검사 등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전문성 수준이 낮다고 지적되므로 상담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

□ 대상별 홍보 강화

- 기관 미용자와 취업모의 센터 인지도와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부모 이외에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한 홍보 전략을 수립함.

● ● ●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사업안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 (검색일 2015년 9월 3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

<http://rcps.egov.go.kr>, (검색일 2015년 9월 3일).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

이윤진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사례
 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제언
-

요약

- 조부모 손자녀 양육의 주요 특징은 맞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영아기(평균 생후 7.8개월)부터 시작되고, 양육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며(평균 21.0개월),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손자녀 양육을 하게 된다는 점임.
-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49.8%이며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7만원임. 조부모의 절반 가량은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장기간의 손자녀 양육을 함.
- 일반적으로 영아기 양육은 어린이집보다는 가정 내 양육을 선호하고, 전문가들도 이 시기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함. 따라서 영아 양육은 가정 내 양육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손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수당지급을 하고 있음. 서초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영아(최대 생후 15개월까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24만원을 지급함.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호주에서도 교육받은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지급을 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조부모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shared parental leave to grandparents) 제도를 마련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음.
-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정책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일터로 나갈 수 있다는 점, 손자녀는 안정된 양육자와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조부모는 양육 전문가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본고는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5)의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 재정리한 것임.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필요성

가. 일-가정 양립의 실질적인 지원책

1)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가정의 특성

-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 1,000사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정이 90.2%(451사례)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

〈표 1〉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 위탁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구분	계
전체	100.0(500)		
자녀와의 관계		월평균 가구소득	
엄마	94.2(471)	399만원 이하	19.8(99)
아빠	5.8(29)	400~499만원	33.4(167)
연령		500~699만원	38.2(191)
20대	20.2(101)	700만원 이상	8.6(43)
30대 초반	37.2(186)	직업	
30대 중반	27.6(138)	생산직	32.4(162)
30대 후반	8.6(43)	사무직	61.2(306)
40대	6.4(32)	주부	5.6(28)
지역규모		학생/기타	0.8(4)
대도시	38.0(190)	학력	
중소도시	39.8(199)	고졸	15.0(75)
읍·면	22.2(111)	전문대졸	25.8(129)
가구특성		4년대졸 이상	59.2(296)
맞벌이 가정	90.2(451)		
외벌이 가정	7.2(36)		
한부모 가정	2.6(13)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66-67.

- 연령은 30대 초·중반이 약 64%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은 500~699만원이 38.2%로 가장 많았음.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4년제 대졸 학력이 절반 이상임.

- 응답자가 대부분 여성임(자녀의 어머니)을 고려할 때, 고학력, 고소득의 중산층 가정이라 볼 수 있음.
- 월 평균 가구소득은 배우자와 합산한 것으로, 고소득의 의미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함.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 이유

- 조부모에게 영유아 손자녀를 위탁하는 주된 이유는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옴(1순위 기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는 3순위임.
- 보낼만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서, 기관 이용의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대리양육자의 고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등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한 사례는 매우 적게 나옴.

〈표 2〉 조부모에게 영유아 자녀 양육 위탁 이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전체	100.0(500)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	21.8	40.4
②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서	31.6	51.6
③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32.2	65.6
④ 대리양육자의 고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3.0	11.2
⑤ 혼자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4.4	11.0
⑥ 주변에 보낼만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서	0.4	3.6
⑦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2.4	7.4
⑧ 어린이집, 유치원의 비용이 부담되어서	0.4	2.6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82.

-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위탁한 가정의 욕구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충족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임.
- 평균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생후 7.8개월이며 현재(설문조사 실시 기준) 만 2.4세로, 손자녀의 양육기간은 평균 21.0개월임.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일찍 시작되고 지속성을 띤다는 특성을 지님(이윤진·권미경·김승진, 2015).

- 생후 7.8개월의 어린 자녀를 기관에 맡기는 것이 불안하고, 이러한 불안감은 조부모도 마찬가지임.
 -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봐”(30.5%), “손자녀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30.5%),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26.6%(1+2순위에서는 가장 높게 나옴) 순으로 조부모도 응답함.
- “직장생활(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높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함.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자신의 일도 계속하고 싶은 일-가정 양립의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음.
- 맞벌이 가정에서 영아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함.

나. 영아기의 양육환경: 가정 내 양육

- 부모 대신 영아 자녀를 돌보는 제공자로 조부모가 압도적인 1순위임(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 2012: 85).
 - 영아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조부모를 응답한 비율이 높음.
 - 1세 미만 82.6%, 1~2세 미만 74.2%가 필요한 대리양육자로 조부모를 꼽음.
 - 자녀가 2~3세가 된 후 부터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더 많이 꼽음.

〈표 3〉 최연소 자녀 연령별 가장 필요한 양육 제공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2세 미만	2~3세 미만	3~4세 미만	4~5세 미만	취학전 (5세)
조부모	82.6	74.2	30.6	4.8	0.6	0.2
친인척	4.1	4.4	2.4	0.8	0.3	0.2
탁아모 등 비혈연인	1.4	1.4	1.0	0.5	0.1	-
가정어린이집	4.6	10.8	24.8	12.9	4.3	0.6
가정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1.7	5.6	38.6	70.1	37.9	9.0
유치원	-	-	0.4	9.9	56.1	89.0
(반일제) 학원	-	-	0.1	0.3	0.5	1.0
부모만 가능	5.6	3.6	2.1	0.7	0.3	0.1
계(수)	100.0 (2,525)	100.0 (2,525)	100.0 (2,526)	100.0 (2,527)	100.0 (2,527)	100.0 (2,527)

출처: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85.

- 전문가들도 어린 영아기의 애착 관계가 이후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 따라서 어린 영아기는 기관에서의 집단 양육보다는 가정에서의 개별양육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고령인력의 일자리 창출

- 조부모 대부분은 ‘비자발적’으로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하고 있음.
 - “자녀의 부탁으로 양육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6.0%임.
 - 조부모의 영유아 손자녀 양육현황을 보면, 평균 일일 7.87시간, 주당 양육일수는 5.25일, 주당 양육시간은 42.52시간임.
 - 일반 근로자의 하루 8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의 근로패턴 및 시간과 거의 유사함. 이는 사무직 종사자 부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자녀의 근무시간과 조부모의 양육시간은 연동된다는 것을 의미함.
 - 자녀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조부모는 절반이 채 안 되며(40.8%), 받는 경우 월 평균 비용은 약 57만원으로 집계됨.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혈연양육자(대부분 친·외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가 63.2%로 훨씬 많았으며 정기적 지불은 24.2%에 그침(서문희 외, 2012: 426).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월평균 양육비는 약 20만원~34만원으로 보고됨(서문희 외, 2012: 427).
 - 그러나 비혈연 양육자의 월 평균 양육비는 약 58만원으로 조부모의 양육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됨(서문희 외, 2012: 442).
- 조부모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299만원이 30.0%로 가장 많고, 300~499만원이 28.4%, 150만원 미만이 17.6% 순임.
 -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조부모 가구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가 6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자녀로부터 받는 양육비는 월 55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음.

〈표 4〉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비 현황과 월 평균 양육비

단위: %(명), 만원

구분	양육비 현황			계	정기적 받는 경우 월 평균 양육비				계	평균
	정기적 받음	비정기적 받음	받지 않음		30 만원 이하	31-50 만원	51- 100 만원	100 만원 이상		
전체	49.8	27.8	22.4	100.0(500)	22.9	37.8	35.7	3.6	100.0(249)	57.21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62.5	25.0	12.5	100.0(88)	25.5	38.2	34.5	1.8	100.0(55)	55.09
150-199만원	51.5	27.9	20.6	100.0(68)	17.1	40.0	40.0	2.9	100.0(35)	57.71
200-299만원	50.0	30.0	20.0	100.0(150)	17.3	38.7	40.0	4.0	100.0(75)	59.80
300-499만원	44.4	29.6	26.1	100.0(142)	31.7	33.3	31.7	3.2	100.0(63)	53.33
500만원이상	40.4	21.2	38.5	100.0(52)	19.0	42.9	28.6	9.5	100.0(21)	64.29
$\chi^2(d)$	17.33(8)*				0.87(4)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5-97
표 재구성.

* $p < .05$

□ 조부모의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

-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령인구가 증가함.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60.45세로(이윤진 외, 2015: 97), 일할 수 있는 연령대임.
- 그러나 영유아 손자녀 양육을 맡게 되면서-그것도 비자발적으로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주당 평균 42.52시간을 손자녀 양육을 위해 할애하지만, 자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사 받더라도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
- 자녀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맞벌이 가정의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함. 이 때, 조부모가 저소득층인 경우, 수당 지원이 필요함.

2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사례

가. 국내

1) 광주광역시의 ‘손자녀 돌보미 사업’

□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임.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음.

□ 지원대상 조부모

-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도 별도의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역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지원대상 가구

- 다자녀의 맞벌이 가정 또는 조손가정
 - 전자의 조건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중 전국가구 100% 이하 가정
 - 후자의 조건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가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 우선 순위는 ① 소득수준이 낮은 맞벌이 가정 또는 조손가정, ② 만 8세 이하 손자녀 친형제를 두 명 이상 돌보는 조부모, ③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④ 초등학교 1학년생을 돌보는 조부모 순임.
- 아이돌보미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모니터링 실시 후 사실과 다를 경우는 지원을 중단함.

□ 지원대상 조부모 교육: 손자녀돌보미 양성교육

- 조부모의 양성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손자녀돌보미로 등록 후 활동할 수 있음. 양성교육은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담당함.
 - 양성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이며 출석율 70%이상의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함. 양성교육에 참가하는 조부모에게 교통비와 식비로 2만원을 지급함.
 - 양성교육 외의 간담회나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표 5〉 광주광역시 손자녀돌보미 양성교육과정(2014년)

차수	첫째 날		차수	둘째 날	
	시간	내용		시간	내용
1	09:35~10:15	동화를 활용한 세로토닌 교육	1	09:35~10:15	영유아기 뇌발달의 조부모 역할
2	10:15~10:55		2	10:15~10:55	
3	11:05~11:45	영유아의 영양 관리의 이론과 실제	3	11:05~11:45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절 교육
4	11:45~12:25		4	11:45~12:25	
점심	12:25~13:10	여성단체회관 4층			
5	13:10~13:50	변화하는 시대에 지혜로운 조부모 되기	5	13:10~13:50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기
6	13:50~14:30		6	13:50~14:30	
7	14:40~15:20	손자녀와 조부모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	7	14:40~15:20	오감톡톡 책 이야기
8	15:20~16:00		8	15:20~16:00	
9	16:00~16:10	수료식	9	16:00~16:10	수료식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4.

□ 지원금액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않는 영유아를 종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25만원,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를 돌보는 경우는 월 10만원을 지원함.

2) 서초구의 ‘손자녀 돌보미 사업’

□ 지원배경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게 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고, 중장년 여성에게는 돌보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서초구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함. 2015년의 사업 예산은 약 17억원임.

□ 법적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 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함.

□ 지원대상

-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최근 1년 사이에 연속거주)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막내가 15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조모 또는 외조모가 지원할 수 있음. 조모의 나이제한은 없음.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는 ① 신규신청가정 ② 맞벌이가정 ③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가정 ④ 기존지원가정 순임.

□ 지원대상 조부모 교육: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 손주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활동할 수 있음.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총 25시간으로 편성·운영됨(표 6 참조).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담당함.

〈표 6〉 서초구 손주돌보미 양성교육과정(2015년)

구분	시간	내용	강사	준비물
4/20	09:30-10:30	센터소개, 사업소개, 교육과정 안내	이00	
	10:30-12:30	황혼 육아 스트레스 관리법 (심리치유, 황혼건강운동, 레크리에이션)	하00	
	12:30-13:30	점심시간		
	13:30-15:30	영유아 이유식, 식습관 지도	김00	
4/21	13:30-16:30	영유아 돌봄의 실제		
	16:30-17:30	활동일지 작성 및 서비스 신청안내		
4/22	13:30-17:30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지도	김00	
4/23	09:00-12:00	베이비마사지	조00	색종이 (빨,노,파) 수건
	12:00-13:00	점심시간		
	13:00-16:00	영유아 동화 구연 & 손유희	김00	
	16:00-18:00	영유아 응급처치 지도	전00	
4/24	09:30-12:30	영재 종이접기 실습	이00	가위
	12:30-13:30	수료식	이00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43~44.

□ 지원금액

-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25시간을 수료한 조모에 한해 시간당 6,000원, 최대 월 240,000원(40시간 활동)을 지원함.

□ 손주돌보미 양성 현황

- 2011년 기준 손주돌보미 지원자수는 25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376명, 2014년 42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 사업의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2014년 기준, 손주돌보미 양성과정을 이수한 조모는 총 926명임(표 7 참조).
- 손주돌보미 교육에 지원한 조부모가 모두 손주돌보미로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2014년 기준으로 지원자의 약 63%가 손주돌보미로 활동함.

〈표 7〉 서초구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 양성자 수(2010~2014)

단위: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41	165 (손주 25)	169 (손주 98)	423 (손주 376)	427 (손주 427)	1,325 (손주 926)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49.

나. 국외

1) 호주

- 호주 정부는 조부모가 TAFE¹⁾의 영유아 교육 코스 3단계 이상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손자녀의 주양육자로 활동하면 양육수당(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을 지급하고 있음.
 - 양육수당은 손자녀 1명 기준으로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지원함.
 - 자격조건은 손자녀와 직접 혈연관계인 조부모뿐 아니라 간접 관계인 조부모(조부모 가정 이 재혼가정인 경우도 대상이 됨. 단,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양육자이어야 함.
 - 조부모가 노령연금, 의료보험금 등의 16개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음. 다시 말해서, 16개의 정부 지원금 중 하나도 받고 있지 않다면 양육수당 전액은 받지는 못함.
 - ‘조부모 어드바이저’(Grandparent advisers)를 배치하여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1)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의 약자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과정을 의미함.
글로벌메이트 홈페이지(<http://www.goglobalmate.com/#!tafe-/cxpl>, 검색일: 2015년 10월 24일)

2) 유럽

- 유럽에서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또,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경제적 부담으로 일을 계속하는 조부모가 증가하고 있음.
 - 조부모도 손자녀의 육아와 일을 양립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함.
- 유럽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중앙일보, 2016. 4. 22).
 - 조부모의 직접적인 양육수당 정책은 아니지만, 자녀(부모)의 유급 육아휴직을 조부모가 대신 사용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수당 지원이라 볼 수 있음.
 - 독일은 급하게 손주를 돌봐야 할 사유가 생기면 조부모에게 최대 10일간 유급휴가를 줌.
 -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중 손자녀가 있는 조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음(스페인, 호주의 민간 은행)
- 영국은 자녀(부모)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임.
 - 영국은 한국처럼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눠 쓸 수 있음.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육아휴직 기간은 52주임.
 - 이 제도를 조부모까지 확대해 3대를 잇는 가족 공동 육아휴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단축하거나 일을 계속해야 할 때 조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진 육아휴직 기간을 활용해 휴직할 수 있음.
 - 이 때, 조부모에게 주당 139.58파운드(약 23만8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됨.

3) 일본

- 일본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수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아베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3세대 동거(조부모, 부모, 손자녀) 가정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함.
- 2015년 10월 7일, 아베 정부는 제3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1억총활약」이란 새로운 핵심정책을 내놓음.²⁾

2) 일본의 「1억총활약」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일본의 1억총활약이란 무엇인가-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2016. 3. 21)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 1억총활약은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한다는 의미로써, 정부가 청년, 노령자, 여성, 남성, 장애인, 난치병자, 실패경험자 모두를 포용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임.
 - 1억총활약 정책은 경제정책,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으로 구분됨.
- 1억총활약 정책을 보면,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은 맞물려 있음.
 - 희망 합계출산율 1.8 및 고령자 돌봄에 의한 실업 제로라는 목표 설정
 -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육아 및 고령자 돌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 출산장려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개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이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 구축’을 제시함.
 - 3세대 동거 및 근거(近居) 촉진
 - 3세대(조부모, 부모, 자녀)의 동거 또는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세대 동거를 위한 주택 건설, UR³⁾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함.

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 제안

가.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손주돌보미 사업 추가

- 영아는 기관보다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고 부모들도 이를 희망하지만, 민간이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마음놓고 사용하기란 많음.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1년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직장으로 복귀할 시기에 자녀는 기관을 보내기에는 아직 어린 영아임.

3)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Urban Renaissance Agency, UR)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사한 기구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가 아이돌보미와 손주돌보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돌보미(36.3%)보다 손주돌보미(63.7%)를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대상(안)
 - 부부 모두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맞벌이 가정 중 영아(만 2세)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신체 건강한 조부모로, 나이 제한은 없음(아이돌보미와 동일).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이지만, 손주돌보미는 영아(만 2세) 손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으로 제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조부모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조부모는 이에 준하는 양성과정을 별도 마련 가능
- 지원 우선순위(안)
 - 다음의 지원 우선순위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책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①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②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③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은 가정 ④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생후 12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 ⑤조부모가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순임 (표 8 참조).
 - 앞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영아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가 지원대상 1순위임.

〈표 8〉 조부모 대상 손자녀 양육수당 지급 시 1순위 지원 대상 가정

단위: %(명)

중점 사항	계
전체	100.0(1,000)
가구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	59.4
조부모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	13.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 수가 많은 가정	10.0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생후 12개월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	9.5
조부모가 돌보는 손자녀가 어린 가정	8.1

출처: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6.

□ 지원 비용(안)

-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동일하게 이수한 조부모는 아이돌보미와 동일한 조건과 비용을 제공한다.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종합형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맞춤형으로 이용하는 경우(종일제 이용이 아닌 경우), 아이돌보미의 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조건과 비용을 적용함.
-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중복지원).

□ 손주돌보미 사업을 아이돌보미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되 혈연관계인 조부모 수당 지원에 대해 재정 누수, 도덕적 해이 등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정함.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음.

<표 9> 손주돌보미 사업(안)

목적		1. 일-가정 양립 2. 노령인구의 일자리 제공 3.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대상		영아(~만 2세까지)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신체 건강한 조부모 *나이 제한 없음		
지원 가구		1. 부모 모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맞벌이 가정 2.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아이돌보미 양성과정(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조부모 *여건에 따라 양성과정은 조정 가능하나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제외 대상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종류	종일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은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시간제	일반형돌봄 서비스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맞춤형(일일 7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6,500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종합형돌봄 서비스		영아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시간제(월 40~80시간)로 이용하는 경우 - 시간당 7,800원, 돌봄 + 가사서비스 제공

주: 비용은 2016년도 아이돌보미 단가임.

나. 부모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대신 사용

-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 사료됨.
 - 부모는 계속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조부모가 사용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지급해야 하는 육아휴직 비용, 인정 기간, 직장에서의 월급 등이 풀어야 할 과제임.

다. 일하는 조부모의 (손자녀) 육아·일 양립 정책 수립 필요

-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일하는 조부모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임.
 - 일하는 조부모가 갑자기 손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사용할 수 있는 ‘조부모 손자녀 육아휴직제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함.
 - 그러나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위탁하기 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함.

라. 3세대 동거 가정 지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부모, 부모, 손자녀 3세대 동거 가족 또는 근거(近居)가족을 위해 주택 지원이나 조부모 손자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제안함.
- 조부모, 부모, 손자녀 3세대 동거가족 또는 근거(近居)가족은 영유아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배려심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야 함.
 - 조부모의 양육경험이 있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노인을 우호적으로 대하며(조윤주, 2009) 조부모와 부모 관계가 좋으면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도 높고 손자녀의 정서와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한정란·김귀자, 2003).

마. 결론

- 일하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으로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음. 육아는 온 마을이 필요로 하는 소위, ‘손이 많이 가는’ ‘품이 많이 드는’ 특성을 지닌 사회적 과제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확충 노력과 더불어 가정에서 개별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다각적인 육아정책이 필요함.
-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 정책도 이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노령인구에게 일자리 제공이란 측면에서 정책 도입을 제안함.

● ● ● 참고문헌

-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2016. 3. 21). “일본의 1억총활약이란 무엇인가-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권미경·김승진(2013).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조운주(2009).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11.
- 중앙일보(2016. 3. 23). 영국, 조부모도 육아휴직 추진.
- 중앙일보(2016. 4. 22). 황혼 육아 늘면서...유럽은 조부모도 육아휴직.
- 한정란·김귀자(2003). 부모의 노인 및 조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조부모에 대한 친밀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vol. 19, 봄호, 61-82.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 방안

도남희

1. 서론
 2.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 인식
 4.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요구사항
-

요약

-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작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생산 현장에 있는 부모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힘입어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증가세에 있지만, 그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 이용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15.7%만이 설립 전 근로자 대상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46.6%는 수요조사 대로 원아모집이 되지 않고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며 설치 장소는 산업단지 외부 주거지역이 82.0%이고 산업단지 입구 근처 9.8%, 산업단지 내부 사업체 근처 3.5%임.
-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어려움으로 원아모집이 지적됨. 그 이유는 산업단지 내부에 위치함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수요부족,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공급 과잉, 설치 전 수요조사와 실수요와의 괴리 등임.
- 산업단지 근로자, 사업체의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알리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12년 이후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나,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보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은 산업단지를 형성하여 밀집되어 있는데, 이들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보건복지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가 합동으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책이 본격화됨.

* 본 내용은 도남희, 강은진, 최지은(2015)의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한 것임.

- 어린이집 설치 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자 함.
 - QWL밸리 조성사업, 경기도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사업, 고용노동부 산업단지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미니복합타운사업, 경제계 보육지원사업(보듬이나눔이 건립사업) 등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이 증가함.
-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증가세에 있지만, 이를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
- 초기 정부 주도아래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설치비와 지원비 등이 확대되었으나 협업과정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음.
 - 이러한 적극적인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위치 선정, 운영과 보육수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작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생산 현장에 있는 부모들에게 보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와 이용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근로자들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지만 근접성도 중요한 요인임.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 요구와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¹⁾ 조사 개요

- 전국의 1,074개(2014년 4분기 기준) 산업단지 중에서 50곳의 산업단지를 추출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자료수집이 완료된 유효표본은 산업단지 근로자 1,000사례, 어린이집 원장 250사례임.
- 각 산업단지 별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근로자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조사에 응답한 근로자 자녀가 이용하는 인근 어린이집 원장을 산업단지별로 5명씩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1)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제한하고 있으나(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1),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으로 확대함.

〈표 1〉 산업단지 유형, 지역별 표집 구성

단위: 명(%)

구분	표본추출대상					표본 배분				
	국가산 업단지	일반산 업단지	농공 단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계	국가산 업단지	일반산 업단지	농공 단지	도시첨 단산업 단지	계
수도·강원권	6	38	7	1	52	2	7	3	1	13
충청권	3	18	8	0	29	2	4	3	0	9
호남·제주권	8	13	5	0	26	3	4	3	0	10
경북권	3	18	1	0	22	2	5	1	0	8
경남권	6	20	4	0	30	3	5	2	0	10
계	26	107	25	1	159	12	25	12	1	50

주: 산업단지공단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함.

자료: 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4분기.

□ 구체적인 산업단지 표본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인 전체 산업단지 1,074개 중에서 미개발 상태이거나 가동업체가 없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756개 단지를 선별한 후 근로자가 500명이상 고용되어 있는 산업단지 159개를 1차 선별하였음.
- 159개의 표본추출대장은 서울·수도·강원권이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 산업단지 유형과 권역(서울·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경북권, 경남권)별 표본배분은 제곱근 배분을 사용하여 2차로 50개 산업단지를 추출하였음.
-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근로자의 표집을 선정 후 인근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를 찾아 표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2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인지 여부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주변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이 설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근로자는 13.9%에 불과하고, 설치 여부를 모르는 근로자가 더 많았음.

〈표 2〉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 인지 여부

단위: %(응답 수)

구분	설치 됨	설치되지 않음	모름	계	$\chi^2(df)$
전체	13.9	61.4	24.7	100.0 (1,000)	
지역					
수도·강원권	22.3	75.2	2.5	100.0 (327)	386.72(8)***
충청권	7.5	90.7	1.8	100.0 (182)	
호남·제주권	16.6	42.1	41.3	100.0 (164)	
경북권	4.5	21.0	74.5	100.0 (138)	
경남권	10.0	55.7	34.3	100.0 (189)	
산업단지 유형					
국가	17.9	46.6	35.5	100.0 (164)	34.81(6)***
일반	13.4	61.4	25.2	100.0 (673)	
농공	12.1	77.3	10.6	100.0 (157)	
도시첨단	12.5	54.2	33.3	100.0 (6)	

*** $p < .001$.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위치에 대해 확인한 결과,
 - 설치된 산업단지 어린이집은 사업체 근처(31.5%)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산업단지 입구 근처, 외부 주거지역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위치는 지역과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산업단지 내부와 입구는 수도·강원권에서, 주거지역은 경상권에서 설치된 경우가 많았음.

〈표 3〉 (설치된 경우)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위치

단위: %(응답 수)

구분	산업단지 내 사업체 근처	산업단지 입구 근처	산업단지 외부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공원, 유희시설	산업단지 내 상업지구	계	$\chi^2(df)$
전체	31.5	24.8	17.5	13.8	12.5	100.0 (139)	
지역							
수도·강원권	36.8	34.6	6.5	14.0	8.1	100.0 (73)	
충청권	6.1	0.0	10.3	53.1	30.5	100.0 (14)	
호남·제주권	44.9	22.6	18.8	0.0	13.7	100.0 (27)	79.68(16)***
경북권	12.6	18.1	7.5	25.6	36.2	100.0 (6)	
경남권	16.7	10.0	66.7	0.0	6.7	100.0 (19)	
산업단지 유형							
국가	24.2	42.0	22.1	1.6	10.1	100.0 (29)	
일반	35.4	21.4	18.5	14.2	10.5	100.0 (90)	24.81(12)*
농공	25.3	15.4	6.6	30.8	22.0	100.0 (19)	
도시첨단	0.0	0.0	0.0	0.0	100.0	100.0 (1)	

* $p < .05$, *** $p < .001$.

〈표 4〉 (설치된 경우)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단위: %(응답 수)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단독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름	계	$\chi^2(df)$
전체	38.6	26.9	11.2	8.4	14.8	100.0 (139)	
지역							
수도·강원권	43.2	32.2	4.6	8.3	11.7	100.0 (73)	
충청권	40.8	6.1	10.3	36.6	6.1	100.0 (14)	
호남·제주권	30.1	38.7	7.5	0.0	23.6	100.0 (27)	61.62(16)***
경북권	43.7	0.0	0.0	0.0	56.3	100.0 (6)	
경남권	30.0	13.3	46.7	3.3	6.7	100.0 (19)	
산업단지 유형							
국가	29.6	36.3	11.8	3.2	19.0	100.0 (29)	
일반	37.8	28.9	12.2	5.7	15.4	100.0 (90)	29.97(12)**
농공	56.6	4.4	3.3	29.7	6.0	100.0 (19)	
도시첨단	33.3	0.0	66.7	0.0	0.0	100.0 (1)	

** $p < .01$, *** $p < .001$.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을 확인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독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설립유형은 지역과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 이용과 필요성

- 설치된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이용 유무와 만족도
 - 산업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 확인한 결과, 이용하는 경우 33.7%,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은 66.3%였으며 성별과 지역 및 월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표 5〉 (설치된 경우) 산업단지 어린이집 이용 유무

단위: %(응답 수)

구분	이용함	이용 안 함	계	$\chi^2(df)$
전체	33.7	66.3	100.0 (139)	
성별				
남	18.7	81.3	100.0 (44)	6.43(1)*
여	40.6	59.4	100.0 (95)	
지역				
수도·강원권	43.4	56.6	100.0 (73)	13.44(4)**
충청권	46.9	53.1	100.0 (14)	
호남·제주권	11.3	88.7	100.0 (27)	
경북권	0.0	100.0	100.0 (6)	
경남권	30.0	70.0	100.0 (19)	
월소득				
300미만	3.6	96.4	100.0 (18)	18.67(3)***
300~400	35.0	65.0	100.0 (42)	
400~500	22.2	77.8	100.0 (40)	
500이상	57.1	42.9	100.0 (40)	

* $p < .05$, ** $p < .01$, *** $p < .001$.

-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1.6%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과 월소득에 의한 차이가 있었음. 특히, 호남·제주권과 수도·강원권의 만족도가 높았고, 월소득 300~500 만원정도의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표 6〉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산업단지 어린이집 만족도

단위: %(응답 수), 점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chi^2(df)$	평균
전체	2.7	5.7	76.3	15.3	100.0 (47)		3.0
지역							
수도·강원권	0.0	0.0	89.2	10.8	100.0 (32)	17.03(3)**	3.1
충청권	0.0	22.0	39.0	39.0	100.0 (6)		3.2
호남·제주권	0.0	0.0	100.0	0.0	100.0 (3)		3.0
경북권	0.0	0.0	0.0	0.0	100.0 (0)		0.0
경남권	22.2	22.2	33.3	22.2	100.0 (6)		2.6
월소득							
300미만	0.0	0.0	100.0	0.0	100.0 (1)	9.60(3)*	3.0
300~400	8.5	18.1	73.3	0.0	100.0 (15)		2.7
400~500	0.0	0.0	66.7	33.3	100.0 (9)		3.3
500이상	0.0	0.0	81.2	18.8	100.0 (23)		3.2

* $p < .05$, ** $p < .01$.

주: 1)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대체로 만족, 4=매우 만족.

2) '불만족(매우불만족+약간불만족)'과 '만족(대체로만족+매우만족)'변수를 사용하여 유의도 검증함

〈표 9〉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내지 않는 이유

단위: %(응답 수)

구분	집 근처 어린이집 선호	유해환경 우려	등하원 부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계	$\chi^2(df)$
전체	50.3	26.3	19.4	4.0	100.0 (92)	
지역						
수도·강원권	63.5	17.0	19.5	0.0	100.0 (41)	28.64(12)**
충청권	23.0	54.0	11.5	11.5	100.0 (7)	
호남·제주권	41.7	25.5	32.9	0.0	100.0 (24)	
경북권	43.7	23.1	7.5	25.6	100.0 (6)	
경남권	42.9	42.9	4.8	9.5	100.0 (13)	

** $p < .01$.

□ 설치된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보내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집근처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경우 50.3%로 많았고, 그 다음은 유해환경을 우려하는 경우, 등하원 부담 등이 이유였음.

-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도권·강원권에서의 접근처 어린이집 선호가 매우 높았고, 충청권에서 유해환경 우려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필요성

- 일반 어린이집 외에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집이 필요한가를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 55%, ‘필요하지 않다’ 44%로 의견이 양분됨.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성별, 지역과 산업단지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는 여성, 충청권과 경남권, 농공단지에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산업단지 어린이집 필요성 인지

단위: %(응답 수)

구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계	$\chi^2(df)$
전체	44.9	55.1	100.0 (1,000)	
성별				
남	51.3	48.7	100.0 (297)	6.73(1)**
여	42.2	57.8	100.0 (703)	
지역				
수도·강원권	46.1	53.9	100.0 (327)	101.56(4)***
충청권	19.3	80.7	100.0 (182)	
호남·제주권	57.6	42.4	100.0 (164)	
경북권	70.8	29.2	100.0 (138)	
경남권	37.7	62.3	100.0 (189)	
산업단지 유형				
국가	43.2	56.8	100.0 (164)	11.76(3)**
일반	47.9	52.1	100.0 (673)	
농공	33.3	66.7	100.0 (157)	
도시첨단	58.3	41.7	100.0 (6)	

** $p < .01$, *** $p < .001$.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따른 이유

-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유를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 근로시간에 맞춘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많았음.

-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근로자 성별, 지역 및 월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과 충청권 및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시간 대에 맞는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필요한 이유

단위: %(응답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df)$
전체	51.6	17.8	14.0	8.6	7.8	0.2	100.0 (551)	
성별								
남	37.1	18.8	16.0	15.1	12.1	0.9	100.0 (145)	26.90(5)***
여	56.8	17.5	13.3	6.2	6.2	0.0	100.0 (406)	
지역								
수도·강원권	38.3	22.0	17.5	6.9	15.2	0.0	100.0 (176)	76.14(20)**
충청권	73.5	7.0	7.1	11.3	1.1	0.0	100.0 (147)	
호남·제주권	53.0	23.5	11.2	4.2	8.1	0.0	100.0 (69)	
경북권	53.0	20.7	10.4	13.2	2.8	0.0	100.0 (40)	
경남권	42.8	20.9	20.3	8.6	6.4	1.1	100.0 (118)	
월소득								
300미만	53.8	21.1	14.5	4.1	6.5	0.0	100.0 (70)	37.73(15)**
300~400	51.6	21.4	13.0	7.0	6.4	0.5	100.0 (235)	
400~500	53.2	12.2	14.7	15.0	5.0	0.0	100.0 (173)	
500이상	45.8	16.5	15.1	2.7	20.0	0.0	100.0 (74)	

** $p < .01$, *** $p < .001$.

주: ① 산업단지 근로시간대에 맞춘 어린이집 필요 ②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음 ③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육아지원 필요 ④ 각 산업단지의 특성, 요구를 반영한 어린이집 필요 ⑤ 입주기업 고용 촉진에 도움 ⑥ 기타(집근처 어린이집 부족)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유를 확인한 결과, 불필요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산업단지 내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집근처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 다음 순이었음.
- 이러한 불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지역과 산업단지 유형 및 월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호남제주권과 국가산업단지 및 300~4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산업단지 내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산업단지 어린이집이 불필요한 이유

단위: %(응답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	$\chi^2(df)$
전체	36.1	22.3	18.7	9.4	5.4	4.8	3.4	100.0 (449)	
지역									
수도·강원권	23.3	23.7	26.8	10.7	5.0	6.0	4.4	100.0 (151)	
충청권	25.4	12.8	14.4	32.9	0.0	12.1	2.4	100.0 (35)	
호남·제주권	55.0	23.7	9.4	8.0	3.1	0.0	0.9	100.0 (94)	99.61 (24)***
경북권	45.2	12.2	21.2	2.0	10.7	7.7	1.2	100.0 (98)	
경남권	31.0	36.3	12.4	7.1	4.4	0.9	8.0	100.0 (71)	
산업단지 유형									
국가	41.2	23.9	23.1	1.9	3.9	2.7	3.4	100.0 (71)	
일반	38.2	19.8	18.6	10.1	5.5	4.7	3.1	100.0 (322)	31.76 (18)*
농공	18.4	35.6	13.2	15.4	6.6	6.8	4.0	100.0 (52)	
도시첨단	7.1	21.4	14.3	7.1	7.1	28.6	14.3	100.0 (4)	
월소득									
300미만	32.6	32.5	6.9	11.1	2.2	9.2	5.5	100.0 (61)	
300~400	40.0	17.6	19.2	7.6	7.4	5.5	2.7	100.0 (207)	37.74 (18)**
400~500	37.2	22.9	22.1	7.1	5.9	3.1	1.8	100.0 (124)	
500이상	23.3	27.4	22.0	19.0	0.0	1.3	6.9	100.0 (57)	

* $p < .05$, ** $p < .01$, *** $p < .001$.

주: ① 산업단지 내 유해 환경 ② 접근처 어린이집 선호 ③ 안전사고 위험 ④ 어린 자녀 키우는 근로자 적음 ⑤ 주변 체험시설 부족 ⑥ 맞벌이 근로자 적음 ⑦ 부모의 등·하원 부담감

3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 인식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일반 특성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운영 특성

-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평균 약 80%임.
- 부모 모두가 산업단지 근로자인 영유아는 재원아는 평균 7.9명, 아버지만 산업단지 근로자의 재원아는 8.9명, 어머니만 산업단지 근로자인 재원아는 5.6명임.
- 어린이집의 위치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부모 직장과는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거지와도 약간의 거리가 있었음.

〈표 11〉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단위: %(응답 수)

구분	영아					유아				
	80% 미만	80~90%	90% 이상	계	평균	80% 미만	80~90%	90% 이상	계	평균
전체	16.8	16.3	66.9	100.0 (237)	92.3	29.0	18.4	52.6	100.0 (145)	85.3
지역										
수도·강원권	26.0	8.1	66.0	100.0 (76)	90.3	31.7	18.9	49.4	100.0 (45)	85.5
충청권	9.8	12.6	77.6	100.0 (43)	95.6	13.1	20.3	66.6	100.0 (34)	90.2
호남·제주권	18.7	35.2	46.1	100.0 (40)	91.2	42.3	33.2	24.5	100.0 (25)	77.9
경북권	14.0	9.4	76.6	100.0 (32)	93.8	29.3	4.6	66.1	100.0 (24)	87.5
경남권	8.3	22.2	69.4	100.0 (45)	92.3	34.6	11.5	53.8	100.0 (16)	82.8
$\chi^2(df)/F$			26.37** (8)		0.51			15.90(8)*		0.90

* $p < .05$, ** $p < .01$.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장소

- 어린이집 설치 장소는 산업단지 외부 주거지역이 82.0%이고 산업단지 입구 근처 9.8%, 산업단지 내부 사업체 근처 3.5%임.
- 어린이집의 15.7%만이 설립 전 근로자 대상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에서 46.6%는 수요조사 대로 원아모집이 되지 않고 정원이 미달됨.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과정에서 어려움

- 운영의 어려움을 어린이집의 설치, 준비, 운영 단계별로 질문한 결과 운영단계가 어렵다는 응답이 75.5%로 나타나 준비나 설치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운영단계에 있어 지속적인 운영비 마련이나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이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준비단계에서는 경북권이, 설치단계에서는 수도·강원권이, 운영단계에서는 경남권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어린이집 준비, 설치, 운영 중 가장 어려운 단계

단위: %(응답 수)

구분	준비단계	설치단계	운영단계	계	$\chi^2(df)$
전체	14.7	9.8	75.5	100.0 (250)	
지역					
수도·강원권	15.1	20.2	64.7	100.0 (82)	
충청권	17.1	10.1	72.8	100.0 (46)	
호남·제주권	14.9	4.1	81.0	100.0 (41)	20.54(8)**
경북권	19.6	4.6	75.7	100.0 (35)	
경남권	8.0	0.0	92.0	100.0 (47)	

** $p < .01$.

주: 준비단계- 설립 결정, 부지 마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설치단계- 설치비 마련, 설치 과정 인력 확보 등
운영단계- 인건비 등 운영비 마련, 사후관리 등

□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

-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약 27%가 원아모집과 운영비 등 재정보호를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의 채용이었음.
- 호남·제주권에서는 원아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은 운영비 등의 재정보호가, 수도·강원권의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였음.

〈표 13〉 어린이집 운영 시 어려움(1순위)

단위: %(응답 수)

구분	원아 모집	재정 확보	보육 교직원 채용	시설, 환경 관리	행정 처리	보육 과정 운영	부모와의 관계	사업장과의 관계	계	$\chi^2(df)$
전체	27.3	27.0	25.8	6.1	5.4	2.9	2.8	2.6	100.0 (250)	
지역										
수도·강원권	25.7	13.7	29.7	14.6	4.1	2.1	2.1	8.0	100.0 (82)	
충청권	17.7	35.9	32.4	0.0	2.9	4.9	6.2	0.0	100.0 (46)	
호남·제주권	46.5	28.9	11.6	2.1	8.4	2.5	0.0	0.0	100.0 (41)	63.14 (28)***
경북권	18.5	32.5	23.8	3.3	12.1	6.5	3.2	0.0	100.0 (35)	
경남권	29.3	36.0	26.7	2.7	2.7	0.0	2.7	0.0	100.0 (47)	

* $p < .05$, *** $p < .001$.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강점과 약점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장점으로서는 산업단지 근로시간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육아지원의 필요와 산업단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음.
- 이러한 결과는 설립유형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직장어린이집은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충청권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근로시간에 맞춘 운영을 장점으로 보았음.

〈표 14〉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강점

단위: %(응답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df)$
전체	41.5	27.6	12.3	12.1	6.2	0.3	100.0 (250)	
설립유형								
국공립	41.3	41.9	3.6	9.1	4.1	0.0	100.0 (35)	31.90 (20)*
법인단체	41.4	32.2	18.3	8.1	0.0	0.0	100.0 (33)	
민간	39.2	25.3	13.3	14.9	6.8	0.5	100.0 (126)	
가정·부모	56.0	13.4	10.7	11.5	8.5	0.0	100.0 (46)	
직장	4.6	57.4	17.5	4.6	15.8	0.0	100.0 (10)	
지역								
수도·강원권	35.4	37.0	8.0	11.3	8.3	0.0	100.0 (82)	36.41 (20)*
충청권	56.6	19.5	9.9	7.0	7.0	0.0	100.0 (46)	
호남·제주권	35.4	37.0	10.9	15.4	1.3	0.0	100.0 (41)	
경북권	25.1	28.4	14.9	17.2	14.5	0.0	100.0 (35)	
경남권	54.7	10.7	21.3	12.0	0.0	1.3	100.0 (47)	

* $p < .05$.

주: ① 산업단지 근로시간대에 맞춘 운영 가능 ② 자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음

③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육아지원 필요 ④ 각 산업단지의 특성, 요구를 반영한 어린이집 필요 ⑤ 입주기업 고용 촉진에 도움 ⑥ 없음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약점으로서는 산업단지 내 유해환경을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적다는 점, 집 근처 어린이집 선호를 그 다음 약점으로 지적하였음.
- 이러한 약점은 설립유형, 지역과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국공립어린이집, 호남제주권, 단지 외부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로 산업단지 내 유해환경을 주요 약점으로 지적함.

〈표 15〉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약점

단위: %(개소)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	$\chi^2(df)$
전체	44.2	16.8	12.8	8.0	7.4	6.9	2.3	0.6	0.4	0.7	100.0 (250)	
설립유형												
국공립	52.5	7.0	4.2	4.9	20.6	4.9	1.8	4.1	0.0	0.0	100.0 (35)	
법인단체	40.1	18.1	27.3	10.7	0.0	2.2	1.6	0.0	0.0	0.0	100.0 (33)	
민간	44.2	19.3	12.5	10.4	5.8	5.1	2.7	0.0	0.0	0.0	100.0 (126)	98.37 (36)***
가정·부모	46.6	14.7	10.6	3.4	5.3	17.4	0.0	0.0	2.0	0.0	100.0 (46)	
직장	17.5	25.1	9.3	0.0	15.5	4.6	11.1	0.0	0.0	16.8	100.0 (10)	
지역												
수도·강원권	36.2	17.4	4.4	9.9	14.9	11.9	2.1	0.0	1.2	2.1	100.0 (82)	
충청권	42.1	18.5	11.4	15.9	9.1	0.0	0.0	3.1	0.0	0.0	100.0 (46)	
호남·제주권	58.4	12.0	23.8	4.6	0.0	0.0	1.3	0.0	0.0	0.0	100.0 (41)	64.30 (36)**
경북권	31.3	30.8	17.3	6.0	0.9	9.1	4.6	0.0	0.0	0.0	100.0 (35)	
경남권	57.3	8.0	16.0	1.3	4.0	9.3	4.0	0.0	0.0	0.0	100.0 (47)	
위치												
단지 내부	33.5	26.6	2.3	0.0	12.0	8.5	8.7	0.0	0.0	8.4	100.0 (20)	
단지 입구	38.1	15.8	10.8	3.4	26.8	0.0	5.1	0.0	0.0	0.0	100.0 (25)	56.02 (18)***
단지 외부	46.0	15.9	14.1	9.3	4.6	7.6	1.3	0.7	0.5	0.0	100.0 (205)	

** $p < .01$, *** $p < .001$.

주: ① 산업단지 내 유해 환경 ② 어린 자녀 키우는 근로자 적음 ③ 접근처 어린이집 선호 ④ 맞벌이 근로자 적음
⑤ 부모의 등·하원 부담감 ⑥ 안전사고 위험 ⑦ 주변 체험시설 부족 ⑧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로 ⑨ 사업자 인식부
족 ⑩ 없음

4 산업단지 어린이집 관련 요구사항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관련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위치

- 원장들은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타 지역에 설치할 때 바람직한 위치에 대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을 48.8%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 내 공원 또는 유희시설, 산업단지 입구 근처, 산업단지 내부 사업체 근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한편 근로자들은 원장들과 유사한 순서로 응답하였으나 산업단지 내 공원 또는 유희 시설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음.

〈표 16〉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위치

단위: %(개소)

구분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산업단지 내 공원, 유희시설	산업단지 입구 근처	산업단지 내 사업체 근처	산업단지 내 상업지구	모름	계
원장	48.8	20.7	16.2	11.4	2.0	0.9	100.0 (250)
근로자	48.3	25.9	15.2	8.1	2.4	-	100.0 (1,000)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유형

- 원장들은 바람직한 산업단지 유형으로는 33.5%가 국공립어린이집을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단독 직장어린이집이라고 응답하였음
- 한편 근로자들은 유사한 형태로 응답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아 62.0%였으며 두 번째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17〉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설립유형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공동 직장	민간	단독 직장	법인 단체	기타	모름	계
원장	33.5	24.5	20.3	19.6	1.0	0.9	0.3	100.0 (250)
근로자	62.0	16.0	13.0	8.8	0.2	-	-	100.0 (1,000)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각 유형별 바람직한 이유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형태로 바람직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국공립의 경우는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모 선호가 높다는 점이 많았으며 단독 직장어린이집은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고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융통성있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었음.

〈표 18〉 각 설립유형이 산업단지 어린이집으로 바람직한 이유

단위: %(응답 수)

구분	지속적 운영 가능	융통성 있는 운영 가능	부모 선호	지원금 많음	설립 용이	기타	계
국공립	35.4	6.5	34.1	19.7	2.7	1.7	100.0 (84)
단독직장	29.0	28.6	19.4	7.8	15.2	0.0	100.0 (49)
공동직장	25.8	40.0	10.5	13.8	8.5	1.4	100.0 (61)
민간	21.6	24.5	20.8	2.0	28.9	2.5	100.0 (51)
법인·단체	22.0	0.0	0.0	78.0	0.0	0.0	100.0 (2)

주. 기타 응답의 2건은 제외함.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 지원 요구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설치 관련 어려움

- 중소기업의 단독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 또는 책임감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컨소시엄 구성이 바람직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 위치를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관련 어려움으로 사업주의 인식 부족, 부지 마련, 보육수요 확보, 정책 추진 시의 애로사항이 도출됨.
-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공해, 유해물질, 소음 등 외부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산업단지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

- 산업단지 내부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차량운행 필요도가 높고 교사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요구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어려움으로 원아모집이 지적됨. 그 이유는 산업단지 내부에 위치함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수요부족, 지역사회 공급 과잉, 설치 전 수요조사와 실수요와의 괴리 등임.
- 산업단지의 규모, 지역, 산업 유형, 노후 정도, 근로자의 연령대, 근로 특성 등에 따라 어린이집의 필요도나 바람직한 어린이집 유형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어린이집 정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5 산업단지 어린이집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안

가.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관련 개선방안

- 각 산업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입지조건 등을 달리하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 기존의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직장 및 기존의 협약에 의해설립된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요구나 특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전 수요조사를 정교하게 계획하여 정확한 보육수요를 예측해야 함.
 - 어린이집 설치 전과 실제 어린이집을 개원한 경우의 어린이집 정원이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정교한 사전 보육조사가 요구됨.
 - 어린이집 설치보다 운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수요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입지와 특성을 배려하여 보육수요가 계산되어야 함.
- 어린이집의 위치, 설립유형에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함.
 - 어린이집의 위치도 산업단지 내부보다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의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입지 선정 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자들은 국공립을 압도적으로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산업단지에는 적합할 것임.

나. 산업단지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개선방안

-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컨설팅 제공이 필요함.
 - 산업단지의 특성이나 입지에 따라 선호하는 설립유형이나 어린이집 구성체 등이 다르므로 어린이집 계획과 설치단계에서 컨설팅이 필요함.
 -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비, 운영비 지원 및 신청 사업체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와 간접 혜택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사업체가 부담없이 어린이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산업단지 근로자, 사업체의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알리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업체에서 설치 또는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산업단지의 사업체의 근로자와 실무진들은 보육 관련 업무에 능숙하지 않으므로 관련 워크숍이나 방문을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 ● 참고문헌

- 도남희·강은진·최지은(2015). 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7. 21).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산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15).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14년 4/4분기.

2016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6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16년 6월

발행인 | 우남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